진정한 삶의 책

신성한 스승의 가르침

제11권

가르침 310 - 338

12권으로 구성된 『진정한 삶의 책』(**Libro de la Vida Verdadera**)은 전 인류에게 남겨진 유산이며,
멕시코 시티(Mexico D.F.)의 "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에 26002, 20111, 83848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 원본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아소시아시온 데 에스투디오스 에스피리투알레스 비다
베르다데라, A.C.
Apartado Postal 888, México, D.F., - C.P. 06000

독일어 번역, 독일어판 서문, 해설, 각주, 주석 및 작품에 대한 참고 사항을 담당한 자:
발터 마이어(Walter Maier)와 트라우고트 겔텐보트(Traugott Göltenboth).

2017년 1월 기준

편집 (새로운 철자법 및 레이아웃):
부흐디엔스트 줌 레벤
만프레드 베제
Kirchweg 5
D-88521 에르팅겐

전화: +49 (0) 7371 929 66 42
이메일: manfredbaese@gmx.de

『진정한 삶의 책』은 이 버전을 바탕으로 DeepL Translator를 통해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트홀트 겔텐보트(Gotthold Göltenboth)가 번역하고 라이클 출판사(Reichl Verlag)에서 출간한, 저작권이 있는 진정한 원본 저작물입니다. 이 저작물은 본래의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수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죄가 되며, 신의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안나 마리아 호스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2017년 3월 25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인(印)의 시대"* …
…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활용하라. 오늘 내가 너를 택하여 내 가르침을 받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리라."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은 이 글들의 소유주이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안나 마리아 호스타입니다.
(이메일:hoanna64@yahoo.com)
DeepL - 다운로드 링크: www.DeepL.com/Translator (비즈니스 버전)
DeepL은 현재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며, 데스크톱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목차

내용

진정한 삶의 책 1

목차 5

서문 7

서문 8

가르침 310 13

가르침 311 24

가르침 312 34

가르침 313 45

가르침 314 55

가르침 315 68

가르침316 79

가르침 317 90

가르침 318 101

가르침319 112

가르침 320 126

가르침 321 138

가르침 322 149

가르침 323 160

가르침 324 170
가르침 325 183
가르침 326 196
가르침 327 207
가르침 328 219
가르침 329 234
가르침 330 243
가르침 331 256
가르침 332 264
가르침 333 277
가르침 334 288
가르침 335 299
가르침 336 310
가르침 337 322
가르침 338 333
목차 안내 345
1866-1950년 멕시코에서의 신성한 가르침 354

서문

“이것이 바로 내가 인류에게 말해야만 했던 예고된 때이며, 나는 너희가 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으로 책들을 엮기를 원한다, ...” (6, 52)

예언된 시기는 오늘날의 시대, 즉 제1시대(모세와 선지자들)와 제2시대(예수와 사도들)에 이은 후속 시대인 ‘제3시대’를 가리킵니다.

제3의 시대는 1866년 멕시코에서 엘리야의 영과 그의 제자 로케로하스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그 결과 1884년부터 1950년 말까지 66년 동안 신성한 영이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평민들이 소박한 모임 장소에 모여 약 두 시간 동안 신성한 메시지를 경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대변자(오늘날의 예언자들)를 ‘목소리(porta vozes)’로 삼으셨으며, 이들은 고양된 영적 상태에서 신성한 말씀의 빛을 들을 수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계시, 메시지 또는 가르침들은 1950년 이전 마지막 10년 동안 속기 기록과 회의록으로 남게 되었다. 1950년 이후, 이 방대한 양의 회의록 중에서 366개의 가르침이 선별되어 12권으로 구성된 대작 『Libro de la Vida Verdadera』(진정한 삶의 책)에 출판되었다.

1975년 이후, 1943년부터 1950년까지 주일 모임에 참석했던 발터 마이어(Walter Maier)와 트라우고트 겔텐보트(Traugott Göltenboth)가 제1권부터 제5권까지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라이클 출판사(Reichl Verlag)를 통해 출간했다. 2001년 발터 마이어가 사망한 후, 제6권은 트라우고트 겔텐보트가 완성하여 2004년에 출간되었다.

그 후 제7권부터 제11권까지 역시 트라우고트 겔텐보트가 번역하여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부흐디엔스트 줌 레벤(Buchdienst zum Leben)’을 통해 출간되었다. 제12권은 2016년에 출간될 예정이다.

이처럼 신성한 영은 과학 및 기술의 가장 큰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이자, 동시에 가장 격렬한 전쟁과 이념적 일탈이 만연한 시기에도 인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지혜로, ‘멕시코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이념적 일탈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 주셨고, 굶주린 우리 영혼에 위로와 치유의 연고를 베풀어 주셨으며, 신의 뜻에 따라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다음 말씀이 조만간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고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기를.

서문

다음 발췌문들이 독자들에게 『』에 수록된 이 책에 대한 첫인상을 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괄호 안의 번호는 가르침과 구절의 번호 체계를 따릅니다.

선(善)은 진리와 사랑이다

내 말씀이 새로운 종교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 작품은 모든 이념과 신조, 종교가 영적으로 통합되어 약속의 땅 문턱에 도달하게 될 빛나는 길이다. (310,39)

누구도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너희 모두가 나를 알아가라 – 나를 깨달아,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진리에 기초하게 하고, 선이 드러나는 곳에는 내가 계심을 알게 하라.

선(善)은 그 무엇과도 섞이지 않습니다. 선은 진리이며, 사랑이며, 자비이며, 이해입니다.

선(善)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고, 틀림없이 식별할 수 있다. 그것을 알아차려, 실수하지 않도록 하라.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들이 모두 '선'이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면, 결국 서로를 알아보고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선을 악으로 위장하고 악을 선으로 가장함으로써 고집스럽게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29, 45-47)

우리의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모든 세계, 모든 존재의 차원은 영혼이 그곳에서 발전하고 창조주를 향해 한 걸음 내딛으며, 그렇게 하여 완성의 길을 따라 끊임없이 나아가, 흠 없이, 순수하고 온전하게 여행의 목적지인 영적 완성의 정점에 도달할 기회를 갖도록 창조되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나? 아, 진정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가련한 이성주의자들아! 너희가 내 품에서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 즉 그 이전에 이미 내 안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생명의 근원에서 솟아난 모든 것이 제때에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모든 영혼은 나로부터 세상에 나왔을 때 처녀처럼 순수했으나, 그 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여정에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모든 것이 나에 의해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며, 정의에

입각한 방식으로 미리 예견되었기에, 나는 내 자녀들이 거쳐야 할 길 위에 그들의 구원과 갱신을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즉시 마련해 두었습니다.

비록 그 영적 순결이 많은 존재들에 의해 더럽혀졌을지라도, 그들이 모든 과오로부터 정화되어 그로 인해 본래의 순수함 을 되찾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정화는 내 눈에는 매우 공로가 큰 일이 될 것이니, 영혼이 믿음과 사랑, 충실함, 그리고 인내에 대한 크고 끊임없는 시련을 통해 그것을 이룩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313, 21-23)

나는 투쟁이 끝날 때, 내 모든 자녀들이 영원한 영적 고향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되면, 너희 각자가 신성한 사업에 건설적이거나 회복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창조주인* 나의 무한한 행복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영적 존재가 되어서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태초부터 창조한 모든 것 중에서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부활하고, 모든 것이 생명으로 되살아나며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길을 잃고 방황했던 수많은 존재들이, 생명의 일을 행하는 대신 파괴적인 일을 저질렀던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방황의 시간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나 했더라도 영원한 생명 속에서 속죄를 얻게 되고, 그들이 나의 끊임없는 창조 사역의 협력자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인류가 지구에서 겪어온 몇 세기에 걸친 죄와 어둠이, 끝없는 발전과 평화의 시간인 영원과 비교하면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자유 의지에 따라 나로부터 멀어졌으나, 양심의 이끌림을 받아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317, 17-20)

영적인 빛의 존재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격려와 빛이 너희 각자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족하게 느껴질 경우를 대비하여, 나는 모든 인간 존재 곁에 영적 빛의 존재를 두어 너희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어떤 위험이 닥칠지 미리 알려주며, 너희의 고독 속 동반자가 되고 삶의 여정에서 지팡이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수호천사나 수호자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결코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그들의 계시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희의* 힘만으로는 삶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보다 더 앞서 간 자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계시해 준 덕분에 너희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성화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들의 투쟁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들의 어려운 사명을 돕기 위해 거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성화 덕분에,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과시도 없이 오직 여러분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일하는 그 형제자매들의 존재를 느끼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토록 고생하고 고통받도록 강요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른다면,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이성에 이미 빛이 비쳤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연민과 감사, 그리고 이해가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호자들은 그들의 노력이 여러분에 의해 지지받고, 그들의 영감이 여러분의 고양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낄까요!

여러분에게는 '영적 계곡'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형제자매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일, 영적 삶에 대한 깨달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때, 인류는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존재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나의 섭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334, 70-76)

빛과 어둠의 투쟁

여러분의 인간적 삶 너머에는 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의 형제자매인,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서로 싸우며 여러분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원인은 양측이 처한 발전 단계의 차이에 있습니다.

사랑과 조화, 평화, 그리고 완성에 대한 이상을 품고 빛의 존재들이 인류의 길에 빛을 뿌려주며, 항상 선을 일깨워 주고 인류의 복지를 위한 모든 것을 드러내 주는 반면, 여전히 지상의 물질주의에 매여 있거나,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혹은 끝없이 인간의 집착과 욕망을 부추기는 존재들은 이성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눈멀게 하고, 의지를 노예로 만들어 인간을 이용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계획의 도구로 삼거나, 마치 자신의 몸인 양 이용하기 위해.

반면, 빛의 영적 세계는 인간의 영혼을 얻어 영원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려 애쓰고 있으며, 그 축복받은 무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더하고, 고통의 침상 곁에서 간병인이 되며, 큰 책임의 짐을 짊어진 사람의 곁에서 조언자가 되고, 청소년의 지도자가 되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잊혀져 홀로 사는 이들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영적 지혜의 빛도 없고 고양되는 사랑의 감정도 없는 존재들의 군단 역시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이 영적 왕국으로 가는 길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 아니, 이 존재들의 의도는 정반대이며, 그들의 열망 은 세상을 지배하고, 계속해서 그 주인이 되며, 지구상에 영원히 남고, 인간을 지배하여 그들을

자신의 의지의 노예와 도구로 만드는 것–한마디로, 그들이 항상 자신들의 것으로 여겨왔던 것, 즉 세상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아: 이 두 존재들 사이에는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 너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투쟁이지만, 그 여파는 날마다 너희 세상에서 뚜렷이 느껴지고 있다.

인간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자신을 둘러싼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한 선과 악, 빛과 어둠, 영성화와 물질주의가 맞서는 이 거대한 전투에서 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바로 빛의 영적 세계가 활동하고 싸우며, 언젠가 세상이 영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영적 형제자매들이 치르는 이 치열한 투쟁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들에게 있어 이 투쟁은 마치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배은망덕의 쓴맛을 마시게 하는 잔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베풀어 주는 모든 선함만을 받아들이는 데 그칠 뿐, 그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투쟁을 돕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할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그들의 영감에 마음을 열고 그 지침을 따르는 사람도 드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을 얼마나 힘차게 헤쳐 나가는지, 얼마나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어떤 기쁨과 영감이 그들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는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영향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물질주의에 완전히 매몰되지도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영성화하기 위해, 즉 선과 지식, 그리고 영적 힘을 통해 삶을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과의 투쟁 속에 있습니다.

양심의 목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물질주의에 완전히 굴복한 자들,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무시하는 자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그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들은 승리한 줄로 믿고, 자유롭다고 믿으며, 자신들이 포로라는 사실과,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빛의 군대가 어둠 속으로 내려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빛의 메시지를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사람들이 깨어나야 하며, 그들이 *누구를* 적으로 삼아 패배시킬 때까지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어떤* 무기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게 하려 한다. (321, 53-63)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나는 세상에서 영성화를 기대한다. 나에게는 각 교회나 종파를 구별하는 이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들의 의식과 외형적인 예배 형식이 얼마나 화려하든 상관없다. 이는 오직 인간의 감각에만 닿을 뿐, 나의 영에는 닿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성화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고양, 완전함에 대한 이상, 선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귀의, 사랑의 실천,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의미하며, 이는 타인과의 조화이자 따라서 하나님과의 조화이기 때문이다. (326, 21-22)

영성과 사랑이 결여된 오늘날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수없이 예언해 온 세대들 를 탄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날 서로를 오해하고 전쟁을 벌이며 파괴하는 이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내 심판이 모든 이를 지나가고 잡초가 뿌리째 뽑히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부모의 '피'가 고통과 회개의 도가니에서 정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 속에 불화나 증오, 시기심이라는 씨앗을 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제2시대에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오늘 나는 여기에 덧붙인다. 구하는 법을 깨달아라. (333, 54)

영성에서 비롯된 도덕성을 지닌 인류의 발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한도 국경도 없는, 지구가 그 자녀들에게 베푸는 모든 삶의 자원을 형제애로 나누는 인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 과학이 상호 사랑을 이상으로 삼고, 인간이 기도에 의해 자신이 추구하는 지식을 얻는다면, 그 과학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의례나 외형적인 예배 형식에 의지할 필요 없이, 그들의 *삶을* 통해 사랑과 믿음, 순종과 겸손의 예배를 나에게 바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 일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진정한 *삶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그들은 평화를 호흡하고, 자유를 누리며, 오직 진리를 담은 것만으로 양육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315, 57-58)

내 목소리가 영적인 방식으로 인류 안에서 들리게 될 때, 사람들은 비록 자유롭게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그들 안에 존재해 온 무언가가 진동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일어서는 영이 되어, 나의 부름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때 지상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아래에서 삶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 고양의 높은 곳에서 삶을 바라보고, 깨닫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21, 38-39)

가르침 310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길 잃고 방황하는 인류여, 내게로 오라. 먼저 내 왕국을 구하라. 그리고 일단 그곳에 들어서면, 내 지혜의 마르지 않는 샘에서 마시라. 그러나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며, 오직 내 사랑의 법을 따를 때만 그곳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2. 제자들아: 올해인 1950년은 모든 사람에게 결정적인 사건들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 책임은 매우 크다.

3. 인류는 병들었고, 눈이 멀었으며,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아버지는 너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4. 내가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는데 – 왜 세상에 비참함이 존재하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사건들의 원인을 알고 있다.

5. 너희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너희 영혼이 다양한 육신을 입고 환생하여, 그로써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내 법에 합당해지도록 허락해 왔다. 나는 영혼들이 창조된 처음부터 그들을 이 땅에 두어, 그들 자신의 공로로 내 왕국에 들어갈 능력을 얻게 하려 했다.

6. 인간의 영혼은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내 사랑의 증거로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습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나의 뜻에 복종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행사하며 오직 나의 사랑의 길에서 벗어났을 뿐이라면,

그들은 바로 그 자유 의지로 만들어낸 길을 통해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이다.

7. 모든 영혼에게 수확의 때가 왔으므로, 너희는 사람들 사이에 혼란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혼란 속에서 각자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의 율법을 어겨 온 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진실로, 잠만 자고 나의 가르침을 연구하거나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시련에 휩쓸려 마치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쓰러지듯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지시를 따랐던 모든 이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격려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상이 될 것이다.

8. 아버지는 고갈될 줄 모르는 활동 그 자체이시며, 그분은 모든 자녀를 위해 영원히 일하십니다. 이 본보기를 따라 너희도 너희의 일을 수행하는 데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여, 그로써 너희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의 일이 너희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으라. 왜냐하면 그 일은 너희의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삶의 완성을 이루는 비결이다.

9. 인간은 발전해 왔으며, 그 발전 과정에서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오만함으로 인해 자신을 창조주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10. 너희는 내가 내 자녀들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다, 백성아. 내가 영혼에게 인간으로서의 환생 속에서 준 기회는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국은 오직 나의 자녀들이 자유 의지를 온전히 행사하며 양심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사랑과 자비의 선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비록 너희가 미미하고 연약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내가 계명을 통해 너희에게 맡긴 무한한 힘으로 이웃을 도와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순수하고 진실한 기도가야말로 온 인류를 내 사랑의 품으로 하나로 묶어 줄 것이다.

12. 제자들아, 기도하라. 현재 그들의 지성으로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로 너희의 생각을 보내라. 그리하여 그들이 얻는 열매가 인류의 고통에 대한 치유제가 되게 하라.

13. 주님께서 왜 너희를 “선택받은 백성”이라 부르시겠느냐? 내가 이미 태초에 너희에게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어려운 사명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들보다 더 큰 은사를 주지도 않았고, 다른 민족들 위에 너희를 두지도 않았으며, 오직 너희를 충실한 아들로 삼아, 아직 오류 속에 있는 지상의 모든 민족을 위한 나의 빛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 삼았을 뿐이다.

14. 나는 너희에게 대변자를 통해 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었으니, 때가 되면 너희가 이 메시지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전해야 할 것이다.

15. 제자들아, 시간을 잘 활용하라. 물질주의에 빠져 세상의 그릇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살펴보아라. 그들 안에는 고통이 있을 것이며,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들은 양심에 눈뜨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은 – 비록 너희가 그것을 겪는 동안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 너희 영혼에게는 축복이다.

16. 모든 고통과 모든 유혹, 모든 약함을 넘어 영 안에서 내게로 올라오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내 율법을 성취함으로써 너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될 것이다. 타락하여 악덕의 극치에 이른 인류를 바라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영혼은 성장해 왔으며, 전쟁의 잔혹함이 그들을 깨우쳤고, 오늘날 모든 길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들은 갈림길에 서 있다."

17. 이것이 바로 네 사명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각자는 기도와 모범을 통해 인류를 이끌어야 한다. 누구도 이웃의 불완전함을 지적할 권리가 없다. 그렇다면 너희 중 누가 완전한가?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라. 이처럼 너희는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행복의 반영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수많은 고통에 지친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너희의 빵을 주시오, 이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오."

18. 여러 나라들은 아직 이루지 못한 평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쟁이 멈췄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살육적인 싸움 속에서 혼란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다. 그들에게는 사랑과 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헛되이 바라고 있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 낸 새로운 무기들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 백성아, 그들을 도와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라. 특정 인종이나 언어, 이념을 편애하지 말고, 그들 안에서 오직 조언과 사랑이 필요한 형제자매들만을 보아라.

19. 기도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평화는 이기심과 인간의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닿을 것이다.

20. 그리하여 내 왕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그때 오늘날 파괴와 죽음을 초래하는 발명품들은 이 세상을 진정한 낙원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재건 작업에만 사용될 것이다. 나는 인간이 마침내 완전해져서, 아버지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방식, 즉 사랑으로 이 행성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21. 내 율법을 굳게 믿고 큰 사랑으로 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그는 아버지의 도구가 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2. 제자들아,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너희는 나의 신성한 메시지를 통해 인류의 무지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23. 이 제3의 시대에 계시된 나의 말씀은 사람들이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나의 사역에서 영감을 받은 법들이 제정되도록 할 것이다.

24. 인류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 가르침은 마침내 온 땅에 퍼져 나가 많은 민족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것이다. 영성화는 미래의 인류 속에서 온전히 꽃피게 될 것이다.

25. 너희는 나의 대변자들을 통해 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누렸으나, 그때에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을 것이므로 내 가르침이 꽃피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할 것이다. 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증언할 것은 다른 세대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영성화의 길을 닦는 선구자가 되는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26.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사명이 미래 세대의 사명보다 덜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내 사역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훌륭한 제자가 되는 데는 너희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음을 명심하라.

27. 너희는 — 내가 이미 말했듯이 — 매우 중요한 너희의 몫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만하지 말라. 영적 사역 안에서 자만하는 자는 합당한 제자가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겸손이기 때문이다.

28. 양심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어떤 불순함이 비치지 않는지 살펴보라. 동료들의 행실을 비판하기 전에 이 내면의 거울에 비친 너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의 행동에는 더 큰 순수함과 진실함이 깃들게 될 것이다.

29.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다양한 종교 공동체에 속한 이웃들이 저지르는 실수나 그들의 의식과 예배를 비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당분간 그들의 영적 깊이를 알지 못하므로, 교회나 신앙 고백을 판단하지 않는 편이 너희에게 더 나을 것이다.

30. 나는 너희를 길잡이로 남겨두지만, 선동자로는 남겨두지 않는다. 너희가 뿌리는 씨앗은 평화와 화합의 씨앗이어야 하며, 결코 혼란이나 폭력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

31. 내 말씀은 화합과 평화를 목표로 하므로, 너희가 그 말씀에서 영감을 받을 때, 이웃에게 손을 내밀 줄 알고 그들의 신앙을 언제나 거룩한 것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신앙은 내가 거하는 내면의 제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웃들이 겪은 투쟁과 노력, 그리고 역경을 통해 이룬 성장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32. 너희 이웃들이 종교를 실천하는 방식과 너희의 방식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발견하더라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진리가 존재하는 사물의 핵심으로 깊이 들어가라. 너희는 영성주의자이므로, 항상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33.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이웃들을 조금씩 이해해 나간다면,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 모든 길이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향하는 단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된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34. 이제 너희는 내 말씀을 너희 영혼에 새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것,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험이다.

35. 내가 비유적인 말로 너희의 입술을 봉하겠다고 말했을 때, 이는 그 순간 내가 너희의 입술을 축복하여, 너희 영혼이 그 입술을 통해 영감을 드러내고 나의 신성한 말씀을 되풀이할 수 있게 하되, 동시에 그 입술이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비방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내 가르침을 사랑으로 간직하고, 너희 영혼이 마치 수 세기 동안 갇혀 있던 강물처럼 위로와 빛, 치유와 지혜, 평화의 말로 넘쳐흐르게 하라.

36. 너희가 내 이름을 자주 부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너희가 내 이름을 덜 부를수록, 그리고 내 가르침을 더 잘 실천할수록, 너희는 나로부터 더 큰 증거를 받게 될 것이다.

37. 마음속에서 점차 이웃들을 진정한 형제자매로 여기고,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되,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일은 삼가라. 너희의 공로를 결코 드러내지 말라. 이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나에게만 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삶과 말을 통해 알려야 할 유일한 것은 나의 사역이다. 이는 모든 이웃들에게 알려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8. 영성인의 겸손은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재해야 하며, 그래야만 이 땅에 남기는 그의 발자취가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39. 내 말씀이 새로운 종교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사역은 모든 이념과 신조, 종교가 영적으로 통합되어 약속의 땅 문턱에 도달하게 될 빛나는 길이다.

40. 나는 이 말씀을 통해 너희의 고통을 잊게 해 줄 평화와 사랑 어린 보살핌을 너희에게 준다. 나는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너희가 나를 향한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빛을 준다. 이 빛은 너희에게 영감을 주고, 고통받는 이들—여기 있는 자든 없는 자든—을 위해 기도하라고 촉구한다. 이 빛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만지거나 어루만질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사는 낯선 형제자매들과 여러분을 더 가깝게 이어줍니다.

나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느끼도록 가르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온전히 현존하며, 나에게는 누구도 부재하거나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가 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 도움이나 위로, 혹은 동반이 필요한 이들에게 마음을 돌릴 수 있게 합니다.

41. 너희가 자신의 은사를 깨닫고 이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는 그날부터, 너희는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될까! 준비된 영혼은 갈망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거리를 좁히고, 위험을 무릅쓰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42. 옛 빚을 갚지 못해 영혼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라. 그러면 잃어버렸던 평화와 기쁨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낄 것이다.

43. 나의 말씀은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난 나의 현현과, 제2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나의 말씀을 상기시킴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옛날의 시절을 체험하게 한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며, 너희 영혼은 나의 자비로 지켜지고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안식을 얻게 된다.

44. 나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것과 같은 지혜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성령으로서 나는 너희가 그것을 연구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그 책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45. 세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성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 계시들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나의 뜻이다.

46. 너희 조상들의 본보기는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기 백성에게 믿음과 사랑, 그리고 불굴의 정신이라는 씨앗을 남겼으며,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나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에게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으니, 그 시절은 이제 지났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의 삶은 어차피 고통스러우니, 나는 단지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할 뿐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내 가르침을 다른 나라로 전파하는 사명을 맡긴다면, 거역하지 말라. 만일 내가 너희를 사용하여 너희의 말과 모범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한다면,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이 시대에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며, 나는 후손들에게 내 말씀이 맺은 열매를 보여 주리라.

47. 너희를 위한 투쟁의 때가 왔다. 주요 종교 공동체의 성직자들은 힘을 합쳐 자신들이 강해졌다고 느끼며, 나의 선택받은 자들과 싸우려 한다. 때가 되면, 그들은 내가 너희, 즉 내가 단순하고 소박하게 준비시킨 자들에게 맡긴 이 계시를 자신들의 재능 덕분인 양 돌리려 할 것이다. 내가 이 은총을 너희 안에 두신 것은, 내가 너희를 알고 있으며, 너희의 지성을 활용하기 위해 너희를 정화하고 가꿔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나의 모든 자녀들의 것이며, 나는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만약 1950년 이후에도 이 다툼이 시작된다면 – 그때는 너희가 더 이상 이러한 형태로 나의 계시를 받지 못하게 될 시기이다 – 너희는 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을 얼마나 깊이 느끼게 될 것인가! 그때 나는 너희가 큰 믿음과 굳은 의지를 지닌 나의 사도들을 본보기로 삼는 것만 허락할 것이다.

48. 내 말씀은 곧 다른 나라들에 전해져, 사람들의 증오와 복수심을 억제할 것이다. 보라 – 병자들은 아직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여전히 새로운 전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집들은 재건되지 않았고, 민족들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피에 굶주린 욕망이 존재한다. 그들에게 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한다.

49. 너희는 너희 대륙 너머의 나라들이 황폐해졌으며, 그 고통이 모든 이의 마음에 닿았음을 알고 있다. 고통의 잔을 비우지 않은 아이, 청소년, 성인은 없으며, 그들 가운데서 나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지키는 나라들이 전쟁으로 황폐해지지 않도록 기도할 힘을 가진 이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여러 종파에서 나는 그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진실한 사랑과 연민으로 기도하는 경건한 영혼들을 발견한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공로를 인정해 준다. 깨어 있고, 기도하며, 선한 제자답게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 은총을 베풀겠다. 나는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고 모든 나라를 축복한다.

50. 너희 모두는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나, 나는 너희에게 더 나은 시절을 약속한다. 지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정화가 끝난 후, 내가 보내신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니, 그들은 위대한 사명을 지닌 덕망 있는 영혼들로, 순종하는 인류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 올 것이다. 너희 세대 이후로 네 세대가 더 지나야 비로소 내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51. 오늘날 내 모든 자녀들이 영 안에서 나의 오심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며, 내가 인류를 준비시켜 그들로 하여금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 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로부터 나왔던 그대로, 즉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

52. 모든 영혼은 박해와 유혹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는 힘을 품고 있으며, 양심이라 불리는 인도하는 빛을 지니고 있다. 내가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준 것은, 그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과 행위의 주인이 되며, 나와 닮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그 아이에게 내가 준 법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귀한 소명의 주인으로 삼고 온갖 편의를 베풀어 줌으로써 내 사랑을 증명해 주었다.

53. 이 시대에 내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미쳤으나, 나를 따르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지 마라. 나는 너희가 이미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보고, 너희 마음이 모든 신성한 계시에 열려 있으며, 나를 사랑하고, 나와 깊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

비록 제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 나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나를 이해하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

54. 내가 영혼을 위해 그려 놓은 길은, 비록 그 길에서 종종 엉겅퀴와 가시를 마주치더라도, 영혼을 고양으로 이끈다.

55. 너희를 이끌어 줄 거룩하거나 의로운 사람을 찾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지극한 완전함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무한한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하나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조언하고 영감을 주리라.

56. 너희는 나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물질주의적이고 냉랭한 세상은 주님께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나로부터의 표징이나 단서, 혹은 한 마디를 기다리고 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을 관찰하며 그 원인을 탐구합니다. 신학자들은 나의 신비를 파헤치려 하고, 나의 현존에 민감한 모든 영혼은 세상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는지 자문합니다. 나는 지식을 갈망하고 목마른 이들에게 답을 주겠으며, 그들에게 샘물에서 목마름을 해소해 줄 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57. 너희는 이제 준비가 되었으며, 너희의 은사는 영원하다. 너희가 가진 은혜를 소중히 여겼다면, 그것을 잃지 말라. 너희에게 공로가 있다면, 그것을 더 늘려라. 어떤 희생도 헛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노력도 헛되지 않을 것이니, 모든 행위는 기록되어 남아 있고, 너희의 기록을 지우거나 바꿀 수 있는 손은 없기 때문이다.

58. 너희는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영혼을 품고 있으니, 내 말씀이 쏟아내는 본질이 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에 너희에게 주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라. 오늘 나는 너희에게 생명책의 세 번째 부분에 담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선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도 나의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다.

59. 나는 생명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다. 오라, 내 문을 두드리면 내가 즉시 열어 주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 마음속에 빛에 대한 진정한 갈망을 보고자 한다.

만약 너희의 이해력이 이해의 한계에 다다랐고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낀다면,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의 영혼은 더 넓은 지평이 존재함을 깨닫고, 물질의 한계를 초월하여 보고자 했던 그 빛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60. 인간이 지식을 늘리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지성의 힘에 맡겼을 때마다, 그는 인간의 이성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좌절해 왔다. 혹은 그는 호기심이나 과학을 위해 더 많은 빛을 발견하고자 하는 소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신비로 가득 찬 심연 속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61. 오늘날까지 과학자들에게는 영성이 결여되어 있었기에, 그들이 연구하는 모든 것의 진정한 기원, 근원, 그리고 원리를 찾아내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은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62.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타락한 과학의 시대가 지나면, 과학자들이 자연의 신비를 파헤치는 법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준비되고, 겸손과 경외심을 품으며, 고귀하고 숭고한 인간적 사상과 의지에서 영감을 받을 것이다.

63. 인류는 인간의 과학이 만들어 낸 이 거짓되고 피상적인 세상의 종말을 향해 큰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인간의 오만과 탐욕이 쌓아 올린 그 업적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는 것도 바로 인간일 것이다.

그 후 침묵이 찾아오고, 성찰이 뒤따르며, 이를 통해 갱신이 이루어지고, 고귀한 결심과 이상들이 생겨날 것이다. 인류 앞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며, 고통 속에서 정화되고 경험을 통해 단련된 인류가 그 시대로 들어설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겠지만, 그것은 영적 영혼이 이끄는, 영에 의해 깨달음을 얻은, 나의 법의 길로 인도된 세상이 될 것이다.

64. 나는 이 세상이 물질주의적 과학이 결코 너희 존재의 목적이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는 그 과학으로 인해 이 땅에서조차 행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65. 너희는 이 행성을 떠나 더 높은 삶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세상을 떠나는 것만으로는 이를 이룰 수 없으며, 오직 사랑과 미덕을 통해 영성화된 세상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6. 물질화된 영혼들은 다른 세상에서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미묘하고 순수하며 고귀하고 빛나는 것을 감지할 만큼 충분히 예민해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7. 누구도 자신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감히 부정하지 말라. 오직 나와 너희의 영만이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맡긴 모든 것에 대해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왕국으로 돌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맡긴 모든 은사와 사명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라.

68. 너희가 이미 영적인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깨달을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으므로, 나는 너희에게 영혼을 위한 가르침이며, 확실한 길이자 빛으로 가득 찬 나의 말씀을 보냈다. 이는 너희가 그 길을 따라 확고하고 단단한 발걸음으로 내게로 나아와, 인내와 사랑으로 과오를 바로잡고,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불순함의 외투를 벗어던지며, 점점 더 많은 빛을 얻어, 시련과 투쟁의 이 세상을 떠날 그 축복받은 시간이 왔을 때,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계곡"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빛의 수확과 평화의 열매를 누리게 하려 함이다.

69. 너희 모두는 내 빛을 품고 있으며, 모든 영혼은 이 은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빛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자라나며, 를 통해 밖으로 드러나 자신을 알리는 반면, 다른 이들에게는 이 빛이 비밀스럽고, 숨겨져 있으며, 무의식적인 상태로만 남아 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영적으로 아무리 뒤처져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모두는 너희의 행위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70. 너희의 책임은 너희의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말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는 양심의 지시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71. 너희는 이 땅에서, 허용되고 올바르며 소박한 방식으로 이해를 돕도록 가르침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느냐?

72. 자, 여기 내 말씀이 있노라, 백성들아. 약속된 말씀, 이미 제2시대에 내가 예고했던 그 메시지라. 그 본질이 진리의 영, 곧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었던 모든 신비를 밝혀 주기 위해 올 신성한 빛이 될 그 메시지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11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맞이하기 위해 성소를 준비하였고, 보라, 내가 여기 영과 진리 안에서 임재하고 있다.

너희 각자는 나에게 자신만의 성소를 보여준다. 그러나 스승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일치를 통해, 영적 조화를 통해 이루어내는 그 성소이다. 이를 위해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쳤으니, 너희가 그 사랑을 통해 영 안에서 영적 연합의 시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직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신성한 합창이 울려 퍼지는 참된 성소를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오늘 나는 내 말씀과 내 율법의 영감을 통해 내 자녀들의 영혼 속에 이 성전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나의 제자들이며, 끊임없이 어린 제자들이 내 앞으로 찾아온다. 어떤 이들은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쳐 왔고, 다른 이들은 제3의 시대에 첫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3. 이 계시를 통한 나의 말씀은 곧 끝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 교훈을 전해야 할 것인가? 누가 '생명의 위대한 책'에 담긴 가르침을 전할 것인가? 바로 내가 오랫동안 준비시켜 온, 내 자리를 대신할 나의 제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내 말씀을 반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단지 대변자의 말만 그대로 되풀이할 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내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이다.

4. *너희는* 나의 대변자들을 통해 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안에서 너희는 불완전함을 발견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대변자의 육신 탓으로 돌렸고, 다른 이들은 나 탓으로 돌렸다. 나는 나를 드러내는 나의 자녀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 계시를 통해 너희를 속이지 않았으며,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너희에게 나의 계시와 성령의 영감을 전했으며, 나의 완전한 가르침과 함께 인간의 불완전함도 존재해 왔다.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내 계시의 이 단계는 지나갈 것이며, 그때 너희는 내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내 본질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그리고 무엇이 인간의 미흡함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상의 농부들이 밀 수확을 마친 후 겨를 분리해 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가르침의 밀알을 겨에서 분리하여 너희 마음의 곡창에

간직해야 한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불완전함인 쭉정이는 잊혀질 것이나, 내 가르침의 진리는 너희 영혼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5. 이 시대에, 이 형태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름을 보냈다. 그들 중에서 나는 다양한 연령, 신분, 인종의 남녀를 선택했다. 너희가 그 일부인 이 선택받은 자들은 내가 아는 영혼들이다. 내게 낯선 영혼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나의 자녀들이다.

6. 나는 너희 각자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으니, 이는 내가 너희의 운명을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계시 현장에 참석하도록 부름을 내렸을 때, 나는 나의 선택받은 자들을 골라냈다. 나는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여하였으며, 그들은 빛의 영들, 즉 나의 평화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충만한 영혼들로, 여러분을 단계별로 영성주의의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이 내면에서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며, 내세를 위해, 영원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도록 도왔습니다.

7. 나의 신성한 가르침과, 내가 지혜롭게 너희의 일생 전반에 걸쳐 분배한 시련들을 통해, 나는 너희의 영혼을 점점 더 꽃피우고, 투쟁을 위해 단련시키며, 이전에는 너희에게 신비이자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었던 것을 드러내 주었다. 너희는 나의 일을 기뻐해 왔으며, 나의 교훈을 통해 신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제1시대와 제2시대의 가르침을 차츰 해석해 나가고 있다.

8. 너희가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시련들은 너희를 짓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즉시 내 신성한 영이 너희 존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 마치 별처럼, 등대처럼, 그리고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언제나 그 빛을 향해 돌아선다.

9. 내가 은총의 선물로 풍성히 채워 준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내 사역에서 맡은 임무에 대해 냉담해 왔습니다. 세상의 이상과 유혹, 그리고 준비 부족이 그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 가르침에 충실했던 많은 이들을, 비록 그들이 선택받은 자에 속하지 않았고, 대변자를 통해 인장과 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나는 내 은총으로 옷 입힌 채로 보고 있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영에서 영으로 은사를 주었기 때문이며, 그들 안에는 태초부터 너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던 은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0. 충실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시련의 끝까지 굳건히 버티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나니. 나의 가르침을 통해 주어진 힘을 헛되이 쓰지 않은 자들에게 축복이 있나니, 그들은 다가올 괴로움의

시대에 힘과 빛을 가지고 삶의 우여곡절을 이겨낼 것이기 때문이다.

11. 제자들아, 충실하라. 내 사역은 결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니, 스승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며, 너희가 인류와 싸우는 동안 단 한 순간도 너희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12. 너희 영혼에 양식이 되는 나의 가르침은 너희를 스승으로, 성령의 충실한 사도로 변화시키려 한다.

13. 나는 이 계시들을 통해 너희에게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육체적 위로를 통해 고통을 덜어주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선포를 통해 너희의 영적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위대한 가르침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만약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혜택만을 주려 했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럴 거라면 내가 직관으로 깨우치고 자연의 비밀을 밝혀 준 과학자들에게, 자연에서 치유 연고를 취하여 너희의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도록 맡기기만 했어도 충분했을 것이다.

14. 나의 사역은 너희 행성 너머, 너희를 둘러싼 무수한 세계들이 있는 더 넓은 지평을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끝이 없는 그 지평은, 너희에게 속한 영원으로 향하는 길을 너희에게 안내해 줄 것이다.

15. 내가 말씀하시는 대상은 바로 너희의 영혼이다. 내 빛과 영 안에 있는 나의 법을 통해 너희 영혼이 완전함을 추구하기를 바란다. 이 법을 사다리, 곧 너희가 나에게 이르게 할 길로 삼으라. 오,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내 왕국을 누리고 내 사랑을 이해하며, 나 또한 너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너희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노라. 너희의 영적 영혼이 내 사역의 우주적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은 완전해야만 한다.

16. 제자들아, 내가 너희 곁에서 돕고 있으니 이 왕국을 쟁취하라. 너희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적들이 얼마나 많고, 유혹이 얼마나 많으며, 너희가 피해야 할 심연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라!

17. 너희는 약속의 땅을 갈망하며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모세가 지도자로 있지 않다. 이 백성을 이끌고, 너희를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는 분은 바로 너희 아버지이시다. 비록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을 통해 너희를 인도하고 있지만, 그들 위에는 우주적 인도자이신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분은 너희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르시니, "계속 나아가라. 너희의 적들을

물리치고, 시련 속에서 약해지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여정 중에 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의 소명을 저버리지 말라. 바로 그 순간, 지평선 너머로 약속의 땅이 이미 보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18. 나는 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큰 은사를 맡겼다. 그중 하나는 치유의 은사, 즉 치유하는 향유이다. 이 은사로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명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행성은 언제나 고통이 있는 눈물의 골짜기이기 때문이다. 이 능력을 통해 너희는 내 뜻에 따라 위로를 베풀 수 있는 넓은 무대가 앞에 펼쳐져 있다. 나는 이 치유의 연고를 너희의 존재 속, 너희 마음의 가장 섬세한 현에 심어 두었으며, 너희는 그 연고로 힘을 얻었고, 그 기적 앞에서 고개를 숙였으며,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너희는 언제나 자비의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도 이 치유의 향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향유는 너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연민과 위로, 이해의 시선을 통해 전달되고, 선한 생각을 통해 전해지며, 치유의 조언과 빛의 말씀으로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19. 치유의 은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만일 시련을 겪으며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치유 연고로도 그 고통을 없앨 수 없다면,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고통을 잊으며 고통이 더 큰 다른 이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 나는 이 시대에 내 계시가 전해지는 것과 같은 시기에, 은사받은 자들을 통해 내 영적 세계가 너희에게 드러나도록 허락하였다. 이는 그들이 내 치유의 향유로 충만해진 존재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사랑과 자비의 스승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들의 인내와 겸손을 존중하는 법을 알았으나, 다른 이들은 그들을 모욕과 괴롭힘, 세속화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빛의 존재들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나에게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 너희를 영적 비참함에서 구해내기 위해 – 너희의 궁핍함과 비참함을 마주하고 내려온 이해심 깊은 영혼들이며, 그 과정에서 종종 자신의 영적 성숙을 희생해 왔으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끌어내어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곧 끝날 것이다.

21. 나의 영적 세계, "일꾼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중재자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모욕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심판하지 마소서."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너희를 위해 나서서 너희를 용서한다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용서를 베푸실 때, 그분이 무엇을 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은 비참함과 고통의 흔적을 따라, 가장 초라한 집들조차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내 일꾼들과 병자들의 부름에 응답하여, 더러워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 오직 상처를 돌보며 치유하고, 슬픔을 위로하며, 병을 건강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적 세계가 너희에게 보여준 본보기를 너희 영혼에 깊이 새겨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라. 나는 너희가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이 현현들이 끝났을 때, 너희가 사회 계급, 인종, 세계관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웃에게 이 치유의 향유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니 – 감염이나 비판,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궁은 물론 가장 초라한 오두막이나 가장 더러운 곳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다.

22. 항상 고통받는 이들에게로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지나간 흔적으로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라. 너희가 그렇게 행한다면, 나의 충실한 제자이자 너희의 스승이신 나의 영적 세계를 본보기로 삼은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도 항상 내 이름으로 행했듯이, 여러분도 내 뜻에 따라 세상의 길을 걸으며 위로와 건강, 사랑을 뿌려야 합니다. 비록 그 모든 것에 대해 내 영적 세계와 그 '두 번째 시대'의 스승처럼 모욕과 박해, 배은망덕함만을 거두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보상을 원한다면, 그것은 울고 있던 이를 웃게 하고, '죽은 자'를 나의 진리로 다시 일으켜 세우며, 슬퍼하는 이를 위로해 준 데서 오는 만족과 기쁨이어야 한다.

23. 나는 내 율법 안에서 너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었으니, 너희 각자가 평화의 비둘기처럼 되기를 원하며, 너희의 날개가 결코 접히지 않기를, 너희가 기도를 통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모든 곳에 자신을 두는 법을 알기를 원한다. 전쟁과 불화가 만연하고 불의가 드러나는 곳에서는, 너희가 평화의 천사, 수호천사, 성령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

24. 이 인류가 나에게 평화의 열매를 단 한 번도 바친 적이 없음을 깨달아라. 인류는 태초부터 전쟁 속에서 살아왔으며, 무의미한 목표를 달성하고, 방탕하게 살며, 증오와 복수를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열매이며, 오늘날에도 이러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류는

가장 큰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성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25. 사람들은 스스로의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들 위에서는 저세상의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나의 사랑의 사자이며, 사람들에게 평화와 정의, 화합을 고취시킨다. 다른 이들은 오직 증오와 전쟁만을 부추기며, 인간의 뇌만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파괴의 수단을 과학자들에게 드러내고 있다.

오래전부터 나는 사도 요한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예고하여, 그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잠만 잤을 뿐이며, 그로 인해 인류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싸우는 평화의 적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나의 사랑의 사자로 삼아, 너희가 평화의 군대와 하나가 되어 선이 승리하도록 하리라 – 그리하여 너희가 요한의 예언이 성취되는 데 동참하게 하리라.

26. 내가 너희에게 예고한 이 싸움의 시기가 오면, 너희는 주와 나라와 바다를 가로질러야 할 것이니, 전쟁의 소란에 겁먹지 말고, 죽음의 현존 앞에서 용기를 잃지 말며, 오히려 평화라는 이상이라는 날개를 펼치어 이 기도가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라. 너희는 내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너희 영의 모든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

27. 이 시기에 내가 전한 말씀은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투쟁과 시련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 주었다. 과연 여러분의 사랑이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의 평화가 전쟁의 잔혹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평화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강제로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가르침이 발산하는 설득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악에 가장 깊이 사로잡힌 자녀의 마음속으로 한 번 스며들면, 그 마음은 마침내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28.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죄보다 더 큰 고통이 닥칠 것이다. 그 고통은 그들의 회개의 잔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고통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며, 그 후 내 용서와 치유의 기름을 받게 되면, 스스로를 나의 종이라 고백할 것이다.

29. 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씀의 은사를 준 것은, 내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끝나지 않는 신성한 말씀이다. 나는 신성한 교향곡이며, 그 일부를 너희에게 맡겨 주었다. 내가 너희 영혼에 심어 놓은 이 말씀이 말할 것이며,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계시와 영감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서툰 너희 입술은 유창해질 것이며, 신성한 교향곡을 기꺼이 전하는 충실한 전달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를 경이로움에 빠뜨릴 , 너희를 황홀경에 빠지게 할,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현존을 기뻐하며 느끼게 할 은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은사를 펼치기 시작했다.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너희의 입술은 너희 마음과 영혼 속에 가득한 풍요로움에서 말할 것이다.

30. 너희 마음에서 태어난 것을 간직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은 본질과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반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말한다면, 그것은 동료들의 마음속에서 싹트지 못할 메마른 씨앗과 같을 것이다.

31.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가르침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이 계시의 끝은 이미 매우 가까워졌으니, 이 시기가 지나야 비로소 내 말씀이 너희 모임 속에서 영과 영의 교감을 통해 꽃피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의 입술은 내 왕국의 위대한 계시를 전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모든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던 것을 읽어낼 수 있는가?” 그러나 기억하라. 그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매개로 하여 말씀하시는 나일 것임을.

이러한 은사들 때문에 너희는 주인인 양 행세해서는 안 되며,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육신은 그 영적 위대함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다른 모든 사람과 같아야 하며, 너희를 구별하는 어떤 표식도 지니지 말아야 한다. 겉보기에는 다른 모든 사람과 같겠지만, 적절한 순간이 오면 내 지혜의 보물이 너희 영혼에 쏟아질 것이다.

32. 너희는 성령의 은총 덕분에 ‘예지력’이라는 은사를 받았는데, 이는 영적인 차원에서 저 세상의 메시지를 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지력은 더 광범위한 은사이며, 직관이고, 예감이며, 예언이다. 또한 너희가 꿈에서 받는 메시지들도 이에 포함된다. 예지력은 과거와 현재, 심지어 내 뜻이 허락하는 한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입니다. 예지자가 환상을 보았을 때,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증언을 듣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33. 현재 선견자들은 아직 준비 단계에 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모두는 선견자이다. 어떤 이들은 한 가지

방식으로, 다른 이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 왔지만, 너희 모두는 잠재된 상태로 영적인 시력을 지니고 있다. 기도 중에 내 뜻을 상징적인 형상으로 보는 자들을, 나는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있다 . 1950년 이후에는 내가 그들에게 맡길 사명이 매우 커질 것이며, 그때 그들의 책임도 더 무거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준비하라. 이 말씀이 더 이상 대변자들을 통해 울려 퍼지지 않게 되면, 신자든 불신자든 수많은 사람들이 큰 상실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의 증언과, 각성과 내적 성찰을 촉구하는 너희의 외침은 한밤중의 횃불과 같아야 한다. 너희는 아직 잠들어 있는 민족들을 깨우는 전령이 되어야 한다. 백성아, 1950년 이후 너희 영혼이 내 사랑으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

34. 나는 너희에게 영적 은사에 대해 말해 주었으니, 너희가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나를 듣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은사들 안에서 너희 자신의 본성에 내재된 온전한 영광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 나를 듣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토록 많은 사랑과 은혜에 놀라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나 1950년이 끝난 후에는, 너희의 지성적 능력을 통해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능력을 더 이상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영적 빛의 존재들은 계속해서 은사를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내겠지만, 그들의 계시는 영감을 통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연고를 베풀고 기적을 행할 것이며, 그들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35. 그러나 이러한 계시들이 있은 지 얼마 후, 스승이나 영적 세계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면, 너희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내 말씀은 하나이며, 내 법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36. 오, 백성들아, 너희는 진정한 선지자들의 목소리와 사도들의 증언을 속임수와 구별할 수 있도록 깨어 살아야 한다! 너희는 거짓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살아야 하며, 이 투쟁의 시대와 앞으로 닥칠 시대의 강인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내 가르침에 충실할 내 제자들 중 한 무리는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며, 영적 순결이라는 깃발을 저버리는 병사가 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그들 안에 있을 것이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나의 일이며, 이들은 나의 제자들이다'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누가 나의 사자들인지를 알려줄 가장 확실한 표징은, 큰 시련 속에서 거짓된

자들이 넘어질 것이지만, 충실한 자들은 굳건히 버틸 것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거짓된 자들은 고통을 마주하고 저주할 것이나, 충실한 자들은 나를 축복할 것이다. 거짓된 자들은 내 율법을 등질 것이나, 충실한 자들은 언제나 그것을 굳게 지킬 것이다.

37. 나는 너희 모두가 나의 충실한 증인이자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교훈을 마치기 전에, 너희에게 놀랍지 않을 말을 하나 하겠다. 나는 나의 가르침에서 '부름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나처럼 완전한 아버지가 자녀들 중에서 편애하거나 차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성숙한 영혼이, 아버지가 자녀 중 일부에게는 선물을 주시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상속을 주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38. 너희가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여러 나라와 가장 먼 민족들, 심지어 원시림 속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인간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너희 모두가 형제임을 깨닫게 하고, 내 영적 가르침을 증언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 사랑의 증거들에 놀라게 될 것이다.

39. 문명과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부터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을 늘려 줄 위대한 영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0. 병든 자들은 너희가 가는 길에서 치유의 향유를 받고 회복될 것이며, 슬퍼하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울겠지만, 그들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될 것이다. 너희가 보여 줄 그 증거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축복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스승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처럼 환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환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너희가 지닌 성령의 은사를 가득 품은 남자와 여자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예언의 은사가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는 나의 치유의 향유가 마르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이들에게는 나의 말씀이 수정처럼 맑은 물처럼 솟아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마치 마르지 않는 씨앗처럼,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41. 그때 너희는 너희만이 유일한 존재가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대변자이자, 인류를 깨우쳐 인간은 자신의 영혼 속에 고갈되지 않는 능력의 보물을 지니고 있으며, 내가 그들의 주님이자 아버지로서 그 은사들을 그들에게 양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명자들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 영과 진리 안에서

동일한 은총을 받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깃든 신비를 스스로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며,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자신의 영혼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 후 그들은 무한을 향해 얼굴을 들고,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묻게 될 것이다.

42. 너희가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알려야 하며, 그 지식이 너희 아버지께 속해 있어 너희가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통해 그들에게 계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너희는 너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비록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르지만, 언젠가 모든 이가 각자의 은사를 꽃피우며 나, 곧 그들의 주님 앞에서 평등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될 하나의 백성을 이루게 될 날이 올 것이다.

43. 나의 가르침이 끝날 때, 내 임재 안에서 활력을 얻고 있는 저 세상에서 너희 영혼은 평화의 영적 군대들과 함께, 영혼을 위한 빛을 온전히 얻지 못한 이 인류에게 사랑의 감정과 평화와 자비의 생각을 내려 보낼 것이다. 그러나 태초부터 이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너희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느냐? 너희 영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열매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영이다.

44. 너희가 투쟁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길 위에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오직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게 해 줄 공로를 쌓기만 하면 된다.

45. 내 자녀들아, 내가 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너희의 고통을 즐기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너희 얼굴에서 언제나 평화의 영적인 미소를 보고 싶어 하신다.

46. 내가 너희를 축복하며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내 보편적 평화의 합당한 전령이 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12

1. 스승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금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 사랑의 선물로 남기실 그 책의 또 다른 한 장을 너희에게 맡기려 하신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또 다른 한 장은 미래의 세대들이 읽고, 연구하며, 이해하게 될 것이다.

2. 나 외에 누가 너희가 제3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계시해 줄 수 있었겠느냐? 나 외에 누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해 줄 수 있었겠느냐? 너희가 이를 알고 믿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로서 하나이며, 나는 너희를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로 모으고자 한다.

3. 너희 가족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나이며, 나는 서로 다른 지파에 속한 영혼들을 하나의 집안으로 분배하였다. 하나의 동일한 가족 안에는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의 영혼들, 즉 여러 지파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평화가 깃들고 서로 사랑한다면, 진리와 영 안에서 아버지의 소망, 즉 모든 인류의 연합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4. 이스라엘의 가문들과 가족들아: 너희 가운데 유혹이 감지될 때마다, 고독을 찾아 나에게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하라: "스승님, 오셔서 저희에게 당신의 힘을 주시고, 당신의 검을 주시며, 아버지로서 제가 제 자녀들을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남편으로서 제가 제 배우자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아내로서 제가 제 남편을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도울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5. 오늘 나는 내 백성들에게 오며, 이 제3의 시대에 너희를 모임으로 부르기 위해 큰 종을 울렸다. 인류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연합된 지파들을 영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6. 이미 첫 번째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그 시대의 나라들에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현자도, 나의 선지자들보다 더 깨달음을 주는 전령도, 이스라엘 여성들보다 더 아름답고 순결한 여성도, 내 백성들보다 더 완전한 남성도 없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지혜와 영감, 아름다움의 은사를 솟아나게 하였다. 나는 성령의 은사들이 꽃피게 하였고, 너희는 그 당시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알았다.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어루만지신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너희의 강력한 영웅임을 알았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은사와 나의 어루만짐, 그리고 나의 임재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로 인해 아버지의 공의가 너희에게 임했다.

7. "영에 따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 지파들 각각에서 내가 1만 2천 명을 택하여 그들의 이마에 표식을 새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14만 4천 명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8. 스승께서는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은 부름을 받으며, 나는 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을 표식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평화와 영성, 그리고 영과 영 사이의 대화의 시작을 심어줄 것이다.

9. 사람들이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들을 고통과 실망, 무기력함에 빠뜨릴 물질주의적 과학에 환멸을 느끼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 잠든 자들을 깨우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며,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일단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들의 이성과 감정이 고양되면, 그들은 과학을 통해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조화와 형제애, 고귀한 생각을 품고 일어나, 내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그 왕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10. 너희 아버지의 집에는 완전함으로 이끄는 사다리의 무한히 많은 계단인 수많은 "거처"들이 있다. 그곳에서 "영적 세계"가

내려와 너희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낸다. 너희는 영과 영 사이에서, 너희 세계 위에 빛나는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나에게 여러 번 물으며, "스승님, 그 세계들은 비어 있습니까?"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완전히 계시할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사람이 영성을 성취할 때 비로소 그에게 큰 계시가 주어질 것이며, 그는 내 신성의 사랑받는 존재들과 영과 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때 모든 형제들 간의 생각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11. 그러나 너희는 이미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모든 세계는 나의 피조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텅 빈 곳은 하나도 없고, 모두 신성한 자애의 화신인 마리아가 돌보는 축복받은 영역이자 정원이다.

12. 성령께서는 너희 입을 통해 너희와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고귀한 가르침을 다시 전하실 것이다. 언제인가, 사랑하는 백성들아? 바로 너희 안에 영성이 깃들고 너희의 사명에 대한 헌신이 가득할 때이다.

13. 나는 인간이 영적으로 양식을 삼는 빵이 내 식탁의 빵이 아니라는 것을 보노라. 모든 것이 세월이 흐르며 더러워졌고, 모든 것이 오염되어 사람의 마음과 손을 불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왔으며, 백성아, 너희와 같은 죄 많은 육신을 통해 나를 드러내어, 본질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말씀과 계시를 피상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 안에는 인간의 불완전함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내 계시의 진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스승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 영혼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그분의 목소리 톤을 듣게 될 것이다.

14. 너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제2시대의 사도들은 성령이 그들의 영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였고, 그분의 영감 아래서 말하였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한다, 백성아. 성령의 영감 아래서 영은 육체를 통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그러니 너희 자신을 잘 지키라 – 너희의 이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그 은혜의 이슬, 즉 세상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너희 본성의 샘물에 간직되어야 할 그 수정처럼 맑은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라.

16. 사랑하는 백성들아, 사람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일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 그 심판을 받게 된다면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17. 내 말씀을 듣는 이곳과 같은 소박한 장소에 모인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라.

18. 누군가 이 모임 장소들이 너희의 성전인지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너희는 현재 영혼 속에 성전을 세우고 있다고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19. 어떤 이들은 너희의 계시에 놀라워할 것이며, 다른 이들은 너희의 말씀을 조롱할 것이다.

20. 주변 사람들의 조롱에 상처받지 마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무지 때문에 진리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대신, 너희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다가 내 진정한 제자들 모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내면의 평안에 놀라워하는 이들에게서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21. 반면 너희는 종교적 광신으로 우상 숭배자가 된 자들을 결코 조롱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비록 *물질적인* 형상으로 나를 찾더라도, 그 안에서 나를 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오류를 지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광신을 더욱 부추기게 될 뿐이다. 내 가르침이 요구하는 영성을 담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너희 이웃들의 오류를 진리의 빛 아래 드러내는 데 충분할 것이다.

22. 인류가 조만간 내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진정한 경의를 표하며, 모든 인간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이며 세속적인 형제로 인식하게 하려면, 너희는 많은 인내와 큰 자비, 그리고 참된 사랑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3. 누가 너희에게 너희가 단지 영적으로만 형제자매라고 말했느냐?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으므로, 너희가 영적으로 공유하는 그 근원이 곧 너희 육체적 근원이기도 함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 너희는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나는 너희에게, 이 땅에서 온 인류가 단 한 분의 아버지와 단 한 분의 어머니로부터 나왔음을 상기시켜 준다.

24. 그렇다면 왜 너희는 영적인 유대가 영원하고 인간적인 유대가 그토록 깊은데도 서로를 형제자매로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5. 사람들이 영으로부터 발산되어 인간의 뇌와 마음을 비추는 빛의 영감을 받아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본질적 핵심을 발견하는 그날, 인류 사이에 평화가 싹트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일단 영적 빛에 눈을 뜨게 되면,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의 길을 막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을 것이다. 그는 수많은 고통과 눈물을 통해 얻은 영적 자유를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이다.

26. 민족들이 깨어나고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내가 온 세상에 목소리를 통해 나를 알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온 세상이 내 말씀을 듣게 될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뇌가 내가 사람들의 영혼에게 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가진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신성한 영이 모든 "육체"와 모든 영에게 부어질 때가 올 것이라고 계시된 그 옛 예언의 진리를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2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를 통해 예고된 그 시대는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즉 너희가 '제3의 시대'라고 부르는 지금 막 시작되는 이 시대이다.

28. 이 백성의 공로는 이 신성한 메시지를 마음에서 마음으로, 지방에서 지방으로 전파하여, 이 새로운 새벽의 빛 속에서 깨어난 자들이, 내 은혜의 이슬로 땅이 비옥해지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내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을 것이다.

29. 그 제2의 시대에 나는 오직 *한* 민족을 통해서만 내 목소리를 전했으며, 세상에 내 말씀을 전하는 데 단 3년만을 바쳤다.

30. 나는 너희에게 씨앗을 가져다주었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뿌려야 할지 가르쳤다. 그들이 나에게서 배운 후, 나는 그들에게 넓은 밭을 맡겨 경작하게 하였다.

그 씨 뿌리는 자들의 공로는, 기록된 것보다 더 오랫동안 스승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재촉하지 않았으며, 이 씨앗을 알아야 할 민족과 나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들은 스승으로부터 진리를 물려받았으며, 그 진리만으로도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회심시키며, 그 신성한 씨앗이 모든 인류의 세대에 걸쳐 지속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1. 너희가 때때로 품는 그릇된 생각을 마음에서 모두 떨쳐 버리고, 내가 계시를 시작한 첫날부터 너희에게 계시해 온 것만을

고수하라. 너희는 내 모든 말씀이 법이며, 모든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32.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이 제3의 시대에 나의 제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결코 허영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가 이 약점에 굴복한다면, 양심이 너희의 잘못을 지적할 때조차 더 이상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정화하고 고상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니, 그의 발걸음은 길을 잃게 될 것이며 그의 행실에는 진리의 씨앗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3.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전할 때, 때로는 영적인 교훈에서 조언으로 수준을 낮추는 것은, 너희가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명심하라. 그때 나는 사람의 마음에 말을 걸며, 갱신을 권면하고, 악덕이 육체에 끼치는 해악과 영혼에 가하는 해를 깨닫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악덕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영이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으며, 진정한 힘은 미덕을 통해 악을 이겨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말한 바 있다.

34. 육신에 굴복한 그 사람은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존심을 짓밟았으며,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지위 에서 싸울 용기조차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35. 그 남자는 자신의 가정에 빛과 빵, 포도주를 가져다주는 대신 어둠과 고통, 죽음을 가져오고, 자신과 아내, 자녀들의 십자가를 무겁게 만들며, 주변 모든 이들의 영적 성장의 길을 가로막는다.

36. 나는 마음속의 순수함을 지키는 법을 알지 못했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다정함과 이해의 온기를 베풀 줄도 몰랐던 그 여성, 어머니, 아내의 마음에 말을 건넸다.

37. 남자와 여자가 *인간* 생활 속에 존재하는 중대한 잘못들을 먼저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들의 영적 삶을 고양시킬 수 있겠는가?

38. 나의 사역은 제자들이 삶 속에서 행동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통해 이를 증언할 줄 알기를 요구한다.

39. 이쪽이든 저쪽이든, 내가 묻노라. 너희에게 자녀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단 한 순간이라도 그들의 영혼을 엿볼 수만 있다면, 너희는 자신들의 부모라고 자칭하기에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지 말고, 자녀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일을 삼가라.

40. 나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부부 관계 내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사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별거와 이혼뿐이다.

41. 사람이 영적 지식에 대해 필요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영성 수양을 통해 가장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고 가장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영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2. 나의 빛은 모든 마음, 심지어 슬픔에 잠기고 낙담한 마음까지도 비추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불어넣는다.

43. 나의 힘은 약한 자들에게 주어지니, 그들이 곧 다시 일어서게 하려 함이라. 지식과 미덕, 영성화를 통해 어둡고 공허한 삶을 빛나는 삶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철의 의지를 가지고 말이다.

44. 제자들아, 나는 너희 모두가 본보기를 통해 설교하기를 원한다. 겉으로만 가장하지 말고, 진실함을 외치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지 말며, 너희가 거두는 열매가 쓰기보다는 맛있기를 바란다.

45. 백성아, 그러므로 먼저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해야만, 그 후에 내 사역 속에서 성취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46. 세상의 고통에 대해 계속 한탄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몇 분간 생각에 잠겨 너희의 근심거리가 무엇인지 찾아보아라.

47. 나는 너희가 고통의 원인을 찾아 치료법을 적용할 때까지 탐구하는 것을 허락한다. 고통이 너희 가정에 스며드는 것을 막는 것은 너희의 몫이기 때문이다.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일의 원인을 찾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고통을 치유할 방법도 밝혀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명상하는 법을 깨달은 이들에게 내 자비가 내려질 것이며, 그 자비는 여러분의 영혼과 몸에 마치 치유제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48. 나는 약속된 위로자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의 고통을 평화로 바꾸기 위해 너희에게 오셨음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49. 마음에 숨겨진 고통을 품고 있는 모든 이여, 다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배신으로 인해 입은 아픔을 은밀히 품고 있으며, 너희를 깊이 상처 입힌 이가 매우 사랑했던 존재였기에 너희의 원한은 지극히 크다.

50. 마음속으로 고요해지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여러분을 깨우쳐 주어, 혹시 여러분이 배신당하게 된 원인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 신뢰를 배신한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해 줄 것입니다.

5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모욕한 자를 용서하는 바로 그 순간, 너희는 나의 평화를 온전히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 너희의 영은 나의 영과 하나가 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 둘을 나의 사랑으로 감싸 안기 위해 나의 망토를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52. 나는 너희를 투쟁의 시기를 위해 단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겪는 고통이 헛된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백성들아? 너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여전히 고통이어야만 한다.

53. 너희 영혼을 위한 이 시련과 교훈의 시간은 지나가겠지만, 그것은 나의 모든 제자 안에 믿음과 경험, 지혜, 그리고 힘의 씨앗을 남길 것이다. 그 후에는 너희가 박해받고, 비방받고, 조롱받는 투쟁의 시기가 올 것이니, 심지어 너희를 친구라고 자칭하는 자들 로부터조차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너희는 배신을 당해도 낙담하지 않게 될 것이며,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이웃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너희를 실망시킬 수 없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54. 나는 제자들이 용서할 때마다 그들을 축복할 것이며, 여러분 중 용서받은 이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55. 너희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너희 주변에는 너희 삶의 모든 걸음마다 곁에서 도와주고 영감을 주는 무수한 존재들이 맴돌고 있다.

56. 이 영적인 영향력과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하며, 그래야만 높은 존재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을 항상 갖게 될 것이다.

57. 영적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에서 비틀거릴 이유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58. 너희 눈앞에 펼쳐진 길은 좁은 길이며, 그 경계를 넘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한다. 나는 그 길 위에서 항상 너희를 만나고자 하니, 이 길을 따라 내게로 오는 자들은 진정으로 악덕과 거짓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59. 너희는 보이지 않는 방문과 영적 빛의 존재들이 주는 영향을 누리고 싶으냐? 또한 물질주의와 오류의 그늘 속에 안주하는 자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비결은 평온하고 소박한 삶을 살며, 사랑으로 살아가고, 너희 가정에서 미덕의 씨앗을 가꾸는 데 있다.

60. 나의 축복은 모든 이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모든 은총을 스스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61. 내가 언급했던 그 영적 군대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축복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나의 사자와 종들은 신성한 영감을 받는 순간, 인간들에 의해 눈물의 골짜기로 변해버린 이 행성, 즉 지구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 서둘러 나선다.

62. 오직 나의 가르침만이 너희를 영적 세계와 연결시켜 줄 것이며,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너희를 서로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들은 영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지구에 거주하는 자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물질이 장벽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63. 내 말씀이 너희 마음을 계속해서 다듬어, 타인의 고통에 진정으로 민감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64. 너희 마음의 현이 민감해지지 않는 한, 너희는 영적 사명을 결코 온전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65. 준비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이 지날 때마다, 이 인류, 곧 여러분의 자매가 내뱉는 고통의 비명이 울려 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66. 너희가 처음 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을 때,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고통과 탄식을 토로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으니, 이는 이 땅에서 너희만큼 고통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너희 마음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다른 이들의 어떤 곤경이나 고통 앞에서도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리와 빛의 영원한 근원이신 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너희 눈을 가리고 있던 어두운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너희가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비록 여러분의 고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적대감과 권력 추구, 그리고 사람들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지구의 다른 민족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고통이 작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제 마음속의 고통이 심해졌을 때, 제 고통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모독하기 시작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불공평하게 대하게 만든 것은 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잘못을 깨닫고, 제가 저지른 모든 모욕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제가 제 자신을 위해 간구했던 모든 것을, 제가 짊어졌던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67.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너희가 하던 기도 방식과 비교해 보면, 오늘날 너희의 기도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 왜인가? 너희의 감정과 신성한 가르침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68.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아, 너희는 더 이상 멈춰 서서는 안 되며,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해왔던 것처럼 동정심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서는 안 된다. 아니, 백성들아, 정화해야 할 것들이 많고, 감수성을 키워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잡초를 뽑아내듯 싸워야 할 이기심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혼의 온기로 바꿔야 할 냉담함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마침내 너희 영혼 속에서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연민과 자비, 그리고 모든 고귀하고 숭고한 감정이 솟아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69.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날에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일과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70. 그러니, 백성들아: 너희는 영혼이 이 영감으로 깨우침을 받고, 마음이 이 이상으로 가득 차게 될 그 시간을 가만히 기다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느냐? 단지 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희 마음의 현을 충분히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느냐? 아니, 백성들아. 내 가르침을 듣는 바로 그 시간에, 너희는 고통받는 이들에게로 향해야 한다. 그 고통과 직접 마주하고, 동료 인간들의 고통의 잔을 맛보며, 너희의 감각으로 비참함과 고아됨, 혐오스러운 악덕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질병들, 혼란에 빠진 이성을 어둡게 하는 어둠, 굶주림, 갈증, 그리고 영혼의 갱신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71. 오직 그렇게 해야만 너희는 삶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 이들의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준비하려 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위로하고, 회개하게 하며, 치유하려는 의도를 품었을 때, 너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이들에 비하면 너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슬프게 깨닫게 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겪은 고통과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스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은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내 가르침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 안에 나의 정의와 용서, 그리고 사랑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일깨우기에는 충분히 위로가 되고 강력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72. 너희가 점점 더 준비되기 위해 받은 교훈을 어디에서 실천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기회는 너무나 풍부하여, 너희가 관찰하는 법을 안다면, 너희 삶의 어느 하루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수많은 형태 중 적어도 한 가지 형태로 자비를 베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73. 내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준 직관의 은총을 통해, 너희는 마음의 비밀 속에 감춰진 많은 것들 – 동료 인간들의 지상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비극들 – 을 발견할 수 있다.

74.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그들을 상처 입히지 않고 그들의 비밀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동료들의 삶을 어둡게 가리는, ‘’에 숨겨진 그 고통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듯이, 영적 통찰력의 일부이며 기도를 통해 너희 안에서 온전히 꽃피워져야 할 그 능력인 직관은,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다.

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가르침 313

1. 나는 너희의 이성적 능력에 힘을 주어, 이 순간 내가 너희에게 쏟아붓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리라.

2. 지금은 위대한 증거와 위대한 가르침의 때입니다. 너희 영혼은 이를 알고 있기에, 나의 계시에 직면하여 나의 계시와 말씀을 갈망하며 다가옵니다. 영혼은 오직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만 이 증거들을 진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3. 인류의 영혼이 이토록 광활한 발전의 장을 목격한 적은 결코 없었으며, 이제 잃어버리고 다시는 찾을 수 없었던 진리를 갈망하며 그곳으로 서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4. 내가 사람들을 그들의 탐구 속에서 홀로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길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는데 – 그들이 진리를 찾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와서, 머지않아 인간의 영혼을 위한 등대와 길이 될 계시로 가득 찬 메시지를 전하였다.

5. 먼저 나는 점차 나의 신성한 계시를 따르는 이 백성에게로 왔으며, 내일 그들이 강해지고 가르칠 능력이 생기면, 나는 그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다다를 것이다.

6. 이 말씀이 너희에게 주는 책임을 깨닫고, 너희 온 존재로 그분의 십자가가 주는 달콤한 짐을 느끼라.

7. 오, 백성아, 너희는 이 제3의 시대에 동료 인간들의 영혼을 위해 길을 닦아줄 선교사이다. 그 길은 영혼을 빛과 평화로 이끄는 진리의 길이다. 민족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할 수 있도록, 사람들 사이에 영적인 유대를 맺어야 할 자, 바로 너희이다.

8. 비록 너희가 오늘날 내 말씀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 이 시대의 중대함도, 현재 받고 있는 사명의 숭고함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영원히 잠들어 있을 수는 없다. 곧 폭풍이 몰아쳐, 너희가 그 그늘에서 신성한 나이팅게일의 지저귐을 수없이 들어왔던 이 '나무들'의 잎사귀를 뒤흔들 것이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무 줄기가 삐걱거리는 것을 보게 되면 – 잎사귀와 열매, 둥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한한 곳에서 여러분에게

경고하며, 깨어 살아가도록, 결코 고통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칠 줄 모르고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를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9. 내일 폭풍우의 굉음에 깰 바에야, 지금 내 목소리의 울림에 깨어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10. 머지않아 너희는 내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것이며, 내 가르침의 진정한 제자가 마땅히 그래야 할 것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내일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는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위험이나 박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계시를 전하던 시절, 모든 대변자들의 이성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가장 명확하게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싸움은 거대할 것이니, 그때 너희는 강해야 한다.”

11. 나는 준비된 길, 곧 영혼을 위한 빛으로 가득 찬 길을 남겨 둘 것이다. 나는 스승으로서 너희 앞에 내 사명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훗날, 이 시기에 영적으로 내 식탁에 앉아 내 말씀의 빵을 먹었던 자들 중 누구라도, 자신의 영적 일과를 위해 맡겨진 각 임무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2. 내가 너희에게 투쟁의 열매를 요구할 그 순간, 너희가 기꺼이 내게 드리고 싶은 대답은 어떤 것이겠느냐? 훗날 너희는 그 순간에 너희의 대답이 훌륭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영혼이 그 길에서 그 순간을 확신에 차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귀중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하라.

1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영혼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돌이킬 수 없이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너희 영혼이 결국 이 생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께 수확물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순간을 외면하려 하는가?

14. 나는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땅에서 너희 영혼이 이 시대에 이루어야 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15.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를 공정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너희가 이루어야 할 평화를 얻도록 모든 수단을 마련해 주고 있음을 깨달아라.

16. 이 땅을 결코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영원히 이곳을 떠나기를 꿈꾸는 이들도 있다. 나는 양쪽 모두에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한다.

17. 영의 계곡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자가 지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떠난다면, 그는 그 고향으로 승천할 것이며, 더 이상 이 세상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반면, 물질적인 것에 큰 끌림을 느끼는 사람은 –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며 자신의 영혼을 위해 삶을 활용하는 법을 안다면 – 영혼에 기쁨을 느끼며 필요한 만큼 자주 돌아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 삶을 떠나 영적인 삶을 갈망하는 자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영원히 지상에 머물고자 하는 자가 삶이 주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전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야 하며, 영적 계곡을 떠나 끊임없이 지구로 되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여러 번 거절했던 결실을 거둘 때까지 말이다. 후자는 자신의 영에 따라, 실현하지 못한 채 항상 뒤로 미루어 왔던 임무를 지상에서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품을 때까지 영적 세계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18. 너희가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사랑을 내게 보여준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의 소망이 고귀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상 생활을 원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이 무의미한 목표나 저급한 정욕에 복종하는 것이라면, 나는 너희가 너희 영혼의 발전을 위해 내가 축복으로 가득 채운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고 가장 먼저 말해 줄 것이다.

19.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율법 안에서 살며, 모든 것과 모든 이와 조화를 이루면, 너희가 사는 곳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너희 영혼의 상향적 발전뿐이기 때문이다.

20. 너희는 인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영혼에게 얼마나 큰 공덕인지 모른다. 이러한 공덕을 얻게 하기 위해, 나는 너희 영혼이 인간이 되도록 허락하였고, 내가 지혜롭게 준비해 둔 물질 세계에 살게 하였다.

21. 모든 세계, 모든 존재의 차원은 영혼이 그곳에서 발전하고 창조주를 향해 한 걸음 내딛으며, 그렇게 하여 완전함의 길을 따라 끊임없이 전진함으로써, 흠 없이 순수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정의 목적지인 영적 완전함의 정점에 도달할 기회를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22.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아, 진정으로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 불쌍한

이성주의자들아! 너희가 내 품에서 이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 즉 그 이전에도 이미 내 안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이냐? 생명의 근원에서 솟아난 모든 것이 때가 되면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모든 영혼은 가나를 통해 삶으로 나아갔을 때 처녀처럼 순수했으나, 그 후 많은 이들이 그 여정에서 더러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모든 것이 나에 의해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며, 정의에 입각한 방식으로 미리 예견되었기에, 나는 내 자녀들이 거쳐야 할 길 위에 그들의 구원과 갱신을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즉시 마련해 두었다.

23. 비록 그 영적 순결이 많은 존재들에 의해 더럽혀졌을지라도, 그들이 모든 과오로부터 정화되어 그로 인해 본래의 순수함을 되찾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정화는 내 눈에는 매우 공로가 큰 일이 될 것이니, 영혼이 믿음과 사랑, 충실함, 그리고 인내에 대한 크고 끊임없는 시련을 통해 그것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24. 너희 모두는 노동과 투쟁, 그리고 고통의 길을 통해 빛의 왕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육신에 환생할 필요도, 물질적인 세상에서 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의 영적 활동 능력은 이미 한 존재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너희의 영향력과 빛을 보내고, 그것을 실감나게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25. 왜 너희는 영혼의 진보를 가로막아, 영혼이 바랄 수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이 존재하는 빛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키며, 영혼을 억누르고 있는가?

26. 비록 매일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항상 영혼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고향, 즉 내가 때때로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 고향에 도달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일하십시오.

27. 이 가르침은 영적 영혼을 그러한 고양과 빛의 상태로 이끈다. 이 가르침은 길이자 등대이며, 양식이자 지팡이이다.

28.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의 날개를 타고 높이 비상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가 황홀경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의 투쟁으로 돌아갈 때, 그는 내면에 타오르는 빛을 품게 될 것이며, 그 빛은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희 모두가 그곳에서 나왔으며,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영원한 고향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9. 나는 이 순간, 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목숨을 바치기를 원할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내 말씀이

너희 마음의 가장 감수성 깊은 현에 닿게 하라. 다가올 시대에 너희는 이 말씀에 자주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0. 너희가 내 말씀의 진의를 진정으로 지키면, 내 영적 계시가 중단되는 것을 한탄하는 자들 중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너희가 내 계시와 가르침을 지키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는 근심도, 슬픔도, 반항도, 혼란도 없을 것이니, 너희는 모든 것이 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단 한 순간도 반항하거나 내 뜻의 성취에 저항하고 싶은 욕망을 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1. 오늘 이미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라. 영성화를 향해 확고하게 이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누구나 머지않아 보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내 임재를 주변과 내면에서 느끼게 될 것이며, 나의 영감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며, 그의 모든 영적 은사의 발전이 분명해질 것이다. 단지 내가 너희 곁에 있다는 믿음만이 아니라, 너희 영 안에 내 임재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32. 1950년 이후로 정체되거나 영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착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내 말씀이 중단된 후에야 너희 중 일부는 내 가르침에 대한 진전과 이해를 향해 진정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3. 너희가 나의 계시가 내려지던 시절에 영성화의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믿고, 이것이 바로 나의 말씀이 이성 기관과 전도자들의 입술에서 꽃피게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지금까지 내 사랑 어린 말씀을 통해 내 모든 자녀들에게 제시된 목표인 영성화를 향해 단단한 한 걸음도 내디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34. 너희가 영성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대변자가 사라져야 하며, 너희가 더 이상 이 피조물들의 입술에서 내 생각을 인간적인 형태로 듣지 않게 되어야 하며, 모든 의식과 상징주의를 버려야 한다.

35. 나는 이 말을 어떤 이들에게나, 또 다른 이들에게나 전한다. 즉, 이 시대에 자신의 영혼이 진보하고 나의 가르침이 꽃피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명백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통과 관습, 풍습을 지키는 이들에게도 말이다.

36. 그렇다, 백성아, 너희는 내가 계시한 것처럼 순수하고 소박하며 본질적으로 영적인 가르침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나의 업적이라고 믿게 된 또 하나의 외형적인 의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절대적인 명확함으로 말씀하실 때가 도래했다. 이제 너희는 이 진리를 알 만큼 충분히 강해졌기 때문이다.

37. 내 말씀이라는 밀과 함께, 너희의 오류에서 비롯된 쐐기풀과 잡초도 자라났다. 그러나 여기서 제2시대에 내가 전한 비유 중 하나가 성취될 것이다. 바로 밀이 익기 전에 잡초를 뽑으려 하지 말고, 잡초가 밀과 함께 자라게 두라는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좋은 씨앗까지 뽑아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38. 축복받은 백성들아, 이 시대에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의의 낫이 내려와, 내 씨앗이 뿌려진 밭을 베어낼 시간이 정해졌으니, 이는 내 사역의 진리와 본질이 모든 인간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된 후, 너희가 마침내 내 빛을 묵상하며 기쁨을 누리고 이 신성한 계시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9. 또한 그 낫이 모든 종교 공동체에게 내려와 그들의 밭을 베어낼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 이는 진리를 그들이 지닌 모든 거짓과 불순한 것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함이다.

40. 인류의 온 존재는 발전해 왔으니, 그 과학,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지식, 성취, 그리고 목표들이 그러하다. 오직 영적인 측면, 즉 영적 영혼만은 인간이 소홀히 해왔으며, 영혼이 끊임없는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자 하지 않았고, 삶 속에서 영혼이 지닌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인류는 이미 수 세기 동안 영적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41. 사람들은 종교적 의식을 통해 자신의 영혼에게 얼마나 적은 것을 베풀고 있는가! 인간의 영혼은 얼마나 큰 갈증과 굶주림을 느끼며, 빛을 향한 얼마나 큰 갈망을 품고 있는가!

42. 그들이 자라게 한 밀은 극히 적고, 잡초는 많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마침내 이 세상에서 빛나는 것을 보게 될, 용서할 수 없고 정의를 실현하는 진리의 낫으로 밭을 베어내며 모든 이를 돕겠다.

43. 내 계시의 마지막 해에 전해진 가르침을 듣고 있는 너희 백성아, 그 가르침이 너희 이성과 마음의 가장 미묘하고도 감수성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지게 하라. 그래야 너희 존재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영의 빛이 너희 각자에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44. 내가 너희에게 남길 흔적은 평화로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가 이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에 대해 증언해야 할 때, "스승께서 떠나시며 그분의 신성한 빛으로 준비된 길을 우리에게 남겨 주셨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라.

45. 나의 발자취는 너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즉 내면의 성소가 있는 곳에 새겨질 것이다.

46. 너희가 내 말씀을 철저히 연구할 수 있도록, 내 말씀이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의 믿음과 영혼의 힘이 진실해질 것이다.

47. 너희는 머지않아 많은 이들이 내 말씀의 종말을 믿지 않을 것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를 통해 너희는 내가 이 모습으로 나타나 계셨을 때에도 그들이 나의 현존을 믿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의심과 믿음 사이를 오가며 흔들렸던 자들, 비록 내 계시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척했더라도, 바로 그들이 내 말씀이 끝났음을 부인할 자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계시하고 명령한 모든 것을 진정으로 믿은 자들은, 내 말씀 중 단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48. 제자가 스승에게 가져야 할 믿음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했던 자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단조롭고 관례적인 의식에 의지하며 그 길에서 멈춰 서게 될 것이다.

반면, 현재 나를 믿은 자들은 내 말씀의 선포가 끝난 후에도 필연적으로 계속 나를 믿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지시에 순종하고, 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들은 영성화라는 이상을 품게 될 것이며, 항상 그들과 함께할 빛, 곧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49. 내 계시의 시기가 지나면, 나는 이 백성의 사역에 시선을 두어, 순종하는 모든 제자에게 내 자비를 베풀어 상을 주고, 그들이 매일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며, 영적 진보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독려할 것이다. 나는 이 백성 가운데 단순히 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영성화를 향한 투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러한 형태로 계시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옳고 완전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그때 더 이상 버림받음도 공허함도 없을 것이며, 나의 임재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신성과의 새로운 형태의 교감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영과 영 사이의 대화이므로 더 순수하고 완전한 단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0. 너희의 동료들이 너희에게 다가와 나의 계시에 대해 묻고,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진리에 대한 증거에 대한 너희의 증언을 요구할 때가 머지않았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내 사역을 증언하는 방식이 또 다른 이들과는 얼마나 다를 것인가. 어떤 이들은 들은

진리를 엄격히 고수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자신의 오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을 찾아야 할 것이다.

51. 사랑하는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해야만 한다. 그래야 너희가 제때에 깊이 성찰하고, 너희의 행실과 생각, 감정, 말, 그리고 계획을 가장 면밀히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이 자기 성찰과 검토를 너희 양심이 주도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2. 이 순간은 너희가 진리로 가득 찬 눈을 뜨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가 잘못했을 경우 바로잡을 수 있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53. 내 가르침을 승리로 이끌고, 그 가르침을 온전한 순수함과 진실함 그대로 널리 알리는 이들의 만족감은 클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스승으로서, 나는 나의 모든 제자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54.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의 영성화를 보상하기 위해 내 보물창고에 너희를 위한 수많은 기적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가 형제자매로서 하나가 될 때까지, 즉 너희 모두가 나의 지시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그 후에 너희의 영성과 육신 위에, 내가 너희의 영성화 날을 위해 간직해 둔 빛과 자비와 위로와 계시의 흐름을 쏟아 부을 것이다.

55. 나의 모든 대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은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 일단 모든 이가 이를 이해하게 되면, 나의 정의는 더 큰 영성화를 추구하는 자들을 돌보아 줄 준비가 될 것이며, 또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신의 왕국을 찾는 자들의 행실을 심판할 준비가 될 것이다.

56. 태초부터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침을 찾게 한 것은 누구였는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핵심에서 불멸의 본질을 찾게 한 것은 누구였는가? 바로 영이다. 인간을 살아 숨쉬게 하고 깨우쳐 준 더 높은 본성이 있음을 점차적으로 밝혀 준 것은 바로 그 영이었다.

57. 인간은 – 비록 점진적이긴 했지만 – 직관과 계시의 은사, 그리고 지성을 통해 존재의 가장 초창기부터 자신의 기원과 본질의 핵심, 존재의 이유, 이 세상에 머무는 이유, 그리고 창조된 목적을 찾는 일에 전념해 왔다.

58. 인간은 자신 안에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이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자신에게 더 높은 소명이 주어졌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신에 대한, 그리고 영혼의 존재에 대한 직관적 지식이

생겨났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느낀 그분께 경배나 영적인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났다.

59. 이것이 인류의 영적 발전의 기원이었으니, 이 발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인종에 따라 나뉘고 국적, 관습, 언어로 구분된 이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빠른 진전을 이루었고, 어떤 이들은 신께 경배를 드리는 특정한 방식을 가졌으며, 다른 이들은 또 다른 형태를 취했기 때문이다.

60. 나는 모든 사람을 나의 빛으로 비추어 그들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진리를 계시해 주었으나, 너희도 보듯이 각 사람과 각 민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믿고, 해석하고 있다.

61. 사람들의 이러한 다양한 사고방식은 분열을 초래하였으니, 각 민족과 각 인종은 서로 다른 길을 따르고 서로 다른 이상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62. 대다수는 신성한 율법을 이행하는 것이 초인적인 희생과 포기, 노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빛나고 참된 길에서 멀어졌으며, 자신들에게 더 쉽게 따를 수 있는 율법 이행과 예배 의식을 가진 종교 공동체와 종파를 스스로 세우는 것을 선호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느끼는 빛과 고양에 대한 갈망을 달랠 수 있다고 믿습니다.

63. 수 세기와 수많은 시대가 지나갔지만, 사람들은 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희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며, 오히려 내 계명을 무시할 때야말로 세상의 육체와 영혼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토록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 지혜,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64. 너희를 둘러싼 도덕적·과학적 세계는 물질주의적 이상을 가진 사람들, 즉 인류의 물질적 발전만을 추구해 온 사람들의 작품이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한계까지 수행하며, 그 결과를 깨닫고, 그 열매를 거두어 경험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 빛 속에서 나의 정의가 드러날 것이며, 그 정의 속에 사랑인 나의 법이 임할 것이다.

65. 사람들이 언젠가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참된 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이 깨어났기 때문이며, 회개했기 때문이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며, 그때 그들의 행위는 단지 인간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적도 갖게 될 것이다.

66. 모든 민족, 모든 종교 공동체, 종파, 학문, 그리고 모든 사람은 진리의 일부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 나름의 거짓과 오류도 내면에 품고 있다. 그러나 연합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고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 각자는 모든 이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자신의 씨앗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투쟁과 논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이가 나의 존재와 나의 법이 지닌 변함없는 진리라는 유일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67. 투쟁이 끝날 무렵, 사람들은 – 이제 자신과 이웃과 화해한 상태에서 – 지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창조주의 사랑에서 비롯된 신성한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선과 도덕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많고 다양한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 사이에서 진정한 조화를 이루고 단지 인간적인 차원을 초월한 도덕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 부르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68.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보낸 계시의 빛을, 나는 나의 전달자나 대변자들을 통해 소박하고 단순한 말씀으로 바꾸어, 온 인류가 그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모든 이가 그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속적인 수단과 해결책을 찾고 있는 이 시점에 – 오늘날, 아무도 영적인 영감을 얻으려 하지 않아, 나에게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과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는 이 시점에.

69. 나의 말씀은 궁궐과 초라한 오두막에까지 닿아,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영혼을 떨게 하고, 몸이나 영혼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어둠에 휩싸인 마음을 밝게 비출 것이다.

70.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듣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마음에 결실을 맺는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14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의 기도를 들었으니, 너희 기도가 하나로 합쳐진 것은 너희가 내게 바친 최고의 찬양이었다.

2. 너희 각자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피어오르니, 이는 너희 아버지와의 조화로운 음률과 같으며, 너희 생각의 합일은 영적 순수함으로 가득 찬 교향곡을 이룹니다.

3. 어떤 이들에게는 이 소리가 기도이며, 그분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임을 보노라.

4. 다른 이들에게는 그 생각이 길에서 마주한 역경들로 인해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너희는 나의 신성에 대한 경배와 존경인 믿음의 행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5.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영혼에게 기대하셨던 유대감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그분께 결코 드리고자 하지 않았던 사랑의 선물이다.

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언제나 가르쳐 왔으나, 영적 성숙의 부족으로 인해 너희가 항상 드리지 못했던 그 기도가 바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그 빛 아래서 너희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교감을 이룰 것이다.

7. 너희가 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한, 가시 덥힌 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은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8. 일곱째 날, 너희의 육신은 세상의 고된 수고에서 쉬게 되고, 너희의 영혼은 꾀꼬리처럼 자유롭게, 내 지혜의 마르지 않는 샘을 갈망하며 내게로 다가옵니다. 너희 영혼은 나의 계시를 받아들이러 오며,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 너희에게 베푸는 사랑의 광채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9. 나는 어떤 이에게서 믿음을, 또 다른 이에게서 불신을 찾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이에게서 큰 공로를, 또 다른 이에게서 작은 공로를 찾지 않는다. 아니, 백성아. 나의 신성한 사랑은 완전하며, 나는 모든 이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을 베풀 때, 나는 너희 모두에게 동일한 본질, 동일한 사랑을 준다.

10. 인류 전체가 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 다른 이에게는 책망이 주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책망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거나, 내 축복이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때이며, 모든 이가 이 계시를 목격하는 것은 아니다.

목소리를 통해 내 가르침을 듣도록 정해진 나의 증인들의 수는 매우 적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증인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법을 안다면 인류는 그들의 입을 통해 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성령께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를 가르치셨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1. 이를 위해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1950년 이후, 너희가 군중들 가운데로 나아가 내 이름으로 말해야 할 때, 진리인 나의 말씀이 부정의와 거짓과 섞이지 않고 – 마치 수정처럼 맑은 물의 흐름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이 물의 근원인 내 영은 맑고 순수하므로,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로 순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12. 나는 너희가 항상 순결하기를 원하며,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 오아시스처럼 되어,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이가 그곳에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그 물 속에서 진흙의 불순함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한다.

13. 이 가르침의 시간이 끝나면, 너희는 내게 말하리라.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시간이 이토록 짧았나이까? 어찌하여

그리 빨리 떠나셨나이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제3시대의 제자들을 위한 나의 가르침의 기간은 영원의 시계에 의해 정해져 있었으며, 그 안에서 너희는 과거 시대의 교훈들을 이해하고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가르침을 준 적이 없다.

14. 너희가 시련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내 마지막 말씀까지 내 지침을 너희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모든 의심에 대한 빛의 광선을, 모든 약점에 대한 내 율법의 힘을 너희가 갖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너희는 사명을 완수하는 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내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맡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명, 즉 사랑으로 구원하고 용서하며 선을 행하는 일로 너희 영혼을 소생시킬 것이다. 이는 너희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너희 영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15. 너희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며, 일단 사랑의 힘으로 강해지면, 오늘날 벌거벗고 굶주리며 병든 이 인류에게, 오직 선을 실천하는 것만이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라는 치유제를 가져다줄 것임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16.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더 이상 과학이나 부, 혹은 이 세상의 감정적 동요 속에서 영혼의 지고한 선인 안녕과 평화를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가르침이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신의 길에서,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사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지도 않으면서, 사랑과 진실함의 행실로 가르치는 겸손한 형제, 곧 나의 제자이자 사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평화의 비밀을 발견하고, 내 왕국에서 온전한 평화를 받기 위해 마음을 정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화는 종종 서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겉으로만 보이는 평화일 뿐, 불안일 뿐입니다. 그러면 영혼에 평온이 있을 수 없습니다.

17. 제자들아, 싸워라.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왕국을 세우라. 그곳에서 그들은 더 나은 세상, 강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그들이 내게 보여주는 그 연약한 세상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연의 힘이 약한 숨결이나 소란만으로도, 나는 인간의 헛되고 교만한 업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자녀들의 작품이며, 나는 그것을 존중한다. 그 작품이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노니, 결국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지쳐 내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18. 나의 모든 작품은 사랑과 정의에서 비롯된다. 너희가 보는 모든 것, 지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가장 작은 원자조차도 사랑과 정의의 길 위에서 살아가고 움직인다. 모든 것은 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며, 나의 영 안에는 불의도 없고 불완전함도 없기 때문이다.

19. 인간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자신의 삶과 힘, 오만을 바친 수많은 위대한 업적들 중 상당수는 사랑과 의로움을 근원으로 삼지 않았으며, 이러한 근원을 갖지 않은 모든 업적은 파괴될 것이며, 인간에게는 경험의 빛만이 열매로 남을 것이다.

20. 사람은 연구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삶을 과학에 기반을 두었으며, 오만의 탑, 바벨탑을 세우고는 그곳에서 나에게 경배를 드리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간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바벨탑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때 인류는 인간이 태초부터 허영과 나에 대한 불신의 탑을 쌓아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과거 시대에 이것이 초래했던 결과들이 제3의 시대에 다시 반복될 것이다.

21. 유물론과 오만, 자만심은 무너질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닥칠 것이다.

22. 학자들은 자신의 학식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며, 과학자들은 – 목표를 찾았다고 생각할 때 – 헤아릴 수 없는 신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자연의 힘들은 사랑으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등을 돌릴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는 혼돈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23. 내가 시작이자 끝이며, 과학이자 지식임을 기억하라. 나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주었으며, 그들이 이를 선을 위해 사용할 때, 내가 그들에게 베푼 은사와 능력을 영혼과 지성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때, 그들의 행실을 기뻐했다. 그때 그들은 나에게 경의를 표했고, 내가 그들에게 맡긴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은사를 악과 허영, 그리고 독재에 대한 욕망에 바쳤을 때,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고, 길을 왜곡했으며, 나를 상처 입혔다. 그러나 나의 지혜로 나는 나의 신성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을 이용했으며, 인류를 위한 본보기로, 나의 정의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했다.

24. 내가 과연 과학의 적인가? 내가 내 자녀들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인가?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나 능력은 반드시 꽃피워야 하는데, 이는 발전이 우주적 법칙이기 때문이다.

내 창조물 속의 모든 것은 완전해져야 하며, 너희 모두는 순수하고 완전하며 배가된 모습으로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내가 잠시 동안 인간의 의지에 개입한 것은, 죄와 인간의 악의에는 나의 정의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5. 인류가 이 시련의 용광로를 한 번 통과하고, 진리의 빛이 어둠을 이기고 승리를 거둘 때, 그때 – 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 사람들은 견고한 기초 위에 새로운 탑을 세울 것이며, 그곳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성전이자 평화의 성소가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나의 존재에 대한 논쟁이 결코 없을 것이며, 한 분에 대한 인식이 곧 모든 이의 인식이 될 것이다. 그곳에는 우상 숭배도, 비밀주의도, 나의 법에 대한 기만도 없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나의 도움으로 이 눈물의 골짜기에 모든 미덕이 꽃피고 모든 학문이 완성되는 평화의 세상을 세울 것이다. 모든 제도의 품 안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조화로운 삶 속에서 사람들은 영원한 고향의 모습을 알아볼 것이다.

26. 인간이 자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것을 발견했다면, 그가 깨어 기도하며 나에게서 양식을 얻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가 경외심과 겸손, 그리고 사랑으로 나의 빛과 진리의 근원에 다가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령께서는 그분이 비밀스러운 보물창고에 간직해 두셨던 모든 계시를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실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과학자가 더 이상 머리를 쥐어짜며 책을 뒤적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의 영이 그를 나의 지혜의 무궁무진한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며, 나는 그를 기다리며 언제나 그에게 새롭고 위대한 교훈을 계시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나는 사람들을 계시에서 계시로, 거처에서 거처로, 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영원까지 이끌어 갈 것이다.

27. 나는 다가올 이 시대를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너희 모두는 이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너희 모두는 주님의 교향곡 속에서 조화로운 한 음이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가 내 율법을 어길 때 내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너희를 이용하듯이, 너희가 내 계명에 따라 살 때에도 나는 너희 자신을 이용하여 내 계시와 사랑의 메시지로 너희에게 상을 주리라.

28. 오늘 나는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소를 세운다. 그러나 이 성소를 세우는 일에는 너희 모두의 도움을 의지해야 한다.

29. 오 백성들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성소는 어떤 성소를 뜻하십니까? – 바로 너희 영혼의 성소입니다. 이 시대에 나는 그 성소가 폐허가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그것을 재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30. 주님의 성소는 항상 존재해 왔으며, 시작도 끝도 없으며, 주님께서 직접 지으신 작품입니다. 주님의 신성하고 무한한 영은, 여러분이 그 성소 안에서 모든 것이 조화와 완전함으로 가득 찬 곳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31. 우주의 광대함 한가운데에 있는 한 원자에 불과한 너희 행성은, 그 조화로운 성전의 모습을 반영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32. 그러므로 너희가 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단지 말이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 아니, 제자들아, 너희가 느끼고 살아내는 것이 된다면, 너희는 더 이상 돌로 지어진 교회들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 영혼은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소들을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혼은 자유를 추구할 것이며, 내가 맡겨 준 축복받은 은총 안에서 자신의 완전함에 이르는 사다리를 발견할 것이다.

33. 이는 사람이 나로부터 동행과 돌봄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자신의 발밑에 더러운 먼지가 없음을 깨달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그는 자신의 집이 나를 위한 작은 성소이며, 비록 창조의 광대함 속에서 단 하나의 원자에 불과하지만, 그의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성소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34. 내 자녀들이 온전해지는 모든 세계는 마치 끝없이 넓은 정원과 같다. 오늘날 너희는 아직 연약한 새싹들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내 가르침의 수정처럼 맑은 물이 너희에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그 물로 적셔짐으로써 너희는 지혜와 사랑을 점점 더 키워 나갈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영원 속에서, 나무들이 완숙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신성한 정원사는 자신의 사랑의 열매를 맛보며 그 업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35.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너희 앞에 생명의 책을 펼쳐 놓는 것은, 너희가 나를 경배하기 위해 더 이상 특정한 장소를 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밭에서든, 계곡의 초원에서든, 산에서든, 바다에서든,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순간이든 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느 곳에든 너희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곳은 거룩해진다.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36. 내가 이런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광신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지, 너희 사이에 새로운 광신을 만들어 내기 위함이 아니다.

37. 내 가르침은 심오하지만,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것을 깨달으라.

38. 너희가 스승이 되기 전에, 나는 너희가 나로부터 배우는 훌륭한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어떤 질문에도 단호함과 진실함, 친절과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깊이 스며들기 때문이다.

39. 나는 너희에게 많은 경우 지혜와 사랑의 한 마디만으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했으며, 그 말은 마치 영원한 불의 인장처럼 그 영혼 속에 남아 잊혀지지 않았고, 그 영혼은 자신의 구원이 되었던 그 말을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세에서도 간직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내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노니, 이는 영혼들에게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경에 짓눌리지 말며, 의심을 떨쳐내고 내 가르침에 깊이 몰입하라. 그러면 이 힘이 너희에게 큰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약한 자들아, 내 가르침으로 강해지지 못한 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길에서 비틀거릴 것이기 때문이다!

40. 나는 내 백성, 나의 증인, 나의 제자가 길 위에서 강인해지기를 원하노니, 그리하여 내가 그의 길에 두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41. 오늘 너희는 믿음에 있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너희 영혼의 힘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큰 시련을 통해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품고 있는 그 신뢰를 너희 자신에게도 가져야 한다. 내가 너희 안에 지니고 있는 은사를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42. 머지않아 인간의 이성을 통한 나의 계시는 끝날 것이며, 1950년 이후에는 너희가 더 이상 이 계시를 통해 나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부르거나 나의 영적 세계를 부르기 위해, 과거에 나의 목소리를 전하거나 은사를 받았던 이들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큰 시련 속에서도 너희는 나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 된다.

43. 내 가르침의 힘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내 뜻이 허락하는 한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러나 너희가

잠들어 있을 때, 이러한 시련들은 어쩔 수 없이 닥쳐와 너희의 일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44. 얼마나 많은 남자와 여자가, 비록 그들의 영적 영혼 속에 너희가 가진 것과 똑같은 은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제시해 준 길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가. 이 남자와 여자들이 너희 안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면, 그들은 그 은사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며, 나의 가르침을 통해 폭넓은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떤 이들은 혼란에 빠지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상상력과 뜻대로 그 은사를 발휘하려 할 것이며, 또 다른 이들은 보이지 않는 세력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 세력은 빛의 세력일 수도 있지만, 어둠의 세력일 수도 있다.

45. 그러므로 제자들아, 너희의 사명 수행에 있어 잠들지 말라. 1950년 이후, 나는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깊이 성찰하고, 그 성찰을 통해 내 가르침 안에서 지식을 통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허락하리라. 이러한 통합을 바탕으로 너희는 사건들과 투쟁에 맞서게 될 것이다.

46.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모든 시련에 대해 경고하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마지막 해에 이 선포를 통해 모든 위험에 대해 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알려 주리라.

47.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거대한 교회의 품 안에서 성직자들은 인류에게 성령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들은 제3의 시대에 대해 말할 것이며, 일곱 봉인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호소하며, 14만 4천 명을 선택하여, 내 뜻에 따라 택한 자들에게 내가 새겨 놓은 표로 그들을 인치겠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며, 인류의 성직자들에게는 양심을 통해 내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을 큰 시련에 처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 나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너희 중 누구를 사용할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설득력으로 말할 것이다.

48. 인류에게 성령의 계시를 알리는 것은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주님의 높은 의회의 결정에 따라 오직 그분만이 그러하시기 때문이다.

49. 삼위일체-마리아적 영성 교리는 어떤 인간도 너희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인 내가 이미 첫 번째 시대에 나의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이를 예고하였다.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이를 예고하였으며, 머지않아 올 계시로 너희에게 약속하였다.

50.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드러냄으로써 – 나의 약속을 이행하고, 숨겨져 있던 교훈들을 계시하였다. 너희의 영에게 은사를 부여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 너희가 나로부터 나왔을 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맡겨 주었다.

51. 너희 이마에 삼위일체의 상징을 새긴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너희를 영 안에서 표식한 것은 주님이셨다. 너희의 사명을 정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전능한 음성이었다.

52. 아버지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그러한 신성 모독과 오도를 허용하시겠느냐? 희생된 어린 양인 나만이, 모든 피조물의 운명을 담고 있는 지혜의 책, 즉 위대한 생명의 책의 인장을 풀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다. 신성한 말씀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나만이, 내 신성의 깊은 계시를 너희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내가 어찌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경외심 없는 자가, 무지한 자들을 속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신성한 교훈을 자기 뜻대로 왜곡하는 것을 허용하겠느냐?

53. 이러한 신성 모독의 징후들이 (너희 가운데서도) 드러날 것이나, 이는 오직 사랑하는 백성인 너희가 깨어나게 하기 위함일 뿐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 모독과 거짓 증언, 거짓 기적의 징후들이 드러날 것이며, 내 신성함의 이름으로 위장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언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직 영혼들의 진보에 대한 갈망, 성령의 강림에 대한 갈망, 그리고 나의 예언과 모든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증거일 뿐이다.

54. 내가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는 때를 지체하지 말라. 너희의 미흡한 준비로 인해 너희의 행실을 통해 인류에게 내가 드러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비록 너희가 구세주가 아니며, 너희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할 필요도 없고, 이 사역에서 유일한 존재도 아니지만, 너희는 나의 구원의 씨앗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 온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시대에 이미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나의 빛의 군단, 평화와 진리의 군대의 일부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강한 이스라엘'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 여러분이 그 어느 때도 완수하지 못했던 사명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를 마무리 지어야만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 빛의 고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여러분은 더 넓은 지평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완전함의 단계로 승화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55.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어쩌면 환상일까요? 아니요, 백성들아. 나는 너희에게 인간으로서 도덕적 가르침을 주고 덕을 심어주어, 너희가 가정에서 사랑과 평화 속에서 살며, 너희의 양식이 쓰라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안녕과 용기, 그리고 발전을 가져다주지만, 너희 영혼에게는 이 양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 영혼은 육신이 죽은 후 무한한 세계로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더 높은 차원의 양식이 부족하다. 이 여정을 위해 나는 영혼에게, 인간에게는 환상처럼 보이는 가르침을 준다. 그것은 심오하여 가장 예리한 상상력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교훈들이다. 나는 이 열쇠를 너희 영혼에게 맡기니, 이를 통해 영혼이 그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문을 열고, 영적 완성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게 하라.

56. 나의 가르침은 모든 교훈을 담고 있다. 그것은 "길, 진리, 생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존재의 모든 순간에 이를 따라야 한다.

57. 너희 영혼 속에서 신성하신 분께 가장 높은 자리를 드리고, 육체에게는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황제의 것은 황제께 바치라!

58. 너희가 삶 속에서 의로워지는 법을 배우면, 너희의 발걸음은 확고해질 것이며, 의심과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다.

59. 설교할 때가 오고, 너희의 약점과 불필요한 종교 의식이 사라져 – 오직 너희 영혼에 필수적이고 고양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면, 너희는 나의 사역을 수행할 더 긴 시간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의 길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도마처럼 의심하지도, 비겁했던 순간의 베드로처럼 행동하지도 않을 것이며, 유다처럼 허영과 유혹 앞에서 약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60. 너희의 영혼이 내게 말하길, "스승님, 왜 우리를 그 비범한 영혼들과 비교하십니까?" 그러나 스승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제2시대의 제자들은 인류의 영적 진보를 위해 활동했던 위대한 영혼들이었으니, 그 진보란 당시 사람들이 달성하지 못했던 것이며, 현재 사람들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와 같은 영혼이었고, 너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었다. 그들의 미덕은 그들의 불완전함과 싸웠으나, 그들의 영혼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였고, 그들은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전념하여, 그들의 미덕과 사랑으로 인해 내 가르침을 정확히 따르는 데 이르렀으며, 그들 각자가 남긴 모범은 그들을 가르치신 스승에게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61. 너희 또한 이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스승에 걸맞은 위대한 본보기를 보일 것이다. 설마 너희는 나와 너희 자신을 의심하는가? 나는 너희가 내 말씀을 해석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으며, 너희 또한 인류를 인내심 있게 가르치기를 원한다.

62. 가장 인내심 깊은 스승인 내가,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던 교훈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며, 너희가 통과하지 못했던 시험을 다시 너희 앞에 놓아 주리라. 그때 너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너희 영혼은 강해짐을 느끼고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러면 스승은 지혜의 책을 펼쳐 너희에게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리라.

63. 그러나 이 책이 한 번 너희 마음의 성소에 간직되면, 스승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스승이다. 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인류에게 가서, 그들 앞에서 지혜의 책을 펼치고,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것과 같은 인내심으로 너희 이웃을 가르쳐라."

64. 내가 너희의 결점을 지적해 준 것은, 너희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너희도 동료 인간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서 똑같은 결점을 발견할 때, 그들이 인내와 사랑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라.

65. 내가 가르침 속에서 폭력을 설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채찍을 사용하여 너희를 가르친 적이 있느냐? 아니, 제자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다. 남자들이여, 너희는 이미 배우자에게 인내심을 보였느냐? 여러분, 여성분들: 남편에게 인내심을 보였습니까? 그리고 부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인내심을 가졌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여러분은 나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내가 여러분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66. 나는 다시 한번 사랑의 씨앗으로서 내 말씀을 너희에게 남긴다. 너희가 그것을 뿌릴 때, 물질적인 씨앗조차 뿌려진 순간에 싹트지 않으며, 하물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는 더욱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은 자라게 하기 위한 사랑과 공로, 그리고 희생 정신이 필요하다.

67.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흙은 사람들의 마음이며, 그 씨앗은 성령으로서의 나의 계시이다. 너희가 경작하는 밭에 전념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축복하라. 너희의 모범을 통해, 너희와 함께

제3시대의 씨 뿌리는 자들이 될 새로운 일꾼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8. 내 가르침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라.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혹시 '목소리 전달자'가 내뱉는 말 속에서인가? 아니, 제자들아. 너희는 이 말씀의 본질 속에서 나의 가르침을 얻는다. 너희가 영과 영으로 너희 주님과 교감할 때 – 그때 어떻게 나의 신성한 음성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바로 너희 영의 목소리를 통해서다. 그곳에서 나는 영원히 너희 안에 머물며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69. 나의 사랑은 너희 마음속 가장 섬세한 현을 떨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양심과의 조화를 통해서야 비로소 너희는 나의 신성한 교향곡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영적 형상으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가장 완벽한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눈이 나를 볼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너희 모두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었으나, 각 영혼의 성장 단계에 따라 내가 내 모습을 제한할 것임을 말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완전함을 향한 사다리를 오를 때, 너희는 틀림없이 나의 모든 영광 속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70. 지금 어떤 식으로든 나를 상상하려고 애쓰지 마라. 생각해 보라. 너희의 영은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본질이며 빛인데, 시작도 끝도 없는 너희 주님의 우주적 영은 과연 어떤 형상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 헤아릴 수 없는 신비는 나의 '신성한 지혜의 책' 안에 남겨 두어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언젠가 인간의 죽음이 너희 영혼을 자유로이 해방시킬 때, 나는 내 무한한 계시의 책에서 또 하나의 장막을 걷어내어, 너희 영혼이 아버지를 깨닫고 스스로를 깨닫게 하리라 – 너희가 저 세상으로 나아가, 너희를 기다리는 더 나은 세상, 경이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황홀해하되, 그곳이 너희가 거주할 마지막 세상은 아닐 것임을 알게 하리라.

71. 기도하라, 백성아, 인류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의 기도가 있든 없든, 나는 모든 이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자녀들 사이에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기도가 꽃피기를 바란다.

72. 나는 너희의 세상을 방문하였고, 너희의 궁핍함을 보았기에 사랑의 선물을 남겨 두었다. 너희는 나의 신성한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너희의 언어를 알고 있다.

73. 내 길을 확고한 발걸음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기적들로 가득한 그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적의 시대가 끝났다고 누가 너희에게 말했느냐? 너희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기적이 아니겠느냐? 너희 주변을 위협하는 위험을 눈치채지 못하느냐? 너희 세상을 둘러싼 위험을 눈치채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가? 사랑의 기적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74.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은,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놀라운 사랑의 기적으로 창조된 것이다.

75. 기적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끝없는 사랑의 기적입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15

1.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온 백성에게 축복이 있기를. 내 책이 너희 앞에 펼쳐져 또 다른 교훈을 드러내리라. 내 영에서 솟아나는 이 가르침은 너희 영을 위한 정수이자 생명이다. 그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영생의 떡이니라.

2. 나는 지금 이 수많은 청중들의 마음에 나의 가르침을 뿌리고 있으며,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나의 말씀은 너희 존재의 가장 감수성이 풍부한 부분, 곧 너희의 영적 영혼 속에 간직되어 있으므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 이 사랑의 식탁에서 너희의 굶주림과 갈증을 채우라. 너희의 비참함을 잊고 고통에서 치유되어, 이 순간들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라.

4. 고통의 불길이 너희 마음을 태우고 있는데, 오직 내 말씀의 수정처럼 맑은 물만이 그 불길을 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초대하노니, 내 말을 듣고 생명을 얻으며 영혼의 평화를 되찾으라.

5. 그렇다, 백성들아, 나는 너희를 나의 평화의 소유자로 삼아, 너희가 그 평화를 지상의 모든 길과 민족들에게 전파하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는 너희를 준비시키고 나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 삼기 위함이다. 이 시대에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둘러싼 온 인류가 사랑과 빛을 갈망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6. 너희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빛은 모든 이성을 비춘다. 언어와 신앙 고백의 다양성을 내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있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보지 마라.

7. 바벨탑은 여전히 서 있지만, 세상에는 영적 백성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참된 바이며, 이 백성에게는 분열과 차이, 오만함으로 이루어진 이 탑의 기초를 차츰차츰 무너뜨리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

8. 나는 너희가 삶의 투쟁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지키도록 배우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 모두가 이 세상을 계속해서 하나의

고향, 즉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너희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온기와 양식을 제공하는 보금자리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9. 아직은 이 삶을 뒤로 한 뒤에 영적 삶이 너희에게 가져다줄 평화를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아직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차라리 더 나은 세상에 합당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큰 공덕을 쌓는 데 힘쓰십시오. 그리고 이를 생각할 때, 내 자비가 땅 위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날들을 잘 활용할 줄 알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10. 인생의 여정에서 사랑의 발자취를 남기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평화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1.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며, 나를 기쁘게 하고, 너희 영혼 속에 평화로운 미래를 일구고자 한다면,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따르라.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온 존재 속에서 지대한 용기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나를 본보기로 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너희의 투쟁이 끝날 때, 너희는 마음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천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목소리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광야에서 나의 목소리를 듣고 믿은 너희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너희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이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상모략과 구타, 모욕을 견뎌낸 자들아, 복이 있도다. 결국 너희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땅을 정복하였으니.

13. 오, 축복받은 백성아, 내 말씀을 간직하라 – 그것이 사람들이 세워야 할 새로운 탑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라. 그러나 인간의 오만을 상징하는 탑도, 신의 권능과 정의에 불신을 품는 탑도 아니라, 영적 고양과 사랑, 자비, 그리고 인간 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비물질적인 탑이어야 한다.

14. 너희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내가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이곳의 이 백성과 소통하여,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상기시키고, 나의 말씀을 설명하며, 너희의 사명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15. 나는 너희가 언젠가 나의 말씀이 더 이상 너희 곁에 없을 때에도 너희의 발걸음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법과 규범, 그리고 조언을 너희에게 맡겨 두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그 법과 규범들은, 내가 영적 은사를 베푼 사람들이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깨닫게 하여, 자신과 동료들의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16.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의 영적 일과가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다양한 은사와 사명 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을 안다면, 너희는 시련 속에서 무적의 연합체를 이룰 것이니, 이는 너희 모두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를 격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17. 세상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 번째 시대'에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나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의 위대한 예언자들은 메시아, 즉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예고했으니, 그분은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했다. 그 백성이 고통을 더 많이 겪을수록, 약속된 분의 오심을 더욱 간절히 바랐고, 굴욕과 억압의 잔을 더 많이 마실수록, 메시아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였으며, 구세주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알려줄 단서와 징조를 곳곳에서 찾아다녔다.

18. 대대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전해진 신성한 약속은 오랫동안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내 백성에게 왔으나, 모두가 나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가 나를 알아볼 수는 없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방식으로, 또 다른 이들은 물질주의적인 해석으로 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나의 말씀의 빛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나의 계시를 믿은 이들의 순수함과 사랑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했다. 나를 충실히 따르고, 나 안에서 영적 구세주를 본 이들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의 진리를 증언한 이들은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19. 비록 나의 메시지는 지상의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었으나, 나의 부르심은 선택받은 백성의 마음에 닿아, 그들이 훗날 나의 말씀의 대변자가 되게 하려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 백성만이 나의 임재를 느낀 것은 아니었으며,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람들은 나의 도래를 알리는 징조를 발견하고, 내가 지상에 머무는 시기를 예감할 수 있었다.

20. 내가 세상에 내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나의 말씀이 생명의 강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기르기 시작했을 때, 곳곳에는 육체와 영혼의 굶주림과 비참함이 가득했다. 오직 희망의 빛만이 그 백성을 지탱해 주었는데, 심지어 그들의 하나님 숭배조차도 또 다른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 모독을 당했기 때문이다.

21. 굶주림, 목마름, 질병, 속박, 혼란, 나병, 어둠, 비참함 – 이것이 바로 황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깨에 얹어 놓은 짐이었다. 그 때문에 메시아를 간절히 바랐고, 하루하루 그분을 기다렸으며, 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닿아 사랑과 정의, 형제애와 자유에 대해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다.

내 손이 병자들을 만져 그들에게 평화와 신성한 위로를 느끼게 해 주자, 그들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내가 약속된 그리스도, 예고된 메시아임을 증언하며 외쳤다.

22. 그러나 지금, 이 제3의 시대에 – 과연 어떤 백성이 나를 기다렸는가? 누가 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깨어 기도했는가? 극소수뿐이다. 왜냐하면 예언에 대한 지식을 대대로 전승해 온 그 백성을 본보기로 삼는 대신, 너희가 한 일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말씀을 지워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제2의 시대'에 예수로서 전한 말씀 속에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단지 내가 인간으로 오실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으로 임하실 것까지 예언했던 옛 선지자들의 말씀을 확증했음을 알아야 한다.

23. 나의 재림을 예고할 징조들과,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임재를 증명할 증거들은 모두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것들은 모두 성취되었다. 그런데도 세상은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는가?

인류는 현재 세상에서 인간이 마셔 온 모든 것 중 가장 쓰라린 잔을 비우고 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나를 갈망하지도, 부르지도 않았는가? 그들의 물질주의가 너무나 극에 달해, 나를 그들의 삶에서 배제하고, 마음속에서 쫓아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겸손한 자들조차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 오늘날 인간은 위대하고, 지혜롭고, 강하며, 강력하고, 독립적이라고 느낀다. 그는 과학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영의 빛을 갈망해야 하겠는가? 그는 자연의 힘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신의 무기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데도, 내가 와서 그를 적들로부터 구해 주기를 왜 기대하는가?

25. 인류는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던 그 순간,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 나를 깨어 기다리던 민족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첫 번째 시대에는 *한* 민족을 위한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나, 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2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내 빛은 이미 번개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길을 지나갔다.

27.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러, 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지 못했던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고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지성을 통해 나를 섬기게 하고 세상에 나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

28. 이 메시지가 완성되면, 나는 더 이상 이 전달자들을 통해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 후에는 미묘한 방식으로 영혼들 안에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새로운 책에 기록된 나의 말씀은, 평화의 씨앗으로서, 참된 지식의 빛으로서,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악에 대한 치유제로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29. 나의 말씀은 나의 사자들이 원할 때가 아니라, 나의 뜻이 있을 때 비로소 마음속에 닿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씨앗을 지키고, 그 씨앗을 위해 흙을 준비하며, 길을 닦아 주는 이는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혜롭게, 적절한 시기에 그 말씀을 민족들과 국가들, 그리고 가정들에게 전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은 사람들이 이미 기대하고 있을 때, 내 약속을 기억하며 마음이 기대에 차 있을 때, 자기 위대함, 오만, 물질주의, 허영이라는 깊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닿을 것이다.

30. 내 말씀의 선포를 둘러싸고 모인 백성아, 너희는 내 오심을 기대하며 깨어 있을 줄 몰랐으니, 적어도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내 재림을 기대하지 않았으니, 적어도 지금부터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하기 위해 너희에게 온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내 사역의 가치를 이해하라.

31. 나는 너희 각자를 나의 제자로 삼고, 영원한 씨앗인 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너희를 찾았으며, 너희 안에 나의 씨앗을 뿌리고 가꿔 온 후, 너희를 나의 대리자로 삼아 다른 나라로 보내어 이 사랑의 선물을 모든 이웃에게 전하게 하려 했다.

32. 나는 내 자녀들의 믿음과 영성화를 간절히 갈망한다. 나는 너희에게 나 자신의 일부인 영을 주었으니, 그 영은 이 세상을 채우는 다른 피조물들보다 너희를 우월하게 만든다.

사람은 내가 그에게 부여한 특성과 미덕 덕분에 나와 닮아 있다. 나는 너희가 사랑과 자비의 행위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었다.

33.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여 내 가르침을 숨기지 마라. 너희가 품위 있게 준비하고, 내 율법을 따를 때 – 누가 감히 너희를 책망하겠느냐? 나의 가르침은 너희를 지극한 도덕성과 영성화로

이끄며, 너희는 다른 형태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이나 계층에 속한 이들과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단지 너희가 가장 순수한 영성의 인장을 드러내어, 이 사역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할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동료 인간들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하찮다고 느끼지 말고,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의무를 느끼라.

34.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준 것은, 너희 모두가 동등하게 소유하고, 평화롭게 살며, 이곳을 일시적인 거처로 삼아 너희의 능력을 펼치고, 너희 영혼이 새로운 고향으로 승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주님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 너희는 위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만큼 그 거처들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각자는 점점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이 "거처들"은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신성한 질서와 정의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35. 아무도 너희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걸 막을 수 없을 것이며, 각 단계의 끝에는 너희의 영과 나의 영 안에도 환호와 축제가 있을 것이다.

36.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는 것은,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첫 번째 행실만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치 그것들이 그 거처들로 통하는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단계를 마치고 잠시 멈춰 서서,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한 뒤, 큰 투쟁과 괴로움의 날들, 그리고 평화의 시간들이 깃든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는 것은 영혼에게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일이다. 결국에는 승리와 보상, 그리고 너희 주변에 빛나는 정의가 있으며, 너희 아버지의 영이 – 현존하시며 영광스럽게,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를 품에 안아 쉬게 하시며, 그곳에서 다음 단계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렇게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 마침내 최고의 성취에 도달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머물게 하실 것이다.

37. 우선 이 땅에서 너희의 사명을 다하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증오가 지배하는 곳에 사랑을, 그리고 이기심이 만연한 곳에 자비를 베풀어라. 너희가 이 길의 끝에 도달하면, 내가 너희가 이웃에게 베푼 것을 이자와 함께 갚아 주리라.

38. 이것이 바로 너희의 이해력 범위 내에 있는 나의 간결하고 분명한 말씀이다. 나는 너희의 경건함과 주의 깊은 태도에 기뻐했다. 나는 너희 각자에게서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새롭게

되며, 온전해지며, 영혼과 육체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는 열망을 봅니다. 그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인류에게 빛과 힘, 평화를 전하는 하나의 영혼으로 융합될 것입니다.

39. 내 신성의 빛은 모든 영 안에 있으며, 이는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이다.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영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빛은 너희가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너희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 준다.

40. 지금 너희의 영혼은 더 큰 빛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시대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너희의 완전함과 영성화의 목표이신 나를 향해 한층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41.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사다리가 오늘날 모든 영혼 앞에 빛나며 솟아오르고, 올라와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비밀들을 알게 되라고 초대하고 있다.

42. 지금은 영혼과 인간의 이성에게 명료함이 찾아온 때로, 너희는 과거에 이미 주어졌으나 상징적인 언어나 비유로 전해져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던 모든 계시의 내용과 본질, 또는 그 의미를 이제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43. 사람들의 영성 부족이 바로 신성한 메시지에 담긴 각 단어나 형상 속에 숨겨져 있던 진리를 이성이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해하지 못한 채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며, 너희가 영적 고양의 부족과 기도와 이웃 사랑, 그리고 겸손의 부족으로 인해 이 “비밀”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44. 나는 어디에나 계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결코 비밀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날 때 눈을 감거나,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나로부터 도망친다면, 나는 너희에게 계속해서 헤아릴 수 없는 비밀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45.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사다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느냐? 그 사다리는 영혼의 삶과 성장을 상징한다.

계시가 내려진 순간 야곱의 육신은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올라갔고, 그의 영혼이 빛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온 인류를 아우르는 그의 백성을 위한 영적 계시와 진리의 증거로 남게 될 천상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속적인 이름이 아니라 영적인 이름이기 때문이다.

46. 야곱은 그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는 영적 상승의 길을 나타내는데, 이 길은 땅 위에서 육신을 가진 몸으로 시작되어, 영혼이 모든 물질적 영향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빛과 본질과 자신의 빛과 본질을 하나로 합칠 때 끝이 난다.

47. 족장은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는 빛을 갈망하거나, 속죄하고 정화하여 영적 세계로 돌아갈 때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기 위한 임무를 띠고, 영혼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으며 오고 가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이 바로 완전함에 이르는 영적 발전의 길이다. 그러므로 야곱은 사다리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상징적 형상을 보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너희의 완전함과 노력의 목표이자, 끝없는 행복이라는 최고의 보상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는 힘든 투쟁과 긴 고통,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도달하기 위한 끈질긴 인내에 대한 보상이다.

48. 영혼은 항상 운명의 시련과 시험 속에서 상승하기 위한 공덕을 쌓을 기회를 발견해 왔다. 그 과정에서 모든 시험은 언제나 야곱의 사다리를 상징하며, 너희에게 한 단계 더 올라가라고 촉구했다.

49. 오, 제자들아, 이는 위대한 계시였으니, 영혼이 신성하고, 고귀하며, 순수하고, 선하고, 참된 것을 숭배하도록 깨어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적 삶의 시기에, 그 계시를 통해 너희에게 영적 삶에 대해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50. 그 메시지는 한 가족만을 위한 것도, 심지어 한 민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은 영적이었기에 보편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아버지의 음성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다.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너희는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51. 이 메시지는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영적 함의는 무한히 깊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어떤 징조나 영적 계시도 피하며, 이 메시지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으니, 어떻게 그들이 그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겠는가? 나 스스로가, 세상에 영혼의 각성이 막 시작되던 다른 시대에 너희의

사명을 격려하기 위해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해석을 너희에게 전해 주어야만 했다.

52. 날마다 징조가 나타나고, 한 시대의 종말을 너희에게 알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53. 인간의 과학은 인간이 물질주의 속에서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 사랑과 선, 그리고 완성을 지향하는 영적 이상에서 영감을 받은 과학은, 너희가 이룬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54. 너희의 과학적 진보가 상호 사랑을 동기로 삼지 않았다는 증거는, 민족들의 도덕적 타락이며, 형제상살의 전쟁이며, 곳곳에 만연한 굶주림과 비참함이며,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입니다.

55. 위대한 나라들은 오만함으로 솟아오르며,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무기로 세상을 위협하며, 지성과 과학을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들이 만들어 낸 이 허상 같은 세상의 취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 정의의 가벼운 숨결 하나만으로도 이 인위적인 세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손으로 직접 자신이 만든 것을 파괴할 것이며, 이전에 창조한 것을 파괴하는 방법을 고안해 낼 것도 바로 *인간의* 이성일 것이다. 나는 인간에게 좋은 결실을 안겨준 인간의 업적만이 남아,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에 해롭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모든 것은, 나의 무자비한 심판의 불길 속에서 파괴될 것이다.

56. 물질주의적인 인류가 *창조하고* 파괴한 세상의 폐허 위에, 경험을 토대로 하며 영적 상승 발전을 이상으로 삼는 새로운 세상이 솟아날 것이다.

57. 영성에서 비롯된 도덕성을 지닌 인류의 진보를 상상해 보라. 제한도 국경도 없는, 지구가 그 자녀들에게 베푸는 모든 생계 수단을 형제애로 나누는 인류를 상상해 보라. 만약 인간 과학이 상호 사랑을 이상으로 삼고, 인간이 기도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지식을 얻는다면, 그 과학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의례나 외형적인 예배 형식에 의지할 필요 없이, 그들의 *삶을* 통해 사랑과 믿음, 순종과 겸손의 예배를 나에게 바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 일일지 생각해 보라.

58.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진정한 *삶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그들은 평화를 호흡하고, 자유를 누리며, 오직 진리를 담은 것만으로 양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59. 너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생명이라기보다 죽음에 더 가깝다. 많은 이에게 그것은 지옥이며, 감옥이며, 포로

생활이며, 유배이다. 그 안에서는 평화를 알지 못하며, 자유를 누릴 수도 없다. 몸에도 영혼에도 건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토록 많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 기쁨도 없다.

60. 그러나 너희는 행복한 척하기 위해 애쓴다. 너희는 끊임없는 실패를 어떻게 감출지 고민한다. 너희는 행복한 척하기 위해 얼굴에 미소 짓는 가면을 씌우고, 발밑에 파놓은 심연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힘과 삶의 용기를 과시한다.

61. 예전에는 지구가 눈물의 골짜기였으나, 지금은 피의 골짜기입니다. 내일은 무엇이 될까요? 죄를 태워버리고, 영혼을 소홀히 한 사랑 없는 사람들의 오만을 무너뜨린 심판의 불길이 지나간, 연기가 자욱한 잔해의 전장이 될 것입니다.

62. 마찬가지로, 지혜의 성전에서도 과학을 *장사하는 자들이* 쫓겨날 것이다. 그들은 빛을 이용해 이자를 착취했고, 진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63.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미래의 시대는 어떤 것들인가?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며, 나도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 왜냐하면 의 사건들이 너희에게 전한 내 말씀의 성취를 점점 더 분명히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64. 나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행실의 모든 열매를 거두어 불에 태워버리라고 말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들의 씨앗을 모아 잘 간직하라고 말한다. 그래야 심판의 날이 지나간 후에도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으로서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65.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나의 말씀"이 이 인류를 깨우치고, 그들이 깨어나 영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돌아왔음을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66.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은 매우 제한적이며, 영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매우 미미하고, 그들의 믿음은 매우 작다.

67. 종교들은 수세기에 걸친 꿈속에서 잠들어 있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깨어날 때조차 내면에서만 활발할 뿐, 전통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울타리를 뚫고 나가려 하지 않는다.

68. 빛을 갈망하고, 순수한 영적 환경을 갈망하며, 진리와 진보를 갈망하는 자들, 곧 천대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박한 자들, 무지한 자들이야말로 그 울타리를 벗어날 것이다. 그들이 바로 영성화의 시대에 내 새로운 계시의 때가 다가옴을 느낄 때, 종을 울리고 깨우침을 알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69. 사람들은 영적 삶의 신비를 발견하고자 한다. 그것은 그들이 돌이킬 수 없이 들어서야만 하는 존재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70. 사람들은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빛을 달라고 묻고, 애원하며, 간청한다.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에게 전해지는 말은, 영적 삶은 신비이며, 그것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걷어내려는 소망은 오만이자 신성모독이라는 것이다.

71.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리와 빛을 갈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샘을 찾지 못할 것이다. 영혼들이 마시고자 갈망하는 그 지혜의 물을 하늘에서 내려보내실 분은 바로 나일 것이다. 나는 "비밀"들이 사라지도록, 나의 진리의 샘물을 모든 영과 모든 이성에 쏟아 부을 것이다.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을 위해 비밀로 자신을 감추는 이는 내가 아니라, 그 비밀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72. 비록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너희 는 단지 미미한 입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희 아버지 안에는 너희가 결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원 속에서 누구인지 알지 못해야 한다거나, 너희 자신이 스스로에게 뚫을 수 없는 비밀이 되어야 한다거나, 영적 삶에 들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 이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다.

73. 과거에는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영적 깨달음의 빛 속으로 나아가라는 광범위한 요청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지 과거의 인류가 오늘날처럼 알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이를 이해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류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헤매기는 했지만, 그것은 빛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라기보다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74.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이끄는 길을 찾고, 생명과 지혜의 샘물인 그 물을 받을 수 있게 되려면, 먼저 모든 외적인 숭배를 버리고 마음속의 모든 광신주의를 제거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마음속에서 살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신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감성과 진실함, 고양감과 진심 어린 정성이 가득한 새롭고 낯선 경건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기도가 될 것이다.

75. 이것이 빛으로의 상승의 시작이 될 것이며, 영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성령이 인간에게 진정한 기도를 계시할 수 있다면, 그분은 또한 자신이 지닌 모든 능력을 계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펼치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도 계시해 줄 것이다.

76. 너희는 아직도 내 현현에 대한 증언이 담긴 책들을 통해 배우거나, 너희 동료 중 더 많이 아는 이들이 그 지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직관적인 자들, 즉 영감에 따라 말하는 자들, 기도 속에서 빛을 받는 자들, 이 땅에서 배우지 않고도 과학자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들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77. 이 가난하고 무지하며 교육받지 못한 백성을 통해 나이와 나의 영적 세계가 전하는 계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를 증명하는 것이다 – 영에서 영으로 전해지는 계시를 통해 절정에 달할 시대의 시작이다.

78. 머지않아 인류는 가장 높은 영적 열망의 성취를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장애물도 없이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모든 사람은 진리를 알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그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서 그를 기다리며, 무한한 사랑으로 그를 품에 안고, 사랑을 담아 영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 즉 진리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가진 모든 이를 위해 영원이 준비해 둔 모든 아름다움을 보여줄 이는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316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제자: 스승으로서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나의 영은 너희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즉시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며, 너희를 그 빛으로 감싸기 위해 우주적 광선을 보내준다.

2. 나는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준비된 이성적 기관들을 향한다. 그러나 내 임재를 느끼는 것은 목소리의 매개자들뿐만이 아니다. 아니, 나는 어린 학생부터 제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 자녀들과 함께 있다. 그들 모두는 이 순간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

3. 진실로, 너희만이 나를 느끼는 것이 아니다. 너희 세상의 모든 곳에서 내 자녀들의 영혼이 가장 훌륭한 의사를 갈망하며, 그분으로부터 어루만짐과 치유의 향유,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해 솟아오르고 있다.

이제 인류 가운데 내 영이 드러나는 때가 되었으므로, 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내 존재를 느끼게 하고 있다. 나는 각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 내 모습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제자들의 믿음과 사랑을 북돋우고 있다.

4. 인류에게 제3의 시대가 온전히 도래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한 지 약 2000년이 지났으나, 흘러간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은 아직 온 인류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내가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가 나에게 경의를 표하며, 모두가 나만의 유일한 신성한 영을 찾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 사이에 일치를 보지 못하며, 그들 사이에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고양감, 그리고 동일한 깨달음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으로서 그들 모두를 내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고, 진리의 가르침과 변함없는 말씀, 사랑과 정의의 법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온다.

5. 이 인류의 대다수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칭하지만,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기독교인이라면, 그들의 사랑과 겸손, 그리고 평화로 이미 나머지 사람들을 이겨냈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내가 이미 제2시대에 유언으로 남긴 가르침은 인류의 마음속에 없으며, 사람들의 행실 속에서 살아 숨 쉬거나 꽃피지 않고 있다. 그 가르침은 먼지 쌓인 책 속에만 보관되어 있을 뿐이며, 나는 사람들에게 책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책 대신에 나는 너희에게 나의 삶과 말씀, 행적,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나의 고난과 죽음을 가져다주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인류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의 평화도,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즉, 사람들이 그분을 본보기로 삼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6. 불의의 왕국이 인류 가운데 지배권을 장악한 것은, 사람들이 나의 계시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제3의 시대에 와서, 그들에게 과거 시대의 나의 교훈을 상기시켜 주려고 온다.

7. 왜 오늘날 불의의 왕국이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자들을 통치자로 보고, 사랑과 겸손으로 주인이 되어야 할 자들을 "노예"로 보기 때문이다.

8. 도둑질을 하고 타인의 선의를 속이는 자를 나는 부자로 여기며, 폭군들은 칭송받고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사람의 피로 손을 더럽힌 자는 높은 왕좌에 올려지고, 인간의 잔혹함의 희생자들은 모욕을 당한다.

9. 인류여, 이것이 내가 너희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수많은 기관들을 보지만, 그곳에서는 진실함도, 사랑도, 자비도 흘러나오지 않는다. 나는 종파와 교회의 품 안에서 성직자들이 일어나 신도들에게 "선행을 하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뿐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에게 선을 베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고 말해야 한다.

10. 나는 진실함도, 성실함도 보지 못하노니, 이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악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율법에 충실하게 남아, 나의 사랑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통을 견뎌낸 이들이 있다.

11.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율법에 충실했던 이들을 통해, 나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말하노니: 선을 굳게 지키고, 과거의 내 본보기를 기억하며 그 본보기를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는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12. 나는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많은 교훈을 드러내 보였으며, 그 가르침은 너희 영혼이 내게로 올라갈 수 없었기에, 내가 너희에게 제3의 시대를 위해 준 준비였다. 나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오셨고, 태어나셨으며, 인간으로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 나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나는 너희에게 높은 저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 주었으니, 이는 너희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너희 앞에서 일곱 봉인의 책, 곧 위대한 생명의 책을 펼쳤으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인한 나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나는 그 시절에 다섯 번째 봉인을 풀었다.

13. 오늘 나는 인간으로서 너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와서 너희를 가르치려 한다. 이는 너희가 영에서

영으로의 계시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시가 완전함에 이르도록, 나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계시는 1950년에 끝날 것이며, 그때 이 제자들은 제자가 되어 영과 영의 교감을 통해 그들의 스승과 연결될 것이다. 비록 내 눈에는 그들이 나의 제자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훌륭한 스승들이 될 것이다.

14. 오늘 나는 제2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너희와 그 사람들은 하나이며,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이자 증인이다.

15. 시련들이 너희의 길을 가로막아 왔다. 그러나 그 길에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너희는 내게 등을 돌리지도, 나를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의 증인이었고, 이 시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16. 너희는 나의 계시에서 제2시대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는 내가 성령의 빛을 통해 너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진리를 계시해 주었으며, 영과 영의 대화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롭고 지극히 위대한 가르침을 너희에게 계시해 줄 것이다. 제6의 봉인 전체 내용을, 내가 제7의 봉인을 풀게 될 시기를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이 계시의 시대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될 것이며, 영적 세계가 모든 영혼의 고향이자, 높은 저 세상에서 너희를 기다리는 무한하고 경이로운 아버지의 집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로 행한 행위에 대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17. 이 시기에 너희의 영혼은 나의 계시로 충만해 있다. 그것이 음성 전달자를 통해 받은 것이든, 아니면 너희의 영적 은사 덕분이든 말이다.

18. 지금 이 시기는,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을 해 주며, 버팀목이 되어 줄 형제를 단 한 명도 찾지 못하므로, 너희가 내게로 오는 때이다. 나는 너희가 운명의 시련을 겪을 때 너희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해 주는 신성한 십자가를 지신 이이기 때문이다.

19. 영성주의를 통해 너희는 너희의 소명에서 영적 속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으며, 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너희는 나의 뜻에 따라 미래로 나아가고,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너희 길에서 닥치는 시련들을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로 여긴다.

20. 너희의 양심은 잠들지 않는 재판관으로서, 항상 너희에게 이웃과 너희 자신을 위해 중보하며 옹호하라고 조언한다.

21. 왜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비참함과 파괴를 가져오는가? 왜 그들은 타인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가? 영적 성숙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그들이 나의 율법을 지키는 길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22. 폭력이 휘몰아치는 순간, 너희는 동료 인간을 죽이기 위해 살인 무기를 집어 들 수 있겠느냐? 아니,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혹독하게 시험한다 해도 너희 중 누구도 그럴 능력이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인가? 모든 피조물에게는 각자의 운명에 따라 성취와, 내게로 돌아갈 때가 정해져 있음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람의 피를 흘릴 때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대가를 기억하고 있으며, 내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같은 존중심을 느끼기를 바라고 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오늘날 불의의 지배는 절정에 달해 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인 영성주의는 세상의 그 어떤 구석도 그 존재가 미치지 않는 곳을 남기지 않을 것이며, 내 가르침이 일단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내 정의의 왕국이 다스릴 것이다.

23. 이 신성한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올바르게 이해되는 날이 오면, 더 이상 자살이나 살인은 없을 것이며, 아무도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을 것이고, 하물며 이웃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더욱 없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시험할 것이며,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가르침을 전했던 것처럼, "말씀"인 나는 모든 내 자녀들에게 내가 들리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4. 내가 제2시대에 너희에게 모든 눈이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온전한 진리 그대로 나를 보고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내 약속을 이루겠다.

25. 이것이 바로 스승님께서 너희에게 내 가르침을 전파하는 너희의 사명이 어렵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이다. 땅이 비옥해졌기 때문이며, 선한 일꾼인 너희는 날마다 그 땅을 더 잘 가꾸는 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만이 내 가르침의 유일한 전령이나 대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라. 영적 세계 또한 현재 인류 가운데서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형제자매들을 미래 세대를 위한 내 가르침의 선구자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6. 자연을 통해 너희는 이 시대에 내가 오셨음을 알리는 징조를 보았다. 나는 현재 인류에게 징조를 주며 과학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올해 1950년에 나는 내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뒤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시련 속에서 길을 잃겠지만, 반면에 깨어나는 이들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건들이 지난 후에 나는 성령으로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 제3시대의 계시를 지닌 나의 제자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27. 그들이 초보자로서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나는 완전한 스승으로서 그들을 용서하고, 너희를 매개로 하여 현재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너희에게 맡긴 준비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 모두가 사랑으로 내 가르침의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위대한 계시를 선포함으로써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며, 너희는 기쁨으로 내게 말할 것이다. "스승님, 당신의 지혜는 참으로 끝이 없나이다."

28. 제자들아,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선한 일에 꾸준히 매진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세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내 곁에서 너희 선행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의 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당장은 그것이 어떤 것일지 알지 못하며, 상상하려고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깨어 기도하라. 말과 눈빛, 기도로 내 사랑의 씨앗을 뿌려라. 자비는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니, 너희 이웃에게도 그렇게 행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구원을 바라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여, 너희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내 뜻대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베풀게 될 것이다.

29. 오, 성령의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바로 그렇게 보고자 하노라 – 평화의 사자로서, 몸과 영혼의 의사로서, 신성한 덕성의 씨 뿌리는 자로서. 너희는 결코 위로와 치유, 평화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하루의 일이 끝날 때까지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수고는 나의 신성한 어루만짐으로 정점을 이룰 것이며, 나는 나의 축복이라는 영원한 축제 예복으로 너희 영혼을 강하게 할 것이다.

30. 너희는 이제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그 가르침 속에서 나는 1950년 이후 너희의 연합을 간청한다. 만약 너희가 더 이상 이 계시를 받지 못한다면 – 그때

누가 나의 자리를 대신하겠느냐? 누가 목소리를 높여 신성한 스승의 가르침을 상기시킬 것인가? 경외심과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며, 내가 를 통해 너희에게 가르침을 전했던 대변자들조차 두려움을 느낄 것이며, 심지어 자신의 교인들과 친숙한 교회 지도자들조차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 제자들아?

31. 백성: 이제 나는 한때 세상에 남아 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남았던 이들, 즉 제2시대의 제자들에 대해 말하리라.

32. 예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그분의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은 선교 여행을 떠나 도시들을 누비며 가정을 방문하고, 멀리 떨어진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썼다.

33. 신성한 말씀은 마치 새로운 새벽빛처럼 인류의 삶을 비추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살아왔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34. 제자들의 입술과 행위에 담긴 나의 가르침은 무지와 우상숭배, 물질주의와 싸우는 사랑과 빛의 칼이었다. 자신들의 신화와 전통이 곧 무너질 것을 예감한 자들 사이에서는 분노의 외침이 터져 나왔으나, 동시에 진리를 갈망하고 죄의 짐을 진 이들의 희망과 믿음을 위해 펼쳐진 빛나는 길을 마주한 다른 이들의 가슴에서는 환희의 찬양이 흘러나왔다.

35. 영적인 삶을 부정하던 자들은 천국에 대한 계시를 듣자 분노에 휩싸였으나, 그 존재를 예감하고 거기서 의와 구원을 기대하던 자들은 아버지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렸다.

36.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축복받은 갈망을 간직해 온 사람들은, 내 말씀에 깊이 몰입할수록 그들의 길이 밝아지고 이성이 맑아지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의 영과 마음에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참된 영적 양식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 안에 있던 헤아릴 수 없는 공허함을 채워 주었고, 그 완전함과 깊은 의미로 그들의 영이 품고 있던 모든 갈망을 넘치도록 충족시켜 주었다.

37.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영원으로 이끄는 더욱 빛나는 길이 열렸다.

38. 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믿음의 빛을 받은 이들에게서,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고양과 사랑, 그리고 다정함의 감정이 깨어났는가! 단 한 순간도 낙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극복할 줄 알았던 그 마음들에는, 얼마나 큰 용기와 불굴의 의지가 함께했는가!

39. 혹시 스승님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오, 백성들아: 신성한 사랑의 물질적 화신이었던 그 피의 영적 정수는 마르지도 않고, 결코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존재하며, 살아 있고 생명의 온기를 띠고 있다.

40. 그 이유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웠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고 심지어 피까지 흘렸던 그 마음속에도 진리에 대한 사랑이 함께 존재했기 때문이다.

41. 그 너그럽게 바쳐진 피는 장애물과 시련을 극복했다.

42. 내 말씀의 제자들의 영성과, 옛 전통에 얽매인 광신자들이나 오직 육체의 쾌락만을 좇아 살았던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물질주의, 이기주의, 무지 사이에는 얼마나 큰 대조가 드러났는가!

43.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 뿌리 깊은 곳까지 뒤흔들렸고, 많은 민족들이 마음속에서 오래된 전통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시작한 말씀에 전념하게 되었다.

44.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대한 가르침을 드러내고 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맞이한 적이 없었다.

45. 그 당시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풀어냈는가? 얼마나 많은 빛이 그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이성을 가득 채웠는가! 스승의 그 다정함으로 가득 찬 말씀들, 지혜롭고 심오하면서도 명료한 비유들;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아이와 꽃을 예로 들었던 그 비유들; 오직 신만이 행할 수 있었고 세상이 '기적'이라 불렀던 그 강력한 기적들 – 이 모든 것은 마치 사막처럼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던 밭을 비옥하게 만들어 줄 새로운 아침 이슬과 같았다.

46. 그때까지 사람들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심지어 가장 작은 존재들 속에도 내재해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그 눈동자 깊숙이 들여다보며, 순수함과 직관적인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아이의 질문을 들을 때, 그들은 그 아이 그 자체 이상의 존재인 한 영혼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47. 덤불 속에 숨어 자라는 연약한 식물을 관찰할 때, 그들은 그 식물에게서 자라나고, 그 아름다움을 꽃으로 피워내며, 창조주가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열망을 즉시 발견했다.

48. 그리하여 그 사람들은 마치 전에는 본 적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깨어났다. 이는 그들이 "눈이 멀어"

맑은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했고, “귀가 먹어” 듣는 귀로 아무것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시력, 청력, 목소리, 운동 능력, 의지, 지성, 그리고 감각 능력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로 왔으니, 이는 육신의 감옥에 갇힌 그들의 영혼이 그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나 영생의 책을 읽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함이었다.

49. 이제 내 말씀을 처음 듣는 이들이여,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세상에 신성한 계시를 소박하고 명료하게 해석해 주는 이들이 아직 남아 있는가? “아니요”라고 너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내게 대답할 것이다. 세상이 과학 분야에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것은 영성으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임을 너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가 담고 있는 의미나 영적 본질을 찾는 대신, 그들이 관심을 가져온 것은 물질과 순전히 물질적인 힘의 발견이었기 때문이다.

50. 내가 왜 사람들에게 돌아왔는지 깨닫고, 내 말씀이 너희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하라. 이 시대에 인류 가운데 영성화와 상향 발전을 향한 새로운 회심의 기적이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서 배우라.

51.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물려주는 나의 가르침이 담긴 책이다. 그 안에는 너희 가운데서 나의 사역을 이어갈 기록들이 담겨 있다. 너희가 더 이상 이 형태로 나를 듣지 못하게 될 때,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계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52. 나의 가르침을 읽을 때, 너희는 나의 지혜와 위대한 메시지, 그리고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계의 조언들을, 그것을 받았을 때와 같은 향기로운 기억으로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 시기는 연구와 해석, 준비에 전념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영감으로 받은 나의 가르침을 유창하게 전달하는 이들이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믿게 하려면, 그들의 준비는 얼마나 철저해야 하겠는가. 오늘 여러분은 황홀경에 빠져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대변자들을 바라보며, 비록 어떤 이들의 불신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전달자들을 통해 나의 계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사람들이 평소의 상태에 있는 나의 제자들이 신성한 계시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53. 너희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 영감 아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의심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너희 는

믿음을 얻기 위해 큰 준비와 영적 순결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나는 계속해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는 이가 한 사람이든 군중이든, 청중이 선별된 사람들이든, 무식한 사람들이든, 소위 학자들이든 상관없이 – 어떤 이에게나 모두에게 나는 너희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이다. 너희가 준비하는 법을 안다면, 나는 너희의 말을 듣는 이들이 요청하는 증거들을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삼위일체-마리아적 영의 사역을 계속해서 뿌려 나갈 것이며, 성령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의 계시를 심어 나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와 너희의 유대가 1950년 말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그분의 자녀들 사이의 유대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54. 제3의 시대에 나는 내 계시의 명료함을 통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 즉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나 자신을 전달하는 일을 실현하였다. 제자들아, 나를 깨달아라.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영과 영의 대화 속에서 너희는 영원히 나의 현존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법을 안다면, 더 이상 나에게 "주님, 왜 오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고통을 보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는 자신의 무지와 준비 부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제자들이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가 마음속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 "스승님, 당신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신을 느낍니다. 당신의 지혜는 나의 영감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서 듣고 싶은 진정한 고백이다.

55. 나는 나의 새로운 사도 무리 속에서 도마와 같은 사람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요한의 헌신을 보고 싶다. 너희 모두가 언제나 너희 영혼 속에서 나를 느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나 앞에서 노예처럼 느끼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는 새로운 광신주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56. 너희가 사명을 수행할 때는 내 가르침에 영적으로 온전히 몰두하고, 세속적인 의무를 다할 때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해 헌신하라.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대할 때 노예처럼 느껴서는 안 된다. 내 가르침이 전하는 진정한 영성을 갖추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황제"의 것은 "황제"께 바치도록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평화를 누리고, 멈추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며 행복해질 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나의 증인이라고 떠벌리지 말고, 너희의 행실로 너희가 나의 진리를 심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57. 1950년 이후로 내가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너희에게 내 말씀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보편적 영은 결코 쉬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한 활동 그 자체이며, 언제나 나의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해지도록 싸우고 있다. 나는 내 자녀들의 성장 여정에서 동행자이자 조언자이며, 각 성장 단계가 끝날 때마다 내 법 안에서 그들이 사명을 완수한 결실을 받아들이는 이 또한 바로 나이다.

58. 나는 완전한 정원사이며, 열매가 아직 푸를 때는 그것을 따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폭풍으로 변하여 나무들을 흔들어 나쁜 열매는 떨어뜨리겠지만, 좋은 열매는 나의 사랑이 지켜줄 것이며, 나의 영은 그들의 진보와 발전을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59. 산 정상으로 이끄는 길을 따라 올라가라.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신성한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완전해질 것이다.

60. 영의 언어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영들의 보편적인 언어이다. 인간의 사랑도 말을 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종종 말은 필요하지 않으며, 행동과 생각을 통해 더 잘 표현된다. 인간의 사랑이 이미 이렇게 표현된다면, 너희가 나의 법 안에서 온전해질 때 그 언어는 얼마나 더 위대하겠느냐?

61. 제자들아, 굳건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라. 시련과 역경 앞에서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고, 내 발자취를 통해 그 길을 축복으로 남겼음을 기억하라.

인류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위로와 치유의 고갈되지 않는 원천이신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이 선물을 너희 이웃들에게도 전하라.

62. 이 순간, 나는 내 자녀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 그 씨앗을 싹 틔우는 비옥한 땅과 같을까? 오늘 너희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훌륭한 일꾼이 된다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죄에 빠진 자, 사랑과 평화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내 가르침을 뿌리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63. 너희는 모든 이에게 내 말씀의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을 심어야 하며, 그 보물은 너희 영혼 안에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64. 너희 모두가 신성한 정원사의 일꾼이 되고, 너희 모두가 나의 사랑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는 것은, 너희 모두가 내 사역의 절정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5.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므로, 너희 모두는 내 식탁에 앉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는 내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될 것이다. 그곳에는 탕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 모두는 내 왕국을 차지하고 가장 아름답고 고양되는 연주를 듣게 될 것이다. 너희 영혼은 마침내 너희 아버지이자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므로,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17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너희가 준비된 모습을 본다. 너희는 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영적으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너희의 여정에서 너희는 나의 임재를 경험해 왔다 – 그것이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든, 나의 보호를 주었든, 아니면 너희 양심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셨든 간에 말이다. 나는 너희의 인도자이자 스승이 되기 위해 너희 마음속에 거하고자 한다.

2.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라고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 말씀은 너희 영혼을 양육하는 양식이며, 내 임재는 너희가 갈망하던 평화를 가져다준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가! 너희는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평화와 위로를 찾았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자 내게로 돌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 영혼의 평화와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이스라엘아, 이 시련의 시기에 기도 속에서 나를 찾도록 배워라. 만일 시련이 더 커진다면, 빛나는 등대나 구명정처럼 나를 찾으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할 것이니. 나를 찾는 자는 누구나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든 영혼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 그들은 내 말씀을 듣지 않았으나,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내 가르침을 듣고 있다.' 그리고 스승께서는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기 네 구원의 청지기가 있다. 여기 내 제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 그들이 너에게로 향하여 나아가 내 교훈을 전하고, 영생의 양식을 줄 것이다. 네가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그것을 전할 때, 그 양식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으니, 그 당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 불완전해 보였기 때문이다.

4.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길에서 벗어났는가. 나는 그들을 다시 부르겠고, 내 진리의 증거를 그들에게 주겠으며, 그들은 나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마음에 뿌려 놓은 생명과 영성의 씨앗이 믿음 안에서 꽃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가 그들 안에서 빛을 발할 것이며, 그들은 동료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 가운데 계셨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셨음을 고백할 것이다.

5. 사람들이 어떻게 내 행적을 판단하고 내 가장 깊은 심판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자유의지, 즉 자기 자신의 뜻을 주었으며, 이러한 은사들 때문에 그들을 시험에 처하게 하였다. 믿은 자들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였고, 믿음을 굳건히 했으며, 내 계시의 의미를 양식으로 삼아 영의 영역으로 승화되었다.

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영과 너희 영의 만남은 내세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너희가 기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순수함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나를 만나도록 가르쳤으니, 이는 내가 그 시절에 인간의 모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만 내 피조물들의 이성과 마음을 빌려, 그들을 통해 나를 드러냈을 뿐이다.

7. 나는 가장 늦게 온 자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계시를 알게 하려고 이 가르침의 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교훈들을 반복해 왔으며, 많은 이들이 나의 사역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자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해 나의 가르침을 반복했다. 나는 너희에게 엘리아스가 로케로하스를 통해 제3의 시대를 열었으니, 너희가 너희의 길에서 신성한 스승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8. 사랑으로 나를 경청하고, 내게로 와서 내 말씀의 본질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빛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혜를 통해 그는 나의 사역을 이해하고, 1950년 이후에도 그것을 실천할 줄 알게 되며, 당당히 나의 제자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9. 나는 너희 모두를 "나의 제자"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러나 좋은 제자는 가르침에 충실해야 하며, 스승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10. 너희는 이 땅에서의 영적 투쟁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너희 영혼은 이 세상을 넘어 기다리고 있는 저편 삶으로 들어갈 때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임을 예감하게 한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이 끝났을 때 쉼이 없다는 생각에 결국 어느 정도의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슬픔은 영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영원하지 않아 영원을 마주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육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1. 영혼에게 영원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혼이 천국을 생각할 때, 그것이 끝이 없음을 알고, 속죄를 생각할 때, 자신의 잘못을 씻고 온전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임을 압니다.

12. 너희의 세속적인 본성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의 영적 평온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이 기대하는 휴식은 활동이며, 선을 행하는 데 있어 배가되는 것이며, 매 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때 영혼은 휴식을 취하고, 자기 비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며, 선을 행함으로써 활기를 되찾고, 창조주와 형제자매들을 사랑함으로써 회복된다.

1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내가 너희 영혼이 지상에서 상상하는 대로 쉴 수 있도록 가만히 두었다면, 절망과 두려움의 어둠이 그 영혼을 사로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생명과 빛, 그리고 그 가장 큰 행복은 일과 투쟁, 끊임없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14. 땅에서 "영적 계곡"으로 돌아오는 영혼이, 육신의 피로를 마음속에 새겨 안고, 저세상을 쉬고, 잊고, 삶의 투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안식처로 찾는다면 – 그런 영혼은 가장 불행한 존재로 느껴질 것이며, 무기력함에서 깨어나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내가 방금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인 영적 삶, 즉 사랑과 활동, 그리고 완전함으로 이끄는 길 위에서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승화할 때까지는 평화도 행복도 찾지 못할 것이다.

15. 반면 이 땅에서 너희의 영혼은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덧없는 이곳에서 억눌린 기분을 느껴야 한다. 이곳에서 영혼은 인간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죄와 불의로부터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육신이 강요하는 휴식의 욕구가 아니라, 모든 악에 대한 혐오, 모든 부정한 것에 대한 거부감, 부도덕함이나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끊임없이 싸우고 고통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지겨움입니다.

16. 만일 사람들이 이 현세에서 순수한 삶을 살았고, 자신의 몸을 영혼이 머물기에 합당한 거처로 준비해 두었다면, 피로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혐오나 기피감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육신을 벗은 영혼은 휴식을 통한 회복을 갈망하며 영의 세계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 그 영혼은 힘과 믿음을 가득 안고 도착하여, 세상에서 결코 멈출 수 없었고 죽음조차도 끝내지 못한 그 투쟁, 즉 매일의 사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17. 나는 투쟁이 끝나고, 나의 모든 자녀들이 영원한 영적 고향에서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너희 각자가 신성한 사업에 건설적이거나 회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너희가 *창조주로서* 나의 무한한 행복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18. 너희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태초부터 창조한 모든 것 중에서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부활하고, 모든 것이 생명으로 되살아나며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19. 그러므로 오랫동안 길을 잃고 방황했던 수많은 존재들이, 생명의 일을 행하는 대신 파괴적인 일을 저질렀던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방황의 시간이 단지 일시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나빴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 속에서 속죄를 얻게 되고, 그들이 나의 끊임없는 창조 사역의 협력자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20. 인류가 지구에서 겪었던 몇 세기의 죄와 어둠이, 끝없는 발전과 평화의 시간인 영원과 비교할 때 과연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자유 의지에 따라 나로부터 멀어졌으나, 양심의 이끌림을 받아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21. "육신"은 너희가 양심이라 부르는 그 내면의 빛의 지시를 따르기에는 너무 완고하고 반항적이었으며, 본능과 정욕을 제멋대로 방종하게 만드는 충동에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22. 인류는 결코 잠잠하지 않았던 양심과, 물질주의를 숭배와 법으로 삼고자 하는 '육신' 사이에서 오랫동안 치열한 투쟁을

벌이며 이 땅에서 삶의 길을 걸어왔으나, 그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에 오늘날까지도 물질도 영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23. 너희는 누가 승리할 것인지 내게 묻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양심의 절대적인 승리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24. 이토록 많은 투쟁과 오랜 고군분투 끝에, 인간적이고 덧없는 육신이 나의 영원한 빛이신 영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짐작하지 못하느냐?

25. 이토록 긴 대립 끝에 인간은 마침내, 자신의 본성 속에서 진동하며 살아 숨 쉬는 그 목소리와 영적 삶에 대해 이전에는 결코 가져본 적 없던 감수성과 유연함을 얻게 될 것임을 깨달으라.

26. 너희는 모두 깨닫지 못한 채 그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지상에서 선과 정의의 승리를 목격하게 될 때, 너희는 그 투쟁과 전투, 그리고 시련의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27. 나는 너희가 이러한 준비를 통해 너희의 길을 선한 본보기로 가득 채우고, 그리하여 너희가 나에게서 받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증언하기를 원한다.

28. 이 계시가 일단 끝나면,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너희의 이해력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것으로 여길 것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인류가 더 크게 발전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29. 제자들아, 들으라. 이미 옛날부터 내가 오셔서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나를 드러내시리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영성 수련으로 이끄심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도록 준비하시리라.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오늘 나는 영적 세계의 둘러싸임 속에서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으며, 저 세상에서 다른 영혼들은 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가올 시대에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올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민족들을 다스릴 자들이 있으니, 곧 그들의 큰 덕행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의 계명을 따르게 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자들이다. 그들은 너희 뒤에 올 것이다.

30. 나의 사역은 점점 더 커져, 마침내 모든 영혼이 나의 율법을 성취하며 하나가 되고, 이 지상의 거처가 완전함의 세계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시기에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은 모든 피조물 속에서 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며,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지상 세계는 너희 영혼에게 단지 일시적인 곳일 뿐이며, 영혼은 완전함을 갈망하며 다른 영역, 즉 내세의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처소가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이 더 큰 발전의 시기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의 집에는 무한한 수의 처소가 있다"고 말했노라.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미 가장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라, 제자들아. 이 행성에서의 너희 발전 단계가 끝나면, 내가 너희를 다른 거처로 인도할 것이며, 그렇게 하여 나는 너희가 완전함에 이르는 끝없는 계단을 따라 영원히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31. 멈추지 마라, 백성들아. 길을 알고 있으니 서둘러라. 나의 율법을 지키고, 사랑으로 살며,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모든 은사는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빛과 같을 것이다.

32. 내가 너희가 내 영의 일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때때로 너희 자신과 나를 의심하느냐? 왜 너희가 나의 속성을 지녔다는 것을 의심하느냐? 너희가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는데, 왜 길을 가다 시련을 만나면 불평하느냐?

33. 제자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준비시키고, 내 가르침의 책을 너희 마음에 새겨 넣는다. 너희가 고통 속에서 위로를 갈망할 때, 너희 마음속에서 내 말씀을 찾으라. 그러면 그곳에서 수정처럼 맑은 물의 샘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34.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무는 마지막 해인 1950년에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 나는 너희가 내가 요구해 온 영성화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이해했고 영적으로 회개했다. 너희는 나를 사랑했으며, 어떤 이들은 영혼을 가리던 더러운 옷을 벗어 던졌고, 다른 이들은 정화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 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물질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5. 나는 너희의 양심 속에 나의 빛을 두었으니, 너희가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불완전함을 없애고, 내가 나의 말씀을 통해 너희 영혼 속에서 발견하는 미덕들이 꽃피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를 사랑과 고통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었다.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내 말씀을 온전한 순수함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의 평화를 이웃과 나누고, 그들이 고통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36.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 눈에는 너희 모두가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장을 허락하고, 그 과정에서 너희가 고난을 겪는 것은, 내가 너희가 완전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37. 이제 너희에게 맡겨진 영적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사랑과 자비의 씨앗이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밭이 얼마나 메마른지 보아라.

38. 나는 너희를 선한 길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 내 가르침을 가지고 왔다. 나는 너희가 나의 빛과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아가도록, 너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한다. 내가 너희에게 설교한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너희가 내 가르침의 내용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의미를 결코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너희는 새로운 이스라엘, 곧 나의 진리를 증언할 백성이기 때문이다.

39.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너희 양심의 목소리가 너희를 일깨워, 너희가 인류 가운데서 높은 소명을 지니고 있으며, 수행해야 할 위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40. 너희 안에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 있고, 너희를 잠들지 않게 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느냐? 만약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거나 너희의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 너희를 쉬지 못하게 하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힘, 이 내면의 빛, 내면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목소리는 바로 너희의 양심이며, 그 안에는 내 법과 너희의 사명이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41. 이 내면의 인도자를 사랑으로 따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적 불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평화와 참된 만족이 남을 것이다.

42. 너희가 이 귀중한 순간들을 잘 활용한다면, 내일 잃어버린 시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도 않을 것이며, 실수를 한탄하지도 않을 것이며,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의 선한 행실들이 바로 나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아니면 너희는 동료 인간들이 불완전한 행실을 통해서도 나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43. 너희가 너무 적고 하찮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와 함께 보이지 않는 빛의 존재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행진할 것이며, 그들은 너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그 과정에서 장애물을 허물며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너희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44. 어둠의 세상에 맞서 여러분은 이 빛의 세상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은 평화의 천사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 전염병, 그리고 죽음에 맞서, 인류에게 자비와 위안의 향유를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자비를 여러분 곁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45. 나의 제자들은 결코 나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적이 없으며, 빛과 조화의 영역에 거하는 존재들에게 버림받은 적도 결코 없다.

46. 제2시대의 제자들 중 누가 영감을 받아 스승의 신성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모든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기록하게 했는가? 누가 내 제자들을 낯선 길을 따라 먼 도시들로 인도했는가? 누가 간수들이 잠든 사이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었으며, 누가 내 진리의 사도들이 희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힘든 순간에 곁을 지켰는가? 바로 사람들이 "천사"라고 부르는 영적 존재들, 곧 너희의 형제자매들이다.

47. 오, 너희가 그 영향이 너희 삶에 미치는 가치를 알기만 한다면! 너희는 그들의 부르심과 권고에 더 기꺼이 응하고, 더 겸손하며 순종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믿음이 약한 피조물들이니, 영적인 삶을 육신의 감각으로 만지고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얻지 못하자, 너희는 믿음 속에서 배신감을 느꼈다.

4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믿음이 확고했다면, 육신의 감각으로 영적인 존재의 현존을 느끼고자 하는 욕망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영혼이 그 섬세한 감수성으로, 너희 주위에서 끊임없이 맥동하는 그 세계를 인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49. 그렇다, 인류여, 네가 영적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 해도, 그 존재들은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 없다. 그들에게는 거리도, 경계도, 장애물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영혼의 상향적 발전과 완성이 최고의 소명인 인간 존재들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다.

50.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이며, 모든 영혼은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너희의 육체조차도 다른 이들의 것과 똑같이 창조되었다. 그런데도 인류여, 왜 사회 계급과 국가로 나뉘어 버렸는가? 나는 너희를 단 한 명의 자녀처럼 사랑하며, 마찬가지로 너희를 용서한다. 그러나 이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언젠가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며, 나의 사랑에서 영감을 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51. 너희의 여정에서 사랑으로 조언하고 바로잡되, 이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직 사랑하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의롭게 살아가라.

52. 준비하라. 내일 너희는 인류의 지도자이자 스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때에, 너희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내 가르침을 사랑으로 전해야 한다. 너희는 주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생각하며 이웃을 가혹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가 사랑 없이 이웃의 잘못을 벌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양심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여, 제2의 시대 때와 같이 이렇게 말하리라. "죄 없는 자만이 먼저 돌을 던지라."

53. 나의 가르침은 영원하다. 지금 나는 너희가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시대의 교훈들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듣는 것처럼, 제2시대의 제자들도 나를 들었었다. 너희가 지금 내 가르침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했다. 너희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그들도 고군분투했고 마침내 승리했다.

54.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사를 의심하듯이, 그 제자들 중에도 스승이 자신을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은밀히 그분의 말씀을 시험해 보던 이들이 있었다. 그들이 나의 본보기를 따를 때면, 그들의 준비가 맺은 열매가 그들의 행실에서 드러났다.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면, 그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마음에 의심을 품은 채 내게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내 말씀의 진리를 다시 듣게 되자,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나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55. 제자들아, 이 시대에도 나는 너희를 이와 같이 보고 있다.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믿음과 선한 행실을 보이지 않는 무기로 삼아, 사명을 수행할 때 내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 중 다른 이들은 – 나의 율법을 따르지 않은 채 –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나의 사자로 알아볼 수 있게 해 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했고, 그것을 얻지 못하자 나를 의심하고 부인했다.

56.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비록 그들이 오늘 의심할지라도 내일은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내일은 이 계시의 진리를 고백하고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것이기 때문이다.

57. 나는 내 율법 안에서 사는 자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모두를 축복하노니, 후자들도 내 가르침의 진의를 깨달았을 때, 내가 그들을 통해 인류에게 큰 증거를 보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신성한 영이 힘과 진실함,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의 이웃에게 쏟아져 내리도록 하는 확실한 매개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58. 이러므로 나는 너희, 제자들에게 기쁨을 느낍니다.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겪게 될 시련의 시간을 위해 너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59.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계속해서 나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비록 1950년에 이 계시는 대변자를 통해 끝이 나겠지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너희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할 것이며, 제자들을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갈라놓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을 것이다.

60. 내 말씀을 믿으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예언은 예언자들의 만족과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을 위해 성취될 것이다.

61. 깨어 기도하라. 시대가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의 법과 하나가 되라. 그러면 너희의 길을 가로막는 시련은 없을 것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아무도 너희 입술에 담긴 내 말씀을 침묵시킬 수 없을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단두대조차도 너희로 하여금 내 율법을 잊게 하지 못할 것이다. 희생된 어린 양에 대한 기억이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며, 너희는 내 신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게 될 것이다.

62.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너희를 통해 내 말씀을 듣게 될 이들에게로 향할 것인가.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 가르침에 대한 사랑으로 세속적인 재물을 버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게 될 것인가. 그러나 너희 육신이 이 세상의 재물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도, 나는 영원 속에서 너희 영혼을 나의 사랑으로 장식해 주리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오,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 중 누구에게도 희생적인 죽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말씀 속에서 너희에게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너희가 내 사역에 바치는 모든 것은 백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선한 행실로 너희의 길을 가꾸어라. 그러면 너희는 내세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63.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수난을 기념하는 오늘 아침, 내가 너희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다. 제자들아, 너희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현존하는 메시아의 희생의 죽음을 체험하며, 신성한 구세주의 모범으로부터 힘을 얻으라.

64. 이스라엘 백성아, 인류의 빛이 되어라. 내가 예수를 통해 그들에게 주었던 재림에 대한 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내가 내 말씀을 지켰다고 전하라.

65. 그 예언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으나, 나는 나의 새로운 사도들을 통해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66. 제자들아: 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아버지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한다. 아직 눈물의 골짜기에 머무르는 너희는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67. 인내심을 가지고 너희의 고난의 잔을 마시라. 이 쓰라림이 지나간 뒤에는, 너희는 영원히 내 사랑의 빵과 포도주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18

1. 내 가르침을 갈망하며 나아오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내 말씀 속에서 영생의 보화를 발견하는 법을 아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내 말씀이 이 대변자들을 통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게 될 때, 인류의 사도로 남기 위해 내 가르침으로 힘을 얻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너희들이다. 내 율법을 어긴 탓에 생긴 오래된 오점을 씻어내고, 고난의 잔을 비우며, 큰 슬픔 속에서 이곳으로 와서 내 가르침의 수정처럼 맑은 물로 너희 영혼을 정화하는 바로 너희들이다.

2. 오늘 이 모임에 오신 여러분은 내 임재 앞에 서기에는 자격이 없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새롭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며, 이러한 정화가 여러분을 내 곁에 설 자격이 있게 만듭니다. 나의 어루만짐을 느끼고, 나의 사랑을 느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통을 치유하는 치유제입니다.

3. 너희는 제2시대에 있었던 나의 수난을 — 이 형태로서는 마지막으로 — 기념하고 있다. 너희는 전통을 따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성령의 제자들은 전통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나의 법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직 그 신성한 사건들, 즉 내가 예수님을 통해 너희에게 남긴 완전한 가르침의 본보기를 기념하기 위해 온 것이며, 그것들은 너희가 스스로의 구원을 얻도록 영원히 가르쳐 줄 것이다.

4. 오늘 나는 그 가르침의 본보기를 기억하며 너희 영혼이 크게 동요하는 것을 보고 너희에게 말하노라. 오,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교훈들을 외면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유산이니라!

5. 너희는 내 말씀이 너희에게 주는 격려에 대해 나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이들도 있다. "아버지, 왜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 온 기적이 제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까?"

그러나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이 시기에 너희 삶에 기적들을 뿌려 놓았다. 나의 영으로부터 너희의 영으로 끊임없이 은혜와 은총이 흘러들어왔다. 영계의 중재를 통해 나는 너희 가운데 내 사랑을 쏟아부었다. 너희의 믿음과 선한 행실을 통해 너희는 이 기적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나를 믿기 위해 매일 기적이 필요한가?

6. 너희가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너희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러나 너희의 깨달음과 믿음이 영혼 속에서 빛처럼 타오르기 시작하자,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물질적인 증거를 주는 것을 멈췄다. 오늘날 제자로서 너희의 믿음은 모든 장애물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묻는다. "스승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너희에게 대답하노라. 믿음은 마음과 이성보다 더 멀리 내다보는 영적인 시선이다. 믿음은 진리를 보고 발견하는 시선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은 너희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꿰뚫어 보며, 이를 통해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든다.

7. 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는 뜻 깊은 아침 묵상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했던, 눈부시게 하얀 도시의 첫 번째 돌들이다. 이 영적인 도시는 이 세상에 그 기초를 두지 않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새 예루살렘이 너희의 지상 조국이라고 믿는다면, 너희는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 영혼 속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고 있으며, 눈부신 눈의 하얀색보다 더 하얀 이 도시는 온 인류의 구원이 올 때 모든 사람에게로 퍼져 나갈 것이다.

8. 오늘 내가 그 위대한 도시를 세우기 시작하기 위해 너희에게 오니, 내 백성들 사이에서 조화와 영성 함양이 부족함을 보게 되며, 너희가 아직 온전히 나와 함께 있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신성한 영이 고통받고 있다. –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너희에게 완벽하게 가르쳐 준 교훈들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저급한 정욕과 불화, 우상 숭배에 완고하게 매달리고 있다.

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허영 속에서 위대함을 찾지 말라. 그것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하신 영적인 것 안에서 그것을 찾으라.

10. 이러한 고양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굽히지 않는 의지, 그리고 조건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너희는 영혼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1. 그 길은 시련으로 가득 차 있기에 공덕을 쌓기에 적합합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오만을 버리고, 인내로 고통을 받아들이며, 허영과 정욕을 떨쳐내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그 길에는 너희가 도울 수 있는 많은 고통받는 이들이 걷고 있으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2. 모든 사람은 – 자신의 삶에 영성이 있든 없든 – 십자가를 지고 있다. 나의 말씀은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견뎌내어 가볍게 만들고, 심지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삼으라고 가르친다. 자신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미리 정해 놓으신 분이 바로 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의 뜻을 사랑하며, 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나의 평화와 빛, 그리고 힘에 참여하게 됩니다.

13. 자신의 사명이 주는 짐을 회피하거나, 바른 길을 벗어나거나, 자신의 영혼이 나와의 관계에서 맺은 의무를 소홀히 하고 대신 자신의 취향이나 뜻에 따른 의무를 떠맡는 자는, 그 영혼이 결코 만족스럽고 평온해질 수 없으므로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거짓된 기쁨과 덧없는 만족감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고통과 안절부절함을 잊기 위해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14. 나는 그들이 오늘 나를 떠나더라도, 나를 잊고 심지어 부인할지라도, 현실이 그들을 지상의 위대함에 대한 꿈에서 깨워줄 때, 즉 사람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영적 진리, 영원, 신성한 정의 앞에 서야 할 때, 세상의 부와 지위, 쾌락, 명예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곧 깨닫게 될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15.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낯선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모두 직관의 은사를 통해 너희 삶의 실상을 드러내 주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너희를 위해 마련된 길과 그 길 위에서 너희가 실현해야 할 모든 것을 말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삶의 주인이 되고자, 어떤 영적 서약에서도 반드시 벗어나고 싶어 한다.

16. 과연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해 종교들을 만들어 냈느니라.

17. 나는 이 인류에게, 예전에 유대 백성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 당시 나는 그들이 오래되고 이미 쓸모없는 전통을 따르느라 율법을 잊어버렸음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었다.

18. 어디를 가나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보인다. 어디를 가나 돌로 지은 교회들이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경의를 표하고 매일 나를 위한 의식을 거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내 가르침의 본질이자

시작이며 궁극적인 목표인 사랑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자신이 율법과 진리 안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내가 그 반대를 드러내면 불평하고, 누군가 너희의 오류를 지적하면 분노에 사로잡히게 내버려 둔다.

19.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내가 오늘날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너희가 바로 내 입술에서 진리를 듣게 될 때, 나를 새로운 갈보리의 십자가로 끌고 갈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 너희의 세상에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으로 왔으니, 너희는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볼 수는 없겠지만, 나를 들어야만 한다. 너희는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나를 만나려 한다. 그러나 너희가 한 번 나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나를 경배하기 위함일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나에게 말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나 그의 이성을 비추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 오늘 나는 나의 새로운 제자들 가운데서 여전히 베드로의 연약함, 도마의 의심, 유다의 야망을 발견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계속해서 스승으로서 너희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21. 오늘, 1950년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행하는 이 마지막 기념식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예루살렘에 승리의 행렬을 지으며 입성하여 십자가 위에서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라.

22. 이 순간들을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경건함으로 영적으로 체험하십시오. 아니, 내가 바로 지금 제3시대의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이 말씀들은 너희 영혼이 여정을 이어가는 내내 영생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너희의 방패이자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가르침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사랑의 불꽃으로 너희 양심에 깊이 새겨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준 그대로, 이웃들의 마음에도 이를 새겨 넣을 수 있을 것이다.

23. 인류의 상당수가 이 전통을 기념하고 있으며, 나의 영은 모든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

24. 이것이 바로 내가 영혼들에게 주는 준비이다.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간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영성화는 그 열매로서 민족들 간의 형제애와 사랑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 이 행성에서 영적 조화의 밝은 빛이 비추어 모든 세계에서 그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곳은 나의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눈부시게 하얀 도시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을 지켜보던, 신을 살해한 도시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순교의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가실 주님이자 아버지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새롭게 태어난 도시가 될 것이다.

25. 스승님께서 옛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그것은 그 민족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 그토록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눈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스승께서는 자녀들을 안아 주기 위해 아버지 같은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눈이 멀어 마음을 닫아버린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들의 애정을 느끼실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분은 불신과 조롱, 비웃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 세속적인 도시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분은 그 도시의 멸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인류를 향해, 아버지가 찾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찾으실 것은 죄의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영적인 양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6. 내가 제2시대에 너희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성령으로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제한된 형체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27. 나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셨고, 너희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나 너희 민족에 대해 광신적으로 집착하지 말라. 그 민족은 이 시대에 너희의 피난처였을 뿐이며, 지상의 다른 어떤 민족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내 말씀을 듣도록 정해진 너희는, 너희 영혼의 연합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시작할 참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다.

28. 오늘날 너희는 이 세상에서 평화의 왕국을 바라보기에는 아직 멀었다. 모든 이기심에서 벗어나라. 비록 현재의 인간 삶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자신을 잊고 타인을 생각하라고 가르쳤다. 왜 너희는 항상 오로지 자신의 안녕만을 추구하며, 온 인류를 돌보는 일을 오직 나 혼자에게만 맡겨 두는가? 너희 주변에는 너희의 말과 기도, 사랑이 부족한 많은 이웃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너희가 낭비해 버린 이 계시들이 주는 풍성한 은혜가 결여되어 있다. 이 밭을 가꾸고, 너희의 사랑으로 비옥하게 하라.

만일 내가 너희를 저 세상으로 불러갈 때 그 일을 미완으로 남겨둔다 해도, 걱정하지 말라. 육신의 죽음이 너희의 사명 완수를 끝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9. 나는 생명이요, 나는 영원하며, 너희가 시작한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너희를 내 곁에 머물게 하였다. 나를 신뢰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단 한 알의 씨앗도 헛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수확은 완전할 것이다.

30. 너희 뒤를 이을 후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너희의 덕행의 흔적을 뚜렷이 남기라. 내가 너희를 그 세대들로 되돌려 보내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즐거움과 고통 속에서, 평화와 투쟁 속에서 덕을 실천하라.

31. 나의 정의와 사랑의 법을 따르라. 너희가 나의 최상의 계명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가능'이란 없다. 나는 너희에게 완벽한 행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희가 삶의 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타락의 요동치는 바다에서 죽지 않기 위해, 양심의 구명보트에 매달려 그곳에서 싸우고 있다.

32. 물질주의의 가르침이 초래하는 영혼의 거대한 대격변과 암흑은 인류에게 고통의 잔과 중대한 사건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33. 너희 행성은 여전히 사랑이나 미덕, 평화의 땅이 아니다. 나는 너희 세상에 순수한 영혼들을 보내지만, 너희는 사람들의 삶이 죄와 타락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불순한 상태로 내게 돌려보낸다.

34. 나는 이기심과 복수심, 증오의 폭풍에 휩쓸리는 영혼들 사이에서 미덕들을 마치 작고 흩어진 빛들처럼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나에게 바치는 열매이다.

35. 너희 영혼이 이 세상에서 평화와 조화를 찾기 훨씬 전부터, 너희의 물질은 이미 그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36. 인간이 이 행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완전한 지혜와 자연의 힘을 통해 이 지구를 뒤흔들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거주하기 전에는, 이 땅에 원시적인 짐승들이 살고 있었다.

37. 이 세상이 기쁨과 경이로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안식처로 변모했을 때, 나는 그것을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인 인간에게 내어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가 이 땅에 거주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였으니, 삶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또한 곧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진정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너희는 나를 깨달을 것이며

참된 지식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38. 사랑 없이, 오직 인간 과학의 지식에만 이끌려 자연을 탐구하는 자들은 나를 부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는 법을 알지 못했고,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느끼거나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겸손한 자들 가운데, 경멸받는 자들 가운데, 인류를 자처하는 학자들의 교만과 무지 때문에 모습을 비하당하는 이들 가운데, 알지 못하면서도 믿었던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믿음의 시선이 진리를 직접 바라보았기 때문이며, 그들은 이 행성이 태초부터 인간을 위해 존재해 왔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 은혜와 조화, 축복의 낙원.

39. 너희는 모든 존재의 완전함을 깨달았을 때, 내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각자의 길에서 제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의 계명에 복종하며, 모든 것이 나의 법칙에 순종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너희는 이미 그 법칙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믿고 있으므로, 너희 본성의 근원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삶 속에서 많은 교훈을 발견했으며, 너희를 배신하지 않았던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을 신뢰해 왔다.

40. 너희는 땅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다. 땅은 너희에게 마치 축복의 샘과 같아서, 항상 양식을 베풀어 주었고, 기쁨으로 가득 찬 낙원을 선사해 주었으며, 너희의 지상 생애가 끝날 무렵에는 자애롭게 너희를 품어 주기 위해 그 품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존재가 시작될 무렵 인간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제3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평화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초에 자연의 힘을 통해 이 행성을 뒤흔들어, 축복으로 가득 찬 낙원으로 여러분에게 선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나의 자연의 힘이 여러분을 뒤흔들 것입니다. 영혼들이 자유를 얻도록 돕는 것은 나의 완전한 정의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종교 공동체와 종파, 기관들 한가운데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 영적 연합의 부재로 인해 사람들을 분열시킨 적대감과 복수심을 없애 줄 것이다.

41. 이러한 사건들이 인류를 기다리고 있다. 제자들아, 깨어 기도하라. 너희 중 많은 이가 이 시련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유물론의 교리가 극도로 활기를 띠며 사람들을

옭아매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찬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42. 나는 이 경고를 통해 너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의 시기에 지상에서 살고 있는 너희에게 경고하려는 것이다.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43. 사람들의 교만을 없애는 것은 나의 신성한 영이 될 것이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너희에게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나의 지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의 학문 속에서 비추고, 그들을 용서와 사랑, 정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빛이 될 것이다.

44. 너희가 한 번 내 사랑의 이 시련들을 겪게 되면, 인류의 영적·육체적 갱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덕과 영성화의 길을 걸으며, 이 삶이 내가 태초부터 그들에게 제시해 온 것과 똑같으며, 그 안에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일시적인 거처로 맡겨 준 이 행성이 여전히 풍성한 축복의 선물을 베풀고 있음을, 어머니 지구가 생명의 창조주처럼 자비롭게 그들에게 품을 열어주며 사랑으로 양육해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어머니 지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태양 또한 주님의 현존을 상징하며,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는 온기를 보내줄 그 태양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괴롭게 만든 것이 바로 자신들의 악한 행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조화로운 방식으로 영원 속에서 더 완전한 거처를 차지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45. 그러니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를 위해 준비시키노라. 그 시대에는 배부른 자 곁에 굶주린 자가 없고, 학자 곁에 무지한 자가 없으며, 권력자 곁에 무력한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 모두는 주님의 잔치에 참석하여 그분의 사랑의 영원한 합주를 즐기게 될 것이다.

46. 그 때, 오 제자들아,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높은 수준의 영성화에 도달할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높은 영적 발달을 이룬 영혼들만을 너희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너희의 덕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낼 것이다. 그 시절에는 오늘날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니, 오늘날은 내가 너희에게 순수한 영혼들을 보내지만, 너희는 그들을 *더럽혀서* 내게 돌려주고 있다.

47. 내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너희 자녀들의 마음속에 광신이나 우상 숭배가 아닌 영성의 성소를 세우라. 그들을 내 율법의 길로 인도하라.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선을 행할 때 비로소 너희는 내게 기쁨을 드릴 것이다.

48. 진리는 얼마나 명료하고 소박한가! 영성은 얼마나 분명하고 단순한가! 그러나 – 광신과 전통이라는 어둠 속에 고집스럽게 머물러 있는 이에게 그것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가. 그의 이성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의 마음은 그에게 신이자 법이었던 것, 즉 전통과 의식을 버리기를 거부한다.

49. 너희는 내가 내 진리를 도저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을 혐오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내 자녀들아, 나의 자비는 무한히 크니, 바로 그들에게 내가 다가가 그들이 감옥을 벗어나 빛을 묵상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시련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은 그들의 힘을 넘어서는 시련이 아니라, 모든 영혼과 모든 삶, 모든 사람에게 지혜롭게 맞춰진 교훈이 될 것이다.

50. 그곳, 그 어두워진 정신들 가운데, 종교적 광신과 무지로 병든 그 마음들 가운데서, 너희는 위대하고 열정적인 진리의 전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쇠사슬과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되는 그날, 그들은 환호를 참지 못하고 목청껏 외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왔으니, 영성화의 사다리를 통해 세상을 참된 왕국으로 끌어올리리라.”

51. 너희의 성장을 돕기 위해, 너희는 영적 지도자이자 제3시대의 선구자로서 너희 영혼을 준비시켜 온 엘리야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많은 이들이 길을 잃은 것을 슬픔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엘리야의 고통은 얼마나 큰가. 그는 영적 종들과 함께 모든 길에서 자신의 양들을 찾고 있다. 여러분 중 누가, 고통의 길에 있는 그 부재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준비할 것인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내가 굳건하게 하여, 그들이 신성모독을 하지 않게 하고, 나의 임재를 느끼게 하며, 이 시기에 서둘러 나서서 스승과 한 식탁에 앉아, 내가 내 사랑으로 준비한 빵과 포도주로 양식을 얻게 하리라.

52. 너희는 이 제3의 시대에 내 말씀을 듣는 세대이니, 너희의 삶이 내 율법의 성취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내가 제2의 시대에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가 준비한 이성의 기관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53. 지난 시대에, 내가 곧 그들을 떠날 것이며, 그 후에는 그들이 내 가르침을 전파해야 할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내 사도들은 슬픔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이 타락의 절정에 달했을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어떤 이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내 말씀의 본질을 받아들일 때 스승을 이해하고 나의 임재를 느낄 다른 이들이 올 것이다. 너희는 다시 내 곁에 있을 것이며, 나는 너희가 내 품에 안기도록 언제나와 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맞이할 것이다.

54.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준 것은, 너희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내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55. 이미 제2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유혹을 물리치는 법, 즉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은 모든 것을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는 너희가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다.

56. 준비하라. 너희는 다시 한 번 갈보리 산을 오르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가르침은 마치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들과 같다. 1950년이 끝나면, 나의 신성한 "말씀"은 더 이상 이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너희는 나의 가르침 중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서둘러 이곳으로 온다. 너희는 인류에게 전하는 나의 마지막 말씀의 증인이 되고자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57. 너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2시대에 '호산나'를 노래했던 그들과 다름없다. 오늘, 내가 영으로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니, 너희는 더 이상 내 길에 외투를 펴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의 마음을 주님께 거처로 바치고 있다. 오늘날 여러분의 '호산나'는 더 이상 목청을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호산나'는 겸손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의 찬송으로, 주님께서 제3의 시대에 여러분에게 가져다주신 이 계시에 대한 믿음의 찬송으로 여러분의 영혼에서 솟아납니다.

58.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를 따랐던 이들과 다름없다. 거대한 군중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사랑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들이 환호성으로 도시를 뒤흔들었고, 심지어 백성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 나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평화를 가르치신다면 – 왜 당신의 추종자들이 이런 소동을 일으키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말할 것이다." 이는 환희의 순간들이었으며, 의를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오랫동안 예언의 성취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 온 그 영혼들—가운데서 메시아가 정점에 달하고 영광을 누리던 때였기 때문이다.

59. 내 백성은 바로 그 환호와 기쁨으로 이집트에서의 해방도 기념했다. 나는 그 유월절 기념을 내 백성에게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것은 단순히 전통을 따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나는 희생의 어린 양이신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 자신을 바쳤다.

제3의 시대에도 나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나의 말씀을 통해 나는 너희로 하여금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체험하게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아, 시나이 산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율법이 너희 양심 속에 살아 있음을 알라. 흠 없는 어린 양의 희생과, 내가 성령으로서 너희에게 전해 준 계시들,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에 너희에게 베풀어 줄 가르침들 – 이 모든 것은 영원 속에 존재한다.

60. 훗날 너희는 이 사건들을 기념하겠지만, 그 기념은 명상과, 내 가르침을 새롭게 하고 실천하겠다는 진실한 결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생각으로 법(律)을 잊은 채, 어떤 축제나 의식, 예식을 거행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전통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신성한 임재를 느끼며, 자신의 영의 음성을 들으면서 동료 인간들을 가르칠 것이다.

61. 성찬식을 기념할 때가 되면, 너희는 기도로 이를 행해야 하며, 그러면 너희는 내 신성한 영이 너희 가운데서 영적인 빵과 영적인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는 너희가 아직 비밀에 싸여 있다고 여기는 교훈들을 밝혀 줄 것이다.

62. 깨어나라, 제자들아! 너희는 기독교 인류가 과거의 계시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얻고자 갈망하며, 나의 말씀과 예언들을 연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약간의 빛을 발견하지만, 다른 이들은 길을 잃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언들을 연구하며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겸손과 경외심, 사랑을 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교만과 허영을 보는데, 그들은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백성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오류로 인해 인류는 혼란에 빠졌다.

63. 제2의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 곧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말했고, 그분 이 그 당시 너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계시들을 설명해 주시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것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라.

64. 보라, 여기 진리의 영, 곧 성령이 계시니, 그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65. 깨어 기도하라, 백성아. 기도를 통해 너희는 내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빛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빵과 포도주이니, 제자들아, 이를 먹고 힘을 얻으라. 내일 너희는 이 양식을 인류와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66. 오 백성들아, 오 지극히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에게서 배우고, 나의 본보기와 지혜를 전하라.

67. 너희 모두는 내 밭의 일꾼들이다. 어떤 이들은 '첫 번째'로, 다른 이들은 '마지막'으로 일하지만, 너희 모두는 너희의 열정과 영성화를 통해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8. 너희 영혼이 나에게 영적인 호산나를 드리는 이 경건의 시간에, 나의 신성한 영이 평화와 사랑, 그리고 축복으로 너희를 가득 채운다.

69. 나의 축복을 통해 영적 계곡에서 정화된 수많은 영혼들이 빛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나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 즉 사람들의 연합된 영혼 속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319

1. 다시 한 번, 너희를 환영한다. 이 시기에 너희 가운데 누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성부, 성자, 아니면 성령이신가?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너희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내가 제2의 시대에 인간으로서 너희에게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고 말했듯이, 오늘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영으로 너희에게 오므로 이렇게 말하노니, 예수를 듣는 자는 여호와를 듣고 영접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다.

그 안에서 세 인격이나 세 신을 보지 말고, 이 시대에 너희 가운데서 이 음성과 '모든 스승의 스승'이신 너희 스승의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드러나시는 단 하나의 신성한 영을 인식하라. 그 과정에서 너희는 심판자를 만나게 될 것이며, 아버지를 발견하고 성령의 본질을 느끼게 될 것이다.

2. 올해 1950년에 인간의 대변자들을 통해 전한 나의 마지막 계시들에서, 나는 제자들의 진전을 점검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가르침을 거두어냄으로써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이는 누가 나의 가르침에서 더 진보했는지, 누가 뒤처졌는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주는 교훈과 시험은 너희 각자가 내면적으로 자신의 진보, 정체, 혹은 후퇴를 깨닫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나는 너희 영혼에 점점 더 많은 빛을 비추어, 내 말씀이 멈춘 후에도 너희가 깨달음을 얻은 채 남게 하고, 그 후 –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듯이 – 너희 세상을 이루는 이 정열과 폭풍의 바다 속에서 빛나는 등대가 되게 하려 한다.

4. 나를 깊이 믿는 이들은 이 시기에 내가 전해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히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저 세상에서 내 임재의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쓰며 영혼의 눈을 활짝 뜨고 있는 제자들이 있다.

5. 여전히 몇몇 마음에는 의심이 스며들어, 이것이 과연 나인지 아닌지 자문하고 있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 나의 말씀과 계시 중 일부를 접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가 이미 제3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의심은 토마스에게 맡겨 두라. 그는 제2의 시대에 살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준 교훈과, 그 당시 물질주의를 타파하고 사람들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내가 드러낸 모든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오늘날 제3의 시대에, 너희의 영혼과 마음속에 과거의 시대와 제3의 시대의 가르침과 계시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 왜 너희는 여전히 의심하는가? 왜 너희는 마음속 깊이, 이것이 나인지 아닌지, 너희가 현재 받고 있는 이 일에 진실이 있는지 속임수가 있는지 고민하는가?

나는 오직 의심하는 자들, 즉 내 계시의 마지막 시기에 있어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갇혀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6. 너희는 스승과 함께 제2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되새긴다. 나는 그 당시 너희에게 주었던 가르침을 너희 영혼 속에 남겨 두었다고 가르쳐 주었다. 나의 모든 행적과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준 영생의 기록이었다. 너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내가 흘린 피는 여전히 생생하며, 나의 모든 자녀들의 영혼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절 내 몸에서 흘러나온 것은, 내가 쏟아부은 생명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죄인을 감싸 안은 용서,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불태우게 한 빛, 그리고 이 인류의 모든 어두운 안개를 걷어낸 빛이었다. 이 영적인 생명은 너희 안에, 곧 너희 영혼 속에 영원히 신선하게 남아 있을 그 피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다.

7. 내가 인간에게 구원, 치유, 그리고 빛을 주기 위해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신성한 영이 정하신 때였으니, 어떤 세계나 발전 단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혼에게로 나아가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후, 나의 영은 주님의 영혼들이 거하는 모든 고향으로 향했다. 왜냐하면 비록 여러분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육신을 입은 영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나를 기다리던 이들, 즉 속죄와 화해, 영적 경험을 쌓으며 모든 영혼의 구세주가 와서 문을 열어줄 그날을 기다리던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8.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나의 사역을 완수하고, 모든 지상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사랑의 희생으로 내 왕국의 문을 열어 준 후, 나는 다른 영혼들에게로 향하여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인간의 '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에게 있어 이 '옷'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으며, 오직 영혼들의 상향적 발전만이 중요했다. 나는 그들을 불완전함과 물질주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며, 나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정화하여,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자주 말해 온 눈의 눈부신 흰색 보다 더 하얀 흰 옷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온다.

9. 내가 그 당시 각자의 다양한 삶의 세계에서 이들과 저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제3의 시대에도 나는 다시 모든 이를 향해 나아갔다. 나는 온 우주에 거하는 영혼들에게 다시금 나를 드러냈다.

비록 제가 사랑의 유대를 맺고 모든 영혼의 유대를 추구해 왔지만, 저는 오늘의 계시가 과거의 계시보다 더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이를 통해 곧 저에게 이르며, 영에서 영으로 전해지는 계시를 통해 아버지의 영감, 그분의 계명, 그분의 훈계,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 더 큰 완전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10. 나는 성령으로서 제3의 시대를 모든 영혼을 깨우쳐 다시는 타락하지 않게 하고, 길을 잃은 자들을 구원하며, 눈먼 자들을 회개시키고, 심하게 더러워진 자들을 정화하여 수치와 모욕, 범죄와 양심의 가책이라는 사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바쳤다 – 자신의 영혼 속에 새겨진 모든 과오와 내 율법을 어긴 기록들을 짊어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말이다.

11. 우주 만물은 지혜롭게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 나는 현재 각 세계와,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들 각자에게 나를 드러내야 하는 형태로 말하고 있다. 이는 그들을 영과 영의 완전한 교감으로 이끌고, 모든 이가 기다리는 목표인 완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혹시 너희가 우주에서 영적으로 가장 진보한 존재들이냐? 그것을 알고자 하지 마라. 너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2. 제2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느니라." 오늘 나는 너희의 언어로 말하노라. 내가 창조한 우주에는 나의 신성한 영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많은 세계들이 있느니라. 너희는 모두 내 안에서 형제자매이며, 모두 나와 닮아 있다. 비록 현재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 다르지만, 완전함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모두 같아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완전함으로 인도하며, 너희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시험하며,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똑같이 나의 신성한 영과의 교제 길로 인도하며, 또한 너희끼리 서로 교제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 영혼들 간의 교제는 언제 완전해질까요? 너희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말들이 오갈 것이며, 어떤 이들은 믿고 다른 이들은 부정하는 수많은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드러날 것이며, 영은 말씀하실 것이며, 영은 온 지구상에 그 뜻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13. 이 모든 것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하루가 아니며, 나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찾아 빛의 세계와 어둠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바치는 시간이 단지 몇 시간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아니요, 백성들아, 이는 온전한 한 시기의 흐름이며, 영원 속의 온전한 한 시대입니다. 이는 창조의 시작부터 이미 내가 성령으로서 모든 이에게 임하도록 정해 둔

것이며, 제3시대에 영혼들이 발전함에 따라 나는 더 높은 차원과 더 큰 완전함으로 나를 드러낼 것입니다.

14. 오늘날 너희는 너희의 세계를 넘어 바라보지 못하므로, 너희의 영도, 시선도, 이성도 아직 너희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을 탐구할 수 없으며, 오직 경건하고 순종적인 태도로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기도와 상향 발전을 통해 너희를 나께로, 그리고 너희를 보호하는 임무에 전념하는 나의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향적 발전을 통해, 그리고 이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계시하는 것에서 얻는 유익을 통해, 너희는 오늘 호기심에서 알고자 하는 것과, 내일 정의에 따라, 보상으로, 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15. 내가 이 말씀을 남기지 않고 너희를 떠나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슬퍼할 것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냉담함이 스며들겠지만, 나머지 이들은 굳건한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오늘 너희가 내게 나의 신성한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대답하리라. 바로 너희 모두가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너희가 준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원한다면 내 사역을 깊이 탐구하여 확신을 갖고 굳건히 서라. 그래야 나중에 의심이 너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그 의심은 너희로 하여금 고통받고 비틀거리게 할 것이니, 그 의심이 너희에게 깊은 고통을 남기게 될 것이며, 그 고통을 통해 너희 양심이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제자들이 양심에 어떤 책망도 품고 다니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들이 오직 내 영의 평안만을 느끼기를 원한다.

16. 이 백성이 준비하는 법을 모르고, 나의 마지막 가르침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훗날 나의 말씀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며, 시간과 시련, 불행, 그리고 사람들의 무의미한 말들이 그들을 의심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면 제자는 자신의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들은 것이 옳았는지, 아니면 진실이 아니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며, 그때 겉으로 보이는 침묵만이 그의 의심에 대답한다면, 그는 무례하게도 고개를 들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비록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 왜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마음은 주님의 심장 박동을 느끼지 못하는가? 왜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분명하게 나타나시지 않는가?"

17. 그리고 너희가 사람들의 가르침과 종교 기관들이 큰 논쟁을 일으키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의 역사는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왜 그분은 침묵하시며, 우리를 운명의 타격과 위험의 희생양으로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너희는 다른 시대에 나의 다른 제자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매우 큰 의심을 품게 될 것이며, 잘못된 해석에 따라 성취되지 않은 나의 많은 말씀들을 떠올릴 때 그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고, 너희는 그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백성을 하나로 단합시켜 남겨둘 만한 효과도, 힘도 없었는가? 왜 그분은 모든 능력을 다해 주님의 이 영적 백성을 한마음으로 하나로 합치는 기적을 이루지 않으셨는가? 왜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시절에, 온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지 않았는가? 그분이 보편적 광선을 통해 권능으로 강림하셨을 때, 왜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는가? 왜 그분의 작별은 그토록 슬펐는가? 왜 그분은 온 인류에게 알려지거나 찬양받지도 못한 채, 조용히 우리를 떠나셨는가?"

이 모든 것이 의심이라는 불길 속에서 너희 마음을 괴롭힐 것이나,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 영혼이 모든 의심과 불확실함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신성한 영을 물질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것도 아버지께 요구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내 말씀이 끝난 후에도, 내가 인간화되거나,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예수님의 인간적 형상을 취하기를 너희가 요구하기를 원치 않는다.

18. 나는 너희의 영혼이 진정으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 단지 나를 느끼고자 하는 갈망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보고 듣고자 하는 너희 영혼의 강렬한 욕구 때문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인해 나를 느끼고, 너희 존재의 신앙을 통해 너희 영혼의 평정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나를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하며, 변함없는 존재로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 그 '두 번째 시대'에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인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세속적인 권능으로 충만한 메시아를 기대했다. 그들은 전쟁을 일삼는 군주, 군대와 민족, 세속적인 영토를 다스리는 주인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아버지의 일만 말씀하시고, 세상의 왕국들보다 더 나은 왕국을 약속하시며, 가르침을 통한 영적 승리를 선포하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억압받는 자들, 노예들을 위해 눈물을 흘린 이들에게 정의를 약속하신, 그 온유하고 겸손한 스승의 말씀을 듣자, 그때, 이 땅에서의 해방과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등극이 머지않았다고 기대했던 자들, 즉 그분이 이 세상에서 왕좌에 앉아 오른손에 정의의 홀을 들고 민족들을 심판하며 이 세상의 거대한 제국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간절히 갈망했던 자들은 속았다고 느꼈다.

20. 스승님께서 체포되신 그 밤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능으로 원수들을 무찌르지 않으시며, 온순한 어린 양처럼 해골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그 지극한 온유함을 목격한 그들은 심히 동요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무리들의 조롱과 모욕을 목격하자, 그들조차 혼란스럽고 불신에 차서 물러섰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일이 이런 식으로 벌어진 것일까?" 그들은 스승님께 큰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았으나, 영적으로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고,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아직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골고다에서 그분을 뵙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분의 피가 마치 평범한 사람의 피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의심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1. 그들은 스승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구원의 모범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스승께서는 모든 피조물 위에 영광과 생명으로 높이 솟아오르기 위해 죽음을 겪으셨다. 그분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의심으로 인해 고통받으셨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또 한 번 증명하기 위해 부활하신 후,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던 여성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다. 이는 그들이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증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했다. 스승께서 나타나셔서 의심이라는 어둠을 몰아내고, 그 모든 마음속에 빛을 밝혀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크게 의심하던 제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스였는데, 그는 " "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가락으로 스승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스승께서는 그의 의심마저도 해소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22. 스승께서 제자들을 홀로, 그리고 흥분한 상태로 발견하셨을 때, 어떤 이들은 스승의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도마는 의심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는 도마를 부르시어 상처 자국을 보여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 보아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참으로 나이니라."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의 의심을 후회한 도마는 – 불신에 굴복하여 – "나의 주님!"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었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23. 너희는 너희 영혼 속에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 사랑 어린 책망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으냐?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보았기에 믿었도다."라고? 아니, "성령"의 제자들아 – 아니, 제3시대의 제자들아! 너희 마음속에 의심을 품지 말고, 지금 당장 그것을 없애라. 영 안에서 나를 바라보라. 나의 진실함과 본질을 바라보라. 그래야 나중에 이 계시들이 사라졌을 때, 사랑과 믿음을 통해 의심과 흠이 없고 순수하며 자유로운 영적인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4. 너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내가 더 이상 예언자들을 통해서만 너희에게 "일어나서 너희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믿음을 얻기 위해 내가 다시 한 번 인간이 되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는 제2시대에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인간이 자신의 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저 너머의 영역에 침투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스승은 당시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살아 계신 여러분과 그 당시의 사람들, 영적으로 크게 성장한 여러분, 내가 자주 시험해 왔고, 진리를 전하고 위대한 계시를 주기 위해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주 말해 온 여러분은 – 혹시 의심할 수 있겠는가, 물질주의에 빠질 수 있겠는가, 마음속의 사랑을 식게 하고, 나의 말씀이 멈춘 후 영혼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 제자들아, 나는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의 말씀을 통해 너희를 자주 준비시켜, 모든 시련 앞에서 너희 영혼 속에 오직 빛과 힘, 결단력, 그리고 꺾이지 않는 신앙의 열정만이 가득하도록 할 것이다.

25. 내가 제2시대의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들은 영혼 속에서 참된 사랑을 느꼈다. 그때 그들은 형제애와 영적 힘의 포옹으로 하나가 되어, 스승의 사역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심을 떨쳐낸 후,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찬 채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정말이지—우리는 진정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었고, 진정으로 세상의 구세주와 함께 살았으며, 그분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명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진리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그분의 고향은 영원한 나라로, 그곳에서 그분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며, 땅의 모든 민족에게 그분에 대한 증언을 전할 것이다."

26. 내 말씀이 멈춘 후에도, 너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내 말씀의 부재를 느끼고, 내 영적 세계가 은사자들을 통해 너희 가운데서 더 이상 그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하지 않을 때, 과연 너희 가운데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때 교회들은 서로를 찾아갈 것이며, 멀리 떨어져 있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해 온 자들은 형제자매들을 찾아가, 서로의 온기와 존재감, 조언과 도움을 구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씀을 갈망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의 모임 속에서 치유의 향유를 찾을 것이고, 나는 다시 와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27. 그렇다, 나의 백성아, 나는 너희의 영적인 귀 가까이에서 말씀할 것이며, 너희는 모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분명한 계시들—오늘로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은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확실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의 방패가 되고, 너희의 원동력이 되어, 너희가 결코 혼자 걷고 있다고 믿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길을 걷는 동안, 영적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세상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그리고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에도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나는 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길 위에서 내 존재를 느끼게 할 적절한 순간을 택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임에 현존하며 뚜렷이 느껴질 것이며, 너희는 나의 온기와 내 영의 숨결을 느끼고 나의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28. 나는 너희가 나를 점점 더 믿어가는 것처럼, 서로에 대한 믿음도 갖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거짓 증언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백성이나 인류 앞에서 너희를 위대하거나 유명하게 보이려고 너희 입술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게 하라. 거짓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보지 못했으면서 "나는 스승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받지 못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에게서 나의 영감이 빼앗길 것이며, 그는 자신의 오점을 정화함으로써만 그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을 남용하지 말고, 내 작품을 거짓말을 하는 데 이용하지 말며, 내 영이나 내 작품을 너희의 속임수를 감추기 위해 악용하지 말라.

29. 나는 너희가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를 원하며, 만일 너희가 나로부터 결코 영감이나 계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야 아무도 너희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묻노니, 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자가 과연 누구일 수 있겠느냐? 누가 내 영감을 기뻐하지 않고, 내 지시를 받지 않으며, 내 계시를 느끼지 못하는 자일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잘못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를 예언자로 변화시켜 남겨둘 것이다. 그러나 거리로 나가 자신의 예언을 자랑하는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 진리의 예언자로 말이다.

30. 초창기에는 나의 예언자들이 거리로 나가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곤 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얼마나 큰 겸손과 힘, 그리고 믿음이 있었는가!

시대가 변했고, 오늘날 너희는 거리나 시골길, 혹은 사람들의 장터로 나가 목청껏 내 메시지를 외칠 수는 없다. 오늘날 너희는 언제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해야 할 순간이 왔는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준비한다면, 내 백성은 너희 자신의 증언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31. 너희가 시련에 직면할 때, 내 의가 땅의 민족들과 너희에게도 뚜렷이 드러나려 할 때 – 내가 어떤 사건을 너희에게 드러내기를 원할 때, 나는 너희 중 한 사람을 택하여 너희에게 경고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릴 것이다. 나는 그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해 두세 명, 혹은 필요한 만큼의 사람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아버지께 더 큰 계시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스승님께서 이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은혜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을 모르느냐? 그때 너희가 "네, 아버지, 물질적인 은혜는 끝났지만, 영적인 은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렇다, 내 자녀들아. 그러나 너희가 스승님께 인간이 되어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 요구는 세속적인 은혜에 속하는 것이며,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

32.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많은 전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왜냐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 영에게 계시해 주신 예배 방식, 즉 은혜와 완전함으로 감싸인 경배의 형태를 더럽히고 폄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것을 의식과 예식, 세속적인 축제로 전락시켜 버리고, 율법과 가르침을 실천하는 대신 겉치레의 숭배와 전통을 지키는 데 점점 더 몰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이들에게는 슬픔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도록, 이 시대에 너희 영혼을 얽매고 있던 수많은 전통과 종교적 관습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33. 이제 너희는 점차 진정한 성전을 발견하고 있으며, 이 성전은 너희 내면뿐만 아니라 외부, 즉 우주의 무한함 속에서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 너희는 참된 제단이 너희 마음속에 있으며, 믿음이 너희가 나를 위해 밝혀야 할 등불이며, 꽃과 제물은 너희의 행실과 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너희 주님의 형상은 바로 너희 자신이며, 너희를 통해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 여러분은 은혜의 근원이 바로 나의 신성한 영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은 완전함과 축복의 고갈되지 않는 원천이며, 내가 그 일 그 자체임을, 내 안에 내 자신의 일이 있으며 그것이 무한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임을 – 내가 영광스러운 수로 나를 따르는 모든 영혼들의 목자임을,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가 완전한 평화인 그 유일한 목장으로, 즉 높은 저 세상에서 영혼들의 영원한 고향인 그곳으로 도달할 것임을, 또한 아버지의 집은 어디에나 있으며 너희는 이 집을 결코 떠난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34. 이처럼 너희 영혼은 날개를 펼치고, 우주를 통해 무한을 바라보며, 시간을 통해 영원을 바라보고, “그 길”을 통해 너희를 아버지께로 이끄는 완전하고 빛나는 길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장애물이자 함정이었던 전통들을 잊어버리고 그 길 위에 남겨두게 될 것이다. — 너희 영혼을 가로막던 벽에 불과했던 관습과, 광신주의의 대상이었던 형상들은 뒤에 남겨질 것이며, 너희 영혼은 서둘러 자유롭게, 열정과 기쁨, 희망,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 차서 영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35. 영혼이 스스로를 지탱하고, 의지하며, 믿고, 나를 사랑하기 위한 지팡이로 여겼던 모든 것은, 영혼이 영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내가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낸 영원과 진리를 신뢰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용될 것이다. 한쪽의 준비를 통해 나는 다른 쪽의 불완전함을 극복한다( ). 너희가 진보하고, 나에게 다가서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며, 이상을 추구하고,

나의 신성한 사업을 이해하고자 하는 소망을 통해, 나는 오셔서 나를 드러내고, 지혜와 빛으로서 너희 가운데로 흘러넘친다.

36. 구원의 빛으로 변모된 예수님의 피는 구원으로 모든 영혼에 스며들었으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내 영은 영원히 구원과 빛을 베풀며, 나는 어둠이 있는 곳에 끊임없이 내 빛의 광선을 비추고, 내 신성한 영은 – 인간의 피가 아니라 구원의 힘으로서, 영적인 생명으로서 – 내 모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쏟아져 내린다.

37. 너희의 미래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시대가 점점 가까워져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 시대와 함께 영적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 곧 군중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의심을 떨쳐내고, 영혼을 위해 빛과 평화로 향하는 문을 찾을 수 있기를 갈망한다.

38.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며, 그들 중에는 과학과 유물론으로 대표되는 "도마"가 깨어 있는 눈으로 탐구하려 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도 더듬고 만지며 확인할 것이니, 그래야만 그는 나의 현존과 인류 가운데 차례로 일어날 영적 사건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증언해야 하며, 그래야만 '제3시대의 토마스'가 그의 의심과 유물론 속에서 나의 사랑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39. 너희가 믿음의 사도가 되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증거하는 열정적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의 모범이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이겨낼 것이다. 나는 기적을 행하고 증거를 보여 주어, 너희를 찾아오는 자들의 불신을 진정으로 깨우쳐 주리라.

40. 나는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너희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도 없을 것이다. 너희의 준비와 기도, 그리고 믿음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할 것이며, 나머지는 내가 다 해 주리라, 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41. 너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즉 너희가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너희를 통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기적들을 인간에게 돌릴 수 없을 것이며, 경이로움 속에 저 세상으로 가서 지고하고 숭고한 권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42. 나는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영광 중에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인간의 권력 앞에서는 지혜와 신성한 과학으로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또한 나는 인간 과학의 물질주의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모든 종교 공동체와 인간의 제도를 위해 나는 구세주로 올 것이다 – 내가 이미 그렇게 예고했듯이. 불화와 전투의 전장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평화의 무기와 양날의 검으로 현존하여 모든 죄와 타락을 소멸시킬 것이다.

43.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 대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들이 나를 기대하는 대로 위대한 전사로서 왔습니다. 전사로서 나는 진리와 영 안에서 왔습니다. 나의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힘들고 끔찍한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 내가 병사로 훈련시키고 있는 너희는 그 싸움에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전쟁이 불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불의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다. 나의 사랑은 인간의 위선과 이기심, 그리고 악을 근절할 것이다. 나의 평화는 증오와 불화의 씨앗과 토대를 품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 손에 맡기는 나의 보이지 않는 검은 무엇을 살려둘 것인가? 내 자녀들의 생명과 감수성, 그리고 미덕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

44.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의 불꽃 하나, 진실함의 원자 하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연민을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내 무기의 손아귀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전투가 너희 가운데서 매우 거대하게 벌어질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전투는 단지 인간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것이다. 모든 영혼은 이 전투를 거친 후 진정한 삶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 진보로 향하는 한 걸음, 진리와 영 안에서 나를 향해 내딛는 확고한 한 걸음이다.

45. 너희 주변의 영적 삶이 들썩이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느냐? 너희 영혼 속에서 이 거대한 전투의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심지어 너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너희 영혼은 몸부림치며 싸우고, 자유를 얻으며, 내가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46. 이것이 바로 나의 제자 요한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 목격했던 거대한 전투들이다. 그는 오늘날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 군대들을 보았다.

47. 전투의 가장 치열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나는 너희를 내 가르침과 내 율법의 용감한 전사들로 변화시켜 남겨두기 위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 바로 그 율법은 전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다.

48. 오, 사랑하는 백성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전사이자 만군의 주님이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이 사랑의 검을 들어라. 그것을 움켜쥐고, 칼집에서 뽑아내어 인류 속에 존재하는 모든 증오와 모든 악을 물리쳐라.

49. 너희는 내가 나의 "높은 보좌"에서 온 우주를 나의 평화와 축복으로 감싸고 있음을 알고 있다.

50. 모든 것은 매 시간, 매 순간 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내 자녀들에게서 저주나 심판은 결코 나오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나 죄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나의 축복과 사랑의 입맞춤, 그리고 나의 평화를 내려준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20

1. 인류가 주님의 성육신하신 현존을 누렸으니 복이 있도다. 인류가 그 사랑의 유산을 받았으니 복이 있도다.

2.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나의 현현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졌으며, 나의 설교는 고작 3년 동안만 지속되었고, 내가 방문한 마을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골고타까지 나를 따라온 군중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은 모든 시대의 인류에게 전해졌다.

그 당시 모든 나라로 제자들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씀이 마치 씨앗과 같이 곧 그 땅을 떠나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퍼져 나갈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은, 그 후에 올 모든 세대를 대표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르침의 본질과 그 피가 흘러나올 때 담긴 사랑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3. 그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희생시켰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지 마라. 그들이 조롱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생각에 분개하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직 나만이 심판자이다.

그 백성을 부당하게 정죄하고, 스승을 희생시킨 것을 용서하지 않는 많은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마음속에 우울함을 품고 있다.

4.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며, 나의 고통을 즐기는 군중을 마주하고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와 같은 말씀이 나로부터 매일 너희에게 반복되어 전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이름을 알고 있으며, 너희 마음속에 내 가르침과 계명, 그리고 법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모욕을 퍼붓고 내 원칙들을 조롱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5. 너희는 세 번의 영적 계시의 시대를 겪어왔으나, 인류는 여전히 내가 기대하는 성전을 세우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 제3의 시대에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 지성소를 세울 것이며, 그곳에는 영혼인 성궤가 놓일 것이다. 그 성궤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돌판을 간직하고 있다.

6. 인류의 도덕적, 영적 변혁이 너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너희가 계시받은 원칙들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랑이 지배하고, 평화가 깃들며, 정의가 존재하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고, 더구나 그런 세상을 믿을 수도 없다.

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 말씀의 뜻도, 내 행적의 의미도 탐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너희가 영적 묵상에 조금만 시간을 할애한다면, 큰 영감을 받고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8. 2000년 전의 사람들 중 누가 너희가 지성의 힘으로 창조해 낸 오늘날의 세상을 상상할 수 있었겠느냐? 아무도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세상을 예고했던 옛 예언들 중 많은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9. 나는 예언적으로 새로운 세상과 영성화된 인류를 너희에게 알리나, 이 말씀이 알려지더라도 다시금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10. 세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의 오만함은 폭풍우와 홍수, 전염병과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인류의 비통한 울부짖음이 우주를 뒤흔들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지난 뒤에, 새로운 지구 주민들은 자기 성찰과 영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난 세대가 그들에게 물려준 헤아릴 수 없는 경험의 보물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 신성한 씨앗이 싹트기 시작할 것이다.

11. 모든 영혼에는 신성한 씨앗이 존재하니, 이는 그 영혼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 자녀들이 부모의 외모나 성품을 물려받듯이, 영혼들도 마침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즉 사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12.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날을 기억하라. 나의 수난을 기억하라 – 그렇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익숙해져 온 전통적인 방식, 즉 너희가 그 의미와 심오함에 깊이 빠져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영혼에 아무런 씨앗도 남기지 못한, 겉만 번지르르하고 감각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13. 나는 너희가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피투성이의 묘사와 그림을 통해 나의 죽음을 극적으로 재현하고, 마치 방금 한 사람이 죽은 것처럼 울며 상복을 입으며, 해마다 어머니께 조의를 표하면서도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14.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영생으로 부활하셨는데, 마리아께서 아무도 잃지 않으셨음에도 왜 그분께 조의를 표하는가? 내가 이미 고통과 죽음을 초월해 있는데, 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가?

1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차라리 너희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너희의 죄를 인해 슬픔을 느끼며, 너희 안에서 죽어버린 수많은 미덕과 고귀한 감정들 때문에 마음속에 애도를 품어야 한다.

16. 나는 너희가 기념일이나 날짜, 혹은 전통적인 추모일을 기다리지 말고, 모임에서나 가족의 품 안에서 함께 모여,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보여준 그 본보기와 행적들을 다시 되새기며, 영성과 경건함으로 가득 차서 내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기를 바란다. 그때야말로 너희는 내 행적과 말씀의 진의나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것이므로, 너희 영혼에 진정으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17. 나를 불쌍히 여기려 하지 마라. 나 안에는 사람들이 유감을 느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내가 평생 동안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에서 영감을 얻고, 나를 모욕한 것에 대한 그 연민과 후회,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너희 이웃들에게 돌리라. 그들 중에는 연민과 동정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천 명이 있으니, 어떤 이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들은 악덕의 오물 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들은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들은 사랑 없이 살아가거나 정의와 평화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18.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그들을 위해 울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삶을 개선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내 가르침을 깨닫고, 내 희생의 죽음을 이해하며, 내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19. 서로를 향한 사랑이야말로 내 말씀을 따르고 내 영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행동 방식이 될 것이다.

20. 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수 세기가 지난 지금, 나는 이 인류에게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계시한 율법이나 가르침의 본질을 종종 왜곡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이행한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둘 모두를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21.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느낀다면, 사랑이 너희의 혈관을 통해 흘러넘칠 것이다. 바로 나 자신과 하나인 너희 이웃에 대한 사랑 말이다. 그러나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너희의 거의 모든 행실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22. 기념식을 거행할 때, 나, 신성한 스승이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영의 왕국을 떠나 인간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라 – 내가 내 왕국을 떠나 너희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는 인간으로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 –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오셔서 가장 겸손한 자가 되시고, 너희에게 그분의 온 생애를 바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23. 나의 가르침은, 소유가 많을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하며, 지위가 높을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24. 이 시대에 나를 본보기로 삼는 이들은 누구인가? 누가 왕좌나 명예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머물며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 너희의 세상은 이토록 넓고 인류는 이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이들을 찾아볼 수 없다.

25. 언젠가 땅 위에 그러한 본보기가 넘쳐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 말씀과 내 본보기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6. 대대로, 그리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인간은 신의 법칙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으며, 그로 인해 영적 영역에서 퇴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27. 잠시 멈춰 서서, 마치 산 정상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듯이 이성을 통해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정열과 지성을 발전시켜 왔으나 이를 항상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만 사용해 왔음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28. 스스로를 성찰하고 깊이 생각해 본다면, 어디에서도 진정한 영성화의 징후, 즉 인간 안에 빛의 존재가 깃들어 있음을 증명하는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29. 여러분이 이 성찰의 산에서 내려오면, 영적 삶을 지배하는 신성한 법칙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근심과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30. 가는 길에 너희는 우리보다 낮은 차원에 있는 작은 존재들, 즉 벌, 개미, 벌레를 만나게 될 것이며,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왜 우리보다 낮은 이 존재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면서, 반대로 우리와 같은 아버지의 영적 자녀들이 마음껏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아아, 주님께 그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감히 던지는 너희 작은 자들아!

31. 나는 너희가 이 피조물들이 누리는 무구함과 평화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이미 목격했다. 나는 너희가 새들이 둥지를 보금자리로 삼아 누리는 기쁨을 부러워하는 것을 보았고, 너희 마음이 "어쩌면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진리를 찾을 때까지 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문하며 괴로워하는 것이다.

32. 이 피조물들이 오직 땅이라는 단 하나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천국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왜 보지 못하는가? 내가 그들을 자연법이라는 힘에 따르도록 이끄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이 법 안에서 살아가므로, 사랑과 평화, 안녕, 기쁨, 활동, 생명인 그 법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누려야만 한다.

33. 너희 인간들은 세속적인 본성을 초월한 것, 즉 영적인 삶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너희 아버지께로 이끄는 길이 너희에게 계시되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그 길을 택할 수도,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남겨 두었다. 즉,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며,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도록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께 진정한 공로를 쌓고, 동시에 그분께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34. 이성을 갖지 못한 존재는 본능에 이끌리는데, 그 본능은 그 존재의 내면의 목소리이자 스승이며 인도자이다. 그것은 어머니인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빛과 같아서, 그 존재가 삶 속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 준다. 이 길 또한 위험과 위험이 도사리는 길이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에 의해 인도되며, 여러분의 영혼은 신성한 영이 그 영적 자녀들에게 심어 놓은 빛인 영에 의해 이끌립니다.

35. 자연의 자녀들의 운명은 이 땅에 있으며, 여기서 시작되어 여기서 끝난다. 반면 영혼의 소명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이 지상 생활을 초월하고, 완성의 세계들을 넘어 영원으로 들어갈 때, 한 안식처에서 다른 안식처로 이동하며 지혜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들을 발견하고, 점점 더 복되어지며, 점점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6. 너희의 소명에 대해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라. 또한 영적으로 뒤처진 형제자매들을 관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들 속에서 너희는 무수히 많은 지혜의 본보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를 너희 삶에 적용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37. 각 종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과 부지런히 활동하는 이들의 모습을 본받으라. 충실함이나 감사함의 본보기를 마음에 새기라. 이 모범들은 신성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의 피조물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나로부터도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동행하며, 내가 이 땅에 심어 놓은 것을 함께 누리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들 안에서, 신성한 법을 글자 그대로 이행하고 양심의 목소리에 이끌릴 *때—그들이* 본능에 이끌리듯이—조화를 알게 되고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너희의 재물을 늘리고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며 영적·인간적 진보로 이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목소리를 발견하게 하려 함이다.

38. 이 모든 것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 과연 전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양심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은 사람이 과연 자신의 이웃을 모욕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러니 내 계시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하며, 세상 또한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라. 그래야만 그 성찰을 통해 영혼이 고양되고, 이성이 경외심에 사로잡히며, 인간은 – 한마디로 – 진정으로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게 될 것이다.

39. 오늘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가르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대로, 진심을 다해 너희 이웃의 마음에 전해야 할 메시지이다. 너희는 사명을 완수해야 하기에, 내가 이 시대에 와서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선포를 위해 이 세상의 학문으로 지성을

단련한 자들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2시대의 제자들처럼 소박함을 지닌 자들을 이용했다.

40. 두려움 없이 내 일을 드러내라. 이는 언제나 세상을 비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41. 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새겨지도록, 너희가 너희 스승과 같아지도록, 너희가 겸손함으로 인해 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라. 진리를 전하여, 그 진리를 통해 온 인류가 빛을 받게 하라.

42. 미덕을 실천하고, 마치 한 명의 제자처럼 하나가 되어라. 이 책에서 모든 이가 가르침을 얻어 갈 것이며, 그리하여 "마지막이 첫 번째가 될" 것이다.

43.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를 가르치고, 머지않아 너희 곁에서 이루어질 사건들을 예고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들었는가.

44. 인간은 영성화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며, 그의 영혼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더 높은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 형제들과 교감하고 그들이 그에게 선사할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는 발달 수준이 낮은 존재들, 즉 뒤처진 존재들이 머무는 삶의 차원으로 내려가, 그들이 비참한 삶을 뒤로 하고 더 나은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이 완성을 향해 올라가는 사다리는 매우 길다. 그 길 위에서 너희는 무수히 다양한 발전 단계에 있는 존재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너희는 그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이고, 그들도 또한 너희에게 그들의 영적 풍요로움 중 일부를 선물해 줄 것이다.

45. 그러면 여러분은 개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상이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행성에서 영혼이 발전하고 있으며, 모든 곳에서 영혼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나는 여러분이 모든 형제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며, 돕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 속에서 그들과 교감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그렇게 하십시오. 이 수행을 시작하면, 너희는 점차 그들의 간구와 가르침, 그리고 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46. 나는 너희가 현재 너희의 고향인 이 행성 안팎에 있는 형제들과 조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정의 유대를 맺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며, 너희가 가진 것을 구하는 이들에게도 서둘러 도움을 베풀어라.

47. 이 시대에 너희로 하여금 나의 재림을 깨닫게 하도록 정해진 존재들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며, 이 인류에게 얼마나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직 나만이 이 끊임없는 노력을 보고 그들의 공로를 알고 있다. 그들의 업적이 위대하므로 내가 그들을 축복한다. 너희가 자신의 영적 삶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안다면, 그곳이 너희의 영적 은인들 덕분에 보살핌과 기적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그들의 선함과 노력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다양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그저 말씀드리건대, 그들은 인간의 삶을 다시 질서와 정의로 되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48. 그들의 어려운 사명을 돕고, 그들의 사랑과 이타심을 이해하며, 이 위대한 사업에서 그들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49. 이 시대뿐만 아니라, 첫 번째 인간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래로 영의 세계는 보내져 왔으며, 여러분의 고통과 기쁨에 동참하며 그 존재를 드러내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거나 영적 형제자매들과 멀어진다고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단순함으로 돌아가고, 이 존재들과 교감하며 그들 주변에서 그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의 업적을 깨닫고 그들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 지구를 떠나 다음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생애 동안 여러분의 수호자였던 그들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 형제자매들의 미덕을 알게 된 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작은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에게 수호천사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50. 나는 지금 너희의 세계관에는 감춰져 있던 것들을 너희에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너희 삶에서 근본적인 것, 즉 너희 영혼의 불멸과, 끊임없이 위로 향하는 그 길, 그리고 나 안에서 이루어질 최종 목표가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51.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며, 땅 위에서 살아가되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아라. 너희가 여정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 너희가 겪는 모든 시련이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이끈다는 것, 그리고 걸어온 모든 길은 너희가 돌아오는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라.

52. 너희는 이 영성화의 시대에 첫 빛을 보았으나, 그 완전한 꽃피움을 이 세상에서 보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의 사역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부모였던 이들의 영혼이 너희의 사명 완수를 위해 계속 헌신하도록 허락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가 뿌린 씨앗을 돌보도록 허락하리라.

53. 이 세상에서 선을 위해 일하고, 내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전하라. 종종 어떤 이들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나, 다른 이들에게는 공감을 얻을 것이니,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가르침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모든 이웃에게 이를 전하기 위함이다.

54. 오늘 너희는 내가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전해 온 것과 동일한, 유일한 본질, 즉 사랑을 드러내는 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나의 법과 가르침이 기반을 둔 원리들은 변함없고 영원하다.

55. 오늘 나는 성령으로 오셔서 신성한 빛을 통해 나의 진리와 나의 현존을 드러내려 한다. 마치 그 '두 번째 시대' 에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나게 하여,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나의 진리를 드러내고 피로 그 진리를 인치었던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이 보고 느끼는 대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보이게 함으로써, 내 영이 사람들에게 품고 있는 무한한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56. 나, 그리스도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과 지혜, 그리고 능력을 드러내셨다. 그 능력은 영으로 믿음이 필요하고, 이성으로 빛이 필요하며, 마음으로 평화가 필요한 이들의 유익을 위해 기적을 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랑의 힘 그 자체인 그 능력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쏟아져 그들에게 온전히 헌신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죽음의 순간에 나 자신도 필요로 했던 그 능력을 내 육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극에 달했습니다.

57. 나는 내 몸에 스며드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내 권능을 행사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인간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해 고통을 겪고, 미성숙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 죄인들에 대한 나의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신적이며 인간적인 구체적인 증거로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58. 내가 다른 이들에게 드러낸 모든 능력—나병 환자를 고치거나, 눈먼 자에게 시력을 되돌려 주거나, 절름발이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거나, 죄인들을 회개시키거나, 죽은 자를 살려낸 것 등— 내가 군중들 앞에서 드러낸 모든 권능, 즉 자연계에 대한 내 권세와 생사(生死)에 대한 내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내 진리의 증거를 주기 위해 드러낸 모든 권능을,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려 했기에, 내 육신이 그 수난을 겪고 그 고통을 겪도록 허락한 것이다. 비록 내 권능으로 내 육신이 어떤 고통도 겪지 않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너희 눈에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었겠느냐? 만약 내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내 권능을 사용했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본보기를 남겼겠느냐?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내 권능을 내려놓고, 신성한 힘을 거절하여 육체의 고통과 배은망덕함에 대한 슬픔, 고독, 죽음의 고통, 그리고 죽음을 느끼고 체험해야만 했다.

59.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통이 진실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입술은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이 나고 지친 몸을 압도한 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을 통해 학대당 하고, 그 피를 흘려 준 맹목적이고 배은망덕하며 오만한 자녀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신의 영적 고통도 함께 있었습니다.

60. 예수께서는 그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성령, 곧 신성한 영으로 인해 강하셨기에, 고통에 무감각할 수도 있었고 박해자들의 공격에 대해 무적일 수도 있었으나, 눈물을 흘리시고, 군중의 눈앞에서 계속해서 땅에 쓰러지는 것을 느끼시며, 육체의 힘이 고갈되고, 육신이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린 후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61. 그리하여 내 지상 사명은 완수되었고,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백성들이 왕으로 선포했던 그분의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다.

62. 나를 영접했던 이들은 바로 나를 골고다로 호위해 간 사람들이었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노래했던 많은 이들이 나중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다. 그러나 사랑과 믿음으로 마음을 준비하여 나를 받아들였던 많은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충실히 따랐으며, 스승께서 남기신 피의 흔적 위에 눈물을 흘렸다.

63. 영혼의 빛을 통해 나를 본 이들에게 나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 그 자체였다. 오직 감각으로만 나를 본 이들에게 나는 진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인간으로서 죽은 것을 혼란스럽게 여겼고, 속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쁨으로 가득 찬 왕국을 약속했던 그 절박함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속았다고 비웃었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분이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굽혀진 모습을 보고, 그 후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자, 그들은 오직 비웃을

뿐이었고, 예수는 살 자격조차 없는 거짓 선지자라고 소리쳐 외칠 수밖에 없었다.

64. 그들은 가련하고 무지한 이성주의자들이었고, 가련하게도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영혼들이었으며, 자신의 추측에 얽매여 있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박해자들과 사형 집행자들의 손에서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의 목소리와 오른손에 권능이 있다면 – 왜 그는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았다고 탄식했는가? 그가 생명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면 – 왜 그는 하찮은 사람들의 손에 죽었는가?"

65. 그 피조물들의 영혼에 빛이 닿을 때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나의 고통과 죽음 속에 담긴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삶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했다. 반면, 영혼으로 나를 사랑했던 이들은 단 한 순간도 당혹감이나 의심을 품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볼수록, 그 무한한 사랑과 가장 완전한 정의와 지혜의 증거 앞에서 그들의 경외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66. 심지어 모든 사람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 내 진리의 단 한 알갱이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을 강도 디마스조차도, 다른 이들이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던 바로 그곳, 즉 십자가 위에서 나의 신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나의 빛을 알아볼 수 있었고, 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예수의 겸손과 세상의 맹목성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의 고문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이해했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강도이자 악당으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왜 너희는 이 잔을 스승께, 즉 너희가 오직 은혜만을 받은 이 사람에게 건네는 것이냐?" 그리고 의로운 예수님께서 죽음과 씨름하시는 인내와 겸손을 보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외쳤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계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67. 그렇다, 사랑하는 디마스여, 너는 나와 함께 빛과 영적 평화의 낙원에 있었으니, 내가 네 믿음에 대한 상으로 네 영혼을 그곳으로 데려갔던 것이다. 예수님 안에 – 그분도 그와 마찬가지로 죽어 가며 피를 흘리고 계셨지만 –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과연 누가 그분의 오른편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 누워 있던 강도 안에 빛의 영이 숨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시간이 흘러 영혼의 평온이 다시 찾아오자, 나를 거부하고 조롱했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내 진리의

빛 속으로 들어왔기에, 그들의 회개는 컸고 나를 따르는 그들의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8. 나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에 생명과 영적 지혜의 책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 책은 수세기와 시대, 시대를 거치며 사람들이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책이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던 마리아에게 "여인아, 이 사람은 네 아들이다"라고 말하며, 그 순간 인류를 대변하고 있던 요한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로 변모한 인류, 영성화된 인류였다.

69. 또한 요한에게로 몸을 돌리며 "아들아, 이분은 네 어머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대해 이제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

70. 마리아는 순결과 순종, 믿음, 연민, 그리고 겸손을 구현하셨습니다. 이 미덕들 각각은 제가 그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의 자궁 안에서 인간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사다리의 한 계단입니다.

71. 그 연민과 순결, 그리고 사랑은 생명의 씨앗이 수태되는 신성한 자궁입니다.

72. 내가 인간이 되어 내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너희에게 내려온 그 사다리는, 너희가 인간에서 빛의 영으로 변모하며 그 위를 타고 나에게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사다리와 바로 같은 것이다.

73. 마리아는 그 사다리이며, 마리아는 어머니의 품이다. 그분께로 돌아서면,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21

1. 제자들아, 너희가 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 선한 의지를 기울이고 있으니 축복을 받으라. 그리하여 너희는 너희가 가진 은사를 꽃피우고, 이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너희는 지금 사람들이 영원한 것, 즉 덧없는 인간적 존재를 넘어선 그 삶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나의 제자가 되어 온 너희는, 영적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3. 나는 가르침을 전하는 내내, 이 지상 생활이 영혼에게 학교이자 경험, 시련의 장이자 성장의 기회로 작용한다고 설명해 왔으나, 영혼이 지상 몸을 떠나 세속을 초월한 무한한 '계곡'에 이르러야 비로소 영적 삶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해 왔습니다.

4. 내 가르침의 단순함을 경탄하라. 그 빛은 온 우주를 비추고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모든 활동과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그 본질이 여러분의 이성적 능력에 스며들면, 영혼의 완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밝혀줍니다. 이 본질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갈되지 않는 영감의 원천으로서,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선입니다.

5. 나의 가르침은 단순하므로 인간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여러분 모두가 영을 지니고 있기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함, 신비주의, 또는 물질주의가 개입되는 곳에는 빛인 나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단순함을 추구하고 겸손을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비밀과 가장 헤아릴 수 없는 신비들조차도, 그 내용을 모두 명확히 보여주는 책의 페이지들처럼 너희의 이해력에 드러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사람들이 밝히지 못했거나 밝히려 하지 않았던 신비와 비밀에 대해 말할 때, 나는 내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비밀 보물창고에 간직해 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결코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니, 그건 오직 너희 아버지께서만 담당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7. 제2의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었으니, 이를 통해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단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 안에 인간의 삶보다 더 높은 삶을 사는 존재가 깃들어 있으며, 그 존재의 고향이 영원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보다 무한히 더 높은 영역에 있음을 깨닫게 하였다. 그

가르침은 영원까지 깊이 파고드는 것이었으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박하고 단순한 형태로 표현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가르침을 알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8. 이 가르침은 인류가 이 제3의 시대에 완전히 영적 영역으로 들어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다시 인간으로 내려왔으니, 나는 그 교훈을 확장하고, 펼치며, 설명하기 위해 그들에게 왔노라. 왜냐하면 나는 이 인류가 이제 처음에는 약속처럼 보였던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9. 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을 나의 새로운 메시지 주위로 모을 것이며, 목자가 양을 부르듯 그들을 부르고, 그들이 거친 날씨와 폭풍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마구간의 평화를 그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10. 너희는 겉으로는 믿음이나 영성의 흔적조차 전혀 없어 보이는 많은 이들이, 영혼의 가장 순수한 곳에서 영적 삶의 불멸의 원리들을 간직해 왔음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너희에게 아무런 신앙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파괴될 수 없는 제단을 품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11. 사람들은 이 내면의 제단 앞에서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과오와 악행, 그리고 모욕을 뉘우치며, 불순종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 양심의 제단 앞에서 인간의 오만함은 무너져 내릴 것이며, 그리하여 사람들은 더 이상 인종을 이유로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희생과 속죄, 그리고 마침내 평화가 사랑과 겸손, 믿음과 선의의 당연한 결실로 찾아올 것이다.

12. 현재 오로지 권력과 세속적 영광을 향한 야망만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적이 영성임을 알고 있기에 이를 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다가오고 있는 싸움, 즉 영과 악의 대결을 예감하며, 그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따라서 영감의 형태로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오는 빛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13. 너희는 결국 누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영인가, 육신인가? 의심할 여지 없이 승리는 영의 것이 될 것이다. 영은 한때 세상의 노예였으나, 이제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의 것은 세상에" 바칠 때가 될 것이다.

14. 오늘 나는 예언적인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땅의 모든 민족이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너희 중 누가 이 일을 성취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인간이 나의 예언을 현실로 만들 힘과 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늘을 몰아내고 폭풍우를 가라앉히며, 너희 모두를 나의 사랑의 식탁 주위에 진정한 형제자매로서, 너희가 바로 그러하듯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로 모이게 할 분은 바로 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싸움에서 홀로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나와 함께 일할 것이며, 이 제자들은 인류 앞에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정찰대원들 앞에서 나의 충실한 증인이 될 것이며, 세상에 나의 권능과 사랑, 그리고 나의 임재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15. 너희는 결코 내 십자가의 모든 짐을 지게 되지 않을 것이다 –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짊어져야 할 그 부분 –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너희의 책임은 막중할 것이다.

16. 싸움은 치열해지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될 유리한 사건들이 언제나 그 싸움을 덜어줄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 마음에 말씀하시는 나의 목소리와 같을 것이다.

17. 모든 민족이 점차 새로운 날의 빛, 즉 제3의 시대의 빛으로 깨어나는 것을 보며, 너희 영혼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너희의 하느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영적 성전, 즉 믿음과 사랑의 지울 수 없는 불꽃이 빛날 내면의 성소를 세울 것이다.

18. 현재 너희는 평화와 조화, 형제애로부터 아직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과 삶, 진리에 대한 관념이 너무나도 달라, 마치 수많은 신들이 있고 각 사람마다 자신만의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19. 적어도 여러분을 둘러싼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원리에 복종하고, 모든 것이 똑같은 사명을 따르며,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법칙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관찰하지 못했습니까?

20. 만약 서로 다른 사명이 존재했다면,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법칙과는 다른 법칙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나 이외의 다른 누군가를 발견했다면, 너희의 신앙적 신념과 예배 형식, 관념, 그리고 삶의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영원으로부터 너희 인간적·영적 삶의 창공으로 비추어진 빛은 오직 하나뿐이다.

21. 누구에게도 이 가르침으로 회심하는 것이 희생이 되지 않을 것이며, 머리를 앓을 필요도 없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선하고 참되며 의로운 것을 거부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2. 나의 사역이 목표로 하는 유일한 것은 모든 사람의 영성화이다. 왜냐하면 영성화를 통해 그들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성화를 통해 그들은 *각자의* 신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에 영적 분리의 원인이 되어 온 종교들의 명칭과 외형적 형태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3. 모든 사람이 각자의 다른 영성화 길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면, 그들에게 부족했던 유일한 것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그동안 물질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던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24. 그리하여 내 현존을 알아보기 위해 형상 앞에 무릎을 꿇었던 자는, 그 후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나를 나타낼 필요 없이 자신의 영혼 속에서 나를 느끼게 될 것이다.

25. 내가 그곳에 계시며 그곳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고 들은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 오랫동안 순례를 해 온 사람은, 나를 찾기 위해 지구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의 신성한 은총을 통해 삶의 매 순간마다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26. 그러면 사람들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고, 영과 영이 맞닿는 곳에서 나의 신성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영적 행위에 자신의 양심을 포함시킬 것이다.

27. 영적으로 볼 때, 내 말씀의 본질 외에는 다른 빵도, 다른 포도주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본질로 양식을 얻으며, 사랑과 의로움, 공의, 자비 안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28. 그리고 과거의 경전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자들, 그 말씀들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종파와 교회로 나뉘어 있던 이들도 영성화를 통해 서로 가까워질 것이니,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더 높은 관점이 그들 모두에게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성한 계시에 항상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를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29. 영성화는 내가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전부이며, 그러면 그들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가장 높은 이상이 실현되고 가장 심각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0. 이 혼란의 시대에 나의 말씀은 세상에 구명정처럼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빛과 평화, 형제애로 가득 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31. 이제 인류는 곧 각 나라 위로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비둘기는 부리에 상징적인 올리브 가지를 물고 있을 것이다.

32. 나의 광선이 너희에게 내려왔으니, 비록 너희가 감각적으로 그것을 볼 수는 없더라도, 너희 영혼은 너희를 비추는 나의 빛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

33. 이제 너희는 자신의 본질 속에서 육체의 장기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수 세기 동안 인간 안에서 잠들어 있던 영혼의 은사, 능력, 힘, 그리고 특성들일 것이다. 너희는 그 과정에서 실체도 형태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너희의 과학이 아니라고 말한다.

34. 지금까지 너희에게는 이성으로 발견하고 감각으로 만져본 것만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영적인 영역, 즉 너희가 알기를 원치 않았던 그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의 존재는 가장 위대한 비밀과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을 드러내 줄 새로운 빛으로 비춰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니, 마침내 너희는 아버지와 함께 삶의 꽃을 피우고 영혼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5. 현재 너희는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한 시기의 끝과 다른 시기의 시작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너희가 겪는 시련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리고 내가 너희의 발걸음마다 주는 신성한 징표를 제거할 수 없는 채로 말이다.

36.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영적 삶에 있어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 존재 속의 감정 세계는 여전히 잠든 듯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3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직 나의 목소리만이 너희를 깨울 수 있고, 오직 나의 부르심만이 너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자비로 가득 차서 왔노라. 이미 나의 빛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 빛은 너희의 인식 속에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스며들고 있다. 마치

깊은 밤에 도둑이 침실로 침입하듯 , 발끝으로 살며시, 가장 작은 소리도 내지 않고 말이다.

38. 내 목소리가 영적인 방식으로 인류에게 들리게 되면, 사람들은 비록 자유롭게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그들 안에 존재해 온 무언가가 진동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일어서는 영이 되어, 나의 부름에 응답할 것이다.

39. 그러면 지상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아래에서 삶을 바라보지 않고, 영혼이 고양된 높은 곳에서 삶을 바라보고, 깨닫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0. 내 사랑은 너희가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물질주의의 깊은 잠에서 너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너희에게 도움을 주러 온다는 것을 깨달아라.

41. 나는 너희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너희가 위대해지기를 원한다. 너희의 능력과 지성, 감각을 통해 내 허락 아래 너희 것이 되어야 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

42. 직관이 깨어나게 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감수성이 생기고, 영감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며, 너희 마음이 죄에서 정화되고, 너희 이성이 맑아지도록 허락하라.

43. 서로 간의 연대를 위해 노력하고,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쓰라. 지상에서 살아오며 겪어 온 그 끊임없는 적대감을 근절할 때까지 이를 물리쳐라. 세상에 선함이 드러나도록 하고, 사랑과 정의의 법칙이 솟아나는 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너희의 삶이 고귀해지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는 가장 고귀한 대의를 위해 헌신하게 될 것이며, 너희의 영혼은 나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44.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시키고자 했던 악, 즉 많은 이들이 – 비록 너희가 믿지 않더라도 – 그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아 자신의 존재의 모든 힘과 생각을 바치고 있는 그 악을 근절하는 것이 너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너희 삶에서 점점 더 제거하고 몰아내겠다는 생각에 불타며, 그 악과 싸워야 한다.

45. 이 축복받은 싸움을 위해 너희는 믿음과 의지, 용기, 힘, 인내, 그리고 끈기를 비축해야 한다.

46. 이 전투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나는 내 힘을 여러분의 팔에, 내 빛을 여러분의 지성에 불어넣을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에서 영감을 받은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내가 기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47.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간직하며, 나를 더 잘 알고자 하는 열망 을 위해 온전한 의지를 쏟아부으라. 어떻게? 너희 영혼이 지닌 은사, 능력, 사명, 속죄의 의무, 그리고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함으로써이다.

48. 날이 지나가도 자신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명상하며, 나의 본보기와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너희의 행위를 통해 너희 영혼의 어떤 은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49. 눈을 뜨고 감각을 예리하게 하여, 너희 주변에서 살아 숨 쉬고 얽혀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라. 너희는 내면과 외부, 그리고 너희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영적 삶을 외면해 왔으며, 너희가 숨 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50. 그 이유는 너희가 세속적인 과학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여 영적인 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51. 여러분은 영적 삶의 무한한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기, 선함, 믿음,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렵고 달성하기 힘든 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 연구를 위해 요구되는 그 순수함과 고양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인간적 과학을 항상 선호해 왔습니다.

52. 너희가 행하는 어떤 일에도 어떤 영적 존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는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일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하다.

53. 여러분의 인간적 삶 너머에는 영들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형제자매이자,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여러분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54. 그 투쟁은 양측이 처한 발전 단계의 차이에 기인한다. 빛의 존재들은 사랑, 조화, 평화, 그리고 완성에 대한 이상을 품고 인류의 길에 빛을 뿌리며, 항상 선을 일깨워 주고 인류의 복에 이바지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반면, 여전히 지상의 물질주의에 매여 있는 존재들은,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불확실한 기간 동안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키우는 존재들은, 인간의 이성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눈멀게 하며, 의지를 노예화함으로써 혼란을 뿌려, 인간을 이용하고 그들을 *자신의* 계획의 도구로 삼거나, 마치 자신의 몸인 양 이용하려 한다.

55. 빛의 영적 세계가 인간의 영혼을 얻어 영원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려 애쓰는 동안; 그 축복받은 무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더하고, 고통의 침상 곁에서 간병인이 되며, 큰 책임의 짐을 진 사람의 곁에서 조언자가 되고, 청소년의 지도자가 되며,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고, 잊혀져 홀로 사는 이들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동안, 영적 지혜의 빛도 없고 고양되는 사랑의 감정도 없는 존재들의 군단 역시 인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이 영적 왕국으로 가는 길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 아니, 이 존재들의 의도는 정반대이며, 그들의 열망은 세상을 지배하고, 계속해서 그 주인이 되며, 지구상에 영원히 남고, 인간을 지배하여 그들을 자신의 의지의 노예와 도구로 만드는 것– 한마디로, 그들이 항상 자신들의 것으로 여겨왔던 것, 즉 세상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56. 그러니 제자들아: 이 두 존재들 사이에는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 너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투쟁이지만, 그 여파는 날마다 너희 세상에서 뚜렷이 느껴지고 있다.

57. 인간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자신을 둘러싼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한 선과 악, 빛과 어둠, 영성화와 물질주의가 맞서는 이 거대한 전투에서 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58. 바로 빛의 영적 세계가 활동하고 투쟁하며, 언젠가 세상이 영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59.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너희의 영적 형제자매들이 치르는 이 치열한 투쟁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들에게 있어 이 투쟁은 마치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배은망덕의 쓴맛을 마시게 하는 잔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베풀어 주는 모든 선함만을 받아들이는 데 그칠 뿐, 그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투쟁을 돕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60. 그들과 함께할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그들의 영감에 마음을 열고 그 지침을 따르는 사람도 드물다. 그러나 그들은 삶을 얼마나 힘차게 헤쳐 나가며, 얼마나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며, 어떤 기쁨과 영감이 그들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는가!

61.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영향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물질주의에 완전히 매몰되지도 않으면서도, 그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영성화하기 위해, 즉

선과 지식, 영적 힘을 통해 삶을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과의 투쟁 속에 있다.

62. 양심의 목소리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물질주의에 완전히 굴복한 자들,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무시하는 자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그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들은 승리한 줄로 믿고, 자유롭다고 믿으며, 자신들이 포로라는 사실과,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빛의 군대가 어둠 속으로 내려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63. 나는 이 빛의 메시지를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노니, 사람들이 깨어나 그들이 물리쳐야 할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지니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 함이라.

6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내가 이 시대에 사람으로 왔더라면, 너희의 눈은 내 상처가 여전히 생생하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는 그치지 않았고, 그들은 골고다에서 내가 흘린 피, 즉 인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 피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지상에서 나를 심판하고 정죄했던 자들의 행적을 바라보며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영으로 오셨다.

65.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 그러나 모든 영혼 속에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를 위해 흘린 피의 일부가 존재한다. 그 생명력과 피가 소멸되거나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들은 내가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낸 영적 생명을 구현한 것이었다. 내 말씀을 인치고, 내가 땅에서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확증한 그 피를 통해, 사람들은 영혼의 갱신을 갈망하며 위쪽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66. 나의 말씀과 나의 행적, 그리고 나의 피는 헛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때때로 너희가 내 이름과 내 말씀을 거의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너희는 곧 그것들이 생명의 수액과 생명, 그리고 순결함으로 가득 차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마치 끊임없이 박해받음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씨앗과 같이 말이다.

67. 또한 이 시대의 내 말씀과 내 현현들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영성화의 가르침이 그와 같은, 혹은 그보다 더 큰 힘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68. 너희의 이성을 통해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한때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그 피를 통해 상징적으로 내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이제 나는 너희에게 영원을 향한 승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피가 헛되지 않았다면, 내 영의 빛은 더욱더 헛되지 않을 것이다.

69. 지금 너희는 현재 듣고 있는 말씀의 심오한 의미를 아직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영원으로부터 비롯된 너희의 빛의 영혼은,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교육받지 못하고 불순한 대변자들과 영적 빛의 세계를 통해 세상에 계시한 모든 것의 진리와 성취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70. 때때로 너희는 묵상 중에, 지구상의 서로 다른 곳에서 동시에 그들을 부를 때, 공간 속의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때 너희의 상상력은 그들이 빛처럼 빠르고 끊임없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그리고 세상의 한 끝에서 다른 끝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려낸다.

71.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그들의 임무가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가!”라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들의 속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72. 나는 그 사명이 여러분의 이성이 상상한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존재들은 지도자, 수호자, 조언자, 자선가로서의 임무를 맡을 수 있을 만큼 필요한 발전 단계에 도달하면, 그 영향력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위치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보고, 듣고, 느끼며, 자신의 사명에 속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73. 높은 경지에 이른 영혼에게는 지혜와 사랑 덕분에 거리가 사라지며, 그 활동 범위는 그들이 도달한 발전 수준에 상응합니다.

74. 그러나 여러분은 발전 단계가 전혀 없는 영혼은 가장 소중한 자질이 아직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75. 또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 존재가 머무는 장소를 상상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것 안에, 모든 곳에 현존하시는 나처럼, 여러분에게 나 또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6. 너희와 하나님 사이, 혹은 너희와 영적 존재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거리는 물질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이며, 이는 영감과 영적 영향을 받아들일 준비, 순수함, 또는 의지가 너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77. 결코 너희와 너희 스승 사이, 혹은 너희와 영적 세계 사이에 그러한 거리를 두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찾는 법을 아는 이들에게 내 사랑이 쏟아붓는 은혜를 언제나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적 세계가 그것을 느끼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언제나 갖게 될 것이다.

78. 오늘날 인류는 자신과 영적 삶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를 두고 있는가! 그 거리가 너무나 커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느껴하며, 천국을 멀고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여긴다.

79.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영적 왕국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고 느낀다. 그들은 언젠가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받은 상상을 잃어버리고, 죽어서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도록 내버려 둘 때면, 오직 세속적인 인상들만 남게 되어 영적인 것에 대한 모든 상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80. 이 시대에 내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는 거리를 없애고, 오류를 제거하며, 어둠을 걷어내어, 이미 무한한 영적 영역에서 살아왔던 인간의 영혼이 기도와 명상을 통해 그 근원으로 돌아가, 자신의 본질적 핵심을 발견하고, 이를 지구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구로 맡겨진 존재의 이성과 마음에 드러내게 합니다.

81. 너희는 영적 깨달음의 한 순간만으로도 겉보기에는 그토록 멀어 보였던 거리가 사라지고, 너희가 나를 멀리 있는 존재로 여겼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박탈해 왔던 모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82. 오늘날 너희는 비록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마음가짐을 바꾸기에 더 잘 준비되어 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온 존재가 영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 모두에서, 자유 의지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펼쳐지고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83. 오늘날 사람들의 이성적 수용 능력이 과거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은 그들의 능력이 발전했기 때문인 것처럼, 영혼 또한 끊임없는 삶의 경험을 통해 발전하여,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84. 그러므로 내가 인류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완전한 형태, 즉 영적인 형태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내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 감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형태를 찾아야만 했다.

85. 이제 인류는 하느님에 대한 영적 숭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논쟁을 거친 후에야, 즉 이해와 마음의 평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은 뒤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86. 이 가르침을 통해 나를 듣는 너희는 편견과 광신에서 마음을 해방하는 법을 깨달았으며, 자연스럽고 소박한 방식으로 나를 경배하고 내면을 통해 나를 느끼고 있다. 너희는 스스로를 인간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여길 수 있으며, 나는 너희를 영성화의 시대를 여는 선구자로 삼을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22

1. 나는 너희 영혼을 위한 사랑과 빛인 나의 가르침의 책에서 또 다른 한 페이지를 너희에게 알려준다. 너희 스승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청하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명확하고 완전하게 가르침을 주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소명과 내가 너희 영혼에게 맡긴 사명을 이해하게 하려 함이라.

2.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이해하여 동료 인간들에게 전하기 위해 왔으며, 비록 그들이 때때로 너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만족해 했다.

3. 너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에게 말하며, 동료 인간들의 불신을 나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바위처럼 굳은 마음을 마주했을 때, 나는 그들의 양심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나와 함께 있고자 하는 갈망을 느끼게 하리라. 너희의 사명은 시간이나 거리를 가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길을 따름으로써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다.

4. 너희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 병든 이들, 그리고 "노예"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사슬을 끊고 사랑으로 내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치유하고 해방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더 이상 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며, 그때 너희는 스승으로서 남아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5. 빛의 검으로 너희는 어둠을 몰아내고, 이웃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사람들이 평화와 화합, 선의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를 위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느냐? 나의 제자들, 사랑하는 백성들아 –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 머무는 데 지치지 않는 이들, 즉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느끼는 이들로부터 말이다.

6.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세상의 방탕함에서 멀리 떨어져 유혹을 물리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내세에서 영원한 영광, 즉 영혼이 깃들어야 할 왕국을 보게 될 것이다.

7. 나는 너희 안에 일체와 형제애에 대한 가르침을 남겨 둔다. 깨어 기도하라. 그리하여 유혹이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라 – 때가 되면 내가 인류를 향해 보내게 될 사자와 제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이 모든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나, 오직 나의 사랑과 빛으로만 감싸일 때, 여러분은 영혼 속에서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며, 그때 여러분은 양처럼 기꺼이 산을 올라 신성한 고향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8. 너희의 하늘의 어머니는 너희의 발자취를 따르는 목동 소녀와 같다. 마리아는 사랑스러운 정원에서 너희를 장미와 백합처럼 가꾸시며, 너희가 아버지께 그 향기를 바치는 꽃들처럼 되게 하시려고 그 향기를 주신다.

9. 제2의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다시 너희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지키자, 어떤 이들은 나를 알아보았으나 다른 이들은 나의 현존을 의심했다. 너희 중 일부는 나를 다시 듣고 영의 눈으로 보았기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제 육신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제 영혼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온전한 헌신과 겸손으로 그것을 바치겠습니다."

10. 나는 너희를 나의 영적 빛의 세계에 맡겼으니, 그곳이 너희의 조언자이자 보호자가 되어 – 너희를 길로 인도하고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하려 함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의심하지 말라. 나는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계시로 그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미리 나의 사자들을 보냈다. 나는 사람들의 길과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선구자를 보냈다.

11. 1950년 동안 나는 너희에게 나의 마지막 가르침을 줄 것이며,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계시하는 일을 마치기 전에, 너희가 나의 사랑의 말씀을 어떻게 심을 것인지, 그리고 이 시기에 나를 듣지 못하고 느낄 수 없었던 지구의 모든 곳에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지방에서 지방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

12. 너희는 사랑과 빛으로 가득 찬 강한 영혼들이다. 서기관이 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도 말라. 너희의 겸손함 속에 너희 아버지의 은총과 빛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3. 너희의 눈빛은 진심 어린 온기로 가득 차야 하며, 너희의 지식은 사랑의 지식이 되어야 하고, 너희의 손은 어루만져야 하며, 너희의 말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은 너희의 모범을 따르게 될 것이며, 수세기 동안, 시대를 거듭하며 일으켜 온 전쟁을 더 이상 부추기지 않을 것이다.

14. 그러면 인류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수고하며 많은 눈물을 흘린 이들과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는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약속이다.

15. 오늘날 모든 사람은 진리를 온전히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자들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간은 자신에게 계시된 부분조차 이성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그 누구도 절대적인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16. 모든 사람은 진리의 *일부와* 오류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며, 이를 진리의 빛과 뒤섞어 놓습니다.

17. 각자가 *자신의* 세계관을 관철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세력들이 서로 맞서 싸우는 투쟁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여 자리 잡게 될 것은 인간의 이데올로기도, 과학적 이론도, 종교적 신조도 아니며, 오히려 *모든* 선한 관점들, *모든* 고귀한 신앙적 신념들, 최고의 영성으로 승화된 *모든* 숭배 형태들, 그리고

진정한 인류의 진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과학들이 조화롭게 결합된 형태일 것이다.

18.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을 말하고 발표하도록, 다른 이들이 자신의 숭배 형식과 의식을 공개적으로 행하도록, 토론하고 대립하도록, 과학자들이 가장 진보적인 이론을 전파하도록,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터져 나와 빛을 보고 드러나도록 허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추수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바로 그날, 양심이 무자비한 낫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을 뿌리째 잘라낼 것이다.

19. 백성아,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 싸움을 예고했음을 잊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을 보거나, 종교 공동체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영이 그들과 싸우는 것을 목격할 때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20. 세상이 들썩이게 내버려 두라. 폭풍우가 몰아치고 싸움이 불타오르게 하라. 그리하여 사람이 깨어나, 깨어남과 동시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빛을 바라보게 하라 – 진리를 깨닫는 길의 문을 닫아 버린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높은 자리와 왕좌, 받침대에서 내려와, 성령의 빛을 갈망하고 목마르게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도록 하라.

21. 너희 모두는 나의 빛을 찾아야 할 것이며, 너희 모두는 어둠의 날들에 그 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등대를 찾아야 할 것이다 – 성찰과 회개의 날들, 양심 앞에서 깊은 자기 성찰을 하는 날들, 그 어떤 인간도 평온함을 느끼며 "나는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 왔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날들이다.

22. 아니, 그렇게 외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니, 모든 영혼 속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23.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들만이 영혼의 정화를 이룰 것이다. 허영과 타인에 대한 권력 행사, 그리고 오만을 버리는 자들만이 구명정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집하고, 자신의 오류와 전통에 매달리며 – 양심의 판단과 지시에 반하여 끝까지 이를 고수하려는 자들 – 이들은 옳은 것을 알면서도 혼란과 어둠의 심연으로 향할 것이며, 너희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곳으로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4.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 적당한 때에 전해 준 이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를, 너희는 인류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

25. 나의 지혜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하나로 묶고, 혼란의 회오리바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믿음을 잃었을 때 어둠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26. 오직 나의 말씀만이 광란의 속도로 심연으로 치닫는 자들을 막을 힘을 가질 것이니, 이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비밀을 풀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너희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27. 나 외에 누가 더 높은 삶에 대한 믿음도 없고 나의 의로움에 대한 지식도 없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누가 진정으로 고난과 억압,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들의 삶 속에서 고통의 의미와 근원을 이해했느냐? 내가 보는 인류의 스승과 지도자는 얼마나 적은가! 사람들은 영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들은 세속적인 필요와 근심 너머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오직 인간적인 측면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 과학에서도, 종교에서도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여 – 스스로 진리를 찾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 길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반면, 다른 이들은 영성이 부족하여 새로운 오류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28. 생애 동안 고통의 잔을 하나씩 마셔 온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우리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타오르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짐을 견딜 수 있게 해 줄 텐데 말입니다."

29. 나는 이 자녀들에게 하늘의 향유와 같이, 그들의 이성을 위한 나의 빛과 그들의 마음을 위한 나의 격려를 내려주노라. 이는 내가 모든 피조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0. 아, 만일 모두가 나에게 묻는 법을 알았다면, 만일 모두가 영적으로 기도했다면, 만일 모두가 진리를 아는 데 관심을 가졌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소망하던 것을 얻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찾지 않고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내 문을 두드렸으나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31. 너희가 가는 길에 겸손의 발자취를 남기라. 너희가 영적 지식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이 너희 마음에 스며들게 하지 말라.

32. 겉으로 보이는 운명이 각기 다르더라도, 너희는 내 앞에서 모두 동등하며, 모두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고,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

33. 너희 모두가 나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이는 너희 모두가 – 비록 방식은 다르겠지만 – 가장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공덕을 쌓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결코 누구도 열등하다고 여기지 마라.

34. 영성주의자 안에는 결코 허영심이 뿌리내려서는 안 된다. 반대로 진정한 겸손이 항상 그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그의 행실이 거짓된 빛으로 눈부시게 하는 대신, 동료들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35. 너희는 사랑으로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 마치 의무를 떠맡는 것처럼,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에서 악한 일이 닥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 아니, 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여, 내가 지금 그러하듯이, 너희가 내 율법 안에서 맡은 사명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수행하고, 그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도록 스스로에게 요구할 수 있다.

36. 사람들이 나를 상처 입혔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해 온 영원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던 시절은 이제 뒤로 남겨두라.

37.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회개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을 너희 마음에서 떨쳐 버리고, 심판의 순간에 너희 영혼 이 거두게 될 유일한 것은, 이 땅에서의 온 생애 동안 뿌려온 것뿐임을 명심하라. 그 수확이나 열매는, 그들에게 맡겨진 삶을 통해 얻은 발전과 진보, 그리고 고양일 것이다.

38. 영적 현실은 사람들이 상상해 온 모든 것과는 얼마나 다른가! 나의 정의는 너희가 믿는 것과 같지 않으며, 신성한 형벌도 너희가 그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과 같지 않고, 천국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너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쉽고 빠르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영적 속죄도 너희가 말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유혹도 영적 존재가 아니다.

39. 너희는 내가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들을 연구해야 하며, 너희에게 전해진 비유적인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인간의 말인지 분별하고, 내 가르침의 진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0. 오직 영적인 관점에서만 너희는 내 말씀에 대한 올바르고 진실된 해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말씀도,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긴 말씀도, 그리고 제3시대의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도 모두 그러하다.

41. 이 인류가 일단 율법과 가르침, 예언과 계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와 관련하여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42. 그때 사람들은 진정한 정의를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참된 천국을 예감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속죄와 정화, 그리고 보상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43. 오늘날 너희는 여전히 무지의 장막에 가려져 있는데, 이 장막은 너희가 세속적 물질주의와 종교적 광신 속에서, 온통 잘못된 두려움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 감히 찢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너희 삶에 시련이 닥쳤을 때,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너희는 이렇게 외친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벌을 받는가?"라고 외치지만, 나의 정의가 때로는 수세기,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나야 비로소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정의는 언제나 찾아오며, 겉보기에는 시기가 늦거나 부적절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지혜로운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44. 나의 영적 가르침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나 과제가 있다. 하나는 유배된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화의 왕국( )에서 영원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구원과 승화, 혹은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은사와 능력을 지닐 수 있는지 알게 하는 것이다.

45. 이 말씀은 영성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의 눈을 열어 그들이 오직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혹은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 과정에서 덧없는 것을 '현실'이라 부르면서 진정한 현실이 존재하는 영원한 것을 오해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46. 이 메시지가 나라에서 나라로, 집에서 집으로 전해져 빛과 위로, 평화의 씨앗을 남기게 하라. 사람들이 잠시 멈춰 서서 영혼이 성찰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휴식을 취하게 하라. 매 순간이 영적 세계로 돌아가는 순간이 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행실과 뿌린 씨앗에 따라 영적 삶에 도착했을 때 거두게 될 열매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47. 오늘 나는 너희가 근심에 잠기고, 낙담하며, 희망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너희는 기도 속에서 삶이 오랫동안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고 내게 말한다. 스승께서는 이에 대해,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시기가 초기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바로 그 시기이며, 훗날 '신성한 말씀'이 그 백성에게 확인해 주었던 바로 그 시기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비록 너희가 매우 쓰라린 잔을 비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인내로 그 고통을 견뎌낼 줄 안다면 너희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알아두라.

사람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창조주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자결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그들의 존재의 모든 섬유를 관통하고 괴롭히는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48. 나는 오랫동안 그들의 자유 의지를 억제해 왔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반성하고 선한 행동을 할 때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조언하고 경고함으로써 그들의 몰락을 막고자 했으나, 그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 지극히 사랑하는 인류를 계속해서 부르며, 그들이 모든 행동에서 개선하고 품위를 지키도록 촉구할 것이며, 그들이 내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제자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49. 나는 너희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희에게 돌아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의 고난 속에서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영적 길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를 깨우치기 위함이기도 하다. 나는 너희가 바로 이 혼란의 순간에 필요로 하고,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의 길을 깨닫기 위해 간절히 기다려 온 가르침을 너희에게 주었다.

50. 나는 너희가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고, 그 사역이 끝날 때 평온하고 만족하며, 나와 너희 이웃과 화해한 상태로 내게로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내 영과 하나 되는 그 순간에, 나는 너희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의 공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며, 너희가 내게 바치는 것은 끝없는 축복과 은혜로 이자와 함께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다.

51.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라. 너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원한다면 구하라. 내 사랑은 무궁무진하므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내 인내와 너그러움을 시험하고 싶다면, 그것도 하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인정한 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 이웃에게도 행하라.

52. 모욕을 당할 때마다 용서하라. 용서해야 할 횟수조차 신경 쓰지 마라. 너희의 소명은 너무나 고귀하므로, 이 길의 덫에 걸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명들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혼은 더 높은 차원으로 승천할 수 있도록 언제나 사랑과 이해,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과거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행실로 영의 영원한 책에 아름다운 페이지를 써 내려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의 뒤를 이어 그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이는 모범이 되고, 앞으로 이 땅에 올 새로운 세대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함이다.

53.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은 현재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향해 겨우 눈을 뜬 어린아이부터 세월의 무게에 굽은 노인이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시련과 속죄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믿음과 영혼의 평화를 가지고 이 시련들을 헤쳐 나가, 고통에 상처받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나의 힘과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54. 세계관에 대한 투쟁이 있을 것이며, 양측의 믿음과 신념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래 위에 자신의 일을 세운 자들은 그 기초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도, 내 가르침의 진리를 헤아리는 법도 알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무지함과 궁핍함, 그리고 공덕의 부족함을 한탄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는 진정한 인도의 손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하며, 목자와 양 모두 불확실함과 혼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것이다.

55. 이 세상에 너희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내가 정한 백성아, 너희는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 너희는 위험과 두려움이 도사리는 이 시기에 인류를 감싸 안기 위해 날개를 펼치라.

56.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영과 영이 소통하는 기도를 가르쳤으며, 나의 신성을 나타내는 모든 상징이나 표상을 제거하였다. 너희는 너희 내면에 성전을 세웠고,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며 찬양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동료 인간들의 신앙적 신념을 존중하도록 가르쳤으며, 이미 다가오고 있는 그 전투에서 약해지는 이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살아가는 파수꾼처럼

너희를 훈련시켰다. 그러면 너희가 사명을 다했을 때,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상처를 입히지 않는 칼, 곧 사랑과 선의로 싸웁니다. 우리는 신성한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주님께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율법을 어겼던 자들을 선으로 회개시킵니다. 우리는 무지함으로 인해 갈 길을 잃은 남녀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일깨워 주었으며, 그 이후로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내 대의의 전사들로 받아들이고,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주리라.

57. 나의 사역은 온 땅에 퍼져 나갈 것이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이 합류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더 많은 이들이 따를 것이니, 이는 인간이 영적 완성을 갈망하며 현재의 상태를 초월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58.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평화의 왕국을 내려주도록 지구를 준비시키기 위해, 너희는 얼마나 힘써 싸워야 하겠느냐!

59. 기도하고 내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사랑의 바다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인간의 제한된 이성 능력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 이성만으로는 내 가르침에 담긴 진의와 이치를 다 표현할 수 없다. 한 영혼으로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래야 너희는 마음이나 인간 본성의 제한된 이성보다 더 큰 명료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시대의 나의 역사가 너희에게 위대하게 보였듯이, 너희는 이 시대에 내가 오시는 것 또한 너희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60. 너희가 더욱 온전해질수록, 목표를 더 가까이 보게 될 것이다. 비록 너희가 구원에 단 한 걸음만 남았는지,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먼지 알 수는 없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단지 내 신성한 영의 음성이신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이끌리기를 바란다고 말할 뿐이다. 법을 어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호소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드리는 간청입니다. 나는 너희가 헛되이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61. 너희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러면 오늘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련들이, 실은 너희를 위한 것이며 너희의 존재를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줄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지혜로운 시련들로, 이는 투쟁 속에서 너희 영혼을 정화하고 단련하기 위함이다. 마치 내가 오늘날 너희가 사랑하고 숭배하며, 그 영혼의 강인함과 검증된 미덕을 인정하는 수많은 존재들을 다듬어 온 것과 같다.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 순결과 거룩함의 흔적을 남긴 너희의 형제자매들이다. 나는 너희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을 따르기를 원한다. 너희의 소명은 같으며, 너희 모두는 내 눈에는 위대하고, 모두 합당하니, 나는 너희가 그들이 거하는 평화의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23

1. 나는 너희 영혼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나의 사랑으로 너희 영혼을 양육하며 굳건하게 하기 위해 온다.

2.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내 어린 자녀들이며, 땅 위를 걸으며 괴로움과 고통을 견디는 나의 작은 자녀들이다. 너희 가운데 죄의 길을 떠나 너희 영혼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3.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죄에서 깨끗해지면 내 용서를 받게 될 것이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4.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나는 너희를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 자비를 결코 잃지 말라. 이는 나의 신성한 영에서 비롯된 것이며, 너희가 가는 길에 항상 간직해야 할 유산이기 때문이다. 나는 스승이며, 너희가 내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너희에게 가르침을 준다.

5. 양심은 너희 영혼이 비치는 거울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더 이상 이 거울 속에서 너희가 궁핍한 모습을 보아야 할 때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빛과 숭고한 말씀을 주었으니, 이는 내일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고, 너희가 나의 율법에 순종하며, 제2시대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함이다.

6. 너희가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이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니, 그는 너희와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나는 그를 그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를 통해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나의 마음가짐이다.

7. 이미 제2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 나는 인종이나 피부색, 계급에 따라 너희를 차별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모두가 하나의 뜻을 갖게 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이웃들을 미소와 두 팔을 벌려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한다. 너희가 이 사랑을 실천한다면, 내일은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죽음은 더 이상 인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오, 인류여, 너희의 전쟁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

9. 혼란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바벨탑을 쌓지 마라. 그래야 너희에게 다가오는 이들이 너희 모두가 똑같이 준비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불신자는 아버지의 기적을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그의 영혼이 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

10. 그 증거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가장 단단한 바위에서도 수정처럼 맑은 물이 솟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11. 내게로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리니, 나는 가장 훌륭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나는 인류가 영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남겨 둘 것이며, 너희가 일단 인정받게 되면, 땅의 모든 의사들이 나의 영적 사역을 인정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12. 나는 너희에게 보호의 방패로서 기도를 남겨 두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인류가 너희를 통해 구원을 얻고,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말씀을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13.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지극히 큰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인류의 무관심 속에서 지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큰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될 때가 올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받은 민족의 삶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14. 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나 그 공로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여러분은 이 시대에 받은 모든 것에 대한 증언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므로, 민족들과 이웃들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5. 마음속에 내 말씀을 간직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이웃들의 문을 두드리며, 내가 내 말씀으로 이 백성에게 맡긴 빛과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16. 1950년 올해의 나의 모든 가르침은, 내가 너희에게 내 계시를 끝냈다고 선포할 그 순간이 왔을 때 너희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울지 말라, 백성아. 나는 이미 너희에게 내 본질이 너희 마음속에 간직될 것이라고 말했으니, 만일 너희의 기억이

희미해질지라도, 나는 내 자녀들 중 몇 명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이 내 말씀으로 만든 페이지와 글들을 책과 앨범으로 엮게 할 것이다.

17. 명상과 기도로 힘을 얻으라. 너희는 인간으로서 연약하니, 내 계시의 "작별 인사"는 너희의 온 존재를 뒤흔들 것이다. 온 땅의 사람들이 제3시대에 내가 임재한다는 사실조차 전혀 짐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분을 이러저 한 방식으로 느끼게 될 텐데, 이 백성이 어찌 그날 뒤흔들리지 않겠느냐?

18. 일단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비추게 되면, 사람들은 1950년 말 무렵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나의 계시가 끝난 시기가 도래했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도래 역시 온 지구의 사람들을 뒤흔든 사건들을 통해 예고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19. 나는 너희가 영혼의 내적 갈등과 사상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계관의 혼란의 시기를 대비하여 너희를 준비시키고 경고한다. 인류의 모든 세계관, 교리, 신학, 철학, 그리고 신앙 고백이 뒤흔들릴 것이며, 이는 폭풍우를 상징할 것이니, 곧 진정한 영의 폭풍이다. 너희는 내 뜻에 따라 그 요동치는 파도 위를 항해하며, 폭풍과 어둠이 지나갈 때까지 그 위에 꿋꿋이 버텨야 한다. 이 시련을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는 더 나은 처방은 기도와 내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 없으니, 이를 통해 너희의 믿음은 끊임없이 굳건해질 것이다.

20. 그 세계관의 투쟁, 그 신앙 고백과 이념의 충돌, 그 전투는 모든 종교와 제도의 근저에 쌓여 온 결함과 오류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 정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망상과 허상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1. 모든 사람이 태양의 빛과 열, 그리고 그 영향력이 물질적 삶의 기초가 됨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의 몸을 위해 태양이 주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효과를 이용하듯이, 그들은 진리의 빛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고, 강화하며, 깨우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활용할 것이다.

22. 그러면 인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힘이 작용하게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삶이 나의 법이 정한 규범인 참된 삶의 원리에 점점 더 부합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23. 백성아, 너희의 사명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영성화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 빛을

전파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하나는 생각과 기도를 통해 영성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적으로 영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말과 육체적 존재,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한 내 말씀의 해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측면이다. 예수님의 모범을 기억하라.

24. 만일 너희가 기도의 힘에 대해 큰 믿음과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의 사고력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비의 행위를 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너희는 기도에 그 본연의 모든 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한 순간 진심으로 우러나온 참된 기도가 무엇을 막아내는지 종종 깨닫지 못한다.

25. 너희 세상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더 높은 존재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기적에는, 자신의 정신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전쟁의 기세를 저지하는 수백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의 기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앞으로도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나 이 활동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을 쏟아부으십시오.

26. 기도하라, 백성들아. 그리고 전쟁과 고통, 비참함 위에 너희 생각의 평화의 망토를 펼쳐라. 그 망토로 너희는 방패를 만들 것이며, 그 보호 아래에서 너희 이웃들은 깨달음과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27. 세상은 현재 너무나 눈이 멀어 진리의 빛을 알아볼 수 없고, 가장 깊은 내면에서 나의 부르심을 들을 수도 없으니, 너희는 기도하며 영적인 토대를 다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너희의 기도는 들리지 않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파괴하고 방어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28. 절망과 증오, 공포와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사람들은 더욱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29. 그때 역시 내 메시지를 전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닐 것이니, 너희는 마치 광야 한가운데서 외치는 자와 같을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주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0. 인간의 마음은 경작해야 할 농지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그 안에서 바위 덩어리를 제거하고, 덮고 있는 잡초를 뽑아내어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비를 통해 비옥하게 만들어야만 그 내면에서 씨앗이 싹틔울 수 있으며, 마침내 흙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려 하고 적절한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씨앗을 뿌릴 때가 와야 한다.

31. 마찬가지로 이 인류 속에서도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간은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고통의 잔을 건네고 있으며, 그 잔은 그에게 순수함을 되찾아 줄 것이다.

32. 그가 스스로 초래한 모든 고통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마침내 자신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싹튼 모든 악을 내쫓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때 더 이상 고통받을 수 없고, 더 이상의 두려움을 견딜 수 없게 되면,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양심의 빛, 회개의 기쁨, 그리고 영혼을 위한 새로운 생명의 활력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33. 사람은 준비가 되어 순수해지고, 고통을 통해 정화되며, 나중에는 회개와 자기 성찰의 이슬로 결실을 맺게 되면, 영성화의 신성한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은 – 이제 회개와 개선 및 갱신을 위한 결심으로 고귀해졌기에 – 자신의 품에 사랑과 평화, 지혜의 씨앗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4. 인류가 나의 메시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점에, 이곳의 이 백성이 동료 인간들 앞에서 나의 말씀의 전령이나 "일꾼"으로 나설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인류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35. 제자들아, 너희의 책임은 얼마나 큰가? — 그토록 커서,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수행하도록 맡긴 매 순간마다, 너희는 나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지경이다.

36. 나는 너희에게 우선 기도하라고 말했으니, 즉 너희가 수행하게 될 사명을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해야 하며,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너희 마음을 준비시켜야 하며, 물질주의의 열매인 이기심과 싸우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점차 너희의 본성을 섬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너희 안에 영성이 점점 더 스며들 것이다.

37.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때, 내가 너희에게 선한 행실을 요청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행실들이야말로 — 비록 말이나 생각일지라도 — 진정으로 내 영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이라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실체가 부족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된 말이나 문장이라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을 갖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은 이미 생명력이 없는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8. 이제 너희는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때, 너희는 내면의 묵상 속에서 생각을 모으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 성소를 다시 떠나 너희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형제애의 사랑의 증표를 남기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웃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39. 그리하면 너희의 결점은 점차 사라지고, 너희는 불화를 극복하며, 내가 가르침 속에서 너희에게 수없이 말해 온 그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40.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나의 새로운 메시지를 갈망하는 그 시점에, 이 백성이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 준비되지 않았거나, 증오에 맞서는 사랑, 이기심에 맞서는 자비, 불화와 질병, 고통에 맞서는 평화의 투쟁을 통해 정화되지 않았다면, 말씀만으로는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 내 진리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4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너희는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노니, 그래야만 비로소 내 가르침의 본질과 그 의미, 그리고 그 무한한 선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2. 1866년부터 1950년까지 84년이 지났으니, 이는 영적 계시의 한 시대 전체로, 그 기간 동안 신성한 빛이 모든 영혼과 모든 "육체" 위에 끊임없이 비추었으며, 영적 세계가 이 백성에게는 한 가지 방식으로, 온 인류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 시기였다.

43. 이제 이 시대에 나의 계시를 위해 내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안녕"을 고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준비하고 영성화되기를 기다리며 머물러 있을 것이며, 그때는 더 이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간의 뇌를 사용하지 않고, 나의 영이 여러분의 영에게 직접 계시하는 방식을 통해 인류에게 계시를 재개할 것이다.

44. 내가 고대의 한 예언자의 입을 통해, 내 영이 모든 영혼과 모든 육체에 부어질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환상과 예언적인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시기를 가리키신 것이니, 그때에는 모든 영혼이 지닌 은사가 드러나고, 그들이 신성한 진리를 추구하며, 너희에게 예언되었던 모든 것의 성취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45.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그 날을 두려워하지 말며, 더 이상 인간의 입을 통해 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묵상의 시간도 두려워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

곁에 계실 것이며,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며, 단 한 순간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의 사랑으로 너희의 믿음을 북돋아 줄 것이며, 다양한 형태로 나의 임재를 너희가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며, 생각과 행실과 말을 너희에게 불어넣음으로써 너희의 모임을 영의 정수와 신성한 영감으로 채워 줄 것이며,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넘어짐과 비틀거림을 면하게 할 것이다.

46. 새로운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 안에서 나의 임재를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너희의 의심을 없애며,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너희는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구나."

47. 너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거듭나 이 제3의 시대에 마땅히 나의 제자라 불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이 엄숙한 순간들과, 너희가 앞으로 받게 될 마지막 가르침 중 일부인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라.

48. 나는 너희가 훌륭한 제자로서 너희 스승의 진실함을 본보기로 삼아, 법과 양심이 제시하는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너희의 여정 전체에 걸쳐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한다.

49. 내가 이미 수 세기 전에 내 오심을 예고했으니, 나는 내 약속을 지켰다. 내가 – 나의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와 소통한 후 – 끊임없이 영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할 '접근의 시기'를 약속했으니,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내가 이 메시지를 마칠 날짜를 너희에게 계시했으니, 나는 이를 지키고자 하며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내 뜻에는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으며, 나의 신성한 계획도 변경될 수 없고, 삶과 인간의 운명을 바꿀 다른 어떤 힘이나 뜻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50. 모든 것은 영원 전부터 나에 의해 예정되어 있었으며, 내 지혜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시기는 태초부터 정해졌으며, 모든 운명은 미리 그려져 있었다. 비록 사람들이 결코 그들의 뜻을 나의 뜻과 조화시키지 못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은 이루어졌다.

51. 나는 너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시간을 주었고, 너희를 구원할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한 시대나 한 시기가 끝날 때 너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나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나는 너희에게 경고하고 깨우치며 회개와 개선, 선한 삶을 권면함으로써 나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다. 그러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나는 너희가 이미 회개했는지, 준비를 마쳤는지, 아니면 여전히 악과 불순종 속에 머물러 있는지 묻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나의 심판은 정해진 시각에 찾아왔고, 제때에

방주를 지을 줄 알았던 자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심판의 시간이 예고되었을 때 조롱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52.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래야 너희가, 비록 때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너희의 뜻이 결코 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시간이 오면, 나는 너희를 찾아가 각자에게 그 행실에 따라 갚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부터 나는 너희가 제때에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사랑과 빛으로 가득 찬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 방주는 가장 큰 심판의 날에, 전 세계적인 정화의 홍수 속에서 너희가 죽음을 면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53. 이 사건이 새로 들어온 자들과 뒤늦게 따라온 자들에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선배들, 즉 "첫 번째 자들", 제자들에게 있다. 그들은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법과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그들이 순종의 본보기를 보이지 않거나 내 진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에게 내 의로움과 내 뜻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반드시 보여 주리라.

54. 너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왜 너희 영혼을 그토록 엄하게 책망하는지 의아해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내 속성 중 하나를 너희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내 책망에 대해 불평하거나 놀라워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본성 속에 내 모든 능력과 미덕, 그리고 성품의 일부를 심어 놓았음을 알고 있으며, 게다가 내 법과 너희의 소명, 삶에 대한 계시를 주었고, 너희가 이해하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락해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내려와 너희의 행실과 내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심판하는 것을 정당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55. 내가 너희에게 나의 속성 중 단 하나라도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너희가 삶에서 저지르는 잘못을 책망할 자격이 없었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하노라.

56. 그러므로 너희는 영혼이 깃들지 않은 인간 존재는 현재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으며, 영이 없는 인간의 영혼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인간에게, 자신을 채우는 존재가 빛의 존재이며, 영적 왕국의 주민이자, 더 높은 세계의 사자나 사절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반대로, 영혼에게

있어 신성의 빛이자 자신의 길을 밝혀주는 영의 찬란한 등대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은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하며 시간을 허비했고, 영적 삶에 대한 생각에서 날마다 점점 더 멀어져 왔기에 – 심지어 여러분의 종교 공동체들조차 영성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치고, 병들고, 우울해진 인류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인류는 한때 그들을 심판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찾아오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책임 추궁에 당황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 연약하고, 작고, 병들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토록 가혹한가?"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목소리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내재해 있으며, 또한 작지도 않다. 그들의 영적·육체적 형상에는 내가 그들을 창조하신 지혜와 완전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지하지도 않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완전히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병들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모두와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나와 나누는 영적인 대화와 그 어머니인 자연과의 접촉과 같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58. 나는 너희에게 내 말씀을 깊이 묵상할 것을 촉구하며, 이렇게 말해야겠다. 누군가 – 나를 들은 후에도 – 나의 책망과 심판을 여전히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오직 그가 내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며, 그때 나는 그의 마음과 이성의 완고함을 용서해야만 할 것이다.

59.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오랫동안 시험을 받아 왔다. 오늘날 열방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 너희가 내 말씀을 동료 인간들에게 전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0. 나는 은혜의 삶에서 죽은 자들을 사자로 보내지 않으리니, 그들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기중심성에서 마음을 정화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지 않으리라.

61. 내 말씀의 전령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내 평화를 느끼게 하는 *나의* 제자여야 한다. 그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며, 그의 말에서는 언제나 영혼이나 이성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흘러나와야 한다.

62. 나는 이 백성을 '죽은' 상태로 발견하고, 내 말씀의 빛으로 그들을 다시 살려냈다. 내가 그들에게 가르친 바가 바로 그것인데, 내 제자들이 어떻게 동료 인간들에게 똑같은 일을 할 수 없겠는가?

63. 내가 "죽은 자"라고 말할 때, 나는 믿음과 선과 진리 면에서 죽은 자들을 뜻하는 것이며, 너희가 나의 설교에 왔을 때 너희 각자 안에 "죽은 자"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64. 내 말씀이 너희 마음의 묘비에 닿았을 때, 오랫동안 너희 삶의 물질주의 아래 묻혀 있던 영혼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65. 내 말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낯선 감정과 묻혀 있던 사랑의 정서, 그리고 영혼의 황홀함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음성 전달자를 통해 선포된 신성한 광선에 갈망하며 다가와, 무한한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려오는 그 본질을 만끽하고자 했습니다.

66. 그것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의 순간들이었으며, 빛과 완전함으로 가득 찬 세계로 옮겨져 세속적인 운명을 잊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67.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의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삶에서 고통밖에 기대하지 못하던 바로 그 순간, 신비의 장막이 찢어지고, 신성한 빛의 광선이 사랑과 진리,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영혼 위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68. 어둡고 고통으로 가득하며 단조로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이면서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시를 통해 나의 재림이라는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9.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너희 눈앞에 펼쳐졌다. 의심과 불확실성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너희 마음속에 빛이 밝혀졌다.

70.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말씀 속에서 수없이 언급해 온 새로운 새벽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깨어난 새로운 날이다.

71. 이제 여러분은 희망을 품고, 안정을 느끼며, 이 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72. 너희 마음속에는 고귀한 결심과 선한 의도, 아름다운 계획이 싹텄다.

73. 그 길은 빛으로 가득 차 너희 눈앞에 펼쳐지며, 끊임없이 너희를 그 길을 걷도록 초대하고 있다. 그 길은 너희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새로운 가르침을 드러내 주기 위함이다.

74. 너희 중 누가 온 인류에게 이 놀라운 각성을 바라지 않겠느냐? 너희 중 누가 이 보물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고 싶겠느냐? 아무도 없다. 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전 세계적인 부활에 대한 소망,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빛이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속에서 날마다 커져 가는 이 소망이 바로 내 말씀이 너희 영혼에 싹트게 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내일 너희로 하여금 싸우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75. 나는 내 백성에게 내 메시지를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겠다. 나는 그들이 가는 길에서 선의의 사람들을 만나, 내 계시를 땅 끝까지 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리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24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나는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너희의 마음 속으로 내려왔다. 나를 찾았던 자 중에 나를 찾지 못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2. 너희는 현재 광야를 헤매고 있지만, 이 길 위의 무수한 시련 속에서 끊임없이 너희를 격려하는 이 목소리 속에 내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 너희는 성령의 양식으로 양육받았으나, 수많은 무리는 물도, 양식도, 인도자도 찾지 못한 광야에 머물러 있다.

3. 나는 모든 이에게 내려오며, 어떤 인종도 편애하지 않는다. 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나, 준비된 자들만이 나를 영접하고 나의 임재 안에서 활력을 얻는다.

4. 나는 나를 맞아들이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노라. 곧, 눈을 열어 빛을 바라보고, 이 일 안에서 그 안에 담긴 온전한 진리와 영광을 발견한 자들을 축복하노라.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통해 훗날의 세대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시대에 걸쳐 나를 따르던 선택받은 백성인 너희는 오늘 다시 한 번 나에게 다가와, 내 앞에 절하며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너희는 기도 속에서 나에게 큰 환난을 겪고 있으며, 고통의 잔을 비웠고, 길가의 가시들로 인해 발이 상처 입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승은 너희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통의 잔을 마시며,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운데 내일을 기다리라.

5. 너희는 미리 경고를 받았고, 이 시대가 무엇을 가져올지 알고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예고해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눈이 멀지 않았으며, 빛으로 가득 찬 길을 걷고 있다.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은 다른 자들이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며, 결실도 없고 무익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의 모든 은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내 말씀 속에 내 임재가 있고, 날마다 내 가르침을 받아들여 온 것을 아는 백성으로서, 나에게 투사의 기개를 보여주는 강자이다 – 나를 향한 갈망과 완전함을 향한 열망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섰으며, 거대한 장벽을 뚫고 나아간 정신이다. 너희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고, 자신이 경험한 바를 증언하는 첫 번째 강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 그 위대한 최후의 시련이 다가올 때, 너희는 동료 인간들에게 말해야 한다. 너희의 말은, 그 큰 재앙으로 인해 잠시 혼란에 빠진 인류가 빠지게 될 침묵을 깨뜨려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목소리가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지며, 내가 약속한 바를 선포해야 한다.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순수한 이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는 권능과 힘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를 격려하기 위해,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술에 얹고, 내 영감을 너희 마음에 심어, 너희가 이 인류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리라.

너희는 충분히 준비되어 왔다. 나의 모든 가르침 속에서, 나는 너희 눈앞에 이상과 영성으로 가득 찬 끝없는 길을 펼쳐 보였다.

7. 너희는 이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나중에 깊이 연구하기 위해 마음속에 간직하는 동안, 너희의 이성과 더 나아가 너희의 영혼이 활기를 되찾았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대대적인 연구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 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과,

너희와 온 인류를 위한 유언으로 내가 준 가르침들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8. 준비하라, 백성아. 모든 마음에서 너희의 사고를 도전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솟아날 것이며, 너희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적인 유대감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고된 싸움의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의 진리를 수호하고 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나설 것이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파괴하려 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세운 이 일을 돌 하나하나씩 무너뜨려 함정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9. 그들은 광신과 무지로 일어설 것이니, 각자가 자신의 이해력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이신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 너희에게 내려오리라. 의로우신 내가, 준비된 영혼으로 내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빛나게 하리라.

10. 이스라엘 백성아, 이 거대한 싸움에서 너희는 오직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의의 무기만을 지니고 나가야 한다. 상처를 주고 죽이는 양날의 칼을 집어든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무엇보다도 너희는 나의 빛을 비추고, 마음속에 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너희는 인내와 지혜, 그리고 사랑으로 무장하고, 내가 이 평화의 한가운데서 너희에게 주었던 이 가르침들을 기억해야 한다. 비록 내가 교회들이 큰 폭풍과 큰 혼란 속에서 다투는 것을 보았지만, 나의 말씀은 세계관과 관념, 다양한 해석들로 요동치던 이 바다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너희 각자는 진리의 전령이 되어야 하며, 너희 모두는 나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너희 모두는 내가 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쳤던 그 사랑을, 내가 나의 초보 신자들을 훈련시켰던 그 인내를, 그리고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유혹에 굴복했을 때 내가 모두에게 베풀었던 그 용서를 기억해야 한다.

11. 그러니 나의 제자로 남을 이스라엘아, 이 스승에 대해 증언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아, 나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시련의 순간이 네게 기회가 될 것이며, 그때 네가 너 자신을 깨닫게 될 것이며, 네 영혼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너는 네 약함을 한탄하게 될 것이다. 스승인 나는 너희에게 가르쳤고, 무수히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었으니, 1950년이 끝날 때 – 은혜의 해이자, 내가 이 형태로 말씀하실 마지막 해 – 너희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음성 전달자를 통해 듣지 못했던 모든 것을 너희 영혼의 직관을 통해 받아들일 것이다.

12.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는 위대한 가르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길은 끝이 없다. 너희는 결코 이제 끝에 도달했다거나, 더 이상 배울 것도 연구할 것도 없다거나,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요, 백성들아, 짧은 시간으로는 내 가르침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의 온 여정 동안 공부해야 할 것이며, 그 후 저 세상에서 너희 영혼은 내 영의 본질과 지혜를 갈망하며 영적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너희는 여전히 더 넓은 지평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이상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때 비로소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빛과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서 무한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13. 오늘날 너희는 이 사역에서 더 이상 어린 제자나 어린아이들이 아니다. 너희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맞이하기 위해 땅에 거주했다. 그러므로 너희 영혼이 나를 들은 시대는 많았다.

14. 너희는 이미 몇 단계의 삶을 거쳐 왔으며, 성장해 왔다. 너희는 과거의 시절에 거둔 경험과 열매를 가지고 있다. 너희는 이미 큰 시련을 겪었으므로, 너희 영혼은 거짓 빛에 현혹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말씀의 "맛"을 알고, 눈을 뜨고 가장 순수한 영적 빛을 알고 있다. 너희는 내 지혜의 위대한 책을 읽었으므로, 불완전한 과학들로 인해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15. 나는 너희에게 내 안에 있는 참된 빛과 참된 과학을 알려 주었다. 나는 너희를 영혼의 차원에서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으니, 이는 너희가 이성보다 영혼으로 나를 더 찾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너희가 진정으로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회가 찾아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가 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포로처럼 느껴졌다면, 이제 내가 너희 각자에게 길을 열어 줄 순간이 가까워졌으니, 그곳에서 너희는 내 가르침을 적용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6. 오직 그렇게 해야만 너희는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너희 마음속에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이르게 하지 않는 이론이나 상상을 형성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실천해야 하며,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준비시킨 대로 –

은사와 은총으로 충만해진 모습으로 – 너희 자신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나는 너희를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며, 너희 각자가 그 길 위에서 나를 증거하고 너희를 나와 닮게 할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며, 너희의 능력에 따라 이를 성취할 수 있다.

17. 너희는 이미 준비가 되었느냐? 나를 본보기로 삼을 준비가 되었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를 위해 너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너희는 이미 영적으로 성숙해졌으니, 이 시점부터 너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너희 사명을 완수한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칠 수 있다. 반면 인류의 대다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으며, 그들을 깨울 충격이나 흔들림을 기다리고 있다.

18.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뜨겁게 간직하십시오. 상속권을 잃은 듯하고 영적 길에서 벗어났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사람들을 감싸 안아 구원하고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가 사랑을 뿌려 놓았으나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마음들—너희는 아는 이들과 모르는 이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이 너희의 길로 들어오게 될 것이거나, 아니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어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때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될 것이고, 너희 영혼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알아볼 것이다.

19. 각 지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에 대해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었으나, 여러분은 그것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겨 먼 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흩어지게 될 순간이 올 것이며, 그때 여러분은 이 씨앗을 풍성한 씨앗으로 간직하여 인류의 밭에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발전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여러분의 이상을 실현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곳에서 인류를 위한 사랑과 희생의 행위를 통해 위대해질 것입니다.

20.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는 이러한 시련을 겪어야 한다. 너희 각자는 사도가 되어야 하며, 나는 저 세상에서 너희를 깨우치고 축복할 것이다.

21. 너희는 그 당시 그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이 시대에 나의 제자들이었으니, 마치 그 열두 사도와 제2의 시대에 나를 들었던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나는 너희 안에 나의 씨앗을 심었고, 나의 지혜가 너희 영혼을 감쌌다. 그러나 잠시 동안 그 지혜로 충만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너희가 아직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 이제 나는 너희에게 평화의 시간, 즉 세속적인 삶에서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노니, 너희가 공부하고 준비된 상태로 너희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때가 오면, 그것을 소홀히 지나가게 두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허락하는 이 시간을 세속적인 삶에 바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덤으로 줄 것이며, 영혼을 위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23. 나는 인간의 영혼을 위해 왔으며, 그 영혼이 살아왔던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해 왔다. 육체는 부차적인 것이며, 지상 생활은 인간에게 중요하지만 역시 부차적인 것이다. 너희에게는 몸을 지탱할 빵 한 조각, 몸을 덮고 혹독한 날씨로부터 보호해 줄 이불 한 장, 그리고 소박한 옷 한 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먼 길을 걸어야 하고, 위대한 약속을 얻기 위해 큰 공로를 쌓아 내게로 와야 하는 영혼은, 아직 너희 곁에서 그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고, 끊임없이 구원과 해방을 간절히 외치고 있다. 그 영혼은 너희 존재의 핵심에서 솟아올라 너희의 굳은 마음을 뒤흔든다. 그러나 '육체'를 다스려야 할 것은 바로 그 영혼이며, 육체가 영혼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24. 육체는 단지 옷일 뿐이며, 너희가 한동안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도구일 뿐이다. 너희가 이 옷을 벗는 그 시점에, 나는 영혼에게 그 육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살고 있는 물질주의는 너희가 영혼을 억누르고 있는 감옥과 같다. 이제 내가 그 문을 열어주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어 너희가 나와 아주 가까이에서 살며, 너희 존재의 온 힘을 다해 이 인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리라.

25.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방비한 인류를 품어주는 다정한 어머니와 같기를 원한다. 너희의 품이 따뜻하고, 너희의 눈이 이 인류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에게 그들을 맡기니, 너희는 그들을 여동생처럼, 혹은 원한다면 딸처럼 여기라. 나는 너희를 나의 대리자로 남겨둘 것이며, 내가 인류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품어주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인류는 사랑과 본보기, 그리고 빛을 갈망하고 있다. 나는 인류에게 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라. 그들 안에서 너희는 나의 대리자와 나의 기적을 발견할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나의 가르침과 은혜를 쏟아 부을 것이다!"

26. 사랑하는 백성아, 네 임무가 얼마나 큰지,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일어설 수 있을 것이며, 인류 앞에서 그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묵상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지금, 준비하라 – 아직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고, 스스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금 말이다. 너희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그곳에 숨겨진 선과 악을 깨닫고, 너희가 발견하게 될 미덕들을 키우라. 그 미덕들은 너희가 창조된 이래 태초부터 내가 너희 영혼에 새겨 놓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발견하게 될 악, 즉 너희 안에 존재할 모든 불완전함은 완전함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27. 지구는 영을 위한 속죄와 시련의 골짜기이다. 그러나 영은 내가 그에게 부여한 힘과 권능을 통해 승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은 나 자신의 일부이며, 나의 본질이자, 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와 닮은 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 너희가 영성화와 상향 발전의 길에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겠느냐?

28. 백성들아: 매일 기도하고 내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며 스스로 노력하여 길을 개척하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며, 기다려야 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충분하다. 나는 여러분에게 장미빛 길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라고 말하며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시련을 겪게 될 것이며, 속죄의 길을 걸으며 과거의 잘못을 만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승하기 위해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29.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백성아. 그러니 환난 속에서도 순종하며, 기쁨으로 너희 삶을 견뎌내라. 밤이 깊을 때 받지 못한 것을 날이 밝을 때 받게 될 것을 희망하라. 나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받게 될 것이며,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스승은 너희 제자들을 항상 기도와 영적 가르침의 연구, 인간 삶의 연구로 인도하노니, 이는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고 의로울 수 있도록, 모든 결정에서 의로울 수 있도록, 너희가 나의 사도들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가 행동 속에서 드러낸 의로움으로 인해 마음속에 평화를 가득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0.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를 하나로 모았다. 내 말씀의 마지막 시기에 합류한 너희 중 일부를 내가 가르치고 일으켜 세웠으니, 이는 너희 모두를 하나의 생각과 동일한 공부로 하나로 묶어, 새로 합류한

너희가 오랫동안 나를 들어온 자들과 같은 발전 단계에 도달하게 하려 함이다.

31. 나는 너희 모두가 같은 사다리를 밟으며 높은 이상을 품고, 항상 영혼을 최우선으로 삼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나에게서 기대하는 모습을 본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며 말하노니, 이것이 바로 내가 인류에게도 기대하는 바이다.

인류는 언제 회심하게 될까? 언제 불결함의 외투를 벗어 던지게 될까? 언제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영적인 옷을 찾아 나서게 될까?

이 위대한 업적은 너희가 이룰 것이 아니다. 지칠 줄 모르고 일하시는 나, 내가 필요한 때에 인류를 회심시킬 것이다. 인류는 발전할 것이며, 한 순간에 큰 진전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영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련과 상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현재의 시기에 너희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지만, 나는 모든 시대에 걸쳐 일하고 성취할 것이다.

32. 너희는 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으나,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이 주는 따뜻함과 다정함을 갈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승은 너희에게 묻는다. 스승의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어머니의 다정함과 사랑도 알아차리지 못했느냐?

나는 너희에게 내가 유일한 스승이며, 유일한 영이며, 내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해 주었다. 너희가 마리아를 갈망한다면, 내 자신의 말씀 안에서, 즉 끊임없이 너희를 축복하고 어루만져 주는 바로 이 말씀 안에서 그녀를 찾으라.

33.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아, 나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하시며, 나 안에서 온갖 종류의 사랑이 말씀하신다. 내가 모든 시대에 걸쳐 말해 온 이 나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 나를 알아볼 때 – 너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공허함은 없을 것이며, 나 안에서 너희는 아버지, 친구, 형제, 스승은 물론 어머니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이며,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안심하라, 백성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교훈들을 알려 주었으니 나에게 감사하라.

34. 나는 은혜로운 매일 아침, 너희의 길을 축복으로 채워 준다. 두려움이나 간절한 소망으로 나에게 간구한 자 중, 응답받지 못한 자가 누구인가?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안다. 나는 저 세상에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내게로 오는 이들, 영의 영역에서 나를 찾기 위해 높이 올라가는 이들 중 하나이다. 나는 이 시대에 지상에 발을 디디지

않았으며, 영적으로 내려와 우주적 광선을 통해 너희와 소통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너희에게 말하며 너희를 축복한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아침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공덕을 쌓으십시오. 이미 올해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올바르게 활용했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매일 매순간을 활용하여, 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분위기, 이 평화, 이 빛, 이 기쁨, 그리고 이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올해가 지난 후에도 모임 안팎에서 계속해서 이를 호흡해야 하며,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너희가 어디에서 모이든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며, 너희가 나를 부르면 그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35. 그러니 백성들아, 이 시기에 신성한 스승께서 평화와 이해, 그리고 영성화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심을 깨달아라. 나는 너희의 생각을 하나로 모았으며, 너희는 내가 내려오시는 영적 성전을 세웠다. 그곳에서 나는 나를 드러내고 내 존재를 느끼게 한다. 올해가 지난 후에도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알아볼 것이니, 나는 앞으로도 평화와 영성 속에서 이처럼 나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혼 은 분열을 없애고 조화와 신앙적 일치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36. 때가 되면, 너희는 파벌을 형성하지도 않고, 혼란이나 나쁜 본보기를 남기지도 않은 채 흩어질 것이다.

37. 너희는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평화를 가득 담아 말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의 한 마디 말 속에 내가 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모든 정의와 진리가 요약되어 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평화와 영적 에너지,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주의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언제나 진리의 목소리, 예언하는 목소리, 악한 자들을 침묵시키고 성령의 음성으로 영혼을 깨우는 목소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8. 백성아, 너희는 혼란에 빠진 인류 한가운데서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이를 위해 준비시켰다. 너희 각자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지만, 비록 육체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너희 모두는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영적인 방식으로든 편지를 통해서든 서로 소통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점차 내 사역을 펼쳐 나갈 것이며, 이를 세상에 알리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이 시대에 너희 안에 이상을 일깨워 주었으니, 진실함과

의로움을 통해 영적 은사를 꽃피워 너희가 언제나 의롭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려 함이다.

39. 나는 너희를 다툼이 없는 하나의 가족처럼 연합된 상태로 남겨두겠다. 너희 모두는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겨야 하며, 모두 같은 발전 단계에 있고, 사명을 완수하려는 같은 의지와 높은 이상을 가져야 한다. 너희 모두는 나의 영으로부터 축복과 격려, 그리고 너희의 투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은혜로운 아침에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 드립니다. 제 가르침 하나하나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비록 짧더라도 그 안에는 위대한 빛이 담겨 있습니다.

40. 축복받으소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 즉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를 찾는 이들, 영의 눈으로 저편에서 영생을 발견하는 이들을 늘 기다리고 있다.

41.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영적 은사를 알려 주고, 너희에게 부름을 전한다. 그러나 너희 각자는 자신의 공덕을 통해 내게로 와야 한다.

42. 이 은혜로운 아침, 나는 이 국가 안팎의 여러 공동체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통해 온 인류를 축복하며, 그들에게 나의 평화와 자비를 베풉니다.

43. 이같이 나는 지금 너희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너희의 말은 이제 인류 위에 드리워질 침묵을 깰 것이다. 인류는 수많은 재앙에 짓눌려 있고, 다양한 신앙의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 드러날 세계관의 차이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 두려움의 시기,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너희가 알 수 없는 그 시기에, 모든 영혼 속에서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때 마음속에서 믿음을 느끼고,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 안에서 큰 권능을 느낄 것이다.

44. 이제 이 백성이 내 말씀과 계명을 깊이 묵상하며, 너희가 이 싸움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배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의 생각은 서로 부딪힐 것이며, 결론에 있어서도 의견이 엇갈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모든 생각 위에 내 빛이 비칠 것이며, 나는 건전한 영혼을 지닌 자들을 통해 내 계획을 실현할 것이다.

45. 나는 이 싸움에서 너희에게 오직 사랑과 지혜, 인내라는 무기만을 주겠다. 그러나 이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너희는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다가올 시기를 준비시켜 주었던 그 평화로운 시간들과 기쁨이 넘치던 분위기를 그리움으로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세계관과 관념, 시각이 뒤섞인 그 바다 속에서,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너희의 평화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야 할 것이다.

46.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고, 너희 영혼이 점점 더 성숙해지며 신념에 확고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지침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47. 나는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꽃길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고, 미래를 신뢰하며 희망하며, 모든 행동에서 정의롭고 올바른 사고를 가질 수 있다. 이 시기에 너희의 사명을 수행하고 완수하라. 그러면 나는 언제나 함께 일할 것이다.

48. 너희의 영성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언제나 진리를 선포하는 목소리가 되어, 악한 자들을 침묵 시키고, 이웃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모임 때마다 하늘의 어머니를 사랑으로 부르라. 그러나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영과 나의 영은 하나이니라. 내 말씀 속에서 그분의 다정함과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했느냐? 이 가르침 속에서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는 완전한 신성한 연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49. 내가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모습을 목격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종종 한숨을 쉬며 "아, 내가 주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 답을 받을 수만 있다면!"이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곧 체념하고, 외적인 예배 형식과 물질적인 제물 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자비를 찾으려 합니다. 비록 그들의 존재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피조물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늘 말씀해 오신 아버지가, 그들이 그분을 청하고 부를 때 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50. 아, 미성숙하고 세속적인 삶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여, 너희가 나와 소통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바로 내가 내 영혼 속에서 느끼는 갈증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만약 너희가, 너희가 갈망하는 그 대화가 단순히 허락된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모든 가르침이 언제나 너희를 영과 영의 대화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그러나 너희는 물질적인 삶을 살고 있기에,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응답하는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으나,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것은 더 이상 영적인 대화가 아니라, 너희 주님께서 너희의 물질주의 수준으로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1. 그러므로 이 시기에 내가 이 음성 매체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방식은 간결해야 한다. 이는 완전한 계시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며, 일단 이 시기가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영과 영의 대화를 향해 성장하기 시작하는 준비의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52. 너희가 때때로 믿었던 것처럼, 나는 결코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너희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적도 없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한 적도 없다.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너희는 더 높은 감각을 연마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육신의 감각으로 나를 인지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사람들에게 이를 허락했던 시대는 이미 아주 오래전 일이다.

53. 만일 너희가 영적 묵상, 기도, 예지력, 예언적인 꿈, 또는 영적 환상과 같은 너희의 영적 능력 중 몇 가지를 개발하기 위해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건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너희는 나와 연결되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너희의 질문에 대한 답과 신성한 영감을 너희의 생각 속에서 받았을 것이다.

54. 나는 언제나 너희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너희가 고양되고 영적으로 준비되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 이는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희의 영에 나를 드러냄으로써 너희에게 행복을 선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이 은총을 얻기 위해 준비하기만 하면 된다.

55. 비록 내 자비가 어떤 형태로 간구되든, 나는 너희를 받아들이고 내 은혜를 베풀어 주기는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청한 것을 얻는다 해도, 너희 영혼은 그 선한 것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는 행복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이다.

56. 너희가 간구로 영적인 경지에 이르는 법을 알게 되는 그날, 내 자비를 받을 때 너희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클 것임을 너희에게 말해야겠다. 왜냐하면 간구하는 법을 아는 자는 본성상 받는 법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들은 청하는 법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그들이 갈망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간청하거나 청할 줄조차 몰랐던 것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받는 법을 모르는

자들에 속하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청을 들어주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나의 의무는 자녀들이 삶의 투쟁 속에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보호하며, 곁에서 지지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비가 내 자녀들에게 쏟아지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57.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너희가 어둠과 가난, 비참함 그 자체인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양심을 일깨운다. 그 양심은 마치 너희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스승과 같아서, 항상 들리고 느껴질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찾으며, 너희의 잘못을 바로잡고 빛과 깨달음, 영과 영혼의 위대함의 높이로 너희를 끌어올리는 말과 가르침으로 자신을 표현하려 한다.

58. 너희의 이성과 영 안에서, 너희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나의 계시와; 아버지로서 내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나의 계시들과, 스승으로서 내 지혜를 밝혀 주는 나의 가르침들을 통합하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의* 본질, *즉* 신성한 뜻을 얻게 될 것이니, 그것은 바로 너희가 ‘’라는 영적 빛의 길을 따라 내게로 오는 것–단순한 계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내 왕국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그곳에서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영원히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59. 우선 영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너희 안에 숨겨진 은사가 서서히 깨어나게 하고, 먼저 영과 영의 대화를 경험한 뒤, 그 다음에는 완전함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25

1. 사랑으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니라.

2. 바로 여러분이 자신을 성찰하는 그 순간들이, 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적절한 때이며, 여러분이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고, 눈에서 달콤한 눈물의 샘이 솟아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3. 이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하며, 그 어떤 생각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그 안에는 진실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으며, 사랑과 감사, 회개, 그리고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4. 너희가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렇다, 나의 작은 자녀들아, 나는 너희 모두를 보고 너희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너희의 이름을 알고, 너희의 모든 곤란을 알고, 너희의 탄식과 간구를 듣고, 너희의 모든 청원과 헌물을 받아들인다.

5. 그렇다, 너희는 내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6. 때로 너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고통이나 고난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를 격려하고 싶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여 나의 교훈을 하나씩 전해 주기 위함이며, 아버지로서 너희를 바로잡고, 너희를 단련하며, '생명'이라는 그 길 위에서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7. 창조의 제단에서 나를 찬양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신의 벌로 돌리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기를.

8. 내 뜻을 따르는 법을 알고 겸손히 시련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 모두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9. 오, 수많은 사람들아, 너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희를 두려움에 빠뜨리니, 내게로 와서 피난처를 구하라. 너희는 모든

정의와 사랑, 그리고 진실함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너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누구에게 피난처를 구해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간청하고, 누구에게서 희망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너희는 나를 떠올렸다.

10. 오, 이 땅의 불쌍한 백성들아! 어떤 이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어떤 이들은 억압받으며, 나머지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과 대표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있구나!

11. 너희의 신뢰가 배신당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재판관들의 정의나 관대함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약속이나 말, 혹은 미소 짓는 얼굴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너희는 위선이 마음들을 장악하고, 이 땅에 거짓과 허위, 사기의 왕국을 세웠음을 목격했다.

12. 가혹한 고난을 견딜 수 없는 짐처럼 어깨에 지고 있는 가련한 백성들아 – 그 고난은 더 이상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해 주었던 그 축복받은 법이 아니라,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찬 생존 투쟁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생명을 바치는 대가로 무엇을 얻는가? 내용 없는 빵 한 조각, 괴로움으로 가득 찬 잔 하나뿐이다.

1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내가 너희의 기쁨과 유지를 위해 땅에 두었던 양식이 아니요, 이는 불화와 허영, 비인간적인 감정들의 빵이니, 요컨대 너희의 인간적 삶을 좌우하는 자들에게서 영적 성숙의 부족이나 결여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14. 나는 너희가 서로 빵을 빼앗는 것을 보노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이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니,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빵을 빼앗고, 약한 자들은 강자들이 먹고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15.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이 인류의 도덕적 진보는 무엇에 있는가? 그들의 가장 고귀한 감정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16.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간이 동굴에서 살며 가죽으로 몸을 감싸던 시대에도, 그들은 마찬가지로 서로의 입에서 먹을 것을 빼앗았고, 가장 강한 자들이 역시 가장 큰 몫을 차지했으며, 약한 자들의 고생은 그들을 폭력으로 지배한 자들을

위해 쓰였고, 사람들, 부족들, 민족들은 마찬가지로 서로를 죽였다.

17. 그렇다면 오늘날의 인류와 그 시절의 인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8. 그래, 너희가 나에게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할 것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너희가 너희의 문명과 과학을 내세울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단지 위선의 가면일 뿐이며, 너희는 그 뒤에 너희의 진정한 감정과 여전히 원시적인 본능을 숨기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영혼의 발전이나 내 율법의 성취를 위해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내가 너희에게 과학적 연구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다. 물질적 삶 속에서 탐구하고, 연구하며, 성장하고, 지식과 지성을 쌓아가되,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의 신성한 권리를 존중하며, 어떤 법도 인간이 동료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요컨대, 사람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최상의 계명을 너희 삶에 적용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빠져 있는 도덕적·영적 정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너희 얼굴을 가리고 있던 거짓의 베일이 벗겨질 때 너희의 빛이 비추고, 진실함이 빛나며, 너희 삶에 진실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진정으로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 내 가르침을 따르는 데 있어 영적으로 강해져서, 앞으로 너희의 말이 언제나 자비와 지혜, 형제애의 진정한 행실로 입증되도록 하라.

21. 나는 너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이상 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투쟁에 나서고 그 속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필요한 영감과 힘을 가질 수 있을지 자문하고 있음을 안다.

22. 너희는 내 말씀을 들을 때 얻게 되는 능력이나 준비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23.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그날을 생각할 때, 나는 너희가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다. 너희는 그때가 바로 제자에서 스승으로 변모하기 시작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깨닫고, 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24.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만일 이 계시들 없이는 너희가 영적 투쟁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임을 안다면, 내 말씀을 거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머지않아 제자나 학생처럼 생각하지 않고 스승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메시지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5. 너희는 영적 기쁨이나 위로를 갈망하며 이 모임 장소에 가는데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영이 동료 인간들의 발전을 위해 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2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형태로 나를 드러내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필요하다. 내 메시지가 일단 끝나면, 너희는 내 보이지 않는 신성한 임재를 느끼기 위해 기도와 황홀경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너희의 감각과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27. 그러나 깨어 있으라. 너희 가운데서 내가 계시를 끝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많은 논리를 내세우며, 신성한 진동은 영원하므로 내가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통해 느껴지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영이 인간 안에서 영원히 진동한다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내가 이 음성 매체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진실이다. 이는 그 방식이 가장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제 내가 너희를 영과 영의 대화에 대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8.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계시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니, 너희가 이를 전통이나 습관, 혹은 의식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영과 영의 대화'가 아주 먼 미래의 세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 아니, 제자들아. 비록 너희가 *완전한* 영적 대화에 도달하기까지는 큰 발전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는 내 가르침을 실천하며 점점 더 높은 수준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29. 중재자나 말, 상징, 의식, 형상 따위를 필요로 하지 말고, 직접 나에게 기도하라. 이것이 영과 영의 교감의 시작이 될 것이니, 그때는 너희의 내면적이고 더 높은 본성이 나를 갈망하며 치솟아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의 영적 목소리가 나를 부르면, 나의 신성한 목소리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희의 본성은 내 영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바로 직관과 영감이라는 은사를 통해, 즉 미묘하고 영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30. 이러한 방식의 소통이, 너희가 음성 매체를 통해 나누는 소통보다 더 완전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영적 대화는 너희의 준비 상태에 따라 그 완전함의 정도를 갖게 될 것이니, 이는 음성 매체들과 그들의 준비 과정에서 그들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서도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31. 이미 지금부터 그분의 자비와 진리를 깨닫게 되도록, 영적 기도를 점점 더 많이 실천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영감을 구하고 직관을 펼치는 데 익숙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인간의 표현과 말, 고귀한 감정과 선한 행실로 변모하고자 애쓰는 빛의 흐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2. 영과 영 사이의 대화의 시작인 기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 이상 신성한 메시지 를 전해 줄 대변자를 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받아들이고 전달할 준비를 하라고 맡기는 대신, 그때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아버지께 직접, 그리고 그분께 쌓아온 공로에 따라 받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3. 제자들아, 이 시기에 너희가 가진 모든 능력을 너희에게 드러내어, 너희가 영계의 인도 아래 그 능력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게 한 것은 바로 나였다. 그리하여 너희 형제들인 영적 조언자들의 계시가 끝날 때쯤이면, 너희는 이미 너희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34. 이제 너희가 1950년에 이르러 나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영적 세계가 너희에게 마지막 계시를 전할 것이므로, 너희는 이 백성이 이 준비와 발전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35. 내 선택받은 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준비의 첫걸음조차 내디디지 않았는가! 그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누려왔던 것처럼, 더 이상 스승과 영적 형제들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36. 많은 이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후회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받은 순간들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까? 스승의 가르침과 영적 세계의 조언 및 지도 아래, 우리의 은사를 꽃피우기 시작했더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내 뜻에 따라 정해진 이 계시 시기의 종말을 알리는 날과 시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기가 시작될

것이며, 그와 함께 여러분의 영적 은사를 더 단순하고, 더 높으며, 더 영적인 방식으로 꽃피우는 새로운 방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37. 오늘날의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는 마음속에 평온이, 영혼 속에 평화가 남을 것이다. 그러나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마지막 아침 기도 시간까지 기다렸던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 시대를 비추었던 내 말씀의 해가 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며, 영성화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기 위해 그 빛을 활용하지 못한 채로 남게 될 것이다.

38.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은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고통이 될 것이다. 후자들에겐 그들의 양심이 현실로 깨어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새로운 말씀이 세상에 미치는 중대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작품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랑이 싹트게 될 것이며, 그들은 기도와 기록된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되찾아 갈 것이다.

3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덫이 매우 깊게 박혀 있고 영성화에 대한 소망이 매우 커지는 모든 이들에게 내 도움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며, 머지않아 그들은 가장 앞서 나간 자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0. 이 시대에 나를 들은 모든 이들이 내 말씀에 대해 증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가 올 것이니, 세상은 물과 씨앗을 갈망하는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들판처럼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생각해 보라. 너희는 이미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진리를 증언하고 내 사역의 위대함을 드러낼 것인가?

41. 사람들이 너희에게 질문하고, 너희가 보고 내게서 들은 것에 대한 증거와 증언을 요구할 그 시간이 오면, 각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을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지금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험의 시간이 누구에게도 갑작스럽게 닥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낫다. 보라: 만일 주변 사람들이 너희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너희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깨어날 것이며, 제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말에는 부정확함과 거짓이 섞이게 될 것이고, 그 성급함으로 인해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42. 아니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는 빛에 대한 갈망이 너희를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채로 덮치는 일이 없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장차 넘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온전히 명확하게 너희에게 말하노라.

43. 영혼의 성장과 자기 성찰을 위한 시간은 언제나 유익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44. 나와 함께 일해 온 그 모든 "일꾼"들이, 삶의 투쟁과 역경 한가운데서도 이를 실천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영적인 일의 순간들 – 영으로든 육신으로든 – 에 온전히 자신의 사명에 전념하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에서 물러나도록 가르쳤다.

45. 내게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잊지 말며, 너희 형제들의 그 본보기를 받아들여 그로부터 용기를 얻으라.

46. 너희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평화로운 시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오해이다. 왜냐하면 그 평화로운 시기는 바로 내 백성의 수고와 투쟁, 노력, 심지어 희생 덕분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47. 이미 열매가 가득한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일꾼"이라 부른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 너희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씨앗이야말로 너희가 갈망하는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며, 이는 너희가 그 평화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뿌려야 함을 의미한다.

48. 비록 너희가 스스로를 매우 하찮게 여기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인류에게, 특히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49. 훗날 너희는 영적 치유자의 은사도, 다른 나라들에 전할 대변자의 은사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이미 나의 계시가 끝난 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 준 영감과 지혜의 보물을 계속 전해야 한다.

50. 너희의 사역을 위해서는 내 사역 안에서 하나되어 진정한 영적 가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모두 알고 있듯이, 1950년이 끝나면 이러한 형태의 계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도록 내 영이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존재 속 깊이에서 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것임을 확신시켜 드린다.

51. 나는 너희의 생각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너희의 모임에서 기쁨을 느끼며, 너희의 마음과 영 안에서 나를 느끼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비를 쏟아 부어 너희의 믿음과 영성화를 보상하고 격려할 것이다.

52. 이런 방식으로 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이는 내 말씀의 충실한 증인이 될 것이며, 나의 지시를 따르려는 그의 열정과 순종은 그가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견고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들은 온 세상에 나의 가르침을 전파할 나의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1950년 이후에도 내가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기를 고집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 될 것이며, 그들의 증언은 거짓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제자들 중 누구도 내 마지막 계시에 대해 예고되고 정해진 날을 모르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53. 나는 이 백성에게 지혜이자 영혼의 모든 능력을 꽃피우는 영적 빛을 모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니, 이는 내가 떠날 때 그들이 세상에서 스승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4. 지금부터 인류의 다른 민족들과 영적 유대를 맺어, ‘’에서 내 말씀의 사자가 되어야 할 이들의 길을 차츰 차츠 준비하라. 기도를 통해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불어넣고 있는 바로 그 영적 유대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55. 이제 내가 오늘의 가르침에서 방금 너희에게 준 이 조언을 따를 때, 너희가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 기도한 그 순간, 너희가 기도한 그 동료 인간들이 누군가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느꼈는지, 아니면 눈치채지 못했는지는 생각하지 마라. 또한 그들의 응답을 같은 방식으로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 소통하게 되는 날, 그들은 이미 영과 영의 대화의 시대를 향해 큰 한 걸음을 내디뎠을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형제애와 사랑, 이해, 영적 친밀감을 잇는 그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막 엮기 시작한 참이니, 아직은 아닙니다.

56. 모든 것은 제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된 모든 일에는 항상 깊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 예언을 의심했더라도, 그 예언이 성취되기 훨씬 전에 그들에게 밝혀졌을지라도 말입니다.

57. 너희는 이미 과거의 예언들 대부분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리고 약속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라. 진리가 승리할 것이며,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빛이 비칠 것이다.

58. 너희 세상에서 매일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깨달아라. 사람들 사이에서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느끼고, 현재 모든 것이 최후의 전투를 향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보아라. 그 전투에서 선과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인간의 정욕은 패배하고 소멸되어,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이상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59. 내 정의의 낫이 너희 밭을 베어낼 것이며, 나는 진리와 영 안에서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선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모든 것은 베어질 것이며, 불필요한 모든 것은 제거될 것이다.

60. 악이 선의 꽃피움을 방해하는 시기는 지나갈 것이며, 비록 인간의 육신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한 이 투쟁은 항상 존재하겠지만, 그때에는 선이 우세하여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61. 내가 너희에게 예고하는 그 빛의 세상에 속하기 위해 공덕을 쌓아라. 내일 좋은 열매를 맺을 씨앗을 지금부터 뿌려 두어라. 그 열매를 거두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의 모든 이기심을 떨쳐내고, 혈연상 자녀들이나 영적 형제자매들이, 그들이 '선구자'라고 부르며 기도 속에서 축복할 맏형제들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62. 사람들은 과거의 시대, 고대, 긴 세기, 끝없이 긴 시대에 대해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여전히 미약하게 본다.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거의 성숙하지 못했음을 본다. 내 눈에는 너희가 성숙에 도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 세상은 여전히 유년기에 머물러 있다.

63. 아니, 인류여, 너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성숙과 상향 발전, 완전함, 그리고 진보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영혼이 아닌 한, 너희는 필연적으로 겉보기에는 위대해 보이지만,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도덕적 실체가 없고 오래가지 못하는 인간적인 업적만을 나에게 제시하게 될 것이다.

64. 내가 이 순간에 너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너희가 내게 바치는 그 열매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인류여, 그 누구도 내게 합당한 열매, 즉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조화, 나에 대한 믿음, 선을 실천함으로써 고양된 삶을 증명하는 것을 내게 바칠 수 없을 것이다.

65. 나는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화합의 열매를 바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땅 위에서 너희가 행할 속죄가 될 것이다.

66.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너희는 진리와 정의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모두가 진리와 정의를 사랑한다면, 사회 계급과 신앙 고백, 인종과 관습으로 나뉘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67. 너희가 진리와 정의를 사랑한다면, 서로를 사랑했을 것이며, 장벽을 허물고 거리를 좁히며 차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68. 너희는 그렇게 했느냐? 너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이러한 차이가 계속 유지되도록,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비참한 자, 교양 있는 자와 무지한 자가 존재하도록 애써왔으며, 나는 이 악한 씨앗을 어디에서나 발견한다.

69. 너희가 시기심과 허영심, 그리고 저열한 정욕으로 더럽혀진 채로 내가 너희를 맞이하기를 바라는가?

70. 그 당시 내가 인간으로서 너희 가운데 나타나, 율법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최고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해 주었을 때, 너희는 내가 이 세상에 온 뜻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가! 이것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성한 유대이기 때문이다!

71. 너희는 자신의 힘과 지식이 절정에 달했다고 믿으면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를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면, 내게 대답해 보아라. 너희가 과학으로 만들어 낸 모든 것이 이웃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가? 너희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내 법은 결코 인간이 이웃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72. 과연 이 순간 여러분의 과학에 영감을 주는 것이 사랑인가? 현재 너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쩌면 증오심과 권력 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것을 너희 양심의 판단에 맡겨 보라. 그러면 너희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인간 행위가 영적 진보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 당시 내 말씀과 내 삶으로 너희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73.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며, 이런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를 속일 수 없으며, 너희가 속은 채로 살기를 원치도 않는다. 나는 이 메시지를 너희에게 보내며, 모든 이에게 전해지게 한다. 그러나 그 말씀이 단순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너희가 이를 믿지 않는다면, 사실들과 시련, 그리고 사건들이 너희를 뜻밖으로 덮칠 것이며, 그때서야 너희는 이 메시지가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나, 너희는 제때에 이를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려 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언들을 조롱할 것이며, 물의 홍수가 이미 그들의 몸을 덮쳐 묻어버리고 있음을 느낄 때 비로소 믿고 회개하기 시작할 것이다.

74. 나의 자비는 너희가 경솔하게 행동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막고자 했으나, 너희는 결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회개를 느끼고, 파멸을 피하도록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멸망하고 말았다.

75. 예루살렘에게도 나는 기도하고 참된 하나님 숭배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육신적인 마음을 가진 그들은 나의 아버지 같은 권면을 거부했고, 결국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때 예루살렘에게 그 날들이 얼마나 쓰라렸던가!

76. 너희는 이제 너희가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진리를 깨닫는가? 너희는 성장하여 내 말씀 속에 담긴 지혜의 길로 올라가기 위해 영적 유년기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7.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노니, 이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예언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의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되, 깨어 있으면서 그에 따라 기도하라.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 내면의 빛이 너희를 인도하고 더 높은 힘이 너희를 보호하여 너희가 구원받을 때까지 지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78. 오늘 너희는 내가 모든 지혜의 근원인 진리의 치유 연고로 "정신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79. 너희가 인간 삶에 대해 얻은 모든 통찰을 영적 삶에 대한 지식과 통합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너희의 기원과 소명, 그리고 최종 목적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너희는 스스로를 깨닫지도 못할 것이며,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80. 인간 세계에서는 너희가 어느 날에 태어났는지 알고 있으며, 누군가가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을 때 시신을 매장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누가 너희의 영혼이 내 품에서 솟아난 순간을, 그것이 태어난 방식과 육신에 깃든 방식, 그리고 그것이 나온 그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알겠느냐? 사람들은 전체 진리를 밝혀내지는 못한 채, 그저 아주 조금이나마 짐작해 왔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생명의 신비를 파헤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1. 신비에 싸여 있는 것들에 대한 영적 불안과 의문, 불만이 가득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는 바로 너희의 스승인 나다.

82. 나는 진리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영적 불안을 달래줍니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는 무력감으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에서 비밀에 싸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준비와 순수함이 부족하여 그들이 밝혀내지 못했던 것들이었으나, 그들이 그 핵심을 알게 되도록 내가 허락한 것임을 말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83. 내가 세상에 다시 돌아와 나의 빛으로 비밀을 밝히고 인간 이성의 어둠을 걷어내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올 적절한 때가 되었다. 이때 나의 영은 지혜의 책을 다시 열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즉 나를 통해 그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84. 이 모든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어 너무나 고상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느끼기 힘든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영적인 형태를 선택했는지 묻고 있다.

85. 나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내가 인간으로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영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냈고, 그들이 나를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기 위해 세상에 내려오기를 결코 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86. 내가 인간의 형상을 취한 것은, 신성한 율법의 성취가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하고 생생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며, 이를 행하기에 나 외에는 아무도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율법을 제정하신 나, 곧 가르침에 형체를 부여한 말과 행실로 그 율법을 너희에게 전해 주어야 했던 나 말이다.

87.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선택하는 대신 천사의 모습을 취했다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찮고 무능하다고 여겨 내 발자취를 따를 수 없었을 것이며, 내 말씀을 인간이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또한 너희는 나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나의 희생에 대해 믿지 않았을 것이다.

88. 만일 내가 인간보다 높은 존재의 모습을 택하는 대신, 새나 식물의 모습을 취했거나, 인간보다 낮은 수많은 피조물 중 하나

속에 숨어 있었다면, 너희는 그 현현을 완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며, 신성한 계시의 매개체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인해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겼을 것이다.

89.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형상은 옳고 완전하며, 너희가 내가 자연의 모든 영역에 현존하고, 드러나 있으며, 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신성한 언어를 알아가려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90. 시대가 지나갔으나, 그 시간은 부분적으로만 활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가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려 한다.

91. 여기 너희의 스승이 있노라. 내가 제2의 시대에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어 너희와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고자 했음을, 그리고 현재 너희가 나와 영과 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노라. 또한 나는 내 권능과 지혜, 그리고 공의가 드러나는 자연의 요소들을 관찰하도록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아, 나는 너희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언어를 가르쳐 주었다.

92. 바로 이 가르침이 인간에게 영성화를 안겨줄 것이며, 이를 통해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별로 영적 지혜의 경지로 상승하는 데 필요한 영성화를 가져다줄 것이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기원과 본질의 핵심,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나를 향한 사랑은 매우 커질 것이며, 그는 온 생명과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현존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26

1. 너희는 내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너희의 눈은 마르지 않는 눈물의 샘이 된다. 왜 울고 있느냐, 백성들아? 너희가 항상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삶의 투쟁이 잔혹했기 때문이고, 때로는 삶이 역경, 실망, 실패, 질병, 혹은 애도 등으로 너희를 채찍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이유 중 어느 것도 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

2. 나는 명백한 이유 없이 흘리는 이 눈물의 원인을 알고 있으며, 그 근원도 알고 있다. 바로 너희의 영혼이 울고 있으며, 육신을 통해 눈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모든 눈물은 그 안에 담긴 다정함, 갇혀 있다고 느끼는 고통, 저지른 실수에 대한 후회, 약해졌다는 사실에 대한 고뇌, 허비한 시간에 대한 슬픔이라는 보물입니다.

3. 물질적인 본성은 이 모든 것을 무엇이 알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종종 이유 없이 우는 것이라고 믿어 왔다.

4. 너희는 내게 와서, 내 앞에서 우는 것이 잘못인지 묻는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고통을 달래거나 지극한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이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자는 가슴 속에 마음 대신 돌을 품고 있는 것이니, 그는 내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5. 울어라, 사랑하는 백성들아. 울음 또한 내가 인간에게 준 수단 중 하나이니, 이를 통해 정화되고 그들을 짓누르는 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울고 나면 얼마나 더 자유롭고, 가볍고, 순수해진 기분을 느끼며 하루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보아라.

6. 너희 영혼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자격을 얻기 위해 이 정화가 필요하며, 시간이 흐르며 쌓인 짐을 떨쳐내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싸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떤 피로감도 느끼지 않은 채 그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7. 그렇다, 제자들아! 너희가 내면으로 침잠하는 순간에 흘리는 눈물은 진심 어린 감동의 증거이며, 그 한 방울의 눈물은 너희 언어에서 가장 아름답고 표현력 있는 천 마디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서 영혼의 눈물, 회개나 기쁨이 눈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내 자녀들 중 많은 이에게서 이러한 감정은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어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다. 그들은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감정을 드러내는 이들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예민하다.

8. 너희 모두가 영성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너희는 내면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로 드러내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고백하고, 회개하며, 정화되어야 할 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이시며, 너희는 그분을 너희 존재 안에 품게 될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9. 우선, 사랑하는 제자들과 추종자들아, 너희 마음이 너희 존재 안에서 영혼의 진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의 잔이 너희 입술에 닿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 정화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며, 또한 존재의 깊은 곳에서 감정을 은밀히 느끼는 것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큼이나 영혼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온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인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영적 메시지의 전도사가 되어 길을 나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미덕과 악덕이 뒤섞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될 것이나, 위선이 드러나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롭게 행동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될 것이나, 마음속의 이기심이 이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영적 사명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너희의 정화가 진실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 성찰과 경험, 자기 반성,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따름을 통해 이 내적 정화가 성숙한 열매처럼 지속적이고 진실되도록 이끌어 줄 존재는 너희의 양심 외에는 아무도 없다.

11. 이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을 동료 인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너희 마음이 느낄 그 행복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그 눈물은 단지 '육체'의 눈물만이 아니라, 다정함을 갈망하는 영혼의 눈물이 될 것이다.

12. 기도로 미리 준비되고 나의 자비로 영감을 받은 너희 입술에서 나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나의 본질이 살아나고 나의 말씀은 감동을 줄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 입을 통해 전해질 때, 목소리의 매개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때 청중의 마음에 일으켰던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13. 제자들아: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준 말씀을 새로운 종교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는 내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계시해 온 율법에 대한 해설일 뿐이기 때문이다.

14. 명심하라: 만일 이것이 종교라면, 오직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빛이므로, 모든 이에게 비추며, 민족, 인종, 언어, 신앙을 가리지 않고 인류의 길을 밝히기 위해 모든 이에게 내려온다.

15. 나의 법은 모든 이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반드시 찾아와야 할 제단이다.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의 영혼 깊은 곳에 제단이 세워져, 그 제물이 바쳐지고 사랑의 헌사가 드려지기를 기다릴 것이다.

16. 제자들아, 깨달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을 받는 모든 이가 영적으로 모든 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예배 형식의 외적인 차이가, 너희가 이웃을 나 안에서 형제자매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17. 너희가 일단 그렇게 느끼게 되면,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며, 다가오는 힘든 시련의 날들에 너희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18. 나는 사람들에게 관습이나 세속적인 법, 혹은 과학적 지식의 획일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합의에 의해 민족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영적 조화, 사고의 통합이며, 온 인류가 영적 기도를 알고 실천하여, 너희 모두가 내면적으로 고양되고 내 영으로부터 직접 영생의 양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 공동체가 있으며, 그 대다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신성한 스승의 제자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20. 너희는 그들이 모두 나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각 교파를 화해와 평화로 이끌어 그 가르침을 실천에 옮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서로 거리를 두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을 영적으로 갈라놓고 분열시켜, 결국 서로를 적이나 낯선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모두가 *자신이* 진리의 소유자이며 다른 이들은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단과 논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모두의

통합을 위해 싸울 힘과 용기를 갖지 못했으며, 모든 신앙적 신념과 모든 신 숭배 속에 어느 정도의 진리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려는 선의도 없습니다.

21. 나는 세상에서 영성화를 기대한다. 나에게는 각 교회나 종파를 구별하는 이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들의 의식과 외형적인 예배 형식이 얼마나 화려하든 상관없다. 이는 오직 인간의 감각에만 닿을 뿐, 나의 영에는 닿지 않는다.

22. 나는 사람들에게 영성화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고양, 완성에 대한 이상, 선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귀의, 사랑의 실천,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의미하며, 이는 타인과의 조화이자, 따라서 하나님과의 조화이기 때문이다.

23. 나는 지금, 내일 내 씨앗이 싹트고 열매를 맺을 밭을 준비할 비를 내리고 있다. 오늘날 악이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세상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민족들의 영적 변혁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24. 그 당시 누가 이교적이고 죄악에 물들며 육욕에 빠진 로마—삶이 악덕과 쾌락, 죄와 범죄의 끊임없는 향연이었던 그 도시에서—다른 어떤 민족보다 먼저 사랑의 말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불타오를 것이라고 믿었겠느냐?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었다.

25. 로마는 먼저 많은 죄를 짓고, 지칠 대로 지치고 혐오감에 빠질 때까지 가야만 비로소 마음속에 내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말씀이 그들에게 닿았을 때, 쾌락에 지치고 실망과 고통으로 찢겨진 그 마음들은 내 메시지의 본질과 접촉하자, 마치 시든 꽃받침이 그들을 어루만지러 내려오는 촉촉한 산들바람에 열리듯 열렸다.

26. 그 백성의 심장은 힘차게 뛰었고, 그들의 영혼은 뒤흔들렸다.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믿음과 용기 덕분에 그들의 죄는 용서받았다.

27. 그 백성은 자신의 믿음과 진리에 대한 사랑을 굳건히 하여,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용기와 희생정신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아이든 간에 모두 용기 있는 남녀들이었다.

28. 제자들아, 이해하느냐? 그렇다면 그 허영과 악덕,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지배하던 시대를 오늘날의 인류와 비교해 보라. 그러면 그들도 – 혐오감을 느끼고, 허영에 지쳐 있으며, 죄로

인해 병들어 있는 – 점점 더 그 날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을 깨울 신성한 산들바람의 숨결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 산들바람은 이슬이 내리기 전의 바람과 같아서, 그들을 괴롭히는 영적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며, 나중에 영성화의 씨앗이 모든 마음속에 내려오도록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9. 너희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자주 나에게, 왜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삶을 온전히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는지 물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육신의 감각으로 그 삶을 만져 볼 수 있었다면, 너희는 결코 어떤 영성화라도 얻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결코 너희의 영적 은사와 능력을 꽃피우지 않을 것이며, 내 계시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공로를 쌓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다.

30. 너희와 영적인 세계 사이에는 그 성소의 순결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는 장막이 있으며, 경외심과 겸손, 순수함, 고귀한 목적, 사랑과 참된 믿음으로 무장한 자만이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다.

31. 내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겉보기만 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 사라지고 희미해진다.

32. 영적 삶을 믿기 위해 그것을 상상해 보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많다. "위대한" 자와 "보잘것없는" 자, 무지한 자와 교양 있는 자, 그들 모두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신이 어떤 존재인지, 영적 존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세계의 빛과 존재 방식이 어떤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고는 별 너머에 아름다운 땅, 위엄 있는 궁전, 왕좌를 상상했고, 그 위에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영적 존재들에게도 인간의 모습을 부여하고, 그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새처럼 날아다닌다고 상상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빛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 빛은 지상에서 보는 빛과 비슷하며, 모든 것이 금처럼 빛나고, 물질 세계에서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찬송과 신성한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수백만 명의 존재들이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며, 항상 그분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며 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33.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이와 같이 상상하며, 일단 마음속에 그러한 이미지를 그려 놓으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믿게 되고, 그에 따라 신앙적으로 확고히 굳혀 버립니다.

34. 그들이 이 가르침을 접하고,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이 현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이들은 자신의 물질주의로 인해 생겨난 오류를 깨닫고 즉시 진리의 빛을 향해 눈을 뜰 것이다. 다른 이들은 혼란에 빠지고 내 계시의 진리를 부정할 것이다.

35.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너희는 영적 삶에 대해 마음속에 그려온 모든 이미지를 지워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띠지 않으시며, 지상의 왕들처럼 보좌에 앉아 계시지도 않으시고, 하늘은 별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빛이 태양과 같은 것도 아니며, 영혼들이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너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다. 심지어 내가 영적 삶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준다 해도, 너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언어조차도 영원의 진리와 무한한 영광, 아름다움, 그리고 완전함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36. 너희는 양심이 어떤 형태나 부피를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해 줄 수 있겠느냐? 사랑이나 지성이 어떤 형태인지 내게 말해 줄 수 있겠느냐? "아니요, 스승님"이라고 너희는 내게 말한다. 그러니 양심도, 지성도, 사랑도 형태가 없는 것처럼, 너희는 지상의 사물들을 영적 삶의 것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기 위해 어떤 형태도 필요로 하지 않는 능력과 미덕의 결합체인 빛의 영혼이 지닌 특성들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37.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십니다. 만일 형상이 있으셨다면, 그분은 인간과 같이 제한된 존재가 되셨을 것이며,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는 완전함, 정의, 사랑, 지혜, 창조력, 영원입니다.

38. "천국"은 영혼이 완성을 향한 여정에서, 지혜와 사랑 안에서 그토록 높이 승화하여 더 이상 어떤 죄나 고통도 닿을 수 없는 순수함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얻는 지극한 행복입니다.

39. 나의 예언자들이 영적 삶에 대해 말할 때, 때로는 인간의 모습이나 너희에게 친숙한 사물들을 통해 그렇게 하곤 했다.

40. 선지자들은 지상의 왕들이 앉는 보좌와 같은 것들—책, 인간의 형상을 한 존재들, 벽걸이가 걸린 궁전, 촛대, 어린 양,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형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단지 하나의 비유이자 상징이며,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계시였음을 이해해야 한다. 너희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계시들은 너희에게 형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41. 이제 내가 상징을 통해 너희에게 계시한 모든 비유와 가르침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그 의미가 너희 영에 스며들고 상징적인 형태가 사라질 때가 되었다.

42. 너희가 이 깨달음에 이르면, 너희의 믿음은 진실해질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 믿음을 진리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43. 너희 인간들아, 나는 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예언하노니, 바로 너희 마음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 불순함을 씻어냈을 때이다. 그 피는 신성한 사랑과 지극한 용서, 그리고 모든 인간의 구원을 구현한 것이었다.

44. 너희 – 불신자들과 의심하는 자들 – 은 정의로운 세상을 믿을 수도 없고, 너희 지구에서 사랑과 미덕이 넘치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는 스스로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여기며, 자신에 대한 믿음조차 없다.

45. 그러나 나는 너희를 믿으며, 내 모든 자녀 안에 있는 씨앗을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고, 내 사랑을 통해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46. *나는* 인간에게 큰 희망을 걸고 있으며, 그들의 구원과 품위를 갖추게 됨, 그리고 승화를 믿는다. 내가 그를 창조했을 때, 나는 그를 지상의 주인으로 정하여 그곳에 사랑과 평화의 터전을 마련하게 하였으며, 또한 그의 영혼이 삶의 투쟁 속에서 강해져야만, 공로를 통해 너희에게 주어진 영원한 유산인 완전함의 왕국의 빛 속에서 살 수 있게 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47. 너희가 "눈물의 골짜기"나 "유배지"라고 부르는 이 지구는, 내가 이곳에 거주할 자녀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무한한 사랑으로 준비한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것은 이곳을 소유하게 될 자들을 위해 생명과 풍요, 축복, 그리고 기쁨으로 넘쳐났다. 이 땅에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인류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해를 입게 되더라도, 그 여정 어디에서나 고통을 치유하고 불행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었다.

48. 지구상의 인간에게 수많은 세기가 흘렀으나, 그는 여전히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없었다. 왜일까? 단순히 그가 그 행복을, 나의

법, 즉 사랑과 정의, 조화와 진실의 법이 제시하는 참된 길에서 찾지 않고서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49. 너희는 천국에 갈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 땅에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인류여, 고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어느 정도의 정화뿐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참되고 절대적인 정화는, 내 법이 너희에게 불어넣어 주는 사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50. 지상에서 많은 고통을 겪은 어떤 이들이 그 이유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데, 과연 어떤 공로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더 이상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영적인 삶을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진정한 공로는 – 비록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자신의 소유물과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더 높은 영적 발전 단계를 증명하게 되며, 천국이나 행복이 시대와 세대를 걸쳐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특정 장소가 아니라, 그가 이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고, 체감하며, 누리기 시작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임을 증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지상 세계에서 영적 삶의 정점에 이르는 사다리를 오를수록 점점 더 순수하고 완전해지는 상태이다.

51. 만일 너희의 소명이 이토록 높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나는 이런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며,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너희가 그 율법을 통해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면,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52. 내가 세 시대에 걸쳐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한 것은, 너희가 시대의 끝에서 정욕과 육신적 욕망, 그리고 인간의 궁핍을 초월하여, 높은 영감으로 가득 찬 고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너희 영혼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행실들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53. 사람들이 일단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되면, 여전히 정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느끼거나, 세상에서 그들을 이끌고 심판하며 그들의 행위를 처벌해 줄 재판관과 통치자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서로 간의 선의가 지배하고 형제애와 정의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전쟁과 비참함,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인류여. 그때 여러분은 이 지구가 여러분에게 오직 따뜻함과 생명, 양식과 안녕, 지혜와 행복만을 선사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행복이 최고

수준은 아닐지라도 – 그 최고 수준은 완전함의 경지에 도달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래도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54. 그러니 너희는 모두 그 기쁨과 평화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너희 마음이 예감하는 것처럼 심연과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너희가 영성화의 시기가 오기 전까지 아직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죽음도, 전쟁도, 전염병도, 기근도 이 인류의 삶의 흐름과 영적 발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죽음보다 강하므로, 너희가 죽게 되더라도 너희를 다시 삶으로 되돌려 줄 것이며, 필요할 때마다 너희를 지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인류여, 내가 너희에게 밝혀줄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나의 『신성한 지혜의 책』에는 여전히 많은 놀라움이 준비되어 있다.

55. 자연은 너희를 위해 아직 많은 교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구는 그 품속에 간직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지 않았다.

56. 너희는 연약한 육신이며 고통에 민감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다.

57. 영혼이 물질 세계에 머무는 동안 겪는 투쟁은 매우 크지만, 바로 그곳에서 영혼은 공로를 쌓아 단련되고 시험을 받게 된다.

58. 나의 신성한 가르침은 오직 영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아니,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도 닿아야 하며, 그래야만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59. 신성한 말씀은 이성을 깨우치고 사람의 마음을 감수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 말씀에 담긴 생명의 정수는 영혼을 양육하고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60. 인간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고 고군분투하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61.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내가 제2시대에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 양식을 포기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질병, 고통, 어둠, 불행, 비참함, 그리고 죽음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2. 유물론자들은 사람들이 이미 땅과 자연이 주는 것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을 양육하고 삶의 여정 동안 힘을 실어주는 영적인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완전하고 충만한 삶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본질적인 것이 결여된 존재일 뿐입니다.

63. 영성화는 위선적인 경건함을 의미하지도 않고,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도 않으며, 또한 외형적인 숭배의 형태도 아닙니다.

64. 영성화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꽃피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육체적 측면에 속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육체적 감각을 초월하여 영혼의 힘, 특성, 능력, 감각에 속하는 것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65. 영성화는 인간이 지닌 모든 은사를 올바르고 선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66. 영성화는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과의 조화이다.

67. 영적으로 양분을 얻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 안에서 점점 더 커지지만, 사람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 애쓴다.

68. 이 갈망은 영혼이 발전함에 따라 날마다 더욱 강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며, 마침내 끝없는 갈증과 굶주림의 양상을 띠게 될 때까지, 마치 뜨겁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방랑자가 느끼는 절망과 공포처럼, 외딴 섬에 표류한 난파자가 느끼는 것과 같은 절망과 공포를 느끼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69. 그러나 어느 날, 인류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민족들은 깨어나 정의와 빛, 진리와 사랑을 외칠 것이며, 수많은 죄와 거짓에 지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결코 채울 수 없었던 헤아릴 수 없는 공허와, 결코 달랠 수 없었던 갈증이 존재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70. 비록 수천, 수만 명의 남녀가 어떤 숭배 형식을 따르며, 각기 다른 종교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양육하려 애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 미미하고 불완전하여 감각을 통해 마음에 닿는 것이 거의 없다. 그것은 영혼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영혼은 오직 신성한 본질인 영적인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71. 의식과 전례를 통해 빛을 찾는 사람들이 일단 모든 의식과 외적인 숭배를 버린다면, 그들은 곧 진리의 빛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 사람들의 갈망 앞에서 고갈될 줄 모르고 선물을 베푸는, 빵과 물고기로 가득 찬 기적의 바구니와 같이 말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27

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엘리야의 영이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 너희 영혼을 빛과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너희를 위한 때와 길을 마련해 주었다. 엘리야는 그의 양들 각자의 길 위에서 마치 칼과 방패와 같아서, 너희 앞에 놓인 온갖 장애물과 유혹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그를 느낄 줄 알고, 그를 부르며, 길을 잃은 양이 목자를 찾듯 그를 찾는 자는 언제나 그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의 탄원과 간구 속에서 언제나 들리고 응답받을 것이다.

2. 여러분은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스승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살아 있는데, 왜 그토록 많은 장애물들이 나를 막아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신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기도로 치솟고, 바로 그 순간, 제3의 시대에 양 떼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서둘러 달려와 여러분의 길에 나타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의 기쁨으로 얼굴을 들어 아버님께 감사드리게 되고, 믿음의 작은 등불이 다시 타오르며, 평화와 신뢰를 품고 그 길을 따라 나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3. 진실로 스승이 너희에게 말씀하노니, 나는 모든 영혼을 위해 평화와 완전함의 왕국을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내가 마련한 이 왕국에 맞서는 또 다른 왕국이 있으니, 바로 세상이다. 내 왕국은 겸손과 사랑, 덕을 통해 얻게 되는 반면, 다른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오만과 야망, 자만, 탐욕, 이기심, 그리고 악의가 필요하다. 모든 시대에 걸쳐 세상은 나의 왕국에 대항해 왔으며, 나를 따르는 자들은 가시적인 영향이든 보이지 않는 힘이든 간에, 언제나 그들의 길에서 박해를 받고 유혹에 빠지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이르기 위해 가시밭길을 걷는 것은 이번이 유일한 때가 아니며, 나의 임재에 도달하고자 애쓰는 여러분의 영혼이 비틀거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싸움을 벌여 왔다. 내 영의 영감은 너희 내면을 비추며, 어둠의 세력들, 거짓 빛들, 거짓 미덕들, 물질, 모든 불필요한 것들, 이 세상의 온갖 거짓 영광과 전투를 일으켰다.

4. 너희 영혼은 자신의 과거와 삶의 여정을 '일곱 봉인의 책'에 기록해 두었다. 그곳에는 나에 의해 너희의 모든 행동, 한 걸음 한

걸음, 생각과 말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너희 영혼의 위대한 업적, 큰 운명의 타격과 삶의 여정, 의 큰 시련, 고통의 잔 – 모든 것이 그곳에 진실되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 영혼은 많은 것을 경험했으나, 너희의 "육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 육신이 어린 시절의 첫걸음조차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영혼이 긴 삶의 여정 동안 겪은 발전을 알 수 있겠느냐? 너희 영혼이 지상의 육신에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적었는가 – 나는 너희의 발전 부족 때문에 아직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5. 때가 되면, 영성화를 통해 정화되고 맑아진 인간의 이성과 마음이 직관을 통해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며, 영혼이 육신의 껍질에 전하는 모든 계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받아들일 줄 알게 될 것이다.

6. 오늘날 너희는 아직 인간으로서의 삶 속에서 너희 영혼의 과거를 볼 수 있을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걸어온 여정이 얼마나 멀었는지! 너희 영혼이 바른 길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겹게 싸워왔는지! 얼마나 자주 삶의 가시들에 상처를 입었으며, 너희 길의 어느 구간이 너희 발자취의 피 자국으로 물들었는지!

그러나 모든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사랑하는 아버지, 너희의 스승이신 분—너희 영혼에게 빛과 위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3의 시대에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 할 때면 어려움에 부딪히고, 역경으로 인해 비틀거리곤 한다. 어떤 것은 시련이라 부르고, 다른 것은 유혹이라 부른다.

너희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 나에게 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 그런데 왜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그토록 시험받고 유혹받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나를 향한 길이 좁기 때문이며, 그 좁은 길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 길은 수난의 길만큼이나 좁고, 넘어짐도 있으며, 가시도 있고, 수많은 오해와 배은망덕함, 그리고 삶의 모든 고통이 있다.

7. 그러나 이 완전함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이 길만이 있다. 넓은 길은 세상과 죄의 왕국으로 이끈다.

8. 나의 왕국은 강하고 위대하며, 내가 나의 힘과 권능 앞에 또 다른 권능, 즉 악의 권능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은, 바로 나의 권능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속임수와 어둠을 마주할 때, 나의 빛과 진리의 힘을 체험하고 목격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 어둠의 그림자, 즉 길 잃음과 유혹의 왕국

이 비록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도구이며 실제로는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9.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너희의 성장의 길에서 너희를 막기 위함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내 왕국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전투를 치른 후 *승리를 거두고* 내게로 오기를, 싸움을 마친 후 강해지기를, 긴 순례 여정 끝에 영적 체험의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영 안에서 공로를 쌓아, 아버지가 너희에게 신성한 입맞춤을 주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 순간에 겸손히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 – 그 입맞춤은 너희 영혼을 위한 모든 행복과 온전한 완성을 담고 있다.

10. 모든 시련에서 승리하기 위해, 스승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라: 깨어 기도하여 너희의 눈이 항상 경계하고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 악은 너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패배시키며, 너희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매우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하라. 그것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을 때 이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예리한 안목을 가지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이 시기에 나를 따르기 위해 큰 시련과 유혹을 겪으며 승리해 왔지만, 올해에는 매우 큰 시련과 유혹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내면의 싸움은 거대하고, 인류의 품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거대하며, 온 우주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 또한 매우 거대하다. 지금은 나의 통치와 나의 정의, 나의 권능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들, 나의 말씀에서 배운 자들, 현재 나와 함께 힘을 얻고 있는 자들은 승리하고, 인류에게 닥칠 큰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11. 나는 너희에게 깨어 있고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단지 너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기도를 통해 동료 인간들에게 직관을 전달하여, 그들이 위험과 유혹을 예감하게 하는 영적 예언자처럼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너희는 인류가 중대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제3의 시대에 제자들에게 가져다주신 것입니다: 영성화, 즉 영의 가르침을 통한 영혼의 전개입니다. 이는 영혼이 위쪽으로 발전하고, 영적 지평을 발견하며, 싹을 틔울 수 있는 적절한 터전을 찾아 하늘의 사다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승하는 과정에서 항상 스승의 현존을 만나고, 의지하며 의지하여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계단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12. 그 당시, 내가 너희 각자에게 부름을 보냈을 때, 첫 번째 계기를 통해 이미 내면의 깨달음을 느낀 이는 얼마나 적었는가. 자신의 영혼이 그 기적을 예감하고 있었음을, 신성한 약속의 성취, 즉 스승의 재림이 이제 자신 안에서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꼈음을 깨달은 이는 얼마나 적었는가! 그러나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의심과 반항의 정신이라는 그물에 걸려들었는가.

13. 이미 내 말씀과 내 임재로 나아가고자 했던 또 다른 여러분은 축제, 오락, 세속적인 연애 관계와 감정, 그리고 인간적인 일들에 얽매여 있었고, 스승은 계속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너희 영혼은 나의 도움으로 승리하여 내게로 왔고, 나의 임재를 통해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음을, 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14.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 시험을 받았으니, 이제 강해진 너희는 얼마나 더 큰 시험을 받게 되겠느냐!

15.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큰 혼란이나 유혹이 닥치도록 허락하시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내가 이를 허락하리라. 그러나 이 시험들 속에서 유혹에 의해 너희가 패배하는 것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 아니, 오히려 너희가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원수들을 이겨내어 그들을 친구와 형제로 만들게 하려는 것이다 – 그리하여 너희도 인간의 죄악을 초월하여, 선과 미덕의 발자취를 남기고,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로 변화시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시련이 닥치도록 허락하리라. 너희가 어떻게 이를 이겨낼 수 있는지는 이미 가르쳐 주었노라. 곧 깨어 기도하며 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이다.

16. 너희에게 닥칠, 그리고 곧 닥칠 그 시련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겪었고, 다른 일부는 지금 겪고 있으며, 또 다른 시련들은 나중에 올 것입니다.

너희 영혼에 슬픔도, 두려움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너희에게 만족과 양식을 가져다주듯이, 매일매일 고통도 가져다준다. 이 시련들을 삶이 주는 큰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초보자"부터 "고수"에 이르기까지 – 여러분 모두 그 여정에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며, 나는 이미 지금부터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나는 여러분 중 누구도 그러한 시련에서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 비틀거릴 때면, 그 곁에는 언제나 그를 다시 길 위로 일으켜 세워 줄 우정의 손, 형제애의 손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잠들어 있다가 잠든 채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면, 적절한 기회를 봐서 잠든 자에게 다가가 그를 깨워 주십시오. 만약 잠이 깊어 깨어나지 않는다면, 깨어 있는 자가 잠든 자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17.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너희를 준비시키며, 완전한 화해를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는 것은, 너희도 용서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18. 백성아, 생각해 보아라. 오래전에 겪었고, 내 대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사히 극복했던 수많은 시련들이, 다시 네 길에 닥쳤을 때 너에게 절망을 안겨주지 않을지 너는 알 수 없다. 질병이나 삶에 필수적인 것들의 부족이, 순간적으로 내 자비를 의심하게 하고, 너희가 준비해 온 길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을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19.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유혹이 온갖 술수와 모든 힘을 동원하여 내 제자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내 제자들은 영성주의의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 있다. 나는 그들이 비록 드물게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음을 본다.

그들은 그들의 덕행과,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을 시험받기 위해,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이 세상의 부와 세속적이며 덧없는 영광, 명성의 광채와 세속적인 위대함을 제시받기 위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경고하듯이, 나는 계시와 직관을 통해 그 모든 제자들에게도 경고한다.

20. 깨어 있으라, 스승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가 곧 세속적인 삶 속에서 시련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종종 승리할지라도, 영혼을 위한 다른 시련들도 닥칠 것이다. 1950년이 저물어 가고 있으며, 내 백성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모든 이들은 나의 대변자들, 나의 영적 세계,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일꾼들"을 유혹으로 이끌 것이다.

21. 내 말씀이 중단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 이미 이 선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은 일어나, 스승님께 그분의 명령을 철회하시고, 결정을 바꾸시며, 백성을 위한 새로운 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간청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속에서 유혹이 그 씨를 뿌리고, 예외

없이 모든 목소리의 대변자들 의 마음을 괴롭힐 것이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빛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 부족, 반항, 혼란, 그리고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미 영향을 받은 자들을 만나게 되면, 유혹은 분명히 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들 안에서 발판을 찾게 될 것이며, 이러한 마음들은 내 가르침을 크게 왜곡할 권리를 자처할 것이다.

22. 누가 아버지가 그 신성한 결정을 바꾸게 할 수 있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조차도 아버지께 이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제2시대에 스승의 희생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예수께서는 정원의 고독을 찾아가시며 제자들에게 동행하게 하셨다. 슬픔이 사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험난한 시련에 대한 예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또한 큰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스승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잠시 동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스승님께서 깨어 기도하실 때, 그분은 단지 그 제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셨다.

23. 인간으로서의 스승의 마음은 잠시 동안 모든 이에게 버림받고, 오해받으며,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분의 몸에서는 피 섞인 땀이 흘러나왔다. 이는 예수님께서 시선과 목소리를 하늘로 향하며 아버지께 말씀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나의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쓰라린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24. 아들이 "가능하다면" 아버지의 뜻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한 것을 두고, 과연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어주셨겠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기록되고 정해져 있었으며, 모든 스승의 스승이신 분은 영이 육신을 이기도록 그 축복받은 육신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했다.

그 후 내가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말하였다. "영은 원하나 육신은 약하도다."

25. 그 육신을 향한 그분의 책망은 얼마나 사랑이 넘쳤던가!

26. 제3의 시대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으므로, 스승께서는 너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 그렇다, 이 시대의 제자들아. 제2시대의 제자들은 그 축복받고 엄숙한 시간에 잠들어 있었고, 주님께서 모두를 위해 깨어 기도하셨지만, 오늘은 너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아버지께서 너희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시도록 허락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작별의 시간을 예고하셨을 때, 그분께서 말씀 을 거두실 순간을 너희에게 알려주셨을 때, 비록 그것이 너희에게 큰 시련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주님의 고귀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내 영이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며, 내가 영에서 영으로 나를 드러내실 것이며, 나의 영적 세계가 너희를 옹호하고 보호해 줄 것임을 알고 있다.

27. 너희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계시에 익숙해져 있고, 크게 적응해 왔기에, 이 계시들이 끝남으로써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 고통 앞에서 강해지라, 나의 자녀들아. 이 시련을 마주하며 너희의 높은 영적 발전 단계를 보여 주라.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날을 잘 준비하여 맞이하는 모든 음성 전달자들은 잠시나마 죽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내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다른 이들은 마치 고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라질 것, 즉 그들이 잃게 될 유일한 것은 육신의 목소리, 인간의 말소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빛과 내 영, 그리고 내 영감의 진동이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의 영성화가 강할수록, 성령께서 너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도 그만큼 더 커질 것입니다.

28. 아, 내가 이 시대의 모든 제자들에게, 단 하나의 무리로 연합하여 진정으로 나의 가르침을 전할 수만 있다면 – 내 온 백성이 이 경고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나 이 시대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너희가 분열되어 있고, 영적으로 멀어져 있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전히 너희 마음의 가장 순수한 곳에서 영적인 존경과 이웃 사랑이 싹트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영적 성장을 기대하며 은혜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내가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신성한 씨앗으로 뿌려 놓은 미덕들이 있다.

29. 오직 영성화만이 너희에게 일치를 가져다줄 것이다. 너희가 나의 사역 안에서 영성화에 이르지 않는 한, 자비도, 이해도, 사랑도 없을 것이며, 이러한 미덕이 없이는 너희는 나와 하나 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 너희 스승에 대해 증언하고, 나도 너희에 대해 증언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나의 스승이시다"라고 말할 때, 나도 온 세상에 "이들이 나의 제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를 다듬어야 하며, 너희도 여전히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30. 오, 나의 자녀들아, 나와 함께 나아가라. 내가 너희가 모든 시련을 이겨내도록 도울 것이니, 너희 길에 어둠이 없도록 빛을 주리라. 나는 너희가 잠들지 못하게 하는 사랑 어린 목소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코앞에 다가온 그 시간이 다가와, 내가 이 계시를 통해 너희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영적인 경건함, 헌신, 진정한 이해, 그리고 발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나의 대변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을 유혹의 그물에 빠뜨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무도 자신이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아무도 나의 정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950년 말에 이러한 형태의 계시가 인간을 통해 끝날 것임을 모르는 영성가가 어디 있겠는가? 오직 나만이 나의 높은 의회의 결정을 통해 이를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는가? 내가 무자비한 재판관이라는 말을 누가 듣지 못했겠는가?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는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물질 세계에는 고요함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는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어떠한 형벌도 예정하지 않았으며, 내게 순종하지 않거나 내 계명에 반항하는 자녀들—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시험하는 자들을 위해—교수대를 세우지도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피고가 될 것이며, 양심 앞에서 피고가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판결문에 서명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또한 자신의 집행자가 될 것이다.

32. 그러나 그들이 어떤 열매를 바칠 수 있겠으며, 어떤 정수를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줄 수 있겠는가? 그처럼 불순종으로 거만하게 나서는 자는 자신의 손으로 권세와 은사와 사명을 스스로 박탈하게 될 것이다.

33. 나는 너희를 속일 수 없다! 나는 결코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어둠 속에 숨지 않는다. 나의 진리는 언제나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영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이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나는 어떤 옷으로든 너희에게 내 진리를 숨기지 않는다. 나의 벌거벗음은 신성하고 순수하며, 거룩하며, 나는 이를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 상징으로서 나는 벌거벗은

채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고, 벌거벗은 채로 다시 너희 곁을 떠났다.

34. 나는 내 백성들 사이에 항상 진리가 지배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진리 안에 있으며, 앞으로도 항상 그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사이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며, *나의* 사랑은 언제나 *너희의*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오직 하나의 진리, 단 하나의 참된 사랑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진리와 이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의 사랑과 진리는 나의 것이 될 것이며, 나의 진리와 사랑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35. 나는 내 제자들이 그러하기를 원한다. 1950년이 지난 후에도 나는 그들이 명상할 때, 너희가 모일 때, 혼자 걸을 때 계속해서 그들과 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길을 가로지르며 함께 가도록 초대해 달라고 청하는 여행자, 방랑자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때 나의 영감은 크겠고, 여러분은 영혼이 위로받는 것을 느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은, 결코 그 목소리를 전하는 이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36. 내가 진실로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은 – 바로 이러한 겸손과, 나를 너희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나는 미래를 위해 아직 큰 교훈들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 이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 주지 않은 모든 것들이다.

나의 영적 세계가 너희의 영에 다가올 것이며, 이것이 너희를 위로하고 그 길에서 용기를 북돋아 줄 강력한 격려가 될 것이다. 바로 아버지의 가까움, 그분과 그분의 영적 세계의 진정한 임재,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그분의 왕국의 가까움이다.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갈 때, 그들 앞에서 증언하고, 나와 나의 영적 세계가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며, 나의 축복받은 존재들과 대화를 나눈 이들도 바로 여러분이었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37. 세상이 너희에게 "그 생각의 교류와 영적인 대화는 이제 그쳤느냐?"고 묻는다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영원합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첫 순간부터 그들을 찾아오셨으며, 매 순간 그분의 피조물들과 소통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은 더 낫고, 더

완전하며, 더 높고, 더 영적인 계시 방식을 추구해 오셨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단순함으로 말한다면, 인류는 많은 신성한 계시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영혼이 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어두운 눈가리개가 벗겨지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들도 나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고, 광신과 우상 숭배가
마음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38. 이처럼 거만한 건축물들, 금과 은으로 된 제단들, 호화로운
의식은 무너져야 하며, 그것들은 모두 저절로 무너질 것이니, 오직
시간의 흐름에 의해 정복될 뿐이다. 그러나 우상 숭배,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쉬는 광신의 성전은 내 뜻에 따라
무너져야 하며, 파괴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를 가장 크게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이러한 신성 모독의 흔적이 조금도 남지 않게 하리라.

39. 오,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아! 내 힘과 빛으로 충만해지라.
내가 내 말씀 속에서 너희에게 끊임없이 무거운 시련과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예고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내 말씀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영혼에 항상
위로와 기쁨, 확신과 희망을 쏟아 붓는다. 나는 너희 마음에
지상에서 더 나은 삶을 예고하며 그것을 준비해 준다. 나는 너희의
인간적인 마음을 위로하고 축복한다 – 그것이 아이의 마음이든,
청소년의 마음이든, 성숙한 나이의 남녀이든, 혹은 노년의
마음이든 간에 – 그리고 너희 삶의 여정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어, 너희 길에 축복을 쏟아 붓는다.

나는 너희에게 세상에서 평화를 찾는 최선의 방법을 가르치고,
입에 달게 느껴지는 열매를 알게 해 주노라. 나는 이 눈물의
골짜기인 이 세상에서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게 해주는, 허락된 행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노라. 나는
너희 자녀, 부모, 형제자매, 친척, 친구, 그리고 민족들 간의 사랑의
유대를 강화해 주노라.

또한 나는 너희가 쌓은 공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고귀한
내세의 삶을 너희 영혼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저 세상으로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 그곳에 도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은 단지 노년에 닥치는 것도, 삶의 소진으로만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어느 때든, 어느 날이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두 – 정말로 모두 – 이
삶을 뒤로하고 떠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40. 그러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간적인 삶을 즐기고 탐구한다면 – 여러분이 기뻐하고, 고통받으며, 그토록 깊이 연구하고, 또한 섬기고 있는 이 삶을 결코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면 – 이 삶 위에 있는 그 다른 삶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어느 정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이, 어떤 이는 덜 경험하겠지만 – 그들 모두는 영혼의 "계곡", 즉 이 세상보다 더 높은 그 높은 영역들, 그 세계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영혼은 언제나 다른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난번에 떠났던 그 세계 가 아니라, 영혼의 완전함을 향한 사다리의 더 높은 단계에 있는 또 다른, 더 높은 세계로 말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며,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길고, 완전한 삶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너희가 영원히 머물게 될 고향이며, 나는 너희가 그곳에 도달했을 때 당황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영혼이 내 문을 두드리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끼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이 삶에서 저 삶으로 넘어가는 그 한 걸음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 한 걸음은 중요하며, 그것은 진정으로 시험이자 투쟁이기 때문이다.

41. 나는 너희가 인간 삶에 대해 품는 모든 생각을 부정하지 않는다. 너희 영혼이 육신으로 환생할 수 있도록 몸을 주신 분은 바로 나다. 이 행성을 온갖 은사, 자연의 왕국, 원소들, 그리고 너희의 양식, 보존, 활력, 발전을 위해 유익한 온갖 피조물들로 장식하고 축복하신 분, 바로 나의 자비로 너희를 이 땅에 보내어 살게 한 것이다. 너희를 결혼하게 하시고, 자라나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신 분도 바로 나이다.

42. 너희 손에 일할 도구를 쥐어 주시고, 그 일과 너희의 열매를 축복하시는 분은 바로 나이다. 너희 이마에 맺힌 땀을 축복하시는 분도 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으로 의무 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한, 내가 너희를 그 의무 수행에서 막는 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 마땅한 대로, 겸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연민, 그리고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 의무를 다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의 사소한 수고로도 너희 마음에 평화와 만족을 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43.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의무들과 사랑의 관계, 감정, 유대감을 제외하고도, 나는 또한 여러분의 영혼, 즉

여러분의 마음과 이성, 그리고 온 존재의 모든 움직임을 이끌어 가야 할 그 더 높은 존재를 위한 관심과 시간을 요구한다. 바로 여러분의 육체를 다스리는 그 존재, 나의 종이요, 여러분의 육체가 섬겨야 할 그 존재를 위한 것이다. 나는 너희도 그 존재가 자기 성찰하고, 활동하며,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버지께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다해야 할 영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기를 원한다.

44. 나의 가르침과 법 속에서 나는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법, 모든 의무, 모든 경배의 형태를 하나로 통합해 왔다. 마찬가지로, 이 제3의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와서 이토록 폭넓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새로운 광신에 빠지지 않게 하고, 비밀주의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며, 모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단순하게 행동하게 하여, 영혼이 광신적이 되지 않게 하고, 육체라는 껍질이 그 의무를 어렵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 영혼이 마음이나 이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한 육체도 기꺼이 따르고 양심이 육체 안에서 느껴지도록 하여, 육체 또한 영혼이 그 소명을 다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45. 이들은 나의 제자들이다. 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활용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시련의 해에 – 유혹과 혼란이 너희 길에 닥칠 이 해에 –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하여 너희는 강해질 수 있고, 기도와 금식,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모든 것을 극복하며,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현현이 펼쳐지는 데 장애물이 생기지 않기를, 너희 사이에 분열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며, 오히려 이해와 자비, 언제나 형제애와 사랑이 지배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이 깃들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상을 주며, 이 백성 가운데서 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드러내리라.

46. 모두를 위해,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 깨어 있으라. 그리하여 선과 평화가 마침내 너희의 갈등을 극복하고, 내 왕국이 너희 가운데서 거짓과 어둠과 악의 왕국을 물리치게 하라.

47. 나는 너희 안에서 승자로서 높이 솟아오르리라 –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너희 안의 악을 물리치는 만군의 왕으로 여기고, 너희 자신을 영적 고결함과 만족, 그리고 영혼의 평화를 가득 지닌 군인들로 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 가장 위대한 승리, 곧 다가올 그 승리의 순간에 '보편적 조화의 찬가'가 울려 퍼질 것이니, 그 승리가 이루어질 때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자신도, 너희의 사랑으로 인해 '*패배한 자*들'이 생겨난다는 사실로 인해 슬퍼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패배자"는 영혼들이 아니라 – 바로 악, 모든 어둠, 죄, 그리고 불완전함일 것이다. 아버지의 승리는 어둠과 악에 뿌리내렸던 모든 뒤처진 영혼들의 구원에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멸망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악마라고 부르는 모든 존재들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혼들이며, 비록 오늘날 아직 길을 잃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언제 그들에게 참된 빛이 비칠 것인가? 바로 너희가 빛의 영적 군대들과 함께 기도와 사랑과 자비의 행실로 그들의 무지와 죄를 물리칠 때이다.

48. 주님의 위대한 날이 바로 너희 아버지의 *날이자 너희의* 완전한 행복이 될 것이다. 너희 모두가 언젠가 그분의 식탁에서 영생의 빵을 먹게 될 때, 보편적인 잔치가 열릴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28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영혼으로서, 그리고 육신으로서 내 면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내 신성한 본질로 상쾌함을 얻고, 배부르게 되며, 나를 통해 힘을 얻어 하루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여기 내 영이 계시고, 여기 너희의 영도 함께 있도다!

3.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계시며, 서로를 사랑스럽게 얼굴을 마주 보며 바라보고,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서로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백성아, 지금 이 순간 이전에는 너희 영혼이 내게로 나아갈 확실한 길을 찾지 못했었다. 오늘 너희는 세속적인 의무에서 해방되는 고양의 순간, 참된 회개의 순간, 그리고 영적 기도로 나아가는 길을 깨닫는 순간을 통해 나를 찾게 된다.

4.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나와 연결되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내게 기쁨을 드린다고 믿기 위해 고행이나 의식, 예식을 행해야 할 때가 아니다. 너희는 이미 그 시기를 오래전에 뒤로 했다. 너희의 영혼은 해방되었으며, 제3의 시대에 영적인 날개를 펼치고 무한을 지배하며, 나를 향해 상승하고 이동하며,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 상쾌함을 누리고 있다.

영혼이 승천한 후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면, 그 육신에 자신의 힘과 빛을 나누어 주고, 육신을 고양시키며,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영혼이 어른이 어린아이를 안아주듯 자신의 육신을 품에 안음으로써, 그 육신을 삶과 빛의 길로 이끌고, 믿음과 희망으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5. 시간이 흐를수록 너희의 영혼은 더 이상 약함을 느끼지 않게 되며, 나의 가르침과 시련과 투쟁을 통해 얻은 빛을 통해 점점 더 강해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제자들이 빛과 영성,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사역의 제자이자 사도가 되어, 내가 떠난 후 너희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교훈을 일깨워 주며, 끈기 있고 확고하게 진리로 향하는 길—이 땅의 평화와 영혼의 행복 및 영원한 평화를 이끄는 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6. 나는 나의 높은 보좌에서 나의 보편적인 광선을 보내노라. 그 광선은 퍼져 나가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에게 사랑으로 쏟아지노라. 그러나 너희, 선택받은 백성에게 있어 나의 광선은 인간의 말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변하며 , 그 내용은 밝혀지는 신성한 본질과 신성한 비밀이니라.

나의 말씀은 온 백성에게 내려오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내 자녀들이 종종 “그런 말씀 전달자와 그런 공동체에는 속임수가 있다”고 말해 왔지만, 어떤 속임수나 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은 항상 함께해 왔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자주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는 내 자녀들의 흠이나 준비 부족을 보지 않는다고.

7. 이제 내 때가 왔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스스로 정하신 성취의 때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마주하여 왜 주저하겠느냐? 바로 그 죄야말로 내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며, 내 빛과 사랑으로 이겨낼 대상이기 때문이다.

8. 누구도 사기꾼이라 단정하지 말고, 누구도 거짓말쟁이나 더러운 자라 단정하지 마라. 너희 모두가 나의 제자이며, 현재 모두 나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1950년 이후, 내 보편적 광선이 더 이상 너희 가운데 인간의 말로 나타나지 않게 될 때,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보편적 광선이 이 시대와 같이 드러나도록 만들려고 시도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는 사기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너희가 이 계시가 시작된 때부터 1950년까지 경험해 온 방식대로 더 이상 아버지의 현존을 기대해서는 안 될 때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법과 명령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사역을 결코 바꾸지 않으며, 나의 정의는 무자비하고, 나의 제자들은 아버지와의 조화를 이루며,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확신하노니, 내가 나를 드러내는 매개자들, 즉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비록 지금, 내가 계시하는 이 시기에 큰 준비 부족과 불완전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며, 나를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를 쏟아붓고 있다. 그들이 순수함과 완전함 그 자체인 나의 말씀 속에서 "육신"의 불완전함을 발견하더라도, 나는 너희에게 '열매로 나무를 분별하라'고 가르쳤으니, 너희가 인간의 불완전함을 용서하고 그 열매의 영적인 "맛"을 통해 너희 주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본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

9. 나는 현재 너희의 영 안에 영적인 기념서를 만들고 있으며, 나의 신성한 지시에 따라 나의 말씀을 담은 물질적인 책 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내가 후세와 미래 세대, 그리고 너희 뒤에 올 후손들을 위해 남기는 신성한 유언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너희의 불완전함의 "맛"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나의 말씀—그것이 너희의 영이 간직해 온 것이든, 종이에 기록된 것이든—은 완전할 것이며, 어떤 흠도, 어떤 불순물도, 어떤 불완전함도 없이 순수할 것이며, 인간의 갈증과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기적의 힘을 지닌 수정처럼 맑은 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이 수없이 많은 축제를 거행하는 데 쓰이는 빵과 포도주가 될 것이다. 그것은 빛나는 등대이자, 성령의 빛으로 밝혀진 길이 될 것이며, 그 길을 통해 방랑자나 길을 잃은 난파선 승객들이 안전한 항구로 향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0. 세상에서 영성주의를 실현하는 일이 너희에게 어렵게, 더구나 불가능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내가 밭을 비옥하게 만들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맡긴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밭들은 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비록 모두가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밭은 파종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밭은 지금 정화되고 있는데, 이 정화는 너희 아버지의 의와 시련, 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개와도 같다.

11. 이제 민족, 인종, 언어, 피부색으로 나뉜 인류는 나의 신성한 영으로부터 각자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몫, 즉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투쟁, 시련의 용광로,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과 모든 인종을 위해 마련해 둔 속죄를 받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 심판이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시련들이 사랑의 시험이라는 것을, 비록 이러한 시련들 속에서 겉보기에는 불행이나 재앙, 비참함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구원과 선을 향해 인도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생명과 영혼의 보존,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 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탕자”를 기다리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그를 품에 안으시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12. 나를 인정하지 않는 온 민족들이 있고, 내 율법에서 완고하게 멀어지며, 내 가르침을 알기를 원치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여겨 그에 저항하는 민족들이 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야말로 세속적인 자유를 고집하는 자들이다. 또한 종종 관대함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행을 행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에게는 나의 의와 시련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마치 경작할 수 있는 밭처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마침내 비옥하게 만들고, 경작이 끝난 후 그 안에 나의 사랑과 의, 그리고 빛의 영원한 씨앗을 심기 위해 날마다 닥쳐온다. 그 민족들은 나를 사랑으로 이야기할 것이며, 그 인종들은 그때 나를 희망으로 삼을 것이며, 이 인류의 모든 민족의 영혼 속에서 환호하는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며, 모든 사람의 유일한 주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의 합창이 울려 퍼질 것이다.

13. 그러나 지금은 시련과 투쟁의 시기이다. 너희의 하나님조차도 현재 싸우고 계신다. 그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며, 너희를 그분의 군사로 임명하셨다.

오늘날 너희는 아직 연약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 너희는 시련을 헤아리고, 싸움을 상상하며, 너희 영혼과 마음이 비겁해지도록 내버려 둔다.

너희의 영은 스스로 저울을 만들어, 오른쪽 접시에는 인류의 선을, 왼쪽 접시에는 악을 올려놓는다. 선은 겨우 한 알의 곡식처럼 보이지만, 악은 백 석이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희는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의롭지도, 덕스럽지도, 거룩하지도 않음을 깨닫고, 오직 의롭고 덕스럽고 거룩한 자들만이 악에 무뎌지고, 증오로 굳어지며, 정욕과 악덕, 비참함 속에 물질화된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 너희는 너희 자신의 성소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너희의 작은 제물과 미약한 불꽃을 발견한다. 너희는 타인의 성소에 침입하여, 그곳이 더 이상 사람들의 광란하는 질주를 막아줄 재갈이 아님을 보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하느님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 말할 때 비웃음을 산다고 생각한다.

15. 내가 너희에게 맡기고 계시해 준 이 사역 속에 담긴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보물에 대해 왜 그토록 믿음이 부족한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지지 않고서는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위대한 구원의 업적을 이루고, 인류 가운데서 위대한 기적을 행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 본보기가 될 수도 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들을 이 인류에게 보낸다면, 사람들은 그들과 조금이라도 닮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회개한 죄인들을 보내고자 한다. 그들은 – 의인이 되거나 성인이 되거나 는 것 없이 – 갱신과 회개, 용기,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 갈망, 진보, 그리고 영적 성장의 본보기를 남기는 법을 아는 자들이며, 바로 너희가 그들이다!

16. 너희의 영혼은 언젠가 완전함에 도달하겠지만, 너희는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 아버지는 너희를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며, 너희도 스스로의 발걸음을 억지로 재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된다. 비록 너희의

걸음이 느리다 하더라도, 나는 그 걸음이 언제나 확고하고 위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17. 너희가 사람들 사이에서 싸워야만 한다는 것? – 그건 사실이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전하는 증언, 즉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어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했고, 너희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심받을 것이라는 점? 그건 확실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처받지 마라. 인류는 예로부터 언제나 나의 현존과 이 세상에 오신 나의 오심을 의심해 왔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인류가 비록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크기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비록 주님을 안다고 믿지만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특성 중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며, 나의 신성한 현현에서 결코 나의 모든 권능도, 모든 위엄도, 모든 영광도 발휘한 적이 없다.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 수도 없었을 것이며, 나에게 저항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18. 나는 항상 스스로를 제한해 왔으나, 겸손과 사랑, 그리고 다정함에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나는 제2시대와 제1시대에도 너희를 사랑했으며,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건대, 너희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셨다.

19. 너희 중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이 있다. "왜 우리 영혼은 사랑과 순결, 완전함으로 가득 찬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미덕 안에 머물고 견지하지 못했는가?" 스승이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나는 너희 영혼을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특성을 갖추고 지상으로 보냈으며, 창조주를 닮은 자녀로 창조하였다. 지구 위를 걸어가는 동안 영혼에게 육신이 맡겨졌으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영혼에게 시련과 투쟁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영혼의 강인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20. 미덕은 오직 시련 속에서만 드러난다.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강하게 빛나며, 빛 속에서는 빛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영혼이 시험을 받고 정화되는 것이 필요했다. 너희 영혼에는 시작이 있었으나, 그 순수함 속에서는 공로가 없었고, 경험과 발전, 그리고 완전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너희 영혼은 더 낮은 삶의 단계로 내려가도록 명받았으니, 이는 또 다른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이와 같이 완전함에 이르는 일곱 단계의 사다리를 따라 계속 올라가, 마침내 완전하고 순수한 영혼으로서 아버지의 임재에 도달할 때까지 – 빛으로 가득 차, 모든 은사를 펼치며 성장하고, 모든 능력에서 완성되었으며, 투쟁을 통해 얻은 수많은 공로를 지니고, 자기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삶에 대한 깨달음으로 충만하며, 자신의 기원과 창조된 목적, 그리고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자각한 채로.

21. 육신에 깃든 영혼이 지상 여정에서 투쟁의 시작을 맞이했던 것처럼, 영혼은 또한 무수히 많은 시련과 유혹을 마주하게 되었다 – 어떤 시련은 눈에 띄는 것이었고, 다른 시련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으며 – 그 유혹과 시련은 너무나 강력하여 육체를 통해 그녀를 넘어뜨렸는데 – 어떤 것은 눈에 보였고, 다른 것은 오직 영혼과 정신, 그리고 마음과 이성의 섬세한 현을 통해만 감지될 수 있었다.

22. 영혼은 그 기원에서부터 온갖 방식으로 시험을 받아 왔다. 악을 통해 시험을 받았는데 – 너희는 혹시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시험하기 위해 악을 소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지 않다. 그러나 악 또한 너희의 기원에서부터 존재해 왔으며, 그것은 영혼과 "육체"의 연약함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성향을 초래했다.

영혼들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했고, "육신"이 유혹에 굴복했으니 –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악의 세력이 너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 한 번, 또 천 번이나 내가 이를 허락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맡긴 내 빛을 시험하고, 내 것이기도 한 너희 자신의 미덕을 검증하며, 고통과 어려운 위기 속에서, 삶의 혼란 속에서 정화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니, 이 시련과 어려운 사건들 속에서 너희 영혼이 완전해지고 율법을 성취할 계기를 찾게 하려 함이었으며 – 너희 이웃과 너희 아버지께 내 율법 안에서 너희의 힘과 확고함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23. 너희는 언제나 직관적으로 나의 율법을 알아왔으니, 곧 선을 명하고 악을 정죄하는 나의 율법이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직관적으로 무엇이 선인지 깨닫고, 악이 있는 곳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너희는 모세가 오기 전 나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최초의 인간들처럼 자연법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모세가 오기 전, 막 형성되기 시작하던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결코 그렇지 않았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나를 알아본 이가 있었으며, 그를 통해 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서 악이 선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자, 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상기시키기 위해 오셔야만 했고, 시나이 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둘러싸인 모세 앞에서 내 율법을 선포하고, 그것을 돌에 새겨 그에게 건네주며,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 씨앗이 되도록 그의 백성에게 보내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육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느낄 수 있게 해야만 했습니다.

24. 이 율법을 통해 내 백성은 구원받았고, 스스로를 해방시켰으며, 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고 내세에 대한 희망을 얻었다. 그러나 내 율법이 왜곡되고, 그에 익숙해지는 날이 찾아왔으며, 악이 다시 번져 나가 마침내 선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계명들이 점차 왜곡되고, 사람들이 내 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나는 다시 와야만 했으나, 이번에는 메시아로서, 사람 가운데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와서 그 길을 바로잡고 진리의 길과 연결하며, 사람들을 진리와 선으로 이끌고, 정의와 사랑의 길로 초대하기 위함이었다 – 사기꾼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모든 거짓과 미신을 파괴하며, 그들에게 말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 법이니, 이것이 바로 내가 그 첫 시대에 전했던 것이다!”

25. 나의 이 오심을 통해 지상의 새로운 민족들과 새로운 인종들 또한 길과 평화, 영적 행복, 양식, 그리고 내세에 대한 희망을 찾게 되었다.

26. 오랜 세월 동안 이 인류는 천국의 풍성한 잔치로 양육받았다. 그러나 보라, 이 잔치마저 더럽혀졌고, 이미 그런 상태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나의 가르침은 왜곡되었고, 나의 지침 또한 뒤틀리고 잘못 해석되었다. 자녀들의 율법 준수와 하나님 숭배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바와 달랐기에, 사람들에게로 돌아가 약속을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내가 인간들 가운데서 때때로 내 임재가 필요함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오셔서, 지난 두 시대에 너희가 풍성히 축복받았던 율법과 계시, 가르침, 기적들에 대해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되었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7. 이것이 바로 내가 온 이유이다. 너희는 육신의 약점에 굴복하고, 너희 위에 존재하는 악의 초자연적인 권세 아래서

보이는 유혹과 보이지 않는 유혹 모두에 빠졌기 때문에, 선함 안에서 굳건히 서서 그 안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이다.

28. 너희는 과연 그 첫 번째 시대에 내 오심을 목격한 모든 증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믿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진실로, 모두가 아니었노라!

29. 그 계시가 다른 나라들, 이방인의 나라들로 전해졌을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 많은 이들이 그 율법이 신성한 작품일 것이라고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이 인간의 작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그 정의와 그들의 행실을 통해 자리 잡고 드러나자, 그때 비로소 큰 불신자들이 그것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30. 제2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수천, 수만 명의 남녀가 나를 들었다.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믿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은 의심하며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그분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워졌으며, 오직 믿음이 깊은 이들에게만 명료하고 분명하게 다가왔다. 그 때문에 나는 불신자들에게서 저항과 조롱, 박해를 받았으며, 나의 고난과 행적, 기적들은 불신자들에게 신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소행으로 여겨졌다.

31. 나의 가르침이 그 자체의 현현을 통해 인류에게 퍼지고, 나의 증인들도 그들이 나의 참 제자이자 참 증인임을 증명해 보였을 때, 불신하던 인류는 나의 가르침으로 돌아서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나 또한 나의 제자가 되었다.

32. 이 일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희에게 왜 놀랍겠느냐?

33. 어떤 이들은 너희의 증언을 의심할 것이며, 내가 이성을 통해 인간에게 나를 드러냈다는 사실도 의심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내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물질적인 책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영감을 통해 받아 쓴 신성한 작품 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 인류 속에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희, 즉 인간의 허영심 탓으로 돌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불신과 불신을 넘어보아야 하며, 동료 인간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로 인해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실로 인한 불신과 불신 뒤에 믿음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게 하라, 너희의 간증이 진정으로 빛으로 가득 차게 하라. 그리하여 세상을 회심시키는 것이 책도, 너희의 말도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구름 위"에서 내려와 나의 신성한 영에 의해 지명된 한 사람, 즉 나의 빛을 전하는 매체를 통해 나를 드러냈다는 간증을 확증하는 너희의 선한 행실이어야 한다.

34. 나는 너희를 지구 곳곳으로 보내겠으며, 마찬가지로 성령의 제자가 될 너희 자녀들도 보내겠고, 그들의 자녀들 또한 나의 씨앗을 전파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세대 이후 세 대가 지나기도 전에, 영성주의와 성령의 강림을 마주한 이 인류는 비범한 사건들로 인해 그 기초부터 뒤흔들리게 될 것이니, 그 중 일부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미 실현시켰고, 다른 일부는 미래를 위해 예비해 두었노라. 마찬가지로 너희는 악의 왕국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이다. 이 세력은 너희의 사랑과 정의의 행위로 인해 점점 더 무너져 갈 것이다.

35. 영성주의로 개종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은 그 왕국에 속한 자 한 명씩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사랑과 빛의 행위를 통해 악의 분위기를 극복하라는 임무나 사명을 주었다고 믿는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것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것은 너희보다 여전히 더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 때문에 너희의 무기를 숨기거나, 그것을 뽑아 들기를 주저하지 말라 – 아니, 나의 자녀들아. 명심하라: 비록 너희의 검이 전능하지는 않더라도, 나는 전능하며, 나는 너희의 검 안에 있다.

36. 유혹에 맞서 싸우고, 함정을 간파하며, 유혹하는 그물과 밧줄을 찢어 버리라. 그것이 저 세상의 베일 뒤에 숨어 있을 때 너희의 직감으로 그것을 간파하고, 사람들 사이나 사람들의 투쟁 속에 숨어 있을 때 그것을 간파하라 – 항상 싸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싸움에서 나와 함께해야 한다. 나는 그 안에서 어둠과 존재하는 모든 악에 맞서는 위대한 전사로서 있으며, 결국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승리하며 너희 곁을 지켜줄 이는 바로 나일 것이며, 너희는 내가 승리하도록 돕는 자들이 될 것이다. 유혹과 악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는 이 시대에 너희, 나의 백성들이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 힘을 한동안 묶어 두어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너희가 이룬 공로는 너희에게 인정될 것이다.

그 힘이 묶여 있는 기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함이 뿌리를 내리고, 모든 형태의 선함이 힘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선함 안에서 강해지고, 나의 정의의 저울에서 선이 악보다 더 무거워지면, 모든 형태의 유혹이 다시 한동안 풀려날 것이며, 바로 그 시기에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나의 검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무기가 될 것이다.

37. 나는 오직 무한한 곳에서 지켜볼 뿐이다. 그때 너희는 원수를 물리칠 데 필요한 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갖 형태의 미덕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며, 유혹은 구석 하나, 열린 문 하나, 공간 하나도 찾지 못할 것이며, 그 가장 큰 함정과 덫들은 유혹의 힘의 마지막 요소까지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그때 그들의 왕국이 산산조각 나고 분열되면, 너희 승리의 시작이 올 것이며, 어둠은 빛으로 변하고, 악은 선이 되며, 길을 잃은 자들은 발견될 것이다.

38. 보라, 이것이 바로 너희 영혼 안의 승리일 것이며, 그때 너희가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빛과 정의와 사랑의 승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실패자로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유혹에 의해 파멸당하며 떠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라, 나의 자녀들아. 비록 너희가 오랫동안 넘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함정에 빠져 넘어질지라도, 너희가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니, 마치 군인이 지휘관 앞에서 허리를 펴는 것처럼 말이다.

39. 백성아, 나는 너희를 다가올 시련에 대비시키고 있다. 나는 모든 싸움에서 너희가 항상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나 나는 그 승리가 너희의 자만심을 부추기기를 원치 않는다. 그 승리는 너희의 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의 영적 겸손을 위한 깊고도 진한 만족이 되어야 하며, 너희 자신의 얼굴에조차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40. 너희의 사랑과 자비의 행위는 알려지지 말아야 하며, 너희 가운데는 동료들에게 베푼 자선을 내세워 잔치를 벌이는 바리새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조용히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미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너희 영혼은 이제 그 능력을 온전히 펼치며 이를 통해 선을 행하고 있다. 너희는 줄 수 있을 것이다 – 지상에서 소유한 재물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성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가진 것들까지도 말이다. 너희의 말이나 세속적인 인격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은 기도를 통해 행하라. 나와 대화하고, 나에게로 올라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자비와 사랑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여 곤경에 처한 이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선행을 기도로 대체하려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기도로 여러분의 이기심을 숨기거나 감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버지께서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41. 항상 양심이 너희에게 지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선을 베풀어야 할지 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그 자선을 베푸는 과정에서 너희의 소유물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도, 너희 마음이 그것을 아쉬워하지 말라. 손을 내밀면, 너희 영혼 속에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도 너희 아버지 안의 기쁨을 미리 느낄 것이다.

42. 나는 인류 사이에 닥칠 큰 투쟁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며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내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구 곳곳에서 영적인 것을 탐구하고, 주님의 비밀스러운 보물고를 탐구하려 애쓰며, 책들을 토론하고 연구하며, 철학과 과학의 영역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찾고 있기 때문이며, 모두가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나를 찾으려 애쓰기 때문이다. 영혼들은 내가 사랑과 용서의 근원임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구원을 바라며 감히 나를 찾으려 합니다. 그들은 내가 끝없이 넘치는 자비의 근원이며, 그들의 굶주림과 갈증을 해소해 줄 음식으로 가득 찬 식탁이기도 함을 알고 있습니다.

43. 너희는 사람들이 이러한 탐색을 통해 강해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들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발전과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백성들아. 일단 길을 나서면 너희는 놀라게 될 것이다. 다른 나무 그늘 아래서 양분을 얻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건넨 것과는 다른 열매를 먹는 동료 인간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들도 양분을 얻었으며 그들도 강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싸움의 순간이 찾아와, 너희가 이성, 지식, 그리고 영적 고양이라는 검을 사용해야 할 때, 너희는 그 검 역시 너희 동료들의 빛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4. 싸울 수 있도록 잠들지 말고, 승리를 알아보는 법을 배우라. 왜냐하면 종종 승리는 너희의 패배 속에 있을 것이며, 적에 대한 패배는 겉으로만 그럴 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승리는 너희 자신 안에 있을 것이며, 그 후 겉으로는 너희를 이긴 것처럼 보였던 자의 얼굴에 그 승리가 비칠 것이다.

45. 내 말을 이해하라, 백성들아. 너희가 침묵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며, 참된 겸손으로 고개를 숙여야 할 순간이 올 것이니, 그때 적들은 너희 위에 우뚝 서서 일격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침묵을 지키고, 의도적으로 고개를 숙였을 것이며, 나중에 너희가 남긴 씨앗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싹트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빛과 사랑의 칼이 가한 타격이 너희 형제의 마음속에 – 적의 것이 아닌 –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상처를 통해 그 마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스승의 씨앗이 스며들게 될 것이다.

46. 너희는 이미 그 경험을 해 보았다. 너희는 종종 나의 성소에 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스승님, 저는 큰 사랑으로 한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렸으나, 그의 귀는 제 말을 듣지 않았고, 그는 차갑고 굳은 마음을 유지했으며, 그의 입술은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시며, 여러분에게 평화와 희망을 채워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너희의 씨앗은 헛되지 않았으니,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았느니라." 그곳에 그대로 두어라! 내가 그에게 비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리라. 너희 손으로 당장은 제거할 수 없었던 잡초와 바위들을 내가 치워 주리라.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잊지 말고, 영적으로 기도하며, 너희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그 때가 올 것을 희망하라. 그러나 그 시기가 늦어지자, 너희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의심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뿌린 씨앗을 생각하라. 겉보기에는 사라진 듯했으나, 그 자리에 덤불이 자라났다. 이제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가꾸어라." 그때 너희와 다른 이들의 기쁨은 컸다.

47.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노라, 백성아. 너희가 조급해하지 않도록, 영적인 인내가 사명 완수를 이끌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맡기는 이 씨앗은, 땅 위의 씨앗처럼 싹트기 위한 시간적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원 속에서 자라나며, 그 시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너희는 이를 알지 못한다, 너희의 임무는 오직 기도와 사랑으로 그 씨앗을 가꾸고 지키는 것뿐이다.

48. 이와 같이 스승은 자신의 작별 이후의 시간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나는 너희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누리는 그 행복이,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되기를 원한다. 백성들아, 내가 그 높은 저 세상에서 기도를 통해 너희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릴 때, 그것이 개별적이든 공동적이든 간에,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오늘 내가 보는 그 행복과 기쁨을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한다. 또한 이 시기에 일어난 모든 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것과, 그분이 이성을 통해 계시하신 말씀의 종착점에 대해 온전히 깨달은 채, 그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오기를 원한다. 너희 입술은 침묵하지만 영혼 속 깊이 타오르는 찬양의 노래를 품고 그분께 나아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나이까! 그 시절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던가! 주께서는 영혼들을 얼마나 빛으로 가득 채워 두셨으며, 인류에게 얼마나 귀중한 유산을 남기셨는가!"

49. 오, 백성들아! 나는 너희가 그토록 행복에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너희 가운데 뒤처진 영혼을 보고 싶지 않으며, 계속해서 불신 속에서 방황하며, 자신의 죄와 내 은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사소한 논쟁을 벌이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백성들 사이에 화합이 이루어져, 내 영 안에서 그들의 빛과 기도를 느낄 수 있기를 원하노니, 그 기도는 다음과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리라: 일치, 평화, 선의 – 믿음, 소망, 자비.

50. 그리하여 나는 너희 영혼 안에서 이 미덕들이 가꿔지고, 마치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처럼 무한한 공간에서 휘날리는 것을 보고자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곧 나를 진정으로 기다리며 타오르는 마음으로 메시아이자 구세주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민족과 대중에게로 나아가라는 명령이다.

어떤 이들은 "스승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영혼들의 직관과 예지력이 복되도다. 또 다른 이들은 "아니요, 그분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제2시대 때처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구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오신 그 영적인 구름을 말이다.

51.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깨어 있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준비되어 있다. 제3시대의 계시가 살아 있는 목소리로 너희에게 전해졌으니, 너희가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아가며, 수많은 군중 앞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때가 되면 너희는 심문을 받게 될 것이며, 너희의 증언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신자들은 군단을 형성할 것이며,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군단을 형성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군대는 곧 몰살당할 것이니,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우위를 차지하시는 때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들 것이기 때문이다.

52. 제자들아, 힘을 내라. 양식을 취하고, 내 곁에서 치유받으며, 이 땅의 시련을 이겨내고, 삶을 마주하며 용기를 내라. 너희를 괴롭히는 고통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마라. 이 시련은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고통의 잔을 마셔야 한다면, 마시라. 만일 그 잔의 찌꺼기를 너희가 마실 수 없다면, 내가 마시겠다. 그러나 순종하고 인내하라.

"육체"보다는 영혼으로 고통을 바라보거나, 몸보다는 영혼으로 고통을 더 깊이 느껴 보라. 그러면 너희는 영혼의 명상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될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이 영혼과 그 육신에 얼마나 많은 빛을 내려주는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 영혼 안에서 너희는 모든 고통을 달래고 치유하는 신성한 향유, 참된 향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 너희는 진정으로 치유될 것이다.

53. 오, 백성들아! 진정한 영성인이 되고,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라! 그러면 길 위의 모든 가시와 걸림돌, 장애물들이 더 가벼워지고 완화될 것이다. 때때로 너희 어깨를 짓누르는 그 짐은, 너희가 명상하고 기도할 때 설명할 수 없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은 너희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혼이 고양될 것이기 때문이며, 고양된 영혼은 강하고, 그 '육체'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고양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곳에서 이 삶을 지배하고, 모든 시련 속에서 너희 영혼이 싸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니, 그리하여 그곳에서 '육체'와 그 정욕, 약점, 궁핍을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4. 내 백성아, 점점 더 높아져라. 그러면 아버지의 평화와 왕국이 너희 손에 닿을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너희 영혼은 아버지의 평화의 왕국에 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55. 이것이 오늘 아침 묵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으로 전하는 내 말씀이다. 이 말씀을 너희 영혼에 간직하라. 여기에는 스승의 온전한 사랑 이 담겨 있으며, 미래에 일어나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무기가 담겨 있다.

56.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순간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너희의 모든 영적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제 기도의 순간이 왔다. 나의 사랑과 평화의 영이 온 우주에 그

망토를 펼치어, 나의 모든 자녀들을 이 어루만짐과 이 치유제, 그리고 이 아버지의 축복으로 감싸 줄 것이다, 오, 나의 신성하심을 받은 축복받은 백성들아!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29

1. 더 높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 지식을 넓히려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2. 분명히 깨닫고자 하는 자들은 행복하고 복되리라.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가리고 있는 눈가리개가 떨어지도록 내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해야 한다.

3. 인간은 두 가지 죄를 지었다. 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그 눈가리개가 벗겨지도록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희생시키며 세속적인 쾌락으로 유혹하는 육신의 속박 속에서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었고, 갱신을 위한 의지력은 파괴되어 버렸다.

4. 눈먼 자들이 눈먼 자들을 이끌려 하고,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죄인들에게 지도를 주려 한다. 사람은 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정화되기 위해 노력하려 하지 않았기에 약하다. 그는 자신의 악덕과 싸우고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부여받은 힘, 즉 의지를 활용하려 하지 않았다.

너희 영혼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너희는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영혼이 "육신"을 다스릴 때, 너희는 심지어 포식자들조차도 너희 사랑의 부름에 온순히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5.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내 성령의 빛을 통해 하나님과 자연 속에서 신비로 여겼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6. 너희의 행실이나 생각이 정반대를 말하고 있다면,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가 영성화됨으로써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영성화를 추구하라.

7. 내 식탁이 차려져 있으니, 와서 영생의 떡으로 배를 채우고, 나의 사랑의 교훈으로 마음을 준비하며, 나의 빛으로 무지를 떨쳐내고, 정욕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라.

8. 그러면 너희의 행실과 영성화는 너희 영혼이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 부르는 찬송과 같을 것이다.

9. 준비하라, 제자들아, 내가 이 수단을 통해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때 너희는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강해져야 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내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들의 뇌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영으로 현존하여 너희 각자의 영혼에 나의 영감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10. 이 계시들을 통해 마지막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내 메시지와 계시를 깊이 묵상하고, 공부와 기도, 그리고 순종을 통해 준비하여 힘을 모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도와주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무거운 시련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위로를 베풀고,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진정한 영성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11.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이 가장 중대한 순간에 제 자리에 서 있는 자는 싸움 속에서 굳건히 버티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발걸음을 내딛는 자는 누구나 넘어질 것이니, 오직 확고하게 세워진 것만이 그 후 이 백성에게

닥칠 회오리바람의 소용돌이를 견뎌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리와 헌신, 이웃 사랑,
그리고 영성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일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12. 내 말씀의 진의를 깨닫도록 배우라. 그래야 너희 영혼을
오직 그것으로만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너희는 내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대변자들과 영감을 받은 자들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위로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성한 위로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1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그 대변자들의 육신이
그토록 높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했더라면, 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의 입술은 내 영감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많이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내 계시가 몇 시간 동안이나 길게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14. 그들이 양심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따랐으며, 백성에 대한
사랑과 영적 빛을 갈망하는 이들에 대한 자비에서 영감을
받았더라면, 나의 말씀은 몇 문장으로만 제한되었을 것이나, 그
형식이 너무나 완전하여 지상에서 스스로를 가장 학식 있는
자라고 여기는 이들을 뒤흔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메시지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겠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정수가 전달되었을 것이기에, 청중들의 영혼은 시간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영원으로 옮겨진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현존을 온전한 강도로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존은 너희의 목소리 전달자들의 불완전함과
불순함, 그리고 세속적인 무거움에 가려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15. 아, 내 자녀들아, 나는 이 순간 너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늦었다. 너희가 맡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열매를
맺기에는 더 이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
열매는, 영성화를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너희가
익혀야만 했던 바로 그 열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마지막 아침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6. 이제 내가 너희가 어떻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말해
주겠다. 더 이상 그 잘못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도록, 더구나 마치
그것이 진리의 일부인 양 동료 인간들에게 전하지 않도록 말이다.

17. 너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의 입에서 들은 그대로,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통해 너희의 이성을

고양시키라. 그 교훈들을 그 의미와 핵심, 내용을 발견할 때까지 깊이 묵상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신성한 본질이며, 이후 인류에게 빛의 메시지로 전해야 할 것이다.

18. 일단 텅 빈 말과 형식, 상징적인 행위와 의식을 버리게 되면,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던 장막을 찢어 버린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겉모습과 불필요한 것들을 배척한다면, 그것은 영성이 여러분 안에서 점차 느껴지고 실천되고 있다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이성, 심지어 감각조차도 더 이상 겉치레나 별 의미 없는 허울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혼은 모든 것 속에서 그 의미와 진리, 생명, 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19. 이 제자들 중 누구라도,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 신성한 것과 육적인 것, 고귀한 것과 천한 것이 뒤섞인 메시지를 동료 인간들에게 전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백성들아, 이 선한 제자들이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빛과 진리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되는 천상의 메시지만 전파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20. 너희의 증언을 전파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되도록 내 말씀을 글로 기록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오직 나만이 그것을 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그들을 많이 시험할 것이며, 그들은 내 가르침의 영성이 형제자매들 사이에 퍼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을 느끼는 이들 중에서 선택될 것이다.

21. 이 가르침들을 통해 용기를 내어, 내 계시의 마지막 순간에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그 후, 이 사역의 본질과 영성, 그리고 소박함을 위해 싸우는 군인들의 일원이 되어 나아가라.

22. 인류를 이루는 여러 민족의 마음속에 이 나의 씨앗이 싹트면, 사람들의 삶에는 절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과거 사람들의 삶의 방식, 믿음, 예배, '투쟁', 사고방식과 영성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이 인간적인 삶과 영적인 신앙 생활 모두에서 보여줄 차이는 얼마나 클 것인가.

23. 광신과 우상 숭배, 물질주의, 그리고 터무니없는 신앙 교리가 만연했던 그 시절의 흔적은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조상들과 여러분 자신이 다가올 세대에게 물려준 모든 오류는 제거될 것입니다. 선과 진리의 본질을 지니지 않은 모든 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려받은 모든 선한 것들은 그들이 보존할 것입니다.

24. 과거보다 더 영적인 형태로 제시된 이 가르침은, 사람들, 민족들, 교회들, 그리고 종파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내리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짧은 혼란의 시기가 지나가자마자,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그들은 내 말씀 속에 예로부터 담겨 있던 본래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할 것이다.

25. 나의 신성, 영적 삶, 그리고 너희 존재의 목적에 대한 관념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질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이 너희 스승과 그분의 사자들, 예언자들이 비유와 상징을 통해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잘 해석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26. 그 표현 방식은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만 이해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점차 커지는 영적·지적 수용 능력에 맞춰 그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당장 알고 싶어 했기에, 오직 영적인 방식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에 물질적인 해석을 부여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모순과 잘못된 관념에 얽매이게 되었다.

27. 이제 빛이 다시금 모든 영혼 속에 비추고 있으니, 너희는 그 계시와 이 계시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라. – 너희가 진정으로 내 말씀의 의미나 본질을 깨닫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깊이 탐구함으로써 이 계시들을 연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것이며, 그 의미는 명백하고, 분명하며, 단순하게 드러날 것이다. 비밀들은 사라지고, 그와 함께 무지 또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지구는 점차 빛나는 존재들을 영적 계곡으로 돌려보낼 것이며, 무지의 장막에 싸인 어두운 존재들은 보내지 않을 것이다.

28. 이 계시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래, 비록 불신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 지성을 연마한 자들뿐만 아니라 교육받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 가운데서도 – 너희의 영은 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29. 이 계시를 부정하려는 논거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 말씀을 없애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내 메시지의 흐름을 막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 일을 더 많이 반대할수록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 불타올랐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30.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신의 권능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31. 오늘날의 인간이 모든 과학을 동원해도 자연의 원소들을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킬 수 없다면 – 어떻게 영적 힘에 자신의 권력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32. 우주의 천체들이 변함없는 질서를 따르며, 인간의 의지로 그 궤도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질서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33. 내가 낮과 밤을 창조하였으니, 즉 내가 빛이며,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빛을 막을 수 없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4. 나는 너희 영혼의 빛이며, 언제 너희에게 신성한 명료함이라는 보물을 보내야 할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35. 삶의 흐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으며, 빛의 진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 수 있듯이, 내 계시가 이러한 형태로 수년 동안 너희에게 전해져 온 후,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가르침에 반대하는 수많은 적들 중 그 누구도 내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단 하루라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6. 나의 빛과 접촉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이는 강하고, 무적이며, 상처받지 않는다고 느꼈으며, 실제로도 그랬다.

37. 백성들이 이 모임 장소들 안에서 모일 때, 그들은 항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나의 임재와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했으며, 나는 그들의 믿음이 진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었다.

38. 내가 이 백성에게 내 임재의 진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들었고, 내가 내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의 수는 몇 배로 늘어났다.

39. 또한 너희에게 말하건대, 불신자들과 의심하는 자들, 부정하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음을 알려야겠다. 인류가 나에 대해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는 한, 나를 부정하는 자들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혼란 때문에 그들은 나를 이해할 수도, 내 목소리를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으며, 결국 그들은 나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이해력을 벗어난 것이기에 그들에게는 진실일 수 없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40.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칠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이나 사기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그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기꺼이 막아주고 싶어 한다.

41. 그러나 이 가르침의 의미를 듣게 되면 그 진리와 정의 앞에서 떨게 될 다른 부정론자들도 나타날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명성이 위태로워진다고 여겨 비열한 무기로 내 사역을 공격하고 대적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들에게는

무지나 진실한 신념이 아니라, 인류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시기심과 증오, 그리고 두려움이 바로 이 백성을 대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에게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이 오면, 그 누구도 빛이 비추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42. 말의 매개자가 입으로 내뱉는 말 속에 담긴 그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근원은 선함, 신성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우주적 빛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빛나는 전(全)존재의 한 줄기 빛이자 불꽃이며, 모든 것을 움직이고, 그 아래에서 모든 것이 진동하며, 활동하고, 끊임없이 그 궤도를 그리는 무한한 힘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신성한 광채라고 부르는 것이며, 영혼을 비추고 생기를 불어넣는 신성한 영의 빛입니다.

43. 그 광채는 영혼과 육체 모두에, 세계들과 인간, 식물, 그리고 창조된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영을 위한 영적이며, 물질을 위한 물질적이며, 지성 능력을 위한 지성이며, 마음속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지식이며, 재능이며, 자기 성찰이며, 본능이며, 직관이며, 모든 존재의 감각 위에 그 질서, 성질, 종류, 발달 단계에 따라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 근원은 오직 하나, 곧 하나님이며, 그 본질은 오직 하나, 곧 사랑이다. 그러니 내가 이 피조물들의 이성을 비추어 너희에게 영적 빛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44. 식물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영이 보내는 생명의 광선을 받아들인다. 별들은 궤도를 돌 수 있도록 내 영이 그들에게 발산하는 힘을 받아들인다. 여러분의 모든 감각으로 접할 수 있는, 현재 살아있는 증거인 지구는, 그 품에서 수많은 기적을 솟아나게 하는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존재 속에서 마치 보석처럼 한 영의 임재가 빛나며, 그로 인해 나와의 닮음이 근거를 두는 인간이, 내 영으로부터 그의 영으로 직접 신성한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그 빛은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영적인 씨앗이 아니겠는가?

45. 아무도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너희 모두가 나를 알아가라 – 나를 인식하여,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진리에 기초하게 하고, 선이 드러나는 곳에는 내가 있음을 알게 하라.

46. 선은 그 무엇과도 섞이지 않는다. 선은 진리이며, 사랑이며, 자비이며, 이해이다.

47. 선은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고, 혼동할 여지가 없다. 너희가 착각하지 않도록 그것을 알아라.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들이 모두 '선'이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면, 결국 서로를 알아보고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선을 악으로 위장하고 악을 선으로 가장함으로써 고집스럽게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8. 나의 계시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아, 이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 후에 판단하라. 그러나 먼저, 내가 사람들 가운데 계셨을 때,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를 통해 나는 내 고향이 영적 세계임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려 했던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적인 삶에 대해 말할 때, 비유를 통해 말하였으니, 만일 내가 천국을 그 모든 영광과 진리 그대로 묘사했다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49.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방식 속에서 모든 신성한 것들에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인 형태를 부여했기 때문에, 내 비유와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오해해 왔다.

50. 인간의 이성이 나의 계시에 부여한 세속적인 해석 때문에, 영적 삶에 대한 많은 관념들이 진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51.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천국"이라고 부른 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자신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것과 같은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는 한, 어떻게 내 공의를 깨달을 수 있겠으며, 환생의 법칙이 단순한 이론도,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도 아니라, 영혼이 정화되고, 완성되며, 다듬어지고, 고양되는 영원한 공의와 사랑 어린 균형의 법칙임을 언제쯤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 것인가?

52. 인류여, 다시 내 말을 들어라. 지금은 제3의 시대이며, 나는 지상에 계셨을 때 계시한 말씀 중 단 한 마디도 지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가르침에 부여한 모든 잘못된 해석을 너희 마음에서 지우기 위해 왔음을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53. 너희를 눈멀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광신주의를 버리면, 너희는 이 가르침을 점차 이해하게 될 것이며, 빛으로 가득 찬 너희 눈앞에 이 시대와 과거 시대의 내 계시 내용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오늘까지 '비밀'이라 부르던 것을 '완전한 정의'라 부르게 될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에는 그 영원한 가치를, 덧없는 인간적인 것에는 그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54.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는, 영적 삶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지구상의 단 한 번의 삶이 영혼의 영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그 한 번의 삶만으로는 여러분 중

누구도 “천국”이라 부르는 지극한 영성화의 영역으로 직접 이끄는 완전함에 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지상 생활에서의 실수가 영혼이 어둠이나 고통 속에서 영원히 파멸하도록 결정짓지도 못할 것입니다.

55. 물론 영혼에게 허락된 인간의 삶은 그토록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영혼의 진보에 있어 그토록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한다는 사실은, 내가 각 영혼을 지구로 보낼 때 맡겨주는 것과 같은 거룩한 선물 을 폄하하는 자에게 내 변함없이 엄격한 정의가 그 길 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처럼 짧은 존재에 영혼의 온 영원이 달려 있다는 것은 오해이다. 특히 인간의 실수가 발전과 빛, 고양이 결여된 존재들에게 고유한 것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56.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찬 나의 가르침은 영을 강화하여, 영이 “육체”에 대한 권능을 행사하고, 육체를 양심에서 오는 영감을 점점 더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민감하게 만들 수 있게 한다.

57. 영성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양심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마침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적 고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심오하고 지혜로우며 흔들림 없고 공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해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인간은 진정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인간은 모든 선한 충동에 따르고 모든 빛나는 영감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힘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하며, 동시에 모든 유혹과 부정한 생각이나 나쁜 감정적 충동을 물리쳐야 한다.

58. 인간은 자신의 모든 적을 물리칠 최고의 무기를 자신의 영혼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며, 양심이야말로 그가 피할 수 없이 악과 싸워야 하는 그 전투에서 어떻게 싸우고 방어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다. – 그것은 인간이 그토록 끌리는 그 힘이며, 그가 수많은 이름을 붙이고 형상을 부여한 한 영으로 의인화한 바로 그 힘이다.

5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과 유혹, 그리고 어둠과 싸워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 낸 그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 즉 너희 자신과 싸워야 한다. 바로 그곳이 약점과 나쁜 성향, 그리고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왔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30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 영혼을 찾아 새로운 가르침을 주려는 스승으로서 나를 다시 한 번 알아라.

2. 내 말씀은 너희 가운데 치유의 향유가 되며, 너희는 이 향유를 갈망하며 내게로 나아온다. 너희의 온 존재가 강해지며, 너희 영혼은 내 임재로 인해 위로를 받는다. 너희는 괴로움과 투쟁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발을 딛는 곳마다 상처를 주는 가시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통이 너희 온 존재를 꿰뚫을 때, 너희는 시련 앞에서 그분께 순종과 복종을 보이기 위해 스승을 갈망하며 마음을 그분께 향한다.

3. 이미 제2의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던 큰 위로를 약속했었다. 이 큰 위로는 이 세상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가 사라진 시기에 올 것이라고 했었다. 보라, 약속된 그 위로가 지금 너희 곁에 있다! 여기 너희를 감싸고 있는 내 신성한 영의 온기가 있다 –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듣는 이들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의 내 피조물들에게도 말이다!

나는 이 시기에 내 진심과 위로, 그리고 힘을 너희에게 느끼게 하리라 – 너희는 나의 사도 무리를 이루며, 제3의 시대에 나와 함께 있었고, 이 계시들을 통해 나를 들었던 자들이니라.

4. 내가 너희에게 보낸 시련 앞에서 보여준 너희의 용기와 순종, 그리고 영적 고양을 위해 축복을 받으라. 고통이 너희를 정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를 내 오른편으로 이끌어야 할 것은 고통만이 아니며, 너희 영혼에 완전함을 부여해야 할 것은 고난만이 아니다. 고통은 비록 영적·육체적 더러움을 씻어내고, 때로는 장애물이 되며, 자제력을 주는 고삐가 되며, 자기 성찰과 회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상승과 영혼의 완성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이 너희를 정화하도록 내버려 두라. 결코 고통을 자초하지 말고, 그것이 너희에게 다가와야 할 때면 오게 내버려 두라. 고통을 찾지 말고, 평화를 찾으라. 안녕과 기쁨을 찾으라. 너희 자신과 타인을 위해 그것을 찾고, 모든 이를 위해 그것을 기원하라. 나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5. 나는 희망의 하나님이며, 내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된 희망을 실현하시는 분이다. 고통이 너희를 꿰뚫을 때, 그 고통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되, 완전함과 영적 성장을 향한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강하고 순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웃의 고통을 생각하고, 타인에게 연민을 품으며, 동료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 영혼은 공덕을 쌓게 될 것이며,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육신의 자기애를 이겨내며, 신성한 스승의 훌륭한 제자로서 위쪽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6. 너희 중 누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겠느냐? 너희 중 누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과 미덕, 기쁨이 가득한 왕국을 갈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마음이 고통에 대해 진정한 순종에 이르렀고, 시련 속에서도 큰 수용을 보였음을 보았으니, 이를 위해 너희에게 축복을 내린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는 너희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너희 안에서 북돋아 주고자 한다. 절망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이나 너희 가족의 마음속에서, 예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과 길을 밝게 비추었던 그 평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를 위해 나는 지금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의 의로운 활동과 기도, 그리고 나로부터 배운 지혜로운 조언, 영적인 행위—사랑의 행위—를 통해 들판과 길을 정화하고 준비하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는 이 세상을 준비시키고, 아버지의 왕국이 다시금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곳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7. 이 세상이 영원히 눈물의 골짜기로 남는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고 갱신함으로써 여러 나라와 인종, 민족을 새롭게 하고, 이러한 갱신을 통해 눈물의 골짜기가 사랑과 평화의 골짜기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미 지난 시대에 사람들에게 천국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말씀과 내 현현을 통해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8. 그러니 오, 제자들아, 너희 영의 능력이 틈을 내고, 길을 열고, 그 길을 준비하여, 너희가 사람들의 길 위에서 내 오심을 앞당기는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일을 새롭게 하리라!

나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허락하고 지구라는 행성을 맡겨 주었다. 나는 그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자연계와 물질, 그리고 존재들에 대한 권능과 통치권을 주었다.

인류가 태어난 이래, 영적 영혼이 탄생한 이래로 나는 사랑과 정의의 법칙으로서 나를 드러냈으며, 계명과 삶의 규칙, 비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나타내어 왔다. 나는 인간의 영혼이 굽은 길로 헤매지 않도록, 인간이 언제나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창조하신 위대한 생명의 책에서 배우도록, 삶과 자연을 참되고 완전한 교과서로 삼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나에게로 돌려야 할 때가 왔으며, 나는 너희, 즉 '마지막 사람들',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이 진리의 사도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예언자들, 나의 세 번째 오심의 증인들로 삼으려 한다.

9. 나의 가르침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며, 인류에게 보내는 이 각성의 부르심을 통해 나는 정의를 세우고,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상기시킬 것이다. 나는 그들을 통해 파괴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천대받던 모든 것을 존엄하게 만들며,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의 기초를 놓을 것이다. 나는 모든 쓸모없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사람들의 삶에서 해로운 모든 것을 없애며, 모든 기만과 모든 악덕, 오만, 이기심, 위선을 물리칠 것이며, 인류에게 다시 한번 변함없는 법, 모든 시대의 법, 영원한 법을 보여 줄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를 다시 상기시켜 주노라.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 왕국의 가까움과 우주 아버지의 현존을 진정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10. 너희 내면과 외부에서 나의 현존은 깊은 경의와 영적 고양, 참된 사랑과 숭배로 느껴지고 인식될 것이다. 족장들의 행복한 날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가족들이 수년 동안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았고 오직 죽음만이 그들을 갈라놓았던 그 날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관대하고 의로운 통치자들이 지상의 민족들을 다스리던 시대 또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시대들은 인류에게 빛과 큰 진보를 가져다줄 것이니, 이는 내가 인류가 삶의 여정에서 겪은 위대한 투쟁과 몰락, 오류와 성공을 통해 얻은 경험과 빛, 고양감, 그리고 선과 악,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기초이자 경험으로 남겨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밭이 준비되면, 위대한 씨 뿌리는 자들,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족장들, 선한 통치자들, 그리고 의로운 재판관들이 올 것이다.

11. 이 영혼들이 한때 큰 빛을 발하며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면, 그 힘과 선함, 그리고 에너지에 놀란 인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이들은 누구인가? 혹시 지구로 돌아온 다윗인가? 혹시 솔로몬인가? 엘리야인가? 초창기의 예언자들이 돌아온

것인가? 제2시대의 스승의 사도들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자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가 저 세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간직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제3시대에 너희에게 찾아왔던 이들이 누구였는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12.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셔서 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겠지요. "우리는 이 시대를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이 행복한 시대를 함께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스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언하는 그 사건들은 먼 미래의 일이며, 너희 현재 생애의 수명을 넘어선 것이지만, 나는 행복과 평화, 그리고 안녕이 너희 마음속, 너희의 현재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리니, 이는 영성이 인간들 사이에서 온전히 꽃피는 시대에 이 인류가 누리게 될 행복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세상에 머물며, 너희의 인내와 불굴의 의지, 그리고 고통 속에서의 순종의 결실을 거두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 중 누구를 보내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이는 여러분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즉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순간에도 아버지를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그 행복과 영혼의 평안이라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너희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마음을 돌려야 한다. 바로 그때 너희는 고통받는 이를 기억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너희에게, 깊은 영혼의 평안과 풍요 속에서도 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으며, 고통이 정화할 때 사랑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13. 제자들아, 나는 지금 너희를 다가올 그 새로운 시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

천국이 내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람은 먼저 나의 공의를 경험해야 하며, 이 세상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내 왕국은 온전히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내 왕국은 나의 보편적 광선이 오면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이 제3의 시대에 그 광선은 너희 가운데서 말씀과 생명, 인간의 목소리가 되었다.

14. 모든 시대에 성령의 선구자로서 엘리야는 길을 닦고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는 흩어진 양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종을 울리며 왔으니,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우리에 모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아버지의

나라, 곧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15. 이 시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중, 마음속에 적어도 조금이라도 평안을 느끼지 못한 이가 누가 있겠는가? 누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 한 방울의 치유제나 약간의 위로를 얻지 못했겠는가? 어둠의 길로 헤매던 자 중, 내 말씀 속에서 빛 한 줄기가 비치는 것을 보지 못한 자가 누구겠는가? 삶에 지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던 자 중, 내 사역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정당성을 발견하지 못한 자가 누구겠는가?

16.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신 왕국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 왕국은 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신하 없는 왕은 왕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분은 온 왕국을 이끌고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분의 신하들은 아버지의 참된 자녀이자 너희의 진정한 형제자매로서 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약속했던 왕국이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둔 위로이다. 너희의 준비가 진전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며 나의 왕국은 너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17. 엘리야는 마치 불타는 수레를 타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온 우주를 횡단하며 사랑의 흔적을 남깁니다. 바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의 불이며, 비추고 밝게 하며, 포용하고, 영혼과 마음속이 차가운 이들을 따뜻하게 하는 빛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온 우주를 횡단했다면 – 그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사이를 횡단하는 것을 소홀히 했을까요?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빛은 모든 이에게 함께 했으며, 그의 준비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는 길을 닦는 자이므로, 지나갈 때 영혼들을 깨웁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목자 엘리아의 새로운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칠 줄 모르는 그분은 잠든 자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을 깨울 때까지 계속 흔들어 깨울 것이다. 그러나 깨어나고 있는 이들은 눈을 뜨고,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직관적으로 감지한다. 그들은 아버지의 임재와 그 시기의 중요성을 감지하며, 그들의 영혼은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고독 속에서 그분을 부르기 위해, 그분을 호출하기 위해, 그분을 자신의 심장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해 나아간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어떤 이들은 스승이라 부르며, 나머지 이들은 심판자로도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이가 이미 깨어난 자들처럼

깨어날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간구와 경배, 기도를 드릴 때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며, 그들을 준비시킨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완전하지도 않고, 영과 영 사이의 교감을 확신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의심한다.

18. 영적으로 나의 신성한 영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이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이들은 누구인가? 바로 너희, 곧 선구자, 사도, 예언자가 될 너희들이다. 너희는 확실한 말씀과 정확하고 명료한 가르침, 그리고 내가 인류 가운데 계셨으며, 앞으로도 모든 내 자녀들의 영혼 안에 현존하시고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솔직한 증언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그들에게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완전한 방법도 알려 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참된 영적 경배를 가르칠 것이며, 영적 삶과 세속적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지, 그리고 사랑과 정의, 도덕을 그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

19. 만일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이 큰 은사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느낀다면, 그들에게 더 높은 인간은 없다는 것을 알려 주라. 더 발전된 영혼은 있을지 몰라도, 더 높은 존재는 없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의인들의 안식처, 곧 내 곁 아주 가까운 곳에 위대한 영혼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 각자에게 보여주는 목표이다.

나는 세상의 끝이 와서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너희 발걸음이 닿을 길이 끝나며, 너희가 천상의 평화가 깃든 이 오아시스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 너희 모두가 내 식탁 앞에서 평등하기를 원한다. 내 집, 내 왕국의 무한하고 완전한 평화 안에서 평등하게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를 경탄하고, 아첨하며, 시기할 때, 모든 이가 똑같이 은총을 받았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라.

오늘 나는 너희에게, 의지만 있다면 모든 남자와 여자가 치유하고 빛을 전하는 은사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계시한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모든 남자와 여자가 예지력이나 영적 통찰력을 통해 내세와 미래를 볼 수 있음을 설명한다.

20.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과 선한 뜻을 가진 모든 남자와 여자는 치유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저 세상 의 목소리를 전하는 능력, 조언하고 군중을 이끄는 은사를 갖게 될 자들을 지명했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 각자에게 내 사역의 작은 부분을 맡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영혼과 육체는 내 사랑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창조되었다. 너희는 단

하나의 영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단 하나의 '육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역에서 단지 한 부분만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다만 그 부분은 너희가 정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 가르침을 통해 그들을 준비시켜, 그들이 자신의 양심과 나의 자비를 통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은사와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 이 제3의 시대에 표식을 받은 자들은 백사십사만 명이다. 그것은 영혼들의 군단이며, 나의 자비가 모든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 표식을 찍고 선택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과 타인에 대한 책임, 그리고 속죄의 기회를 주어 지도자, 사도, 본보기로 준비시키기 위해 뽑아낸 무리이다.

그 첫 번째 시대에 야곱의 열두 지파는 수가 많았으며, 14만 명을 훨씬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시대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수많은 백성 중에서 오직 언급된 수만큼만을 선택하자는 것이 나의 뜻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인류를 깨우고, 성령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었다 – 너희를 아버지께 더 가까이 이끄는 그 무한한 길, 인간의 영혼을 더 높은 세계와 더 낮은 세계와 연결해 주는 그 길 – 모든 영혼을 서로 더 가깝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며, "인침"이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그들을 진정한 형제자매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길이다.

22. 많은 이들이 표식을 받았으나, 다른 이들은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뜻밖의 계시를 받게 될 것이며, 내 신성한 영을 통해서든 너희를 매개로 하든, 그들이 14만 4천 명에 속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표징, 그 수가 완성된 표징은 너희 행성에 큰 충격을 일으킬 것이며, 이 충격, 이 사건은 머지않아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고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너희는 영적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23. "이 순간 온 땅이 화를 입을지어다"라고 아버지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자연의 힘과 인간의 의지를 초월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대다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와 회개로 나아갈 것입니다.

24. 하느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언자 요한이 예고한 바와 같이, 여섯 번째 인장이 절정에 달할 때 주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인침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는 예언자가 기록하고 말한 바를 성취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확실히 믿으라. 너희 중 누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누가 내가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을 무감각하게 지나치게 내버려 두느냐?

25. 나는 내 계시를 제한하고 단순화하여, 모든 내 자녀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외적인 행적에서 나의 위엄이나 영광을 찾지 말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육신의 외형만을 통해 모든 것을 찾지 마라. 그들이 조금이라도 영적인 변화나 형상의 변화를 얻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씀의 진리 속에서 나를 찾으라. 거기서 너희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26. 이와 같이 나는 너희 가운데서 나의 보편적인 광선을 드러낸다. 그것은 너희 영혼을 위한 치유제, 가르침, 예언, 그리고 활력이 된다. 그러나 내 광선의 빛은 인류가 거행하는 모든 신앙 고백과 모든 영적·종교적 의식에 내려옵니다. 바로 이 순간, 나는 모든 마음속에 현존하며, 사람들의 눈물을 모으고, 고아들에게 내 사랑의 보호를 베풀며, 아이들을 다정함으로 어루만지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북돋우며, 지친 노인들을 힘내게 하고, 외롭고 버림받은 이들을 곁에서 지켜주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법을 아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 탄식과 근심까지도 직접 들어준다. 비록 고통 속에서 신을 모독하는 자의 모욕을 듣게 되더라도, 나는 그의 무지를 용서해 주리라.

나는 모든 이와 함께 있다. 나는 권력 있는 자를 멀리하지도 않고, 그를 낮추지도 않는다. 나는 부자나 탐욕스러운 자를 내쫓지 않으며, 이기적인 자에게서 등을 돌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 나는 그들을 유산을 챙겨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로 여긴다. 그들은 부유함 속에서 나를 잊어버렸다 – ‘’를 잊어버린 것이다.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언젠가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27. 오늘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 영을 찾지 않으며,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있다. 내 왕국의 문은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열려 있으며, 내 마음은 ‘가난한 자’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는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물질적 부를 누리고, 다른 이들은

비참 속에 있지만, 나는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 참된 가치와 참된 영원한 선물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 항상 내 은사와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이와 함께 있으니, 오 나의 백성아,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나는 너희의 영혼이 저 세상으로 승천했을 때에도 모든 형제자매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기도와 사랑 속에서 너희 영혼이 도달한 그 경지에서, 너희가 종교 공동체나 종파, 계급, 인종에 따라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 모두를 같은 사랑으로 바라보고, 같은 형제애와 자비로 대하기를 원한다. 타인의 예배나 숭배 형식을 비방하지 말고, 더더욱 이웃의 광신주의나 우상 숭배를 조롱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가르친 대로 내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28. 나는 태초부터 영적 영혼에게 영적 자유를 허락해 왔다. 최초의 영적 존재들이 내 마음에서 솟아난 그 순간부터, 나는 그들을 영적 자유의 길로 인도하였으며, 또한 인간에게도 그 기원에서부터 사상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 그렇다면 영혼들을 위해 쇠사슬을 만드는 자들은 누구인가? 사람과 영혼을 사로잡고 위협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둠에 압도당하여 인간의 영혼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악한 성직자들과 인류의 악한 영적 지도자들이다. 나는 모든 시대에 걸쳐 나의 사랑의 법을 제시해 왔을 뿐, 결코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나는 어떤 영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나, 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코 벌한 적이 없다. 나는 그저 그들을 시험하고, 제지하며, 훈계하고, 감동을 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한 수단을 마련해 줄 뿐이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벌하지 않으며, 하물며 복수할 리가 없다.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 안에는 복수가 설 자리가 없다.

29. 그러니, 나의 백성들아, 모든 사람이 너희처럼 생각하고 믿기를 요구하지 말라. 너희는 결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며,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나, 너희의 제안이나 가르침,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 심판을 내리거나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모든 이웃을 똑같이 깊은 존중과 진정한 영적 이웃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각자가 자신의 종교적 실천과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길을 통해 자신의 영적 능력에 따라 마땅히 누려야 할 위치에 도달했음을 알게 될 것이며, 너희가 사람들을 보는 그 지점은 바로 그들 자신의 발전이 이끈 곳임을 알게 될 것이다.

30. 너희는 영성주의,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를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된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시나이 산에서 아버지께서 주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것이었으며,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의 것이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모든 법과 계명, 유언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31.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전하고, 사랑으로 제시하라.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 너희의 씨앗이 땅의 씨앗이 싹트듯이, 겸손과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싹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씨앗이 올바르게 뿌려지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너희의 영혼도 피어오르며 끝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32. 나는 너희가 곧 진정한 씨 뿌리는 자들이자, 이웃들에게 나의 자비의 씨앗을 전하는 훌륭한 사도들이 되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나는 지금, 내 말씀이 끝난 후의 시기를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래야 그때 너희 사이에 혼란이 생기지 않고, 울음이 없으며, 너희 영혼에 불확실성이나 방향 상실이 스며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3. 나는 너희에게 모든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깨어날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준비하는 모든 이들은
책임자로서 남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내 말씀을 듣지 못해 절망에 빠질 다른 교회들을 시련의 때에 도와줄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식사해 온 식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면,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에서 흔들리게 될 것이다.

34. 너희는 참으로 기둥처럼 굳건한 조언자가 되어, 이스라엘 집들의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는 너희가 위로하는 목소리처럼, 찬양의 노래처럼 되기를 원한다. 마치 너희가 약속의 땅을 갈망하며 광야를 건너던 그 초창기 때처럼 말이다. 그때 여인들은 남성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험난한 여정 속 아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거문고를 연주했었다 – 전사들은 전투로 지쳐 있었고, 발바닥은 험한 길로 인해 굳은살이 박혀 있었을 때 말이다. 그때 이스라엘 여인들의 찬양이 공간에 울려 퍼져, 남자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여정을 더 수월하게 만들었다.

35. 그러니 여러분도 그 침묵과 경건, 명상의 순간들, 즉 울음과 절망, 그리고 아버지의 광채가 다시금 목소리의 주인들에게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 순간들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의

말을 찬송가처럼, 위로로 가득 찬 목소리처럼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스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분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용기 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시대가 될 것이며, 그 시절에 그들의 충실한 증언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마치 전령처럼 울려 퍼질 것이며, 다가올 사건들을 통해 아버지께서와 그분의 왕국이 내가 계시를 전하던 이 시기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심을 증언할 것입니다.

36. 내가 이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머무는 시간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으며, 나는 지금부터 1950년의 마지막 날들에 베풀어 줄 몇 가지 은총의 선물들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37. 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아, 너희 중에서 나의 광선을 마지막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자가 너희 중 가장 행복하고 나의 은총으로 가장 충만해질 것이라고 지금부터 생각하지 말라 –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나는 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할 때마다 너희 중 한 사람을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이며, 너희 각자의 이성적 능력에 내려올 것이다. 나의 온전한 은총으로, 내가 너희 각자를 통해 나를 드러냈던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억을 너희 영혼과 마음에 깊이 새겨 놓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입맞춤과 같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결코 지울 수 없는 감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섬겨 온 자들이며, 이 시대에 내가 세상에 말씀하신 도구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애정과 축복을 베풀 것이며, 너희 삶의 전 과정을 함께할 것이며, 너희가 영원히 나의 오른편에 서게 될 그 날이나 그 순간까지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38. 나의 영적 세계를 향한 열린 문이 되어 준 너희 은사 받은 자들에게도, 나는 나의 은총과 그 축복받은 존재들의 은총이 영원히 너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리라.

나의 영적 세계 또한 그 보호받는 자들과 수호받는 자들을 통해 마지막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이며, 마지막 메시지로 사랑에 대한 조언, 진심과 빛으로 가득 찬 조언을 남기고, 이 보호 영들 각자가 앞으로도 을 통해 지상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발걸음을 지켜볼 것이며, 아버지도 영적 세계도 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증언과 확증을 남길 것이다.

39. 교회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맡았던 이들과, 나의 가르침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함으로써 이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계속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영혼과 육신 위에 스승의 은총과 격려를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작별 이후에도 그들의

목소리는 강력해야 하며, 생명이 넘치는 목소리, 내용과 힘이 가득한 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은사는 마지막 "순간들"에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그들 각자는 빛의 횃불로 변한 영혼이 되어야 하며, 이 모든 횃불들은 백성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들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들은 내적 성찰의 시기 동안과 그 이후의 투쟁의 시기에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백성의 수호자가 되어, 노예 상태의 함정과 덫, 유혹적인 매복 등 모든 장애물을 찾아내어 백성을 해방시키고, 신자들을 계속해서 모임의 장소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 축복받은 영적 연합의 장, 이상과 결의의 연합, 순종과 내가 맡긴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의 연합으로.

40. 나는 선지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영광으로 가득 찬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니, 이는 장차 너희가 펼쳐 보이고 받게 될 계시들의 서막이라. 왜냐하면 이 예언자들은 아직 그들이 도달해야 할 경지에 이르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은 아직 보아야 할 모든 것을 보지 못했고, 그들의 입술은 아직 예언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에 이끌려 그들이 이룰 정화는 그토록 강력하여, 결코 거짓이나 어둠이 그들의 영혼이나 입술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참된 영감을 거짓되고 유혹적인 영감과 구별해 낼 줄 알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자비로, 그분이 인류에게 전할 메시지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 것이다.

41. 이 시대에 지칠 줄 모르고 일해 온 나의 "황금 깃펜들"은 앞으로도 예언자들의 증언을 함께 기록하고, 자신들의 영감을 계속해서 적어 내려갈 것이며, 또한 백성들 가운데 스승으로 나타날 영감을 받은 자들의 말씀도 기록할 것이다.

42. 나는 나의 "기둥들"도 잊지 않을 것이다. 바로 백성들이 내면의 침착, 경외심 , 그리고 영적 고양의 길로 나아가게 한 그 마음들이다. 이쪽도 저쪽도 모두 장군의 지휘 아래 있는 대장과 같았다. 그들은 마치 광야의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았으며, 유다 지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지파에서 마카베오 가문의 위대한 군대 지휘관들과 무적의 전사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성벽에 틈을 내고 성벽을 무너뜨리며 온 민족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아야 했던 주님의 백성이 그들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께서는 오, "기둥들"이여,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유를 드십니다!

43. 그리고 제자들과 추종자들로 이루어진 백성 또한 마지막 순간에 큰 기쁨을 누리고 스승의 위대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오,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위대한 은총 중에는, 1950년 말에 너희가 영적 세계, 수호천사들, 조언자들, 치유하는 존재들, 그리고 지상에서 너희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구, 친척이었던 그 영혼들과 마지막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이라는 것이 있다. 나는 너희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물질화하여, 인간적인 모습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그 교감을 통해 애정 어린 어루만짐과 영혼의 포옹, 빛으로 가득 찬 조언,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집에서 하나가 될 때까지 너희의 길을 계속 가라"고 말하는 희망의 목소리를 받게 할 것이다.

44. 그러므로 나는 이미 지금부터 사랑과 다정함으로 너희를 준비시키고, 너희의 취향을 다듬으며,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순간들이 너희에게 서로 가까워지고, 화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노라; 너희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교활한 속임수와 악의적인 시선, 양날의 칼들이 칼집에 꽂히고,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사랑과 형제자매 간의 용서를 통해 지워지도록; 그 순간 너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 눈물이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되고, 단순히 눈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상으로 너희 영혼의 고귀한 감정의 샘에서 솟아나기를; 너희의 육신의 팔이 서로 얽힐 때, 그것은 육신의 팔 그 이상으로 너희 영혼의 유대가 되어야 한다 – 내가 지구상의 모든 영혼을 서로 연결해 놓은 사랑의 유대이며, 너희 모두는 그 순간 내 법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

그때 내 말씀이 끝나고, 스승의 목소리가 광활한 공간에서 멀리 메아리처럼만 울려 퍼질 때, 그 사랑과 그 긴밀한 포옹이 바로 너희가 여정 속에서 서로에게 베푸는 온기이자 위로이자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이 사랑과 서로에 대한 자비를 통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청하는 그 성소 를 보게 될 것이다 – 내가 거하고자 하는 그 성전,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 성전 – 내 뜻에 따라 세상이 그 성전에 들어와 나를 느끼고, 보고, 숭배하며, 성령께서 너희의 이성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하시는 메시지인 영성주의를 통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

45. 너희는 이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노인들에게도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경계를 보지 말고 "아버지, 제 민족 위에 당신의 은총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말라. "주님,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제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축복해 주시고, 당신을 상처 입힌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십시오."

더 이상 국적을 구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더 이상 국적을 언급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높이 들어올리고, 천사들—항상 모든 이를 위해 나서고 간구하는 그들과 하나가 되었을 때, 너희 영혼의 평화를 모든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하라. 그러면 인종들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갈라놓았던 언어들은, 그 언어를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점차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계급과 씨족은 사라지고, 겸손과 이해로 대체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은 – 시련에 굴복하여 – 자신들이 천한 자로 여겼던 이들에게로 내려올 것이며, 아래에 있던 자들은 위로 올라가 위에 있던 자들의 높이에 도달할 것이다. 이는 속죄의 때이며, 이 속죄 속에 나의 신성한 정의가 담겨 있으니, 그 정의는 완전하다.

현재의 모든 영혼 안에는 너희의 행실을 저울질하는 나의 저울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완전함으로 심판하고 인도하는 법을 아는 자이며, 오직 나만이 모든 생명과 모든 운명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46. 너희는 깨어 기도하여, 내 신성한 영의 평화가 온 세상에 내려오게 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31

1.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주어진 이 계시에 의문을 품는 자는, 마치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부정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며, 마치 자신의 영을 부인하고, 무수한 시련과 고통, 투쟁을 통해 도달한 영적·이성적 수준을 자각하기를 원치 않는 것과 같다.

2. 내가 너희의 이성이나 영을 통해 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고 하등한 피조물들의 위치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3.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는가? 인간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자녀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왜 믿지 않는가?

4. 나는 지성이므로 너희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시며, 나는 영이므로 너희의 영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의 계시를 부정하는 자들이, 나를 영으로 여기거나 인식하려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들은 마음속에 많은 그릇된 관념을 키워 왔는데, 예를 들어 나를 인간 형상을 띤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상징과 형상을 통해 나를 상징화해야만 나와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5. 수세기에 걸쳐, 이러한 방식으로 나를 찾던 사람들은 기도하고 의식을 거행하는 그들의 그림과 조각상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졌으며,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거나, 듣거나, 느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인간에게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높다고 말함으로써, 나에게 경외심 어린 경의를 표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위대하여 인간과 같은 하찮은 피조물과 어울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내 영이 너희에게 계시해 준 가장 아름다운 것, 즉 겸손을 부정하는 무지한 자이기 때문이다.

6.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면, 너희 주님께서 너희에게 다가오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사건, 즉 신성한 사랑의 증거 위에 너희의 기독교 신앙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인가? 영혼이 어두워지고 이성이 약해진 죄 많고 육신적인 사람들의 이해력에, 내가 나의 신성한 음성을 인간의 말로 변모시켜 그들에게 들려준 그 방식 보다 더 실감 나고 인간적인 접근이 또 어디 있겠느냐?

7.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겸손, 그리고 연민의 가장 큰 증거였으며, 나는 이를 피로 인치어, 너희가 누구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가 없음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진흙과 어둠, 그리고 악덕 속에 가장 깊이 빠져 있던

자들을 위해 내 말씀을 사람으로 오게 하고, 내 피의 생명수를 흘렸기 때문이다.

8.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이, 왜 지금 내 현존과 계시를 부정하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인간은 너무나 천하고, 너무나 하찮으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려 하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나의 계시를 부인하는 자는 그 '두 번째 시대'에 세상에 계신 나의 현존도 부인하며, 나의 사랑과 나의 겸손도 부인하는 것이다.

9. 죄인인 너희가 죄로 인해 나로부터 멀게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실수를 저지를수록, 너희 영혼을 더럽힐수록,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 빛을 주고, 손을 내밀어 너희를 치유하고 구원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낀다.

10. 내가 내 자녀들에게 다시 나타나면 많은 이들이 나를 부인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미 그 당시 내 재림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의 내 현현은 영적인 형태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만일 너희가 이를 의심한다면, 복음서에 내 말씀을 기록한 그 네 제자의 증언을 통해 확신하라.

11. 내가 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 내 피를 다시 흘리게 해야 했겠느냐? 그것은 마치 내가 그 당시의 나의 사역과 희생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으며, 인류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영적으로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12. 나는 너희가 이 시대에 물질주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본질의 핵심에는 성숙한 영혼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바로 그 이유로 나의 계시는 이제 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13. 나는 지금 영으로 이곳에 있으며, 빛나는 "구름" 위에서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대변자들을 통해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너희 모두가 도달하게 될 그 계시, 즉 영과 영의 대화에 대한 예비적인 가르침이다.

14. 나는 내 말씀이 중단된 후, 너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그것을 철저히 연구하고 이해한 뒤, 에서 기쁜 소식의 전령으로서 나가서 내 계시를 동료 인간들과 나누게 하려고, 내 대변자들의 입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하였다.

15. 이 메시지 외에도, 나는 사람들에게 직접 빛을 보내어 그 빛이 그들의 존재의 핵심까지 닿게 하였고, 점차 그들의 마음과 이성을 밝혀 주었다.

16. 내 메시지가 너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질 때, 너희는 밭이 진정으로 준비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17. 그렇다, 제자들아,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 자신의 영적 미래를 생각하고, 신성한 계시로 알려진 것들을 탐구하며, 또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직접 깨닫는 때이다. 이처럼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고요함 속에서 묵상하며 수많은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

18. 그리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빛이 밝혀졌고, 그들은 종교적 광신을 점점 더 버리게 되었으며, 우상 숭배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다.

19.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점점 더 영성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알 수 없는 용기와 믿음, 그리고 더 높은 힘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편견을 극복하도록 도왔으며, 그들의 의지가 강해질수록 그들의 사고는 더욱 확고하고, 명확하며, 정밀해졌다.

20. 진리의 빛이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닿는 모습을 보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빛의 진전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21. 내가 과거의 계시를 통해 너희에게 알려 준 본질과 진리는, 내 말씀이 기록된 잊혀진 책들 속에서 사라질 수 없었으며, 사람들이 이를 변경했다는 사실로 인해 그 의미가 소멸될 수도 없었다. 진리는 모든 인간의 비천함을 초월하며, 매 순간 드러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발전의 길에서 새롭고 단호하며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빛은 더욱 선명하게 인식됩니다.

22. 과거 시대에 영적 삶의 비밀을 드러내 주었던 상징, 비유, 그리고 표상은 오늘날 이해될 것이며, 오랜 영적 경험의 빛이 너희 모두에게 법, 가르침, 예언, 계시, 그리고 약속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3. 나의 메시지는 내가 사랑의 신성한 씨앗을 심어 둔 너희 영혼 위에, 생명을 주는 비처럼 쏟아진다. 오늘은 너희가 세상의 수고에서 휴식을 취하는 날이며, 너희 영혼이 평온 속에서 기도하고 명상할 기회를 갖게 되는 날로, 이를 통해 너희 영혼에게 영생의 양식인 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 날이다.

24. 사랑하는 백성아, 나의 사역은 너희 영혼이 더 높은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침으로써, 너희 영혼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25. 나는 너희를 나의 제자로 삼아, 너희가 나를 내 영의 자녀로서 느끼게 하려 한다. 너희가 내 본질의 일부이며, 나 자신과 하나인데, 어찌 내 존재를 너희 안에서 느끼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영성과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아무리 많은 징후와 감성적 인상을 받아도 그것을 물질적인 원인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임재를 감지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26.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일부인 이상, 너희 존재 안에서 나를 느끼는 것이 어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 점을 고려할 때, 너희의 영이 마침내 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모든 사람 안에 있어야 할 진정한 위대함을 드러내 보이노라. 너희는 길을 잃었고, 이 땅에서 위대해지려는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더 작아져 버렸기 때문이다!

27. 너희는 물질적 가치에 그것이 지닌 것보다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해 왔으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자 하지 않으며, 세상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너무나 커져서, 심지어 영적인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부인하려고 애쓰고 있다. 너희는 그러한 지식이 지상에서의 너희 진보와 상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은 도덕적 측면이든 과학적 측면이든 인간의 진보를 저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빛은 현재 과학으로는 아직 알지 못하는 무한한 지식의 풍요로움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준다.

29. 인간이 영성화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을 거부하는 한, 그는 이곳,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행복을 안겨줄 진정한 영광에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즉, 그의 사랑과 고양, 그리고 지식으로 인해 내 영의 합당한 자녀가 되는 것이다.

30. 오,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느끼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순종하고 겸손하며,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청하지 말라. 오직 내 뜻에 따라 내가 너희에게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하라.

31. 나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이 계시를 주심으로써 내 임재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건대, 너희가 이 계시를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자비 때문이었으며, 그 자비가 너희에게 내 임재를 느끼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다가간 것이다.

32. 나는 너희가 나의 메시지를 매우 필요로 할 것임을, 너희 영혼 속에 나의 빛을 향한 굶주림과 갈증이 이미 매우 컸음을, 너희가 나의 부르심에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땅 위의 고통이 너희를 정화시켰고, 너희는 감수성이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형태로 너희 곁에 임하여, 이 메시지가 단지 너희가 영과 영으로 나를 찾아야 할 시기를 위한 준비일 뿐임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했다. 그때에는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리도록 이끄는 것이 나의 자비가 아니라, 너희 영혼의 고양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더 이상 천민도, 눈먼 자도, 영적인 것에 무감각한 자도 아닐 것이며, 영과 영의 대화가 너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깨닫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은총을 얻기 위해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33. 그때 너희는 이미 내 영이 너희를 통해 드러나고,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실 속에서 내 임재를 실감하게 하는 데 필요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34. 오늘 너희는 오랫동안 방황해 온 순례자와 같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나의 우렁찬 종소리가 너희를 불러 모았다. 너희 중 일부는 은혜의 근원으로 서둘러 왔으며, 나는 나의 “일꾼들”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고, 이 백성이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 너희는 단단한 바위와 같았으나, 내 말씀의 끌이 너희 마음을 깎아 성소로 바꾸어 놓았다.

35. 너희가 더 많은 빛을 얻고, 너희 마음속에 내 말씀이 꽃피게 하려고, 나는 생명책의 또 다른 한 페이지를 너희에게 알려 주노라. 나는 스스로를 궁핍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위해 영적 자비의 보물을 가져오노라.

36. 너희는 이 지상의 낙원을 눈물의 골짜기로 바꿔 놓았다. 나는 너희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너희 아버지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으로 활력을 얻고, 그 달콤한 열매를 누리며,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아버지와의 영적 조화를 이루도록, 이곳을 에덴 동산으로 너희에게 맡겼다.

37.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여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를 찬양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나는 내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생명의 정수와 빛을 가져다주었으며, 너희가 내가 닦아 놓은 길 위에서 굳건히 서도록 어둠에서 너희를 이끌어 냈다.

38. 너희는 나중에는 꽃을 피워야 할 씨앗을 돌보도록 내가 맡긴 나의 일꾼들이다. 나는 너희에게 잎사귀가 무성한 거대한 나무를 맡겨, 여행자가 그 그늘에서 쉴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잠든 사이에 유혹에 휘말려 버렸기에, 폭풍이 그 나무의 잎사귀를 앗아갔다. 폭풍이 그 나무에서 뜯어낸 잎사귀들은 나의 자비가 거두어들이며, 나는 그것들로 다시 그 가지들의 잎사귀를 만들어 낸다.

39. 나는 너희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주었으니, 너희는 내 신성한 사랑의 끝없는 달콤함을 누렸다. 내 일꾼들 중 일부는 주인 행세를 하며, 내가 그들에게 맡긴 나무를 저버렸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그 나무를 가꿀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의 그늘 아래로 와서 쉬고 그 열매로 양분을 얻으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40. 모든 시대와 모든 시련 속에서 굳건히 버텨 왔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한 이들에게 복이 있도다. 나는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깨우치며, 나의 영적인 망토로 시대의 무자비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리라. 내 백성이 매일 나의 말씀으로 활기를 얻도록, 나는 그들의 입술에서 고통의 잔을 치워 주리라.

41. 많은 이들이 내 아버지의 품을 갈망하며 긴 행렬을 지어 다가올 것이며,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를 갈구할 것이니, 그들은 그 달콤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내 선택받은 자들, 병든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기다린다. 엘리야가 그들을 내게 소개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 위로를 찾지 못한 채 매우 쓰라린 잔을 비워 온 슬픔에 잠긴 마음과 억압받은 영혼들이다. 그러나 시대도 폭풍도 그 나무를 파괴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는 언제나 수액을 품고 있을 것이며, 그 열매는 배가 될 것이다.

42. 나는 나의 종들에게서 어둠과 자기기만을 제거하고, 나의 신성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으며, 그들에게 내 영의 평화를 심어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율법과 나의 사역의 순수함을 보여 주어, 그들이 자신의 진실함과 순결함을 지키게 하였다.

43. 많은 이들이 스스로 재판관 행세를 하며, 내 사역의 진실성을 오해하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드러나는 내 영의 계시를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능자이시며, 길이시며, 빛이시니, 내 뜻이 있을 때마다 인류가 그 위에 의지하여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자비를 지팡이처럼 내밀어 주었다.

44. 나는 너희의 영혼과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이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고통은 너희에게서 떠나고, 너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순간은 양심이 너희에게 책임을 묻고,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았으며 너희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때이기도 하다.

45. 나는 너희가 매일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내 신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 영과 영의 대화를 이룰 준비가 된 자들이 되도록, 영성화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다.

46. 슬픔에 잠긴 몇몇 마음이 나에게 말하길, “아버지,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된 대로 전쟁은 언제 끝날 것입니까?”라고 합니다. 이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평화의 시기는 나의 신성한 손가락이 가리킬 때입니다.

너희가 영성화되면 맑은 거울과 같아질 것이며, 그렇게 준비된 너희를 보는 모든 이는 너희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첫 마디부터 그들은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나의 제자로 인정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너희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47. 너희 영혼의 옷을 잘 지키어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항상 하얗게 유지하여, 너희가 동료 인간들에게 숭배받고 존경받게 하라. 너희의 육신은 덧없으나, 너희의 영혼은 영원에 속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고향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맡겨 준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

48. 너희가 나를 이해하고, 너희 마음이 마치 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열린 책과 같아, 그것을 연구하고 실천하여 겸손과 온유함의 본보기가 될 때, 나의 계시는 너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느냐. 길에서 지치고 피로에 지친 사람을 만나면 그를 일으켜 세우고 힘을 북돋아 주며, 그가 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맡겨 주었기 때문이다. 여행 가방에 담고 있는 것을 나누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형제에게 베푼 선행은 배로 갚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혼은 매일 고갈되지 않는 영적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

49. 밭에서 씨앗을 가꾸는 착한 농부처럼 되라. 그 씨앗은 사람의 수고를 통해 물질적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농기구를 든 사람은 땅을 갈고, 잡초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며, 비가 내려 작물이 꽃을 피우고 인류의 양식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희망합니다.

50. 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너희 가운데서 나를 드러냈다. 나의 사랑은 이 계시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기를 정하셨다. 어떤 이들은 믿지만, 다른 이들은 의심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셔야 하겠는가? 고통이 다시 찾아와 너희의 악한 마음을 정화할 것이며, 번성해 온 잡초는 다시 한번 뿌리째 뽑힐 것이다.

51. 이스라엘아, 네가 내 사역을 책임지는 자임을 깨달아라. 그 나라들에서 노예로 고통받으며 울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느껴라. 그들은 나의 강력한 자비가 그들을 해방시키고 평화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무고한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울고 있으며, 노인들은 조롱을 당하고 처녀들은 유혹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서로에게 자비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생계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

52.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준비시켰으니, 네가 세움을 세우고, 인류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며,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게 하려 함이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32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노라. 너희 영혼은 이 세상의 평화를 간구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온 것이며, 다시 한 번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이다. 너희는 평화의 사자들이며, 이 행성에서 평화가 사라진 이 시대에 이 축복받은 선물을 전하는 자들이다. 인간의 마음이 평화를 거부하고, 오직 불확실성과 증오, 숨 막히는 삶과 불안만이 그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평화의 사자로서, 너희가 이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육신으로 지구의 모든 장소와 길, 지역을 다 갈 수는 없기에, 나는 너희 영혼에게 영적 기도를 통한 고양과 전달을 가르쳐, 너희의 모든 이웃에게 행복과 자비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였노라.

2. 나는 내 가르침에서 너희가 특정 국가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인종, 국적, 사회 계급을 가리지 말고 온 세상과 모든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높은 저세상에 머무는 너희의

고양된 영혼은 그곳에서 오직 아버지의 위대한 우주적 가족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모든 이의 고통과 비참함, 아픔을 직시하고, 그들을 위해 나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더 높은 영적 세계에, 너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너희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영적 세계를 공경하며 부르짖어 영감과 보호를 받듯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오, 제자들아, 이런 방식으로 너희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3.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제2시대에 인종을 가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제3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인 나는 제2시대에 너희에게 만물을 아우르는 사랑을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 때가 왔을 때 – 더 이상 인종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가리지 않고 영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했다.

나는 너희의 영혼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을 포용하기를 원한다 –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기를 –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서로를,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한 알갱이로 사랑하기를 –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랑하며,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맡긴 것을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거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4. 사람은 내 가르침을 항상 올바르게 해석하지는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내 율법이 인정하고 허용하는 선한 열매를 무시하거나 누리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결코 없다. 나는 단지 너희가 불필요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추구하지 말며, 더더욱 그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을 뿐이다. 또한 너희가 영혼과 육체에 유익한 열매처럼 해롭고 허용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영혼이나 마음에 허용되고 그들에게 유익한 모든 것은, 그것이 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고한 것이다.

5. 나는 너희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었다. 바로 너희 영혼이 소환받을 때가 왔을 때 육신을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즉 너희 영혼이 저 세상의 문턱을 넘어야 할 때, 이 땅과의 유대와 연결을 끊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이 일단 육신에서 분리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재물에 대해 눈이 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 스승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때 나는 너희 영혼이 더 큰 깨달음을 얻도록 허락하리니, 그리하여 창조의 업적을 더욱 경탄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며, 영적인 날개로 모든 것을 포용하기 시작하게 하고, 지상에서 그 지성에게 한계였던 지평선을 넘어보게 하리라. 그때 비로소 영혼은 참된 우주적 사랑으로 아버지께와 신성한 창조물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영혼에게 있어 모든 인간적인 지위, 씨족, 또는 사회 계층은 사라진다. 그때 영혼은 더 이상 세상의 가족으로 자신에게 속했던 사람들만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이웃을 영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언제나 가르쳐 온 사랑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이 시기에 나를 거의 듣지 못해, 내 사명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이를 이해할 수 없을까 두려워하며, 따라서 나를 자주 들었고 이 시기에 내 말씀을 자주 받아들인 이들을 부러워하는 제자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이 나를 자주 들었든 적게 들었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한 순간만으로도 너희 영혼이 그 순간에 변화되어 스승이 되고, 사랑과 영감의 무궁무진한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이 나의 말씀을 위로로 삼고, 그것을 믿으라 – 나를 거의 들어보지 못한 너희들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여정에서 이 제3의 시대에 나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영성주의의 위대한 사도들, 위대한 직관적 예언자들, 위대한 영감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성령의 은사 가 인류 가운데서 드러나고 직관을 통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이 영과 영이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적어도 조금이나마 스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 동료 인간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7. 마르코가 비록 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은 아니었지만, 나의 가르침을 전한 위대한 사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사도 같은 아이는 신성한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종이에 기록하고, 인류에게 황금서로서 남길 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세속적인 순수함 속에서 나를 들었지만, 스승의 손이 신성한 메시지를 그의 마음에 새기도록 허락했습니다. 바울이 신성한 스승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음에도 회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비록 그가 내 사도들을 박해했던 자였지만, 그는 나를 사랑했고 내면적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내 가르침의 위대한 전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8. 이 제3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물질적인 글자로 쓰여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진 책을 너희에게 남기리니, 너희가 이 샘에서 마시게 하려 함이라 – 내 가르침을 통해 너희를 기다리는 위대한 싸움을 위한 힘과 영적인 빛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너희 모두는 고통과, 모든 피조물의 길에 존재하는 현명한 시련을 통해 결실을 맺은 인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동일한 수준의 준비와 힘, 그리고 영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9. 나는 큰 시련이 닥쳤을 때, 너희가 놀라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동료 인간들이 놀라게 되기를 원한다. 어떤 왕관이나 왕의 망토도 너희를 위축시키지 않게 하고, 단두대나 위협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게 하며, 비방도 너희를 비겁하게 만들지 않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모욕이 없기를 원한다. 그때 내가 너희를 통해 지혜와 겸손, 정의와 사랑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다면, 세상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특성들을 단지 말씀으로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실 속에 내가 현존하기를 원한다. 과거, 기독교 초창기에는 스승의 피, 제자들과 사도들의 피, 순교자들의 피가 가장 잘 "말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진리와 말씀이 피로 인치어지지 않았다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버지도, 세상도 너희의 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그와 함께 나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 너희의 목숨을 바치라고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증거를 요구할 것이며, 너희는 그들에게 그 증거를 주어야 한다. 그 증거는 사랑과 계시, 영성화로 이루어져야 하니, 너희 이웃들은 바로 그것들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수정처럼 맑은 물을 베풀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면, 세상은 너희를 믿게 될 것이며, 너희를 통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10.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거대한 교회들과 작은 종파들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나, 어느 쪽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진리는 명백하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 분명하고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무한히 깊으며, 이는 너희가 싸워 승리할 강력한 무기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질주의와 불신으로 가득 찬 지상의 *한* 민족이 일어나 너희가 '이스라엘'이라 자칭할 권리를 부정하고, 너희가 메시아의 재림을 경험했다는 증언을 부인하려 할 것이며, 그 민족은 바로 유대 민족이다. 너희는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그 민족은 자신들의 가운데서, 그들에게 정의를 실현시켜 주고 다시금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세울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구세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다. 그 민족은 내가 항상 *그들에게로* 왔음을 알고 있으며, 이 제3의 시대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오셔야 하겠느냐?' – 그러나 보라, *여기* 내 가르침이 있다!

11. 너희 세상의 초창기부터 나는 인류 속에서 이스라엘의 씨앗을 키워내기 시작하였다. 대대로 나는 그들을 다듬고 완성해 나갔으며, 마침내 모든 이들 중에서 선택된 영혼들로 한 가정을 이루어 한 민족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 나는 지혜로 각 영혼과 각 인간을 선택하여 내 백성을 온전히 이루었다.

12. 나의 자비로 그 백성의 각 영혼이 형성되고 강화되며 그 능력이 꽃피워졌으며, 그 시대에 걸맞게 각 육신이 우아하게 준비되자, 나는 그들을 지구의 표면 곳곳으로 퍼지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 백성에게 항상 말씀하셨으며,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족장들을 통해 그들과 소통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나는 그 백성의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그 지파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어 그들을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내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심을 상기시키며 – 그들 사이의 정의를 일깨워 이 백성이 지구상의 다른 민족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 이 민족이 행성의 가장 외진 구석까지 비추는 살아있는 횃불이 되게 하려 했으며, 모든 민족의 축복이자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화의 오아시스가 되게 하려 했습니다.

13. 그 대가로 나는 그에게 영적·육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주었다. 나는 그들을 강하게 하고 단련시키기 위해, 선과 악, 빛과 어둠, 풍요와 굶주림, 자유와 속박을 모두 경험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중대한 과오를 시험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유혹을 받도록 허용했다. 백성을 덮친 거대한 유혹과 격동 속에서 어떤 이들은 넘어졌으나, 다른 이들은 나에게 충실하게 남아 있었다. 넘어진 자들 때문에 다른 이들도 고통을 겪었고, 약한 자들 때문에 강한 자들도 시달렸다. 그러나 한쪽의 약함과 다른 쪽의 충성심과 불굴의 의지는 무엇이었는가?

약한 자들은 세속적인 재물에 대한 무절제한 사랑, 저급한 정욕, 끝없는 권력 추구, 악한 숭배, 위선적인 숭배에 빠졌다. 굳건한 자들은 겸손함 속에서, 소박한 경배와 건전한 관습을 통해 창조주를 인정하고 사랑함으로써 굳건함을 지켰다.

14. 나는 이 백성을 결코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물질에 매몰된 자들, 세상의 부자들, 인간의 영광에 취해 교만해진 자들을 훈계했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배척당하고 박해받으며 종종 살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굳건하고 충실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언자들의 말씀이 타오르는 횃불처럼 남아 있었으며, 모든 예언자를 통해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에게 오실 것을 예고하셨으니,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당신의 왕국을 당신의 모든 자녀의 마음속에 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과 예언들은 백성의 양 진영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15. 이제 주님께서 메시아이자 구세주로서 당신의 백성에게 오셨을 때,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그분을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모든 위로와 치유의 근원이신 아버지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분을 무적의 군인, 즉 주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지배했던 적대 민족들을 멸망시키 도록 백성을 일으켜 세울 전사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손이 이 땅의 거대한 부와 세속적인 재물을 아낌없이 베풀어, 그분의 모든 자녀와 모든 지파에게 선물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자 메시아께서 온유함으로, 인간의 가난함 속에서, 지극한 겸손을 지니고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전하신 신성한 메시지와 그 고귀한 교훈을 영혼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충실하고 인내심 있는 이들만이 그분을 느끼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6. 그러나 땅 위의 부유하고 강력한 하나님, 곧 백성이 겪은 모든 모욕에 대해 전쟁을 벌여 복수해 주실 분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큰 실망과 거부가 따랐다. 그러나 선과 겸손의 그 스승께서는 백성이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셨을 때, 온 백성을 똑같은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유대에서도 그분은 말씀을 전하셨고, 한 지파에나 다른 지파에나 똑같이 그분의 사랑과 치유, 기적, 가르침, 예언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유대인들, 즉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성령의 계시를 마주하고도 떨기만 했던 이들, 높은 저 너머로 이끄는 길을 보려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반면, 그분은 하늘나라의 도래와

영생의 양식, 모든 사람에 대한 진리,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기다리던 이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셨으며, 그 때부터 이 백성은 분열된 채로 길을 걸어갔다.

17.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서) 떠나신 후,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맡겨졌던 그 땅을 백성의 손에서 빼앗으셔야만 했다. 한쪽에게는 속죄의 대가로, 다른 쪽에게는 상으로 그 땅이 빼앗겼으니, 과거의 그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팔레스타인은 내가 영을 위해 준비한 참된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백성에게서 그 소유지가 빼앗기자,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고향 없는 자로서 이 땅에 남게 되었으나; 그러나 다른 한 무리, 즉 항상 나의 임재를 느꼈던 충실한 이들은, 과거의 유산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나의 뜻에 순종하며 머물렀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은총을 맡겨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분의 말씀, 신성한 말씀,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라는 유산이었다.

18.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미 제3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나는 그들이 여전히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본다: 한 무리는 물질주의에 빠져, 지상의 재물을 통해 부유해졌는데, 이는 마치 ‘’처럼 제멋대로의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심지어 세상의 기초마저 떨리게 할 정도인데, 이는 그들이 아버지께서 그들의 영에 부어 주신 힘과 재능, 은사를 오로지 자기 자신과 야망, 위대함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보라, 그 민족이 물질주의의 한계 안에서도 과학, 의지, 지성에서 얼마나 강력한 증거를 보여 주었는지.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과거의 기근과 노예화, 굴욕에 대한 원한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강하고 자랑스럽게 일어나 다른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힘으로 위협하며, 지배하려 한다. 오늘날 그들은 *스스로* 배부른 자들이 되어, 수백만 명의 굶주린 자들과 수많은 *노예들—그들의* 금, 권력, 과학, 그리고 명성 추구에 노예가 된 자들—을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19.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또 다른 부분, 즉 굳건하고 충실한 자들 – 항상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자들,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오심을 항상 알아본 자들, 나의 계시를 믿었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순종하며 나의 명령을 이행해 온 자들 – 도 보고 있다.

그 ‘다른 부분’은 이 시대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가 전한 계시를 목격한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는 온 땅에 흩어져 있으며,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보살피는 사랑을 받고, 나의 임재를 느끼며, 나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내가 어디서 올지, 어떤 방식으로 올지 알지 못하면서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나를 드러내셨는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들, 곧 다가올 시대를 위해 준비된 이들은, 그 민족의 열두 지파 중에서 내가 택한 144,000명의 일부를 이루는 바로 너희들이다. 14만 4천 명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치 14만 4천 명의 지휘관처럼, 제3시대의 영적 투쟁 속에서 그들을 대격전으로 이끌어 갈 자들이다.

20. 너희는 내 백성이 영원히 분열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는* 가르침과 빛과 시련이 왔고, 그들에게는 나의 공의와 마찬가지로 징벌이 왔다. 이제 나는 그들을 큰 걸음으로 영적 각성으로 이끌고 있으며,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두 번째 오심 을 부인했던 것처럼 내 세 번째 오심을 분명히 부인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회심할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 그들은 옛 전통 속에 살고 있으나, 나는 유대 민족의 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신념보다는 안락함과 영적 계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통을 고수하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들은 저 세상의 현현을 두려워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제안할 것은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자비와 사랑,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다.

21. 너희는 그들과 맞서야 할 것이며, 양측 모두 각자의 무기를 들게 될 것이다. 한쪽은 말과 생각, 기도와 증거를, 다른 쪽은 재능과 권력, 전통을 무기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대립 속에 함께할 것이며, 나의 정의가 실제로 승리하도록 이룰 것이며, 영성이 승리하고, 영이 육체를 초월하여 그것을 굴복시키고 겸손하게 하도록 할 것이며,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들의 화해와 주님의 백성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백성이 일단 준비되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받은 백성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 사명은 주님의 계시의 맏아들이자 수탁자가 되어, 형제자매들의 맏형으로서 나머지 자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며, 모두를 아버지의 우편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22. 백성은 분열된 상태로는 지상의 다른 민족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3시대에 그들이 인간 삶 속에서 그들의 힘과 빛에 대한 위대한 증거를

보여주었듯이, 너희도 너희의 영성화에 대한 증거를 보여 주기를 원하노라. 곧, 영의 능력이 인간의 힘보다 더 커서 싸움에서 이를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해 주기를 원하노라.

23. 백성아, 깨달아라.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고, 너희 영혼이 평안 가운데 승화하여 마침내 내게로 나아갈 수 있으며, 내 왕국에서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24. 이 기간 동안 내가 너희에게 많은 말을 해 주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 중에서, 이 은총의 아침에 내가 너희에게 준 교훈 *하나를* 배워야 한다. 바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이다!

25. 예수님께서 땅 위의 다양한 피조물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얼마나 자주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새들과, 들판과, 바다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얼마나 자주 목격되었는가!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 딴 세상에 빠져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스승 안에 모든 피조물에게 언어를 주시고, 그분의 모든 "자녀"를 이해하시며, 그분을 통해 창조된 모든 것으로부터 찬양과 사랑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창조자 영이 살아 계심을 알았습니다.

26.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새나 꽃을 어루만지시며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 그리고 그분의 눈빛 속에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시선을 발견하곤 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지혜에서 비롯된 그토록 많은 영광과 경이로움에 둘러싸여 계실 때 느끼시는 신성한 기쁨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러한 영광 앞에서 사람들의 무관심과, 그토록 화려한 광경에 대한 인간 피조물들의 무감각함과 맹목성을 보실 때 스승님의 눈에서 종종 눈물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승님께서 나병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나병 환자나, 완전한 사랑의 영역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남녀들을 보실 때 종종 울고 계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27. 너희는 내 율법이 너희에게 나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아버지의 마음에 이기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 피조물과 너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 너희의 사랑을 통해 나의 사랑을 이해해야만, 그것을 이웃에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운 아침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의 사랑이 모든 것을 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다음 서로를 사랑하며, 그 후에 아버지가

창조하신 모든 것, 즉 아버지의 딸로서, 따라서 너희의 형제자매인 모든 피조물과 그 완전한 작품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8. 너희 영혼과 감정에 감수성을 불어넣으라. 비록 삶 속에서 덧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너희의 육신이 이 상쾌함에 동참하게 하고,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며, 자연이 그에게 베푸는 빛과 기운을 만끽하게 하고, 그것으로 배부름과 활력을 얻게 하라. 왜냐하면 이 육신의 삶 또한 축복과 온기,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 그것은 위로이자 어루만짐이며, 양식이며, 평화이다.

29.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이 모든 것으로 채우게 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몸을 숨기거나 자연에서 멀리 떨어뜨리지 말고, 이 생명의 원천을 거부하게 만들지 말며, 내가 그토록 많은 사랑으로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을 거부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때가 왔을 때, 너희 몸은 평화롭게 잠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영혼은 저 세상에서, 해방된 순간부터 계속해서 아버지의 모든 작품보다 물질적 창조물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잘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더 이상 물질적 삶에서 영양을 얻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지도 않으며 그 안에서 살아갈 필요도 없더라도, 영혼은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며, 모든 것을 경탄하고 아버지 안에서 사랑하게 될 것이다.

30. 나의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를 가득 채워 주며, 너희 영혼과 마음에 치유의 연고가 된다. 너희는 너희 주님과 대화했으며, 계속해서 영혼의 언어로 그분과 대화하고 있다. 그 언어는 경외심을 담고 있으며, 내 신성한 귀에 드리는 찬송가이자,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애정 어린 어루만짐이며,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을 향해 뻗어 나가는 손이다.

너희는 내게 고백하며,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내 시선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을 꿰뚫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며, 너희는 땅에서 저지른 과오들로 인해 양심에 대해 회개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매일 아침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너희의 선행과 과오를 세고 있는 나는, 선행을 더 많이 기록하고 악행을 더 적게 기록한다.

31. 멈추지 말라, 오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늘 말해 왔듯이, 너희의 발걸음은 선과 진보의 길 위에 확고히 머물러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선만이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오직 미덕과 진리만이 투쟁과 대립의 길에서 그를 지탱해 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기만이 무너지고, 거짓과 위선, 이기심, 모든 악한 씨앗이 무거운 재앙과 몰락, 타격으로 인해 종말을 맞이할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노니, 선함 안에서 더욱 강해져라! 내 백성아, 너희가 행하는 선한 일에 대해 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라. 만일 너희가 땅에서 행하는 선한 일로 인해 악한 열매나 악한 보상을 거둔다 해도, 그 악한 열매는 일시적인 것이며, 그것이 최종적인 열매가 아님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수확할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32. 주님의 밭에서 착한 일꾼이 되고, 물질적인 땅을 일구는 일꾼들을 항상 지켜보라. 그들이 일시적인 폭풍우 때문에 이미 싹이 튼 씨앗을 내버려 두겠느냐? 진실로 – 아니! 그들은 악천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며,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수확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 인내의 결실이 얼마나 자주 축복과 풍요로 가득 찼던가!

너희도 그러하라: 너희의 선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역경을 일시적인 폭풍우로, 너희 덕행의 증거로 받아들이되, , 너희가 잘 뿌린 나의 씨앗이 때가 되면 너희에게 아름다운 꽃과 좋은 열매를 맺어 줄 것임을 항상 믿으라.

3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은 씨앗과 같으며, 너희가 아는 그 씨앗과 같다. – 나는 지금 비유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다. – 그 씨앗들도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더 말해야겠다. 모든 영혼이 동시에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며, 모두 동시에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때에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다. 같은 시기에 뿌려졌더라도 어떤 것은 더 일찍, 어떤 것은 더 늦게 그렇게 한다. 이것을 깨닫고, 너희 자신과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적용해 보라. 그러면 너희는 이를 통해 위대한 결론과 큰 계시,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과 의문에 대한 광범위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34. 오늘의 내 가르침을 깊이 음미한다면, 그 안에서 스승의 분명한 의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로 너희 영혼을 굳건히 하여, 인류에게 영혼의 환생에 대한 진정한 계시를 전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간직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각 영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그 신비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론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가능성이며, 또 다른 이들에게는 환상이고, 더 나아가

이를 단호히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이 진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35. 오늘날 인류는 전설과 환상을 만들어 내지만, 가장 후진적인 부족들조차, 심지어 원시림에 숨어 사는 민족들조차도 영혼의 환생이라는 비밀을 직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지가 준비되어 비옥해졌기 때문이며, 인간 영혼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육체에 이 "비밀"의 일부를 – 너희가 부르는 대로 –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나의 백성, 나의 제자들, 나의 충실한 자들 – 곧 나를 항상 기다려 왔고, 나의 계시와 가르침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이들이 와서, 생생한 말씀과 이성적인 근거, 진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를 확증해 주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삶으로 깨어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있는 영적인 나라 그 자체입니다.

36. 나는 제2의 시대에 말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씀에서 모든 선함이 솟아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치유제를 구한다면 – 나의 치유의 향유가 너희의 고통 위에 끊임없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너희가 곁에 없는 병자들을 위해 나를 간구했다면, 그들은 비록 너희 육신에 있어서는 곁에 없겠지만, 나의 영이나 너희의 영에게는 결코 곁에 없는 것이 아니며, 그들 안에는 나의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사업에 대한 나의 축복이나 보호를 나에게 구할 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사랑과 빛이 그 위에 임하리라. 너희가 나를 구원하는 인도자처럼 신뢰하므로, 내가 너희의 손을 잡고, 진실로 너희를 승리로 이끌리라. 나는 덫과 시련 속에서 너희를 강하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리라.

37. 너희는 "일꾼"이며, 나의 영적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들인, 현재 자리를 비운 이들을 위해 나에게 간구한다. 나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길 위에, 그들의 기도 속에, 그들의 사명 수행 속에 함께해 왔다. 나는 그들을 너희에게 낯선 나라들에 빛의 횃불처럼 세워 두었으니, 그들이 평화의 천사처럼, 나의 영적 세계에 둘러싸인 수호자처럼 서게 하려 함이다.

그들이 작별을 고한 순간부터, 수호천사들의 영감을 받아 이 땅과 영적 여정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기에, 스승께서 임무 완수를 요구하실 때 그 일꾼들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이 땅으로 돌아올까요? 스승께서는 그 길과 시기를 준비해 두셨으며, 그들은 다시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들의 말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대한 계시들—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위대한 기적들—에 대한 증거로서 너희 마음속에 메아리칠 것이며, 이는 너희에게 힘을 주고, 너희도 경계를 넘어 다른 형제 교회들로 향하는 길을 떠날 때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38.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를 구별하고, 이 시련의 시기에 내 망토로 너희를 덮어 주는데 – 어찌 내가 온 지구를 내 자비로 덮지 않을 수 있겠느냐? 현재 인간 존재인 여러분에게 전능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나로서는 – 스승이 어떻게 일부만을 돌보고 다른 이들은 잊을 수 있겠는가? 나의 시선은 모든 이에게 머물러 있고, 나의 망토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를 감싸며, 나의 치유하는 향유는 모든 이에게 넘쳐 흐른다. 나의 평화의 망토 아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느끼고 활용한다. 다른 이들은 전쟁을 벌이고, 서로를 파괴하며, 서로를 모욕한다.

39. 너희는 나에게 묻는다. "아버지, 인류가 '성년'이라 부르는 이 화해의 해, 영적 연합과 사랑의 해에, 왜 사람들은 살육의 전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까?"

스승께서 이에 대답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오늘날 너희는 아직 이 시련의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없으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깨어날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통이 필요하니, 사람들이 현재 스스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잔을 비워내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각성이 될 것이며, 스스로의 심판자가 될 것이며, 스스로의 저울이 될 것이다. 나는 이를 그대로 허락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어루만진다. 나는 그들에게 내 빛을 쏟아 붓는다. 그리하여 그들이 내 빛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면, 고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통해 진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40. 나의 우주적 광선이 치솟을 때, 나는 너희가 저 세상에서 온 인류에게 너희의 영적 평화와 축복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맡기겠다.

41. 이것이 나의 교훈이다. 계속해서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너희 마음과 영혼 속에서 만물과의 영적 연합이 점점 더 강해지고 무게를 갖도록 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33

1. 지쳤을 때 내게로 오라. 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치유와 위안, 그리고 어루만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노니, 내 가르침을 들은 후에는 믿음으로 내 왕국을 차지하게 해 줄 그 길을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2. 많은 이들이 나의 계시를 갈망하며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들, 내가 내 영을 그들의 영에 아주 가까이 느끼게 함으로써 내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와 근심, 간구와 궁핍을 꿰뚫어 볼 때 내 예리한 시선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는 바로 그 순간들이다.

3. 그들 중 많은 이는 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게 되었으니, 이는 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앞에 그토록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의심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그 마음들에게 묻는다. "나를 믿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대답한다. "각자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4. 아, 너희 사람들아! 내가 단지 너희가 원하는 것만 행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청하는 것 중 일부를 허락하리라. 이는 이 계시들 동안 너희가 들었던 그분이 바로 너희의 스승이셨음을 너희에게 증명하기 위함이다.

5. 너희 눈에는 초자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일을 경이롭고 진실하다고 부르기 위해 내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야만 하는가? 아니면 내가 단순히 너희에게 말하고, 나의 본질을 너희 영혼에 스며들게 하며,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6. 나는 너희가 내게 구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너희 영혼의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만을 줄 수 있다.

7. 기도하는 동시에 명상하는 법을 배우라. 그래야 너희 각자에게 깨달음과 이해가 빛을 발할 것이다. 아는 자만이

의심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다. 의심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나는 너희가 더 이상 무지의 어둠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아느냐? 그런 일들을 행하면 너희는 단지 내가 그 일을 행했다고 믿게 될 뿐, 너희의 무지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 말씀의 의미 속에 숨겨진 기적을 선사하는 것을 택했다. 그리하여 너희가 그것을 찾음으로써 지혜와 빛, 깨달음, 계시,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불확실성과 의심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8. 이제 너희가 왜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오직 내 말씀을 듣기 위해 너희를 부르려 했는지 깨달아라. 그 말씀 안에는 너희 영혼과 마음이 바랄 수 있거나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9. 내 가르침을 받을 때 나쁜 제자가 되지 말고,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게 행동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라.

10. 너희는 이 말씀의 증인이다. 그러니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침묵하지 않도록 하라.

11.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노니, 너희가 관심과 사랑으로 이 가르침의 진의를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한다면, 너희는 걸음걸음마다 영적 지혜와 완전한 사랑, 신성한 정의의 진정한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계시들을 무관심하게 여긴다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12.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삶을 살아가듯이, 내 설교를 그냥 지나치지 마라. 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생각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

13. 지상의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선물을 베풀었는지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에 대한 갈망과 탐구심,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 관심을 갖는 자들만이 그 풍요로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이들이 걸음걸음마다 신의 능력, 지혜, 그리고 자비의 새로운 현현을 발견할 때 기뻐하는 자들이다.

14.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너희를 감동시키거나 놀라게 하기 위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기이한 행적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형식은 단순하지만 내용은 심오한 말씀을 전해, 그것이 양심의 빛

아래에서 연구되도록 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이를 통해 나는 너희에게 나의 진실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그 '제2의 시대'에 인류에게 경고했음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이 나를 그 거짓 선지자로 믿게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15. 나는 그런 종류의 기적을 행한 적이 없으며,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믿도록 강요한 적도 없고,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두려움을 퍼뜨리려 한 적도 없다. 나는 단지 사람들에게 주었던 약속, 즉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해석했을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이행했을 뿐이다.

16. 여기 너희에게 약속한 내 말씀이 있다. 그 진의를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곳에서 나의 신성한 임재를 발견할 것이니라.

17. 스승께서는 너희의 사명에 대해 지칠 줄 모르고 말씀하신다. 너희 중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나에게 순종을 보여주고, 다른 이들은 슬픔에 차서 너희가 겪은 시련들을 나에게 보여 주며, 나는 내 힘을 너희 안에 부어 준다. "강해져라"라고 스승께서 말씀하신다. 시련은 지나갈 것이다. 희망하라, 그러면 너희는 얻을 것이며, 싸워라, 그러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18. 내가 너희 영혼 속에 내 자신을 부어 넣은 것은, 너희가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인류는 나의 선택받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나의 말씀으로 너희를 준비시킬 것이며, 너희 영혼은 언제나 빛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생각과 영혼이 너희의 영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너희는 하나가 될 것이며, 영성이 너희 안에 깃들 것이다. 너희는 인류의 거울이 될 것이며, 훌륭한 제자로서 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할 것이다.

19. 일하라, 사랑하는 백성아. 그러나 그 보상은 내가 나의 신성한 거처에 준비해 두었다. 그곳에서 천사들이 너희를 환영할 것이다.

20. 나는 너희 안에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보물을 간직해 왔다.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작품이다.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의 행실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 안에 진리가 깃들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으나, 훗날에는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에는 한계가 없으니, 너희 영혼 속에는 언제나

나의 성령의 빛이 비추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길이요 빛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평화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21. 내 가르침인 그 거대한 나무의 그늘 아래 있는 너희는, 그 나무를 돌보고 가꾸며, 지친 여행자가 그늘을 얻으러 다가올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그 가지들이 더 넓게 뻗어나가게 해야 할 사명을 지녔다.

내 신성한 말씀인 이 나무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그 가지들이 더욱 넓게 뻗어 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22. 나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인 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신성한 빛이 너희에게 영감을 주어, 너희가 이웃들에게 말하고 성령으로서 나의 계시에 대해 증언하게 할 것이다. 지극한 헌신으로 일하며,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점점 더 준비하라.

23. 너희는 듣고 배우기 위해 스승께 나아온다. 그러나 훗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전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한 바위와 같고, 영혼은 여전히 어둠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슬을 끊고 그들을 해방시켜야 하며, '죽은 자들'을 깨우고 죄를 지은 자들을 회개시켜야 한다.

24.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사명이다, 사랑하는 백성아.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여기지 말고, 1950년이 지나도 너희의 일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라. 쉬고 싶은 마음을 품지 마라. 내 빛이 온 인류를 비추기 위해서는 너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25. 내 임재는 너희 가운데 있었으니, 너희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말씀을 들을 때 너희의 사명을 완수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며, 인류가 너희를 통해 내 가르침을 다시 받아들일 때 영성화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26. 너희는 나의 작은 제자들이다. 나는 매일 너희에게 또 한 번의 교훈을 주고, 또 한 장의 '생명의 책'을 보여준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삶에 대해 말할 때, 예언자들은 언제나 그 책을 바라보고 있다.

27. 나는 나의 "황금 붓"들이 이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준 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말씀으로 제3의 성서가 편찬될 것이며, 이는 훗날 사람들의 손에 전해질 것이다. 내일, 새로운 세대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도덕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될

것이며, 영성화하는 법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인류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곁에 있는 수호천사들과 조언자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28.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내가 계시를 시작한 이래로 준비해 온 제자들이다. 이는 내 말씀의 단계가 끝났을 때, 너희가 너희 영혼 속에서 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9. 1950년은 절정에 달했다. 이 해는 내 뜻에 따라, 이 대변자들의 이성과 입을 통해 전해진 나의 계시의 마지막 해로 정해진 해이다. 이는 어떤 교회도 나의 계시의 마지막 날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내 말씀 속에서 천 번이나 언급된 해이다.

30. 너희의 상처에 그토록 많은 치유제를 흘려보내 주었던 그 말씀을, 너희는 머지않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 영혼의 활력과 위안이 되어 온 그 목소리는 이제 곧 멈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에 대해 단 한 순간도 불만을 나타내지 말고, 오히려 나의 뜻에 따라 한동안 이 빛을 너희에게 보내주었다면, 나의 뜻에 따라 그 빛도 끝이 날 것임을 겸손히 깨달아야 한다.

31. 내가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 보이던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고 말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결정에 어떠한 불완전함도 돌리지 말아야 한다. 혹시 너희가 1950년이 오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임을 내가 몰랐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제자들아,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한 것이 나의 뜻이었으며, 너희는 이 뜻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2. 그 '두 번째 시대'에, 나는 제자들이 아직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나의 떠남을 미리 알렸다. 그 증거로, 그들 중 한 사람은 나의 신성을 의심하고 물질적인 기대에 실망감을 느꼈다. 그가 내가 약속한 보물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그는 내 가르침의 적들에게 나를 넘기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그들이 그의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줄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33. 스승의 목숨에 금전적 대가를 매긴 그 마음속에도 어둠이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

34. 그 후, 내가 그 무리에게 체포되어 제사장들과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고 숨어버린 다른 제자들에게도 혼란과 당혹감이 깃드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나를 따르던 자들 중 한 명으로 드러나자, 그는 나를 부인하며 결코 나를 본 적이 없다고 맹세했다.

35. 이 모든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날 무렵 제자들이 아직 성숙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36. 그 이유는, 나의 설교 기간이었던 그 3년이 인류에게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지, 제자들이 그 기간 동안 가장 큰 영적 고양과 완성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37. 그 3년은 내가 떠난 후에 닥칠 투쟁의 시기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38. 나의 희생은 완성되었으나, 그들의 내면에서 의심과 고통, 혼란과 두려움의 폭풍이 일고 있었기에 그 마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나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기에,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나의 무한한 자비를 다시 한 번 증명해 주었다. 내 말씀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육신의 형상이나 모습을 취하여 인간이 되셨고,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내 목소리를 들려주었으며, 내 말씀으로 그 낙담한 영혼들 안에 믿음을 다시 불태워 주었다. 이는 새로운 교훈이었으며, 지상에서 나를 따랐던 이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과 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힘을 얻고, 영감을 받으며, 변화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39. 그들 모두가 목격했던 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베푼 계시와 증거들을 완강히 부인하는 자가 한 명 있었기에,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내 영적 현존을 심지어 육신의 감각으로도 직접 만져보게 해야만 했다.

40. 그러나 그 의구심은 나에게 가까이 있던 제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아니, 마을과 도시, 시골 곳곳의 수많은 추종자들, 곧 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일들 때문에 나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혼란과 두려움에 찬 의문, 당혹감이 일었다; 왜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끝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41. 나는 그들 모두에게 연민을 느꼈기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비록 더 이상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그들을 돕지는 않더라도 내가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주었다. 모든 가정과 가족, 그리고 모든 민족 안에서 나는 나를 믿는 이들의 마음에 내 영적 임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내 존재를 드러내 주었다. 그리하여 지상에서 스승을 잃어야만 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투쟁이 시작되었으니, 그들은 일어나 스승이 그들에게 계시해 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너희 모두는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알고 있다.

42. 너희 또한 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이 계시를 잃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길을 떠나기 전에, 나는 내 백성에게 영과 영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어, 그들의 의심을 없애고,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으며, 그들의 혼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내가 내 말씀을 마치게 될 때 너희 또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신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나를 부인하고 영과 영 사이에서 전해지는 나의 계시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영감을 주고, 내 진리에 대한 새로운 증거 를 주리니, 너희도 사랑과 믿음, 그리고 영성 함양으로 무장하여 너희를 기다리는 싸움에 나설 수 있도록 하리라.

43. 내 목소리를 들어라, 백성들아. 이 목소리는 너희가 곧 치러야 할 싸움을 위해 너희에게 용기와 용맹을 불어넣기 위해 내려오는 것이다. 그 길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며, 너희의 사명을 완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는 강해져야 한다.

44. 이미 너희 영혼에 새겨진 나의 말씀이 너희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너희가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제시해 둔 행복한 목적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45. 나를 듣고 신성한 가르침을 배운 모든 이는 그 길 위에서 내 말씀의 사자가 될 것이다. 그의 마음은 건강과 평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쏟아질 축복의 선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이 될 것이다.

46. 나의 제자들은 도시와 민족들을 향해 긴 여정을 떠날 것이며, 그곳에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일단 선교의 길에 오르면, 너희는 올바른 길에 있는지, 혹은 길을 잃었는지 누구에게도 묻지 않아도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며, 나의 말씀이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지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47. 너희가 이웃을 대하는 자비로움은, 가장 굳고 차가운 마음조차도 감동시킬 기적과 행적을 통해 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48. 이제 너희는 왜 오랫동안 정화의 과정을 겪어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함에 대해 말하려는 자들은 마음속에 순결함을 간직해야 하며, 가정에 평화와 화합을 가져다주려는 자들은 내면에 평화를 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9. 내 말씀은 너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이제 너희가 지상에서 영성화의 사자와 사도로 나타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인류는 전쟁과 굶주림, 그리고 풍속의 타락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여 있다.

50. 고통과 비참함, 그리고 죽음에 맞설 때 너희에게 용기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때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찬란하게 빛나며, 너희 이웃들의 삶을 비출 것이기 때문이다.

51. 이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과거의 예언들이 이 백성 안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예언들은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으며, 에서 그 백성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그들은 내 백성과 하나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2. 내 능력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존재가 필요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 백성의 모든 자녀를 통해, 나는 오랫동안 땅에 정의와 평화가 오기를 기다려 온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보내리라.

53. 내 백성이 열방으로 나아가 이웃들에게 다가가면,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준비나 기꺼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이룬 자연스러운 발전과, 인류 위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내 영의 진동 덕분이다.

54. 영성과 사랑이 결여된 오늘날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수없이 예언된 세대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날 서로를 오해하고 전쟁을 벌이며 파괴하고 있는 이 민족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때 내 심판이 모든 이를 지나가고 가라지가 뿌리째 뽑히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의 '피' 속에는 더 이상 불화나 증오, 시기심이라는 씨앗이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의 부모의 '피'가 고통과 회개의 도가니 속에서 정화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맞아들이며 이렇게 말하리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제2시대에 너희에게 말했던 그대로이다. 그러나 오늘 나는 여기에 덧붙이노니, 구하는 법을 깨달으라.

55. 진정으로 구하는 법을 이해한 이들은 얼마나 적었는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조차도, 어떻게 구해야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종종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 대한 자비로 항상 앞서 나아가, 비록 그것이 너희가 구한 것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 왜냐하면 나만이 각자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56. 너희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구하지만, 나는 미래를 위해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물질적인 향상을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 영혼의 완성을 생각한다. 나는 영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육체는 항상 두 번째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영혼과 관련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추가로 주어진다.

57.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준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오직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을 사랑으로 활용하며, 이것이 너희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이루기에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기만을 바랄 뿐이다.

58. 나는 지금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비록 내 말씀에 정의가 담겨 있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너희는 생각으로 활동하며,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나아지도록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59. 너희의 일은 오늘 시작되었다. 내일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라. 각자에게는 영혼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짧은 시간만이 주어졌으므로,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을 수도 있다.

60. 내가 너희를 "빛의 자녀들"이라 부르는 것은, 내 가르침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삶 전체에 대한 이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땅에서의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텅 빈 손으로, 죽음의 잠이나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며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내 공의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1.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많은 만족을 주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기도는 너희가 삶의 투쟁에서 이겨내기 위해 그분 안에서 빛과 힘을 구할 때, 너희의 아버지께 간구하는 가장 완벽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62. 기도할 때, 너희의 이성에는 곧 깨달음이 찾아와 선과 악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하게 해 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면의 준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63. 이 제3의 시대에 나의 가르침은 인간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양심과의 내적 교제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는 너희 영혼이 전에는 결코 달성하지 못했던 발전과 능력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성령의 새로운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64. 길은 이미 닦여 있으며, 내게 오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문은 열려 있다.

65. 그 길은 좁다는 것은 너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내 법과 가르침이 지극히 순수하고 확고하여, 누구도 자신의 편의나 뜻에 따라 그것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다.

66. 넓은 길과 활짝 열린 문은 너희 영혼을 빛과 평화, 그리고 불멸로 이끄는 길과는 정반대이다. 넓은 길은 방종과 불순종, 교만, 그리고 물질주의의 길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책임과 양심의 내적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추구하며 따르는 길이다.

67. *이* 길은 진실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으므로 영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길은 모든 인간적인 것들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언젠가 그 끝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멈춰 서서 길의 끝을 이루는 심연을 보고 경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오래전부터 참된 길에서 멀어진 자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닥칠 것이다.

68. 어떤 이들에게는 회개가 솟아나, 그로 인해 스스로를 구원할 충분한 빛을 찾게 될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는 불공평하고 비논리적이라고 여길 그 끝을 마주하며 당혹감이 닥칠 것이며,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항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바로 빛으로의 귀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69. 제3시대의 제자들아, 너희는 내 영을 갈망하며 이 세상의 문턱을 넘어오기를 아는 자들이니,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나는 너희가 날마다 기도하고, 모여 내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묵상하도록 초대하노라. 이는 너희가 이러한 형태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이다.

70. 나는 너희가 내 사역이 담고 있는 지혜라는 비밀의 보물창고 속으로 들어가, 지금 겪고 있는 투쟁 한가운데서,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투 속에서 힘을 얻기를 권한다.

71.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사명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은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으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어떤 이들은 내 대변자들을 통해 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다른 이들은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이 시대를 위해 예고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발걸음을 같은 길로 인도할 것이며, 언젠가 너희는 서로 만나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72. 너희는 여러 시대를 겪어 왔고, 수세기 동안 이 땅에 거주해 왔으며, 그 기간 동안 발전해 왔고, 마침내 너희 주님과 영적 세계와의 영적 교감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73. 나는 너희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기며, 너희의 이해를 기대한다. 모든 행동을 굽히지 않고 엄격한 법에 근거하여 행하라. 이렇게 준비된 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너희의 길을 가라. 법을 어기거나 성실하게 일하지 않을 때의 두려움을 느끼라. 그러나 또한 믿음을 가지라. 나는 너희 각자의 길에서 인도자이자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74. 너희는 오직 현재에만 참여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가 내일 무엇을 겪게 될지 알고 있으며, 너희가 마주하게 될 장애물들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가장 큰 위험도 이겨낼 수 있고, 가장 위험한 모험에도 뛰어들 수 있을 것이며, 언제나 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75. 인내심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라. 그리고 너희가 시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의미를 너희에게 밝혀 주어,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리라.

76. 너희는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고, '의로운' 자도 아니므로, 너희 마음을 다듬고 영혼을 온전하게 할 새로운 시련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77. 이스라엘은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이래로 항상 투지 넘치는 민족이었으나, 험난한 길로 인해 낙담했을 때, "내 강한 팔이 네 팔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나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나의 계명을 따랐을 때, 나의 은총과 특권을 누렸다.

78. 이제 너희는 예고된 시대를 겪고 있으니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책은 마지막 장들이 펼쳐져 있으니, 너희가 전념하여 읽고 그 의미를 헤아려야 한다. 이것은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했던 힘든 시기들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너희의 고통은 나의 사랑과 정의의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79. 너희가 평화와 선의로 가득 차게 되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영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를 확신할 수 있도록 깊이 성찰하라.

너희가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는 데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 믿음이 있다면, 이 길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80.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의 계시는 1950년에 끝날 것이다. 그러나 영의 시대는 계속될 것이며, 그 해가 지나면 영적 은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다.

81.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던 가지들은 다시 그 나무에 붙어 있을 것이며, 너희 모두는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82. 나의 가르침이 순수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나의 계시를 잘 지켜라. 인간은 제한된 예배 형식에 지쳐 있으며 온전한 것을 추구한다. 그는 오늘 인간으로서, 내일 영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구원해 줄 신성한 가르침을 갈망한다.

83. 고상한 소망이나 열망으로 자신을 고양시키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에게 나에게 이르는 가장 짧은 길을 보여 주리라.

84. 비록 너희가 마음을 바쳐야 하거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관습을 바꿔야 한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라. 너희는 교회나 예배 장소를 두지 말며, 나의 가르침이나 너희의 사역 영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집은 온 세상이 되어야 하고, 너희의 가족은 인류가 되어야 하며, 너희의 교회는 나의 신성한 영이어야 한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34

1. 백성아, 깨어나라. 네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라.

2. 명상하고 기도하여, 영적인 영감이 너희의 지성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도록 하라.

3. 온갖 종류의 인간의 비참함과 고통, 궁핍함을 지켜보라. 그리고 너희를 둘러싼 곳곳의 고통을 목격할 때, 너희 마음이 점점 더 자비로워지도록 하라.

4.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너그럽고 고귀한 충동을 느낀다면, 그 충동이 넘쳐흐르게 하고 드러나게 하라. 그것은 영혼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전하는 메시지이다.

5. 여러분이 나의 가르침의 씨앗을 뿌리러 나설 때, 그것은 여러분의 존재에서 가장 감수성이 풍부한 곳에서 솟아나는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더 이상 선행을 하려고 애쓰거나, 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공로를 쌓기 위해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심지어 너희 영혼에게조차 사소한 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너희 영혼이 인간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영적 삶의 성소 안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물러나 과거와 그 결실을 되돌아볼 때, 이 세상에서 완벽해 보였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에 합당하며 보상을 받을 만하다고 여겼던 많은 행실들이, 그 자기 성찰의 순간에는 초라하게 보일 것이다. 영혼은 이 세상에서 선한 것으로 보였던 많은 행위의 의미가, 단지 허영과 거짓된 사랑,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자선의 표현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6. 여러분은 누가 영혼에게 스스로를 심판할 수 있도록 완전한 심판자의 깨달음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의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전례 없는 명료함으로 빛나는 인상을 심어줄 바로 그 영이시니, 그분이 각자에게 이 땅에서 행한 선과 정의, 옳음,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길에 뿌린 악과 거짓, 불순함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7. 방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성소는 바로 성령의 성소이다. 그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그분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빛이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 성전이다.

8. 이 세상에서 너희는 그 내면의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결코 되어 있지 않았으니, 이는 너희의 인간적 인격이 언제나 모든 사람 안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로운 목소리를 피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 왔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영혼이 육신의 껍질을 벗어던지면, 마침내 그 성소의 문턱 앞에서 멈춰 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곳에 들어가 영혼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양심이라는 빛 속에서 자신의

행실을 살피며,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심판자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에서 듣게 될 것이다.

9. 그 어떤 필멸자도, 여러분 모두가 내면에 있는 선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또한 더 이상 영혼 속에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버려야 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그 순간의 온전한 엄숙함을 상상할 수 없다.

10. 그때 영혼이 자신의 양심과 마주하고, 양심이 진리의 명료함으로 그 모든 것을 상기시켜 줄 때, 그 존재는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느끼며, 차라리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순간에 그 의식을 통해 자신의 온 생애가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다 – 뒤로 남겨둔 삶, 소유했던 삶, 자신의 것이었던 삶,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삶 말이다.

11. 제자들아, 사람들아, 이 생에서 이미 그 순간을 준비하라. 그래야 너희 영혼이 영의 성전 문턱 앞에 섰을 때, 그 성전을 재판소로 변모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영혼이 겪는 고통은 너무나 커서, 그와 비교할 만한 육체적 고통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2. 깨어 기도하고, 명상하며,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리고 너희가 진실함이나 자비, 혹은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려는 너희의 허영심에 결코 속지 말라. 실은 그 어떤 미덕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13.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실을 결코 마음에 새기지 말고, 너희가 하는 일 중 가장 평범한 것으로 만족하여, 끊임없이 너희의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라.

14. 내가 이 가르침에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여, 영적인 영역에서 너희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너희는 상상 속에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재판정을 주재하시며, 선한 자들은 오른쪽으로 지나가게 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악한 자들은 왼쪽에 세워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한다는 그 이미지를 지워버려야 한다.

15. 이제 빛이 너희 영혼과 이성의 가장 높은 영역까지 닿을 때가 되었으니, 모든 사람 안에서 진리가 빛나고, 각자가 영적인 삶을 합당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라.

16. 너희는 동료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벌여온 투쟁이 겉보기에는 무의미하다고 내게 지적한다. 즉, 너희가 그들에게

영성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에서 광신주의와 우상 숭배 행위를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너희가 가르침을 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금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다.

17. 너희는 상처 입고 시든 마음을 안고 오지만, 내가 내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계속 싸워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무기를 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18.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너희 안에서 모든 이웃에게 빛이 비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을 보노라. 너희가 그토록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 그 소망하던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 인내로 무장해야 한다.

19. 그들도 너희가 야외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책에 기록되지 않은 가르침과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너희가 착각에 빠져 있다고 믿습니다.

20. 그들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나에게 말을 걸어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21.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 생각에 내가 누구의 말을 더 귀담아듣겠느냐? 너희의 말이냐, 그들의 말이냐?" 너희 중 많은 이가 마음속으로 내게 말하리라. "스승님,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 진리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22. 그러므로 제자들아, 내가 너희 모두를 똑같이 듣는다고 말하노니, 너희는 모두 내 앞에서 동등하고, 내가 한쪽을 다른 쪽만큼 사랑하며, 누군가 길에서 벗어나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모두에게서 보기 때문이다.

23. 이것이야말로, 백성들아, 예고된 싸움이며, 가정 속에서도, 심지어 가장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가족의 품속에서도 불타오를 그 거대한 전투이다.

24.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겠느냐? 아무도 없다. 승리는 진리와 빛, 사랑과 정의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 모두는 이 신성한 힘들에 의해 정복당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겉보기에는 패배인 것이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다.

25. 그러므로 스승은 너희가 내가 떠난 후의 시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큰 사랑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듯이, 너희도 사랑의 행실을 통해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

26. 나의 광채는 너희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해 너희의 이성 능력 위에 내려왔으며,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나와 함께 있을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너희 가운데 내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27. 유혹은 너희를 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너희 가운데서도 싸우고 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인 나는 너희를 모든 길 중에서 골라냈으며, 너희가 자기 희생에 이르기까지 요구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여 나의 은총을 온전히 받고, 내일 인류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할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28. 나는 너희가 은총의 삶에서 죽은 자들이었기에 너희를 다시 살려 주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준비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내일, 일어나서 자기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류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나의 사랑을 실감하게 하고자 모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알려지지 않은 나그네이다.

29. 인류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시대에 나의 현존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내가 사랑과 자비로 나의 공의를 드러낸다는 것,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채찍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그들을 은혜의 삶으로 끌어올리고, 나의 말씀이자 진리인 수정처럼 맑은 물로 그들을 정화하고자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30. 세상은 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우상 숭배와 광신주의를 키웠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은 거대한 시련의 용광로를 겪고 고통의 잔을 마시고 있다. 그들의 물질주의가 그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31. 이스라엘아, 너에게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나의 진리를 증언하고, 인류의 어둠을 걷어내며, 그들에게 나의 빛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32. 자칭 인류의 목자라 하는 자들은 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인류의 스승께서 맡기신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음을 본다. 그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침으로써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했을 터인데 말이다.

33. 세상이 나의 사랑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세계관을 키우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이는 영혼에 해를 끼치며, 결국 너희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고, 영생의 양식을 경멸하며, 인류는 자기들의 회당과, 자기들의 이해에 따라 자기들 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교회에서 나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언제 나를 이해하고 나의 부르심을 듣게 될 것인가?

34. 1950년 이후, 세계관 간의 거대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는 나의 신성을 신뢰하며 길을 떠날 것이다. 누가 너희를 거부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가는

길에서 행하는 선한 행실과 업적을 처벌할 수 있는 인간의 법이 과연 있겠느냐? 아니다. 너희는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고, 그들에게 나의 평화를 전하며,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이 피어나게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35. 제자: 내가 제2시대에 너희에게 가르쳐 준 그 원칙,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 삶의 모든 행동에 적용된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육체 노동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하찮은 존재인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나의 어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이 육체 노동 속에서도, 너희가 이웃을 섬기겠다는 소망으로 일을 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36.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자신의 작은 노력을 다른 이들의 노력과 하나로 모은다면, 너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해 보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때는 더 이상 비참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각자가 자기만을 위해 일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기껏해야 가족들만을 생각할 뿐이라는 것이다.

37. 너희 모두는 그 누구도 스스로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으며, 타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너희 모두는 너희가 깊이 연결된 보편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세속적인 의무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영감, 이상, 한마디로 말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해 연합해야 한다. 그러면 그 결실은 모든 이의 복이 될 것이다.

38.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오로지 너희 자신을 위해서만 일해서는 안 되며, 너희의 노력 속에서 너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빛을 전파하도록 힘써야 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웃에게 더 많이 베푸는 자는 내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39. 내가 너희에게 이 시대에 너희에게 보낸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을 준다.

40. 다른 시대에 사람들에게 사랑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오셨던 그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며,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선택된 지성적 매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영이시다. 이 말씀은 – 형식은 겸손하고 , 표현은 단순하지만 – 영성과는 거리가 먼 이 인류를 깨우치게 할 것이다.

41. 나는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종교 공동체에 호소하여, 내 율법의 가장 높은 계명, 즉 내가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서 그들에게 밝힌 그 계명을 상기시키려 한다.

42. 현재 인류는 준비 단계에 있다.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이, 내 정의가 그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만과 오만한 물질주의에 빠져, 자신들에게 피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사건을 우연의 결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나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마음에 닿을 것이며, 그때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게 다가와 그들의 오만과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43.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을 위한 십자가의 시간이 될 것이니, 그 때 그는 큰 실망 끝에 잠시 동안 절대적인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독선적 자만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지, 자신의 이념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의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니, 그때 내 사자들이 나타나 내 새로운 메시지를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44. 과거에 내 가르침의 사자들이 동쪽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내 말씀의 지식을 전했던 것처럼, 그 때 세상은 다시금 내 사자들이 민족들과 가정에 이 메시지의 빛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45. 이제 빛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낯설게 보일 것인가? 그 때문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사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4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는 유일한 빛은 너희 세상을 비추는 빛, 곧 왕의 별의 빛이다. 왜냐하면 영혼을 비추는 신성한 빛은 나에게서 발산되며, 우주 만물의 모든 곳과 모든 지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47. 비록 과거에 내가 종종 의식과 상징을 통해 너희에게 말해 왔지만, 이제 너희가 의식과 상징을 너희와 진리 사이에 두지 않고도 진리를 직접 바라보아야 할 때가 왔다.

48. 스승은 이 제3의 시대에 나의 신성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할 준비가 된 제자를 맞이한다. 책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고, 그 페이지들이 너희 영혼을 비추어, 내가 너희 손에 맡긴 일이 위대하고 숭고하다는 것—내 가르침이 너희가 내 왕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고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보여준 길이니, 너희가 이 길을

따라 나아가, 너희가 내게로 올 때 지고 온 불의를 뒤로 남겨두게 하려는 것이다.

49. 나는 내 빛과 내 의로 너희 영혼을 준비시켜, 너희가 너희 스승과 같아지게 하고, 더 이상 여러 길로 헤매지 않게 하며, 내 계명에 대한 순종이 너희 마음에 깃들게 하려 한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영혼에게 준 준비를 잃지 않도록 하라. 이 시기에 나는 세상에 새로운 날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준비하게 하고, 내 말씀을 듣게 하며, 영적인 눈으로 내 임재를 보게 하리라.

50.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사명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내 말씀은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너희를 비추었고, 너희 눈의 어둠을 걷어내며 내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51. 내 말씀이 너희를 변화시켰다. 너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내 임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알아보았으며, 영에서 영으로 나를 찾기 위해 자신을 고양시키는 법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비틀거렸으며, 잠시나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마음을 불필요한 것과 쓸모없는 것들, 즉 타락한 세상이 양분으로 삼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정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꽃피고 있는 황금빛 밀 옆에는 여전히 잡초가 자라고 있다. 이제 모든 시대에 걸쳐 마음속에 싹트고 꽃피었던 잡초를 뿌리째 뽑아낼 때가 왔다. 그것은 다발로 묶여 불 속에 던져져 소멸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은 내 말씀이 열매를 맺을 깨끗하고 비옥하며 준비된 밭이 될 것이다.

52.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여러모로 준비해야 한다. 영성화를 향한 너희의 발걸음이 더디었고,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너희는 이미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의 신성한 영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53. 너희의 영은 잠시 동안 육체를 다스리는 법을 깨달았고, 그 후 너희는 나의 참된 제자로서 나의 계명을 이행하여, 너희를 통해 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 할 인류를 위해 나설 수 있게 되었다.

54. 내 영이 너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너희가 인류에게 내 사역을 구원의 배이자 등대이며, 육신을 입은 영혼과 육신을 입지 않은 영혼 모두를 위한 새로운 하늘로 보여 주게 하라.

55. 나는 너희 모두가 준비되어 내 성령의 빛으로 옷 입은 모습을 보고자 하며, 너희 안에서 나의 신성한 사역에 대한 책임감과 나의 신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새롭게 되고, 내 영과 직접 연결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룬 준비 상태에 따라 나는 너희 영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상의 각성이 완전해질 것이며, 너희를 통해 세상은 나를 느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56. 너희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거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에 있으며, 이제 내 대의를 수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내 군대 앞에 서서 이끌고 가며, 너희는 그 군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보라, 나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나의 말씀이 죄를 없애는 것을. 너희가 훌륭한 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순종하며 진리의 빛을 전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시대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영혼들에게 전해 주는 바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하라.

57. 내가 선택한 백성인 너희 가운데서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나 서로 다른 의지의 표현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가 하나 되어, 너희 모두에게 하나뿐인 나의 말씀에 이끌려, 나로부터 온 똑같은 영감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58. 잠들어 있었고, 성소의 등불을 꺼버려 내 은총을 잃어버린 너희에게, 나는 부르짖음을 보내며 말하노니: 일어나서 재빨리 걸어서 내게로 오라.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노라.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더 이상 그 길에 머물러서는 안 되니, 그렇지 않으면 내일 나에 대한 너희의 책임이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59. 나는 너희의 직관을 일깨웠으며, 이 은사를 통해 나의 영이 너희의 영과 대화하였고, 너희가 이를 따르도록 나의 명령을 내렸다.

60. 내가 너희가 내 뜻을 이루도록 확고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노라.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은 너희 영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권능과 나의 평화를 주니, 이것이 너희 가운데 내 임재의 증거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화가 무엇에 의해서도 방해받기를 원치 않는다. 준비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평화를 통해 일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의 신실한 손에 맡긴 그 일 을 위해 고통을 겪게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희 영혼에게 큰 상을 주리라.

61. 보라, 속죄를 위해 다시 육신을 입고 땅에 머물며, 과거에 뿌린 것의 열매를 의로움 안에서 거두기 위해 보내진 영혼들이 있는 것처럼, 환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채로 지상에 머물며, 더 이상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영성화나 승화를 이룰 때까지 머무르는 이들도 있음을 알아두라.

62. 모든 속죄는 힘들고, 쓰라리며, 고통스럽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은 너희 영혼이 지상에서 고통을 겪은 후 평화를 찾기보다는 정화와 속죄의 시련에 직면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63. 여기 내 말씀을 통해, 세상의 것들을 옳은 만큼만 사랑하도록 배우라. 그래야 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너희 영혼에 자유를 빼앗는 어떤 짐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64. 사랑하는 백성들아, 빛으로 오라. 나는 그 빛으로 이끄는 길이며, 나는 진리이자 생명이다.

65. 삶의 행실에서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파멸할 수 없다.

66. 내가 내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영적인 삶에 대해 말할 때, 너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 비록 내가 같은 주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음에도 —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에 찬 목소리로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당신의 가르침과 계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67.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염려하지 말라. 그 고향이 어떤 곳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곳에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나 망설임 없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68. 너희는 이미 나로부터, 사랑을 통해 영혼의 상향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존재가 지닌 모든 은사와 능력을 꽃피우기 때문이다. 오직 지성을 펼치는 것만으로 빛의 높은 정점에 도달하고자 애쓰지 말고, 항상 지성과 감정을 조화롭게 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가르침을 공부하는 동시에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69. 진리의 길은 너무나 분명하여, 그 길을 걷는 누구도 파멸에 이를 수 없다.

70.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격려와 빛이 너희 각자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족하게 느껴질 경우를 대비하여, 나는 모든 인간 존재 곁에 영적인 빛의 존재를 두어 너희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어떤 위험이 닥칠지 미리 알려주며, 너희의 고독 속 동반자가 되고 삶의 여정에서 지팡이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수호천사나 보호자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다.

71. 그들에게 결코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그들의 계시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희의* 힘만으로는 삶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보다 더 앞서 간 자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기에 너희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72. 너희가 영성화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 존재들의 투쟁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들의 어려운 사명을 돕기 위해 거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73. 여러분의 영성화 수준이 높아져,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과시도 없이 오직 여러분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일하는 그 형제자매들의 존재를 느끼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토록 고생하고 고통받도록 강요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른다면,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빛이 비추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연민과 감사, 그리고 이해가 싹트게 될 것입니다.

74. 너희의 수호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너희의 지지를 받고, 그들의 영감이 너희의 고양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낄 것인가!

75. 너희에게는 '영적 계곡'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형제자매와 친구들이 있다.

76. 내일, 영적 삶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 인류는 너희 곁에 있는 그 존재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나의 섭리를 찬양할 것이다.

77.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협하는 혼란에 빠진 존재들의 침략에 맞서 이 빛의 군단이 벌이는 전투를 과연 누가 상상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한 채 양측이 끊임없이 서로 벌이는 이 싸움을 발견한 인간의 시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78. 너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너희의 무지는, 내가 이 시기에 영적 세계가 내가 지정한 두뇌들을 통해 너희에게 소통하도록 명하여 이 임무를 수행하게 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리하여 그 존재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존재를 증언하고, 그들의 사랑과 자비, 겸손과 인내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79. 기도하라, 백성들아, 그리고 너희의 기도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라. 그분의 보호를 믿으라. 그들은 눈부신 빛을 지닌 존재들로, 너희 곁에서 어려운 사명을 완수하고, 너희가 내게 도달할 때까지 온 여정 동안 너희를 인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35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오늘 내 영이 다시 한 번 영적 이스라엘 위에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백성아, 나는 보편적 광선을 통해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며, 아버지이자 스승으로서, 친구이자 심판자로서 너희에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이 안에 현존하며, 너희가 내게 드리는 가장 은밀한 간구까지 너희의 기도를 경청합니다.

2. 나는 육신을 입은 영혼들이 아버지이자 주님과의 진정한 대화를 점점 더 발견하고, 나를 찾고 경배하기 위해 사용하던 옛 의식과 다양한 숭배 형식을 뒤로 한 채, 확고한 발걸음으로 영적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쁨을 느낍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계시와 함께 나의 위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너희 겸손한 공동체들이다.

3. 나는 인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에 속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로 모았다. 너희가 속해 있거나 과거에 속해 있었던 인종들에게 내가 말을 거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라. 나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말을 건다. 그들에게 사명을 맡긴 것은, 그들이 지상의 다른 민족들 중에서 내가 나의 이전 언약을 물려준 장자이기 때문이다.

4. 은혜와 계시의 수탁자이신 그대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전하고,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등대가 되어 주라는 사명을 받았다. 나의 예언자, 나의 증인, 나의 사자, 그리고 나의 신뢰받는 자였던 너를, 나는 너희가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려고 다시 한 번 부르셨다.

5. 너희의 충성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난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이전 가르침을 아직 따르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너희 형제 민족들을 위해 주었던 빛과 평화, 축복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너희는 이 은사들을 그들과 나누지 않았다.

명심하십시오. 이 사명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필요한 강인함과 결단력, 경험을 얻기 위해 영혼과 육체의 큰 투쟁, 생각의 갈등, 그리고 이 세상의 전투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나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더라도, 나는 과거의 너희 행적에 대한 공로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공로들 덕분에 너희는 이 영적 계시 속에서 나를 너희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6. 내 가르침의 진리 속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들었던 것과 같으며, 모세가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주님과 하나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영감을 받았던 바로 그 빛과 같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태초에 광야를 헤매며 앞서 나갔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한다. 용감하고 용맹한 유다의 자손들; –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을 지키던 충성스러운 레위인들; 사람들의 행렬에 필요한 생계를 마련하는 임무를 맡은 지치지 않는 스불론의 자손들; 그리고 또한 나에게 충성심과 사랑, 신뢰의 큰 증거를 보여준 모든 이들.

7. 나의 시선은 또한 '두 번째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 즉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다는 믿음을 사형 집행자의 칼로도 빼앗을 수 없었던 순교자들에게도 사랑으로 머물러 있다. 이 백성들 가운데에는 모든 시대의 나의 제자들과 증인들이 있으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던 이 시기가 지나고, 내가 선택한 이 수단을 통해 나의 가르침이 마무리되면, 나의 영이 풍성하게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 각자는 자신의

은사와 능력이 꽃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조차도 놀라게 될 정도로 말이다.

8. 너희의 영으로부터 너희의 은사가 강력하고 힘차게 솟아날 것이니, 이는 허영의 원인이 될 장식물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과 말과 사랑의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 줄 미덕과 본보기가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지극한 겸손과 온유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펼쳐질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미래에 대해 여러분에게 묻고, 여러분의 모임으로 달려와 여러분의 증언을 듣고, 닥칠 중대한 시련에 맞서며, 자신들 앞에 놓일 갈등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9. 현재 너희의 성장은 아직 미미하며,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은사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려고 허락한 어떤 기적을 직접 목격하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다른 원인으로 돌린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 너희의 믿음은 완전해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은사와 특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10.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예언을 불어넣는 이는 바로 나다. 예언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온 적이 없으며, 사람은 단지 통로에 불과했다. 예언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정해진 한계 내에서 그것을 해석할 기회를 허락한다. 그러나 더 큰 지혜를 담고 있는 것들은 오직 나만이 너희에게 설명해 주리라. 준비되지 않은 채 그것을 파헤치려 할 때마다, 너희는 잘못된 해석에 빠졌다.

11. 나는 너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미리 알려 주었다. 지금은 큰 성취의 시기이다. 이 사건들은 내가 제1시대와 제2시대에 나의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주었던 모든 예언들의 해석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미 말을 했으니, 어떤 이들은 옳게 말했고 다른 이들은 그르게 말했다.

내가 인간의 탐구 능력에 맞춰 허락한 예언들은 올바르게 이해되었다. 그러나 오직 나만이 해석하고, 설명하며, 성취할 수 있었던 것들은 사건들과 시련을 통해 내가 밝혀 주었다.

12. 지금은 인류에게 결정적인 시기이다. 곧, 내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는 다양한 시련을 통해 인간이 깨어날 시기이다. 나는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고, 너희의 입이 내 가르침을 알리기에 합당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나는 너희에게 겸손을 입혀, 비록

너희가 아는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은사를 지녔더라도
단순하게 살게 하리라.

13. 비록 너희가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예언이 너희의 영혼과 육신을 관통하도록 허락하라. 너희의 의무는 그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너희가 증언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도 내 예언의 참된 의미를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와서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준 예언이 지극히 위대하고 지혜로웠던 것은, 인류가 계속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그곳에 거하며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인류에게 주려는 계시가 지극히 위대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선택받은 자에게 이 환상을 허락하였고, 너희에게 그 해석을 알려준다."

14. 너희는 초기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 중 한 사람인 요엘이, 그가 군중들에게 선포한 내용을 이해했다고 믿느냐?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때가 오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늘에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땅에는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해는 검게 변하고 달은 피처럼 붉어질 것이며, 땅에서는 연기 와 수증기가 솟아오를 것이니, 그때 주님의 위대한 날이 매우 가까워질 것이다."

15. 예언자는 자신이 말한 것의 중대함을 깨닫지 못했으나, 진실함으로 그렇게 했다. 그는 나의 통로이자 대변자였으며, 그의 영혼은 순수했고 입은 합당했으며, 그 예언은 샘에서 솟아나와 개울을 따라 흐르면서도 오염되지 않는 수정처럼 맑은 물과 같았다. 그리하여 그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순수함을 유지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한 가지 방식으로, 다른 이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언된 그 위대한 날이 매우 가까워졌으며,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예언자의 말씀을 입증하고 있다.

16. 눈을 뜨고 영혼을 준비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헤아려 보라. 그러면 너희는 이미 그 시절에 예고되었던 징조들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사실 그 자체로 그 말씀들의 설명과 성취를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예언들에 부여한 해석이다.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어려운 사명의 성취를 위해 준비시키노니, 너희 입술에서 오직 진리만이 나오게 하고, 너희가 가는 길을 분명히 보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진리를 말하고 증언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믿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내게 맡기고 울지 말라. 항상 앞으로 나아가며 결코 침묵하지 말라. 너희의 입이 신뢰와 용기를 가지고 말하며, 언제나 그 사명을 다하게 하라. 너희의 온 존재가 평화를 발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단지 말뿐만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이다.

18. 평화를 가꾸고, 사랑하며,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인류는 그 평화를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가! 삶의 변덕스러운 운명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강인함을 유지하며 너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준비를 하라. 모든 영혼의 유산인 그 평화는 이 시대에 사라져 버렸고, 전쟁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국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제도를 파괴하며, 영혼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그 이유는 악이 인간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증오와 무분별한 야망, 제멋대로인 탐욕이 퍼져 나가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나는 여러분의 해방이 이미 가까워졌으며, 형제애와 순수함, 건강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숨 쉬기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 나의 제자들아, 이미 시작된 이 거대한 싸움에서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는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에서, 내 가르침이 인류를 위한 최고의 길잡이임을 알고 있기에, 싸우고 그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헤아릴 수 없는 열망을 봅니다. 너희의 평화와 도덕적·영적 권리를 위해 싸우라. 그러면 너희가 선함 속에서 강해졌다고 느낄 때,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것은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이슬처럼 너희 이웃들의 마음에 스며들 것이기 때문이다.

20.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주변 사람들과 멀리 있는 이들, 즉 이 세상에 사는 이들과 그 너머에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도 치유의 연고가 될 것입니다.

21.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를 전한다. 전쟁의 고통스러운 투쟁 속에서 육신을 잃은 모든 영혼들은 '영적 계곡'으로 이끌려 갈 것이며, 그곳에서 빛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너희의 기도를 기다리며 머물게 될 것이다.

백성이 열렬하고 깊은 기도로 하나가 되는 이 순간, 그 존재들은 영적인 찬양의 노래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초대하는 너희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단 한 순간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빛은 선명할 것이며, 이 순간부터 그들은 승천을 위해 싸우러 나설 것이다.

22. 1950년 이후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시련은 매우 클 것이다. 인류는 매우 쓰라린 잔을 비워야 하고, 매우 가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류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인류의 영혼은 완전함과 진정한 사명에 관해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사람들이 겪게 될 모든 시련은,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불러일으킨 것이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영혼들은 환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지구에서 '영적 계곡'으로, 그리고 다시 지구로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며 베푸는 이 은총, 이 사랑과 정의의 증거는 그들이 낭비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가 지상의 열매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지구로 돌아오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승천을 위해 투쟁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왕국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3. 나는 처음에는 온유함으로 너희를 부르며, 너희가 싸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엄한 어조로 부르며 다시 한 번 너희를 일깨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목소리에 따르지 않는다면, 정의가 온전히 발동하여 너희를 깨우쳐, 너희가 눈을 뜨고 새로운 날의 빛을 보게 할 것이다.

24. 나는 너희가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보고,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 눈앞에서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을 보아도 당황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너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러한 시련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 모든 영혼은 과거에 스스로에게서 거부했던 것을 되찾기 위해 이 땅에 왔으며, 너무나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오직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만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25.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너희에게 어떤 고통도 원치 않는다! 이 땅에서 위안과 치유를 찾지 못한 그 피조물들은, 영의 계곡에 도착하는 그 순간, 높은 저 세상으로 인도받기 위해 나로부터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자녀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목자이므로 그들에게 그것을 준다. 그들의 모든 고통은 내 안에서 메아리치고, 무의미한 전쟁에서 흘린 모든 피는 내 빈 손바닥으로 흘러들며, 인류의 모든 눈물은 내 얼굴을 적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숨겨져 있고 비밀스러운 존재조차도 나에게는 매우 가깝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피조물들을, 나는 그들의 비참함에서 구해내어 다듬어,
그들로부터 맑고 투명한 갱신과 회개, 그리고 사랑의 물이
흘러나오게 할 것입니다.

26.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말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기뻐하며, 날마다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느낀다.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정해 놓은 큰 시련들을 겪어낸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만족인지 깨닫고 있다. 왜냐하면 그 시련들 하나하나가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이끄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27. 나는 이 사역 안에서 다양한 임무와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기 위해 많은 자녀들을 부르셨으며, 너희의 성장 단계와
재능에 따라 그들을 너희에게 맡기셨다. 나는 이 모든 이들을 모아
내 백성, 나의 새로운 사도 무리를 이루었다.

일부에게는 지도자의 직분을 맡겼으며, 그들의 임무가 무겁고
힘들지 않도록 백성을 여러 공동체로 나누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대변자의 은사를 맡겨, 이 기적을 받아들이기
위해 모인 무리들에게 내 영감이 인간의 말로 구현된 것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지력의 특권을 주어 그들을 예언자로
삼았고, 그들의 매개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게
하였습니다.

"기둥"의 임무는 백성이 순례의 여정에서 지탱해 주고, 청중
무리와 함께 십자가의 짐을 지는 데 도움을 주는 교회 지도자들의
조력자가 되도록 부여받은 자들에게 주어졌다.

28. 다른 이들은 중재의 은사를 받았으며, 이들은 영적 세계의
도구로 훈련되어 그 세계가 전하는 메시지, 즉 나의 사역에 대한
해설을 전달하고, 또한 병자들을 위한 위로인 치유의 향유를 지닌
자로서, 그들의 치유적인 영적 기운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함께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길
책에, 이 시대의 나의 계시, 가르침, 예언을 기록하는 이를 나는
"금붓"이라 불렀다.

"초석"의 직분은 백성들 가운데서 굳건함과 안정, 그리고
강인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이들에게 내가 부여하였다.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말과 조언, 그리고 모범은 바위처럼 변함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나의 계시의 이 시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으므로, 나는 모든 직분을 바로잡으며, 이처럼 중대한 임무를 맡도록 선택된 모든 이들에게,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깨닫도록 부름을 내린다. 이 성찰의 시간에 나는 모든 이를 곁에서 돕겠다.

29.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택했을 때 실수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알고 있으며,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누가 기꺼이 율법을 이행하는 데 헌신할지, 누가 그 길에서 약해질지를 알고 있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며, 모든 이에게 내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고, 모든 이에게 똑같은 양식을 제공하여 너희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내 제자가 될 동등한 권리와 똑같은 유산을 소유하게 하려 했다.

30. 나는 어떤 이들은 나의 지시를 이행하고 아주 곧 나의 말씀을 따를 것임을 알았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오류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은사는 그들의 영혼 속에 잠재된 채, 그들이 깨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 모두는 나에게로 와야 하며, 모든 이에게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온전해질 것이며, 내 곁에서 나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기 위해서는, 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너희가 아직 이 모습으로 나를 곁에 두고 있는 이 며칠 동안 깨어 기도하며, 내 말씀에 마음이 감동받아 너희 존재 속에서 순종과 화합,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솟아나도록 하라.

31. 머지않아 사자들이 길을 떠나 서신을 전할 것이다. 그들의 깃발은 너희가 받은 나의 말씀과 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평화와 선의의 사명을 띠고 떠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엄숙한 날에, 너희가 준비된 모습으로 내 앞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32. 이미 지금부터 너희에게 알려 주노니, 나의 가장 마지막 가르침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고 있는 것들보다 더 길지 않을 것이다. 그 가르침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모든 가르침만큼 짧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위대한 마지막 교훈은 지난 3년 동안의 가르침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내가 내 영의 사랑의 불꽃으로 너희 영혼에 새겨 넣은 책으로, 1866년부터 너희에게 계시해 온 모든 것을 요약해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책 속에서

나는 너희에게 태초부터, 심지어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일들까지, 그리고 인류의 발전 과정—가장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 책에서 나는 과거의 위대한 시대 동안 너희에게 주었던 나의 모든 가르침과 너희의 시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책에서 나는 과거 모든 시대와 미래의 계시들을 해석이나 성취 없이 하나로 통합했다. 그 안에서 너희는 지금 지상에서, 그리고 그 후 영의 계곡에서 너희 영혼이 발전해 나가는 길에 대한 준비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3. 나의 이 마지막 가르침은 올해 1950년의 마지막 날에 끝날 것이나, 이것이 너희와의 마지막 소통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기도하고 나와 영적 교제를 나누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너희 인간과 다양한 생명 세계를 거하는 모든 존재들은 나의 영에 접근할 수 있으며, 나는 너희의 영 안에 거하고 있다.

이 말씀이 끝났다고 해서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거나, 공허함이나 침묵을 느끼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너희 아버지의 조화롭고 끊임없는 교향곡을 듣고, 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나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십시오.

34. 너희가 이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너희의 모든 힘과 영적 깨달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고 명상하며 내 말씀 주위에 모였을 때, 너희는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아이들은 감동을 받을 것이며,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임재를 앞두는 징조를 감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미묘한 방식으로 나를 드러낼 것이다. 모인 모든 이들이 나를 느낄 것이며, 이러한 모임에는 엄숙함이 깃들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영적인 분위기가 감돌 것이다.

"영적 세계" 또한 너희의 뇌를 거치지 않고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며, 너희가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타나 너희의 시련을 돕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자비와 보호를 쏟아 부을 것이다. 영적 세계는 너희의 마음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결정이 없도록 지켜볼 것이다.

이 준비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모임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여러분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하나로 연합하여 기도하며 영적 수련에 깊이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35. 내가 떠나고 난 후 사도들이 기념했던 그 오순절을 기억하라. 그들의 영혼은 내 계시를 주의 깊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었을 때, 내 영이 내려와 그들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셨으며, 그들의 온 존재가 빛을 받아 다양한 언어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36. 그러므로 나는 너희 가운데서 이러한 모임을 원하노라. 오, 제자들아, 언제나 그러하리라. 너희가 모일 수 있을 때마다 내 이름으로 모이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고, 내 비밀 보물창고의 내용을 너희에게 드러내 주리라.

나는 너희 삶의 모든 순간과 날들을 너희에게 맡기니, 그중 잠시라도 경건의 시간으로 삼으라. 그러나 나는 일곱째 날을 다시 한 번 거룩하게 하여, 그날 너희가 나와 교제하게 하겠으며, 나머지 날들은 서로 사랑하고, 내 가르침 중에서 잘 이해한 모든 것을 실천하는 데 쓰이도록 하라. 그러나 너희가 모일 때 특별한 모임 장소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집, 소박한 침실, 강가나 산, 강둑, 혹은 사막도 나에게는 똑같은 장소가 될 것이다.

37.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내 제자임을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지 말라. 너희 입으로 말하지 말고, 너희의 행실이 말하게 하라. 너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영적 이스라엘이 영혼에 빛을 밝히고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명 속에서 하나가 되어, 내가 야곱의 꿈과 계시 속에서 그에게 말한 대로 될 때, 세상은 영적 이스라엘을 인정할 것이다: "내가 네게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크고 수많은 자손을 주리니, 네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38. 아직 지상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제2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그들의 분열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물질을 위해 살고, 다른 이들은 영을 위해 산다 – 어떤 이들은 *한* 왕국을 세우고, 다른 이들은 *또 다른* 왕국을 세운다. 나는 어떤 이들은 세상과 그 금을 위해 사는 반면, 다른 이들은 나를 찾으며 가난 속에서도 행복해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들, 즉 평화와 신성한 계시에 책임을 지는 이 거대한 영혼의 군단을 단합시키게 되면, 이 지구와 심지어 하늘마저도 뒤흔들릴 것이다. 그들의 연합은 세상에 그토록 큰 힘과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사명은 널리 알려질 것이며, 내가 이미 지금 너희에게 맡긴 너희의 메시지는 내가 인류에게 세 시기에 걸쳐 유산으로 남긴 유언을 하나로 통합할 것이다.

39. 너희 영혼이 내가 너희에게 맡긴 모든 것을 간직하는 그릇이 되도록 하라. 너희가 이제 걸어가게 될 길에는 험한 구간도 있고,

엉겅퀴와 가시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무와 꽃들이 너희의 여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구간들도 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고 끝에 다다랐을 때, 연합의 날, 구원의 날, 그리고 영원한 평화의 날이 너희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40. 이제 멀리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라.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언을 베풀며, 고통받는 인류에게 온갖 위로와 치유제가 되어 주십시오.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 낯선 사람을 지나칠 때, 마음이 움직여 그 사람을 위해 영혼으로 기도하고, 그 형제의 고통을 내게 맡긴다면, 너희가 그 고통을 내게 맡겼으므로 내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리라.

41. 너희 자신을 알아가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은사를 발견하며, 너희의 영적 지식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의 도덕적, 영적 수준을 높여주었음을 깨달아라.

42. 너희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직관과 사랑을 갖추어라.

43. 너희 중 어떤 이들은 기도 중에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제 근심을 말씀드리고, 제 삶을 보여 드리며, 제 계획을 주님께 알려 드려야 합니까? 제가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께서는 제 잘못을 보시는데, 왜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저에게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44. 이 기도를 마친 후, 너희는 황홀경에 빠져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주심으로써 허락해 준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드렸다. 그 말씀 안에는 너희의 인간적 삶을 위한 영적 양식과 축복이 담겨 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36

1. 나는 너희 영혼이 나의 율법을 깨닫게 하려고 큰 자비로 너희에게 내려온다. 이 시기에 나는 너희가 빛과 완전함, 그리고 진리의 길을 걷도록 넓은 지평을 보여주었다.

2. 나는 너희가 내 가르침을 알지 못한 채 내일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결코 보여준 적 없는 그릇된 길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내 가르침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남겨두고자 하며, 너희가 눈먼 자들과 무지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 그들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너희는 겸손해야 하며, 너희의 은사를 통해 인류에게 나의 계시에 대해 증거하여,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이 제3의 시대에 너희 가운데 계신 나의 임재를 믿게 하라. 너희 동료들이 너희에게 '너희는 잘못된 스승을 따랐다', '너희는 무지하다', '너희는 미덕이 없다', '너희는 강하지 않다'고 말하게 할 빌미를 주지 말라.

아니라, 이스라엘아, 나는 내 영에 이러한 고통이 있기를 원치 않으며, 내가 떠난 후 인류가 너희의 준비 부족을 탓하는 일도 원치 않는다. 나를 듣지 못한 자들이, 너희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전한 나의 계시를 기억하며 감동을 받고, 나의 황금 깃펜으로 기록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영혼을 양육하기를 원한다.

4. 나는 너희가 조언으로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격려의 말로 낙담하고 절망한 자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나, 내가 인류를 위해 너희에게 남기는 자비는 영적인 것이다. 물질적 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평화와 건강을 잃은 이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들에게도 너희에게 맡긴 것을 베풀어야 한다.

5. 너희는 나를 따를 때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라. 왜냐하면 대변자들을 통한 나의 계시가 끝난 후에도, 너희는 계속해서 이 신성한 대의, 즉 흠이 없고 인류에게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 가르침의 충실한 전사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행실을 통해 나의 진리를 증언해야 한다. 나는 너희가 이 가르침을 단지 말만으로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6. 나는 내 율법을 너희 영에 새겨 두어, 너희가 이를 이웃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인류가 그 율법에 이끌려 더 이상 자신의 길에서 비틀거리지 않도록 하리라.

7. 이 시대에 사람들은 나를 들었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계시한 진리인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처음에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지식을 인류에게 가르칠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8. 이스라엘아, 네 이웃들에게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라. 내가 너희가 어리석은 자들 앞에서 무지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치 않는다. 아니, 내 백성아, 너희는 설득력 있는 말과 자신감을 가지고 말해야 하며, 이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과 계시,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너희는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그에게 상향 발전으로 가는 길을 보여 주도록 정해져 있다.

9. 새로운 세대들은 나를 찾아야 *한다*. 내가 성숙한 영혼들을 땅으로 보내리니,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어리석은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영혼이 그 가르침들이 만족스럽지 않음을 깨닫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인 너희에게로 돌아와, 너희가 그들에게 나의 영적 사역을 온전히 명확하게 보여 주기를 바랄 것이다.

10.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가는 길에서 당황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필요로 하고 구하는 모든 이에게 내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1. 나는 너희가 나를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의 아버지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가 전하는 계시를 받아들여 내 평화로 가득 차게 되고, 열정과 순종, 그리고 행동력으로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설 수 있도록 하리라.

12. 나는 인류의 고통이 너희에게 무관심하게 지나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그들의 궁핍—전염병과 재앙, 그리고 모든 고통—을 느끼고, 그들이 나의 자비를 얻도록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13. 사람들이 너희에게 가하는 모든 모욕은 너희에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들의 영혼에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경멸받는 자들을 인내로 맞이해야 한다. 때가 되면 모든 이가 나의 진리를 확신하게 되고, 너희가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4. 많은 이들이 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왜 전쟁이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너희는 이웃들에게 올바르게 대답할 줄 알 것이며, 신성한 심판의 때에 아버지께서

교만한 자들이 서로를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신다고 말해 주리라. 그러나 그 후에는 내가 그 싸움에 한계를 두어, 그들이 나로부터 평화를 얻게 하리라.

15.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이 말씀은 너희가 혼돈 속에서도 영혼의 평안을 지키도록 너희 길에 비추는 빛이다. 이스라엘아, 내 모든 말씀이 너를 만족시켜 주었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 가르침을 단지 습관적으로 듣기만 하지 말고, 너희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실제로 실천하라.

16. 이스라엘아, 내 영이 죄와 불신에 맞서 얼마나 힘겹게 싸워야 하는지 깨달아라. 내 자녀들이 나를 이해했음을 볼 때, 내 영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며, 너희의 순종은 꽃향기처럼 아버지께 닿는다.

17. 이스라엘아, 내가 네가 내일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종파들과 교회들이 주님께서 그토록 큰 사랑으로 빛을 주신 수많은 군중들을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렇다, 내 자녀들아, 그러나 그들은 밀과 가라지를 함께 전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말씀으로도 고쳐지지 않은 마음들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거짓된 말로 양우리의 양들을 흩어 버리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니, 백성들이 내 일이 눈송이처럼 순수하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리라.

18. 내 백성아, 놀라지 마라. 항상 깨어 살며 충실한 파수꾼이 되어라. 너희가 잘못되었다고 설득하기 위해 너희 형제자매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굳건히 버티라. 내가 나의 대의에 충실한 "전사들"–즉, 세계관과 신조, 종교가 혼란스러운 이 어려운 시기에 맞서 싸우는 너희 중의 이들에게 큰 상을 주리라. 너희는 내 사역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존중해야 하며,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남겨 줄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더라도 내버려 두어라. 내 성령의 빛이 그들에게 닿을 것이며,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회개가 깃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 굳건히 서서 깨어 있으라. 어려운 시기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시기에 사람들은 나의 사역 에 다가와 그것을 파헤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그 시기를 헤쳐 나가도록 도울 것이니,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너희가 잠시 어둠에 휩싸일 때, 내가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 너희를

비추고, 굶주린 늑대의 입에서 너희를 구원하며, 빛과 진리의 길을 보여 줄 것이니라.

20. 나, 너희의 스승은 너희를 둘러싼 모든 영광과, 너희가 영성화의 부족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고 내면에 숨겨 두고 있는 영광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21. 나는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언제나 내 진리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온전한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22. 인생은 인간에게 언제나 고통스러웠으니, 이는 그가 자신 안에 지닌 많은 은사를 늘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삶이 의미하는 멍에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종종 낙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부르는 나의 목소리와, 너희에게 믿음과 삶의 용기, 기쁨,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는 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기분 좋은 놀라움을 선사했다.

23. 오직 믿음만이 영혼으로 하여금 강함을 느끼게 할 수 있기에, 나는 나의 가르침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불태우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 믿음을 되살린다. 너희는 장차 강하고, 모범적이며, 순종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힘은 나의 법에 대한 믿음에서 솟아나야 한다.

24. 나는 더 이상 너희 눈에서 눈물을 보고 싶지 않으며, 영적인 이상 없이 대신 걱정과 육체적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의 무거운 짐을 너희가 견디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25. 이제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느끼라. 너희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것을 내게 구하는 법을 배우라. 내가 신성한 위로자임을 기억하여, 너희가 고난 속에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라. 고통은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지,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두라. 고통은 너희를 정화시켜 주어야지, 쓰라리게 해서는 안 된다.

26. 이미 이 땅에서 너희 영혼을 충만하게 할 그 행복을 얻으라. 그 행복은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첫 열매를 맺게 하여, 너희가 낙담하지 않고 삶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7. 내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 영적으로 고양되어, 너희 존재 전체를 통해 나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라.

28. 그 당시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을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 몸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마치 내가 내 자신의

몸으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를 통해 내가 드러나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진정으로 영화된 자가 되어 너희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될 것이다.

29. 너희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들여보내라. 그래야 너희가 고통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만물과 만 세계의 주인인 내가 거지의 겸손함으로 너희에게 다가오니, 나의 유일한 간청, 간절한 소원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너희의 이해와 통찰을 통해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0. 모든 자녀는 내 영의 일부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은 곧 내게 행하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마음에 걸리지 않는가? 너희는 같은 영이자 같은 '육신'인데, 어찌하여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가? 너희는 내가 태초에 창조하여 시대를 거쳐 발전하고 온전해지도록 한 나의 작품이다.

31. 오늘날, 이 큰 시련의 시대에 오직 너희의 믿음만이 너희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며, 문을 열고 너희의 여정을 안내해 주는 강력한 열쇠인 간절한 기도가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32. 이 시대의 인류는 예전보다 믿음이 약하고 경건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희 이웃들에게 내 영적 계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너희의 사명은 매우 막중할 것이다. 인류는 너희에게 의구심과 준비 부족을 드러낼 것이며, 너희는 끈질기게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에 부딪히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이 시기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그러면 오랫동안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을 믿어 온 이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 온 형제애와 평화가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만족스럽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33. 이미 가까워진 그날, 땅에 사는 이들은 사랑을 이 생명의 근원으로, 그리고 모든 시대를 통해 사랑의 행위가 이루어낸 모든 아름다움과 완전함의 근원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내가 왜 이 시대에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영적 계곡'에 머물며, 그곳에서 이 세상에 뿌렸던 씨앗이 배가되는 모습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34. 내 모든 영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겸손하라. 너희의 은사를 통해 나를 드러내게 하라. 너희의 은사를 통해 내가 너희 이웃에게 다다르게 하라. 너희의 입술은 고통받는 자들의 귀에 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빛이 필요한 자들 앞에 나의

지혜를 드러내야 한다. 너희의 손은 나를 섬기며 어루만지고, 너희의 눈은 자비와 다정함, 또는 긍휼로 바라보아야 한다.

35. 너희는 내가 가르쳐 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서 충만함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에게 그분의 진리를 부어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오직 그들의 고양만을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36. 너희가 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르침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져 마치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놀라움은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계시했던 것의 핵심을 탐구하지 못한 너희의 소홀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가르침이 너희에게 낯설거나 새롭게 느껴질지 모르나, 사실 이 빛은 항상 너희 삶 속에 존재해 왔던 것이다.

37. 오늘 너희의 이성은 폭풍 속의 연약한 배처럼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다. 그러나 그 배는 전복되지 않을 것이며, 놀라운 힘이 그것을 지켜줄 것이다. 모든 번개는 깊은 밤의 희망의 불꽃이 될 것이며, 폭풍우가 마침내 그치고 새로운 날이 평화의 메시지처럼 찾아올 때,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과 사랑, 감사가 가득한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올 것이다. 여러분은 시련을 겪고 나서 영혼이 더욱 강해졌음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 덕분에 여러분에게 어둠과 수수께끼로만 여겨졌던 것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8. 너희가 내면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어 나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영성이 진정하게 깃들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나로부터 받은 그대로 그것을 전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9. 또한 내가 너희를 보내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전에,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가 이 인류에게 쏟아 부은 위로의 향유로 너희의 존재를 씻어 주었음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40.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리로 오라. 지식과 자비가 넘쳐 흐르는 근원으로 오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므로, 나를 진정으로 알아가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41. 너희의 입술이나 생각이 나에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고통을 불쌍히 여기소서 – 주님, 저에게 용서를 거절하지 마소서"라고 말할 때마다, 너희는 너희의 무지와 혼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잘 알지 못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42. *내게* 너희의 고통에 동정심을 가져 달라고 말하다니? 내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청하다니?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게* 간청하다니 – 사랑과 은총, 자비와 용서, 그리고 연민 그 자체이신 *나에게*?

43. 땅 위에서 마음이 굳은 자들을 감동시키려 하고, 이웃에 대한 연민의 흔적조차 없는 자들에게 눈물과 간절한 간청으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너희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려는 그분을 감동시키기 위해 그런 말이나 생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4. 이제 너희가 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나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적다'고 말했는지 이해하느냐? 때로는 너희 입에 잔이 매우 쓰게 느껴지거나, 고통스러운 시련이 너희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말하곤 한다. "주님, 이 형벌을 저에게서 치워 주시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 어둠 속에 있는 너희 사람들아, 너희를 고통 속에 가두려는 것이 내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고통을 만들어내고, 너희 잔을 괴로움으로 채운 뒤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45. 이곳의 빛의 근원으로 오라. 그리하여 너희의 영혼과 이성이 비추어지도록 하고, 그 후에 나를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심판자로 알아가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지칠 줄 모르는 스승인 나는, 이스라엘아, 네 불순종과 무지, 그리고 내 율법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점을 개의치 않고 네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신성한 말씀을 통해 나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잘못과 약점, 무지를 깨닫게 한다. 나는 너희가 내가 유산으로 맡겨 준 밭에서 일하러 나설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다.

46. 이것이 바로 스승께서 모든 시대에 제자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이를 통해 제자는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마주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

47. 내 말씀은 영혼의 준비 상태와 성숙도에 따라 너희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나는 나의 신성한 빛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죄와 어둠의 세상으로 내려온다. 나는 너희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며 너희에게 온다. 그러나 내가 나의 신성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너희는 내 말씀이 너희 영혼을 깨우기 위해 너희 마음을 감동시켰음을 느꼈기에 고통을 겪는다.

너희 육신이 들은 말씀은 그 입맛에 맞지 않았으니, 이는 너희의 물질주의가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모든 말씀의 신성한 의도,

핵심, 그리고 영감의 힘을 깨닫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나라. 너희 영혼이 쇠사슬을 끊고 내게로 올라와, 나의 신성한 말씀을 듣고, 너희의 물질적 본성이 영혼을 통해 스승이 너희에게 전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48. 너희가 마음속에 사랑과 신성한 평화의 씨앗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세상은 너희의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49. 사람들은 너희가 제2시대의 제자들처럼 싸우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너희는 용기를 잃곤 하며, 동료들이 너희를 사기꾼이라 부르며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너희는 베드로처럼 행동하여 길 위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너희를 준비시킨 은총을 부인하며, 다시 물질주의에 빠져 그 은총을 잃어버린다.

50. 너희는 불신자들을 설득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말을 전해야 한다.

51. 자유 의지를 지닌 사람들은 지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통일을 외치고 있다. 그들은 조화를 추구하며, 자신들 안에 빛이 있고 평화를 창조할 힘을 부여받았음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나 그 사기꾼들은 내가 너희에게 책임으로 맡긴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보물과 새 언약의 궤를 너희 손에서 빼앗아 가려 하며, 너희를 다시 파라오의 종들, 어둠의 노예들로 만들려 한다. 그들은 무지함으로 인해 악과 이기심, 그리고 독선의 사슬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자들이다.

52. 나는 너희에게 단지 제2시대의 사도들과 모세의 사명 완수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아니,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에게 나사렛 예수님의 사명 완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그분은 당시 너희에게 지극히 완전한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53. 바로 이 예수님의 권능 중에서 내가 너희에게 일부를 주었으니, 너희가 그분처럼 고통받는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4. 나는 인간에게 다른 율법도, 다른 가르침도, 다른 길도 제시하지 않았다. 인류가 지금 걷고 있는 샛길을 닦아낸 것은 바로 인간들 자신이다. 그러나 너희는 올바른 길 위에 있으며, 나의 사랑과 빛을 누리고 있다.

55. 그러나 너희 백성아, 돌들이 내 임재를 증언하기를 원하느냐? 아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영혼과 육신에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6. 선택받은 백성아, 네가 파멸하고 인류가 너희를 나의 제자이자 내일의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스승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신성한 뜻을 이해하고, 세상이 생명나무를 알게 되어 그 나무에게로 나아오게 하도록 공부하고 탐구하라.

57.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가 대변자를 통해 나의 신성한 말씀을 듣게 될 기간은 짧다. 그러나 내 백성의 수에는 단 한 영혼도 부족하거나 넘쳐서는 안 된다. 1950년 말까지 14만 4천 명이 내 면전 앞에 모여, 너희가 어려운 사명을 완수하고 열방으로 나아가 빛과 자비와 진리를 전하기 위해 따라야 할 마지막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세상은 내 선택받은 자들이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내 신성한 영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칠 줄 모르는 스승이 너희에게 가르침의 또 다른 한 마디를 주시니, 이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따르라.

58. 나의 계시는 빛과 평화, 그리고 너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너희가 새롭게 거듭나야 할 길을 보여준다. 내가 너희에게 그 길을 걷도록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사랑을 통해 힘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로 하여금 확고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할 힘이며, 너희를 인류에게 나의 임재에 대한 충실한 증언을 전할 참된 제자로 변화시킬 것이다.

59.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나는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너희 마음속에 성소를 세워, 너희의 믿음을 횃불처럼 나에게 바칠 수 있도록 빛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 영혼이 나에게로 치솟아 나와 하나 되기를 바란다.

60. 나는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주님, 왜 저를 멀리 떠나 계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인생의 여정에서 홀로라고 느끼나요?"라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백성아: *나는* 결코 내 자녀들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부족하여 너희 스스로 나를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61. 세상은 너희를 오해하고 너희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부르짖었을 때, 나는 자비로 너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주었으니, 나의 자비가 크고 너희가 파멸에 이르게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와 인류를 위한 구원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62. 나는 너희를 내 하늘 식탁의 가장 훌륭한 음식으로 먹여 주었고, 너희가 너희 스승처럼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다.

63. 나는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 두니,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어 너희 가운데 계신 나의 현존을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 너희가 인류의 지팡이가 되어 구원의 배를 가리키게 하려 함이라 – 어둠 속에서 나의 빛이 비추게 하고, 너희가 세상에 고양되도록 가르치며,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하여 나의 신성과 대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노라, 백성아, 너희가 제3시대의 종들이 되어 군중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수정처럼 맑은 물을 베풀게 하려 함이니라.

아이들은 이 타락과 개념의 혼란, 물질주의의 시대에 방황하고 있다. 세상은 마치 눈먼 자처럼 길을 가고 있으며, 이들은 은혜의 삶에서 죽은 자들이요, 멸망해 가는 인류로서 다시 한번 나에게 고통의 잔을 마시게 하고 있다. 그들에게 새로운 날의 빛을 보여주고, 내 임재를 느끼게 하며,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하라.

64. 너희가 대변자를 통해 내 말씀을 듣게 될 순간들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신성한 말씀은 인류 앞에 펼쳐진 책과 같아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너희 마음과 영혼에 새겨, 너희를 비추는 빛으로, 인류를 인도할 횃불로 보여 주어야 한다. 인류는 너희가 받은 열매를 갈망하며 여러 길을 통해 다가올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자신 안에 은총의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생명나무의 열매이며, 그 열매로 양식을 얻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 그 안에 영생을 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열매로 양식을 얻은 너희는, 너희 영혼이 부활하여 – 모든 족쇄를 끊고 – 높이 솟아오르도록 허락해야 한다.

65. 너희 마음을 평화와 선의로 채우라. 세상에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나타나는 빛의 영혼들이 되어, 주님께 참된 교회를 세우는 법을 깨달은 자들이 되라.

66. 나는 너희가 나를 듣기를 원치 않았던 이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돌이켜, "죽은 자"에게 생명을, "눈먼 자"에게 빛을 주는 것을 보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손에 들고 보여 드려야 할 황금 씨앗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우고, 너희 영혼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물인 나의 가르침을 너희에게 준다. 이는 내가 내 말씀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평화를 느끼게 하였고, 그 평안으로

너희를 감동시켜, 내 성령의 빛으로 가득 찬 이 길을 걷게 하였기 때문이다.

67. 나는 너희의 잘못을 보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에게는 오직 아버지로만 계신 내가 내 말씀을 주노니, 너희가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새롭게 되고 내 자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나의 영적 은총으로 옷 입은 모습을 보고자 하며, 너희 모두가 나의 성령의 빛으로 똑같이 비추어지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너희가 – 사랑과 믿음, 선의로 하나 되어 – 세상에 나의 일을 알리는 강인한 이스라엘이 되어, 사람들이 너희 안에서 나의 사자, 나의 사절 – 진정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준비를 마친 영혼들 – 을 보게 하려 함이다.

68. 너희는 날마다 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나는 너희가 장차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영적인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는 스승이다.

69. 나는 너희가 나의 신성한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내 힘을 준다. 나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사람들이 다양한 길로 찾아 헤매는 진리가 너희 안에서 드러나도록 너희의 이성을 비춘다.

70.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인류가 진리의 빛 속에서 아버지의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나는 그들이 큰 오해 속에서 나의 고귀한 뜻에 간섭하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며 나를 아직 이해하지도 못한 채 나의 비밀스러운 보물 창고를 탐구하려 드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71. 나의 가르침은 인류가 자신을 비춰 볼 수 있는 맑은 거울이 될 것이니, 인류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내 말씀이 그들을 회심시키고, 나를 사랑하며 새롭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라.

72. 나는 너희에게 나의 평화의 깃발을 주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세상에 실감 나게 하도록 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맡긴 평화는 내 영의 평화이니, 곧 너희의 영을 고무하는 평화이며, 내 사랑에서 태어나 인류가 나의 현존을 깨닫게 해 줄 평화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바로 이 평화이니, 너희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내가 평탄하게 닦아 놓은 길 위에서 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영혼은 너희를 정화하고 정련하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은사와 힘을 지니고 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나 에게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은

고통뿐만 아니라, 내 법에 대한 순종과 너희의 선한 행실이기도 하다.

73.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산을 오를 것이다. 너희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는 스승처럼 인류 가운데 순종의 발자취와 겸손의 모범을 남겨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빛나는 길잡이가 되어, 후세들이 너희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영성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평탄한 길을 남겨주어야 한다. 너희는 진리의 씨 뿌리는 자들이 되어, 세상이 더 이상 심연으로, 즉 세상이 예로부터 키워온 적대감 속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4. 내 백성아, 준비하라. 세상은 내 진리를 이해하기를 갈망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라. 그들의 정화 과정이 험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보물창고에 너희를 위해 간직해 둔 자비 또한 크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받기 전에, 그것을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그것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7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궁핍한 자도, 연약한 자도, 눈먼 자도 아니다. 내 빛이 너희를 비추었으니, 너희가 이 시대에 내 임재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하려 함이라. 후손들이 너희 곁에서 평온한 안식처를 찾아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무지나 악함을 보지 말고 은혜의 근원으로 인도하라.

그들이 나병을 앓고 온다면, 너희는 치유의 연고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을 고쳐 주라. 살인자가 너희에게 온다면, 너희의 영적인 망토로 그를 감싸 주고,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쳐 그를 수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고 구원해 줄 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라. 이 영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내 말씀과 빛을 갈망하여 너희 문 앞에 온다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웃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준비시켰으니, 너희가 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말이다.

76. 그리하여 너희가 가는 곳마다 번영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고 나의 임재를 느끼며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를 찾아야 하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평화와 선의를 키워야 한다. 그러나 너희 는 바로 이 가르침을

전할 자들이니, 너희는 그들의 어둠 속에서 빛줄기처럼 빛나야 한다.

77. 너희의 싸움은 가까워졌다. 너희는 그것이 빛과 어둠의 싸움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대의를 위한 전사가 되어, 너희의 깃발을 휘날리고 내 말씀의 검을 움켜쥐며, 너희 주님의 군대가 이 세상의 어둠과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78. 지금이야말로 내가 모든 영혼을 깨우치고, 수세기 동안 견뎌온 속박에서 세상을 해방시키는 때이다. 그러나 전쟁이 번성하고 죄가 온갖 열매를 맺은, 악과 적대감, 악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존재를 뚜렷이 드러내야만 한다. 이 세상이 용광로 속의 금처럼 정화되어 은총의 삶으로 부활하고, 인간이 영혼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9.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창조물 중 가장 소중한 것, 즉 영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단지 세상의 타락을 씻어내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느끼고 나의 율법을 지키게 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도록 할 뿐이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끝없이 솟아나는 은총의 샘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것이며, 나의 성령께서 왕의 별처럼 그들을 비추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인류가 나를 찬양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80.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이며 준비된 자들이니, 이 세상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우고 일해야 한다.

81. 백성아, 너희가 먼저 나서라. 너희는 모범을 보일 첫 번째 자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대로 나의 사역을 전하라. 성령의 은사를 온전한 영광 속에 품고 있는 참된 영성인들이 되어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37

1. 마음속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이여, 환영하노라. 그들은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이 곳들의 소박함에 거슬림을 느끼지 않았으니, 오직 자신의 영혼이 내 말씀을 듣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2.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마음들을 준비시키는 짧은 순간들을 위하여, 나는 인류가 정열과 전쟁 속에서 파멸해 가는 이 요동치는 바다에 나의 빛과 평화를 보내노라.

3. 내가 대변자를 통해 듣는 메시지의 진의를 찾아 나를 찾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내 영이 어찌 기쁨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들은 더 이상 형식이나 의식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영의 양식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한다.

4. 영혼이여, 지성이여, 마음이여,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 이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때에도 너희가 영원을 위해 힘을 얻고 양육받았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5. 대변자를 통해 인간화된 너희 스승의 목소리는 끝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계시와 가르침이 담긴 책은 꺼지지 않는 빛을 발하는 등대처럼, 영원히 너희 영혼 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다.

6. 너희 영혼을 평화로 가득 채우고, 이 백성의 마음과 이성에 끝없는 기쁨을 안겨주며, "죽은 자들"을 믿음으로 깨우치고, 이를 들은 모든 이의 길을 밝혀준 이 말씀은 – 비록 너희가 내가 선택한 자들의 입술에서 더 이상 이를 듣지 못하더라도, 너희에게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7. 이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존재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맑은 상태로 간직하는 법을 아는 이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자신의 여정에서 위로를 베풀고, 자비를 뿌리며, 빛을 밝히기 위한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8. 오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내일 그들은 듣고 본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상에 남아 동료 인간들의 영적 각성과 평화를 위해 일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까지 너희를 지켜 주리라.

9. 너희의 기억력은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풍성한 가르침을 모두 간직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므로, 나는 이 시대에 이 백성에게 가르친 모든 핵심 내용을 담은, 내가 영감을 준 물질적인 책을 너희에게 남겨 주겠다. 그리하여 너희의 매일의 일이 더 수월해질 것이니, 나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항상 용기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들었던 것을 잊어버릴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오류와 왜곡, 혹은 비밀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10. 나의 말씀은 이 백성에게 계속해서 등대와 별이 될 것이며, 영적인 승리는 끝까지 충실하고 인내하는 자들, 즉 사막의 굶주림과 갈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만의

갈보리 산을 오르는 자들, 시선을 언제나 빛과 영원이며 참된 행복의 약속인 그 빛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자들,

11. 너희가 영혼을 높일수록 십자가의 무게는 덜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 모습으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게 될 때, 나는 영으로 너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의 책을 펴고 공부하라. 그래야 너희가 이 사역이 땅에서 알려지기 위해 필요로 하는 용감한 제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책을 펼칠 것이며, 그 책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며, 너희를 의심에서 해방시키고, 너희가 방금 설명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실을 너희에게 드러내 줄 것이다.

12. 비록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씀을 매 순간 상기시켜 주는 물질적인 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는 그 말씀이 고갈되지 않는 영감의 흐름처럼 너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날이 오고, 너희가 그러한 경지의 고양과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록된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여, 영과 영 사이에서 신성한 영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성숙함과 기초 지식을 얻어야 할 것이다.

13.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어 있는 것을 보시면 기뻐하실 것이다.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하며, 영적으로 고양될 때 너희 영혼 속에서 나의 계시를 느끼고 나의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14. 너희는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니, 겸손하고 너그러워야 한다.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빛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희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잠들어 있던 자는 깨어났을 때, 자신이 무관심해 있는 동안 형제자매들이 빛의 길에서 앞서 나갔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하지 않았고, 어둠에 속아 넘어가 마음속에 잡초가 싹트게 내버려 둔 종에게도 날마다 내 말씀을 준다.

15. 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의 옛길을 떠나거라. 그 길에서는 오직 고통만이 너희를 덮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벌거벗고 굶주린 채, 세상에 대한 평화도 위로도 없이, 너희의 소명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나의 아버지 같은 온기를 느끼지 못한 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그 안에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노라. 그 영혼은 언제나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어 왔던 바로 그 영혼이다.

16. 너희는 세상이 타락의 극점에 이르렀고, 권력 추구가 만연하며, 이성과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의 악행이 횡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빛의 길 위에 서 있는 너희는, 너희의 소명을 깨닫고,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며, 내가 항상 너희에게 가르쳐 온 사랑을 통해 준비될 수 있도록 내 말씀을 받아들여라.

17. 너희는 나를 깊이 사랑하며, 시간을 잘 활용하는 법을 깨달았다. 너희는 영적으로 성숙해졌고, 육신을 정복하였으며, 동료 인간들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나의 평화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 속에 영적 위대함을 갖기를 원치 않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18. 나는 너희가 약함을 느끼지 않도록, 내 힘을 받아 내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너희에게 초래하는 문제와 불행에 맞설 수 있도록 내 사랑으로 너희를 격려한다.

19.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여 어둠이 너희를 기습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준비시킨 은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땅의 여러 지역에서 나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

내 사역을 깨닫는 것은 너희에게 영적 각성이 되었다. 너희는 더 이상 우상 숭배자도, 광신자도 아니다. 너희는 이미 너희의 소명과 영적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양심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빛이 될 것이며, 그 마음속에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그는 내면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는 그의 영혼이 나를 향해 더욱 높이 솟아오르게 할 것이다.

20. 이 길에 있는 모든 이는 언제나 나의 빛의 영적 세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 그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21. 지상의 인간 삶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만족하라. 너희의 영혼과 육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내게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는 분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내 율법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나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22. 빛의 존재들이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어둠을 없애고 있다. 그들은 너희의 수호자가 되어, 너희가 순수해지고 물질화에 대한 모든 경향을 버리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가 영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인류를 위한 그들의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이다. 엘리야스 또한 나의 선택받은 자들을 정화하고 준비시켜, 내가 그들을 통해 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23. 너희에게 남은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대변자를 통해 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유지하며 영감을 받을 줄 알도록 하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영을 통해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영적 세계도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순종하며, 거리를 가늠하지 말고 용기와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나아가라. 너희는 점차적으로 너희의 일을 시작해야 하며, 그러면 세상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인간적인 성향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은 너희의 증언을 점점 더 받아들일 것이다.

24. 너희는 이미 너희의 사명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더 이상 음성 전달자의 이성을 통하지 않고,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하며 나의 신성과 교감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뿐이다.

25. 그러면 나를 알지 못했던 이들도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신뢰와 믿음을 느끼게 될 것이며, 영이 나의 영적 계시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26. 너희에게 보호를 제공해 온 모임 장소들은 앞으로도 너희의 모임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원토록 항상 열려 있을 참된 교회는 성령의 교회이다. 모든 세대가 그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나로부터 생명과 빛, 평화와 복락을 받을 것이다.

27. 1950년 이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활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전할 참된 빛을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택받은 백성인 너희는 다양한 종파와 종교 공동체에 속한 너희의 동료들의 신념을 존중하고, 너희의 노력을 통해 그들을 하나의 뜻으로 하나로 뭉치게 해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그동안 불모지였던 그 들판에서 내 사역이 꽃피게 될 때가 올 것이니, 그리하여 모든 이가 이 시대에 내가

수정처럼 맑은 물처럼 쏟아 부은 내 말씀의 참된 본질을 깨닫게 될 것이다.

28. 내일 너희는 하나의 이상으로 하나된 백성이 될 것이니, 마치 모든 이가 수정처럼 맑은 물을 마시러 모여드는 하나의 샘과 같으리라. 인류가 하나 같은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 그 열매는 마음과 영혼에 정수와 달콤함을 선사하는 것이다.

29. 나의 가르침은 너희를 그렇게 준비시켜 줄 것이니, 그 의미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이웃과 소통할 때, 아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각자에게 맞는 특별한 배려를 베풀 줄 알게 될 것이다.

30. 내가 너희에게 이웃을 대하는 특별한 방식에 대해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은 영적 대우임을 너희가 이해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웃과 접촉할 때마다, 그들에게 다가갈 때 너희가 그들의 영혼과 교감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31. 그러면 너희는 아이 안에서, 순수한 마음과 흠 없는 정신을 통해 삶을 시작하며 투쟁을 시작하는 한 영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이 이러한 성찰을 할 때, 그 영혼들에 대한 다정함과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32. 청소년 앞에 서면, 그 아이의 에너지와 큰 기대, 그리고 야심찬 목표 속에서, 이 땅에서의 투쟁이 절정에 달한 영혼의 존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단계에서 영혼은 육체의 정욕과 매 순간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에 맞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33.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 돌보아 주어 그들이 험난한 삶의 길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라.

34. 성숙한 사람들과 노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삶의 산 정상을 넘어선 영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줄 수 있는 것 – 적든 많든 – 을 그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으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자신의 영혼이 맞이할 미래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중에서 바로 그들이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생애 동안 뿌린 모든 것의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여러분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은 영혼이 아니라, 삶의 투쟁으로 지쳐버린 그들의 피로한 육신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고 마땅히 받아야 하므로, 그들에게 세심하고 다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그토록 많은 괴로움과 지친 투쟁을 겪은 이 마음들에게는 꿀 한 방울이 그야말로 반가운 선물입니다.

35.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가 사람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너희는 모든 이웃에게 그 사람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본질의 핵심을 잊고 계속해서 오로지 육체적인 존재로만 스스로를 대한다면, 모든 인간 존재 안에 내재된 진정한 가치, 즉 영혼을 스스로 부정하게 될 것이다.

36. 이제 내가 나의 말씀 전달자들을 통해 내 목소리를 전하고 있으니, 나를 듣기 위해 이곳에 모인 청중들을 환영한다. 나는 경건한 자와 불신하는 자, 선의의 사람과 탐구하는 자, 영성화를 통해 정화된 자와 물질주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 모두를 환영한다.

37.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가 오늘까지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너희 영혼의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 주었기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스라엘의 사명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너희는 성장하고 번성하였으며, 제자에서 점차 문도들로 변모하여, 머지않아 내 말씀의 유산을 받아야 할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38. 이 시대에 내가 드러난 방식은 제2시대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나의 의도는 동일하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서 마주쳤으나 벗어날 수 없었던 그 회오리바람에서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다.

유혹이 온 힘을 다해 거세게 몰아치고 있으며, 인간은 어린아이처럼 넘어져 큰 고통을 겪었다. 그는 고통의 잔을 비우며 깊은 혼란 속에서 나를 부르짖었고, 아버지는 그와 함께 계셨다.

그 잔에는 아직 찌꺼기가 남아 있지만, 나는 너희가 불순종의 결과로 겪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를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큰 고통이 닥쳤을 때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될까? 믿음의 부족으로 그들의 영혼이 무너져 내릴 것인가? 이스라엘의 기도가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39. 나는 너희가 깨끗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충만해진 모습을 보고 싶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찾던 동안, 너희는 약했다. 너희가 나를 향해 시선을 들어 나를 간구했을 때, 너희는 힘을 얻었다.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 왜 항상 나를 찾지 않았느냐? 왜 증오를 없애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사랑을 찾지 않느냐?

나는 계속해서 세상에 말씀하고 있지만, 오직 이스라엘만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만, 영적인 은총도 함께 베푼다.

40. 너희 안에 내 진리와 내 본질을 두어, 너희가 내 말씀을 널리 알리도록 하였노라. 나는 너희 안에서 광신이나 무지, 위선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백성이 내 율법의 범위 안에서, 강하고 진실한 가족처럼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들은 궁핍한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알며, 이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운명의 시련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다. 나는 너희가 결코 "아버지, 우리에게는 거짓과 어둠에 맞서 싸울 빛과 지식, 힘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41. 나는 너희를 통해 기적을 행하기 위해, 너희에게 약간의 믿음만 구했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준 능력의 증거를 허락했다. 너희는 병자를 너희의 사랑으로 감싸 안았기에 그를 치유했다. 너희의 한 마디가 죄인을 회심시켰다. 너희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를 관통한 빛이 그를 성찰하게 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너희는 그를 구원했다.

"위로하고 평화를 베풀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너희가 가정을 방문하며 다니는 동안 평화를 전했고, 그 평화는 이 세상에 사는 존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형제자매인 영적 존재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주에 퍼뜨린 빛에 대해 나에게 감사하고 있다.

42. 너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의 평화와 선의의 계명을 이행하는 데 한마음으로 연합할 때, 너희는 훨씬 더 큰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일단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준비가 되면, 의로운 영적 법칙들이 너희에게서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민족들의 운명을 바꿀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중 한 사람에게 이 사명을 맡길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맡기는 큰 책임을 깊이 느끼며, 선택받은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했던 모세를 기억하라. 그의 말씀과 지혜와 정의로 가득 찬 원칙들을 떠올리고, 그를 본보기로 삼으라.

43. 나는 너희의 준비 상태에 따라 미래에 너희를 위한 위대한 사명을 마련해 두었다. 너희의 영향력은 이 세상의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너희는 평등을 설교할 것이며, 내가 내 자녀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존중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예외

없이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미덕과 거룩한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44. 너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으려면, 단결하고 인류를 향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내가 그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라. 너희는 그들의 셀 수 없는 잘못과 도덕적·영적 병들, 타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오직 빛만을 전해야 한다. 너희의 사명은 베풀고, 나의 가르침을 설명하며,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다.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라. 너희가 이웃들에게서 마주치는 중대한 일들은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리라.

1950년 이후로는 내 가르침 안에서 어떤 이론이나 학문도 세우지 말고, 교리나 의식을 만들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 머물러라. 너희 영혼에 그 표식을 간직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미덕을 실천하라. 인류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싸움을 위해 힘을 모으라.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너희 나라의 국경을 넘어갈 것이며, 다른 이들은 가까운 지방으로 갈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빛을 보았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흩어 놓으리니,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하여 내 뜻을 깨닫고 이를 따를 줄 알도록 하라.

45. 내 이름으로 나아가라. 말하기 전에 준비하라. 일할 준비를 할 때, 너희의 어려운 사명을 깊이 연구하라. 내가 너희의 길을 열어 주리라. 제3의 시대에 내 오심에 대한 증언이 너희에게 요구될 때,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라.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했을 것이며, 그때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도 그때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46. 나는 너희를 보내어 이웃들의 마음속에 성을 쌓게 하리라. 너희의 사역은 내게 합당하도록 논리적이고 타당해야 한다.

47. 너희는 평가받고 면밀히 조사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서 섬기려는 이상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너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너희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의 변화와 영성화를 보고 놀라워하며 너희를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너희가 전하는 가르침에 대하여, 나는 높은 저 세상에서 증인이 될 것이다.

48. 나는 그 일을 이어가기 위해 위대한 영혼들을 지상으로 보내겠으며, 너희는 각자의 공로에 따라 위대한 영적 사명을 맡게 될 것이다. 인류는 많은 죄를 지었으며, 악한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러므로 정화의 일은 길고도 지속될 것이다.

올바른 길을 안내해야 할 영혼들은 이미 파견되었다. 바로 너희가 그 주인공이며, 너희는 내가 인류를 고양시킬 수 있는 영적 단계로 올려놓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49. 다른 이들을 향해 우월감을 느끼지 마라. 나의 말씀과 은사는 너희 모두가 나를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다.

50. 제3의 시대는 1866년에 시작되었으나, 너희는 이 시대가 몇 년, 혹은 몇 세기 동안 지속될지 알지 못한다. 제2의 시대가 약 2000년이 지나서야 끝났기 때문에, 너희는 현재의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너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실 것이며, 너희가 날마다 더욱 변화될 것임을 그저 믿으라. 너희가 싸움에서 주저앉고 싶어 할 때, 내가 너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리라. 시작되고 있는 이 싸움은 끈질기고 지속적인 것이며,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회복의 사역이다.

51.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고, 어려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세상에 너희를 보냈다. 나의 명령을 이행하고, 피조물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라. 그래야 너희가 더 높은 차원에서 살 수 있고 매일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52. 너희 모두가 정화되고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면, 나 곁에 거하게 될 것이다. 땅 위에서 영적으로 살며 영적 법과 세속적 법을 따르라. 그래야만 내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53. 너희 자녀들에게 이 유산, 곧 나의 말씀을 남겨라. 나는 너희에게 창조하고 가정을 이루는 능력을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가정을 허락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곳을 사랑과 온기, 그리고 좋은 본보기로 채우라.” 너희 자녀들에게 의로움을 보고 싶다면, 나의 율법을 지키라. 그들은 너희에게 이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현재 너희의 조언과 본보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가족의 가장이신 너희여, 그들이 너희의 지혜를 인정하고, 너희를 공경하며, 너희를 축복할 때가 올 것이다.

54. 오늘 나에게서 배우라. 나는 예외 없이 모든 이에게 말을 건네니, 너희 모두는 나의 자녀이며, 너희 모두는 나에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55. 여기 내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에서 빛의 불꽃이 뿜어져 나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56. 보라, 이 말씀의 능력이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 사랑과 겸손, 영성, 그리고 믿음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며, 동시에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던 교만과 무지, 죄가 영원히 사라지게 한다.

5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들은 모든 사람 – 내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 은 이제 자신의 영혼 속에 빛의 불꽃을 품고 있으며, 그 마음속에는 양심을 위한 문이 열렸으니, 그 문은 다시는 닫히지 않을 것이다.

58. 나의 말씀은 인류 사이에 만연한 영적 무지와 싸워야 할 것이다. 내 재림을 아는 자들은 제2시대 때와 같이 내 영이 육신으로 오심으로써 내 임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반면, 내 귀환과 약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영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타나는 내 임재에 놀라워하며, 자신들은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다시 사람들 가운데 계신지 끊임없이 의문을 품는다.

59. 그 이유는 인류가 의식과 전통, 겉치레에 그치는 숭배에 안주하면서, 내가 과거에 사람들에게 남긴 율법과 예언, 가르침을 연구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60.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깨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나를 듣게 되니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 재림을 예고한 예언들과 징조들을 알아가려는 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내 말씀이 현존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느냐?

61. 진리를 알기에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마치 내가 제2시대에 아무것도 행하지도 말하지도 않은 것과 다름없다. 마치 내가 오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가 현재의 사건들을 제1시대와 제2시대의 예언, 약속, 가르침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내 말씀이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했다.

62. 너희 모두가 그 당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깊이 숙고했더라면, 너희는 모두 나를 기다렸을 것이며, 나의 재림이 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모두 이해했을 것이고, 아무도 나의 선포에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속에 어둠을 품고, 무지의 눈가리개를 두른 채 왔기에 진리의 빛을 볼 수 없었으며, 마음은 광신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랬다면, 너희가 나를 듣자마자 모두 즉시 "그분이 스승이시다"라고 말했을 수 있었겠느냐? 너희가 매번, 또 다시 나를 듣게 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야만 너희의 이성이 매 수업마다 너희를 이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 줄 새로운 빛의 불꽃을 포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63. 그리하여 너희는 누구의 조언도 구할 필요 없이, 책에 의지할 필요도 없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과거 시대의 계시들이 담고 있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 시대에 내가 영적으로 계시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64. 너희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졌으며, 너희의 영은 내가 '영성주의'라고 명명한 이 가르침이 세워진 견고한 기초를 보게 될수록 믿음을 더욱 굳건히 다져 왔으니, 이 가르침은 영원한 계시를 통해 너희에게 말하는 가르침이다.

65. 제자들아, 내가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영으로 너희에게 말했을 때, 이는 내가 더 이상 그 수단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때에도 너희가 계속해서 영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신성과 진정한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아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38

1.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길이자 빛이다. 나는 너희를 지탱하고 너희가 가는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지팡이다. 나는 너희의 길을 비추는 등대이며, 내 신성한 영의 평화로 너희 영혼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 삶의 폭풍을 가라앉혀 너희가 온전해지고 너희 영혼이 뒤처지지 않게 한다.

2. 내 말씀 안에서 너희는 스승께서 가르치신 대로 너희 영혼이 일어나 싸우기 위해 필요한 힘과 온기, 그리고 양식을 얻게 된다.

3. 나의 말씀은 수세기에 걸쳐 영혼의 순수함을 얻고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시금석으로 작용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은 여러 발전 단계를 거쳤으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 그 행실에서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4. 나는 제3의 시대에 오셔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셨으니, 이는 너희에게 다시금 길을 보여 주고, 제3의 시대의 제자로서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나는 너희가 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해 왔다. 나는 상징과 비유를 통해 너희에게 말해 왔다. 그러나 나의 모든 가르침에서 나는 그 의미를 너희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했으며, 스승이 너희 각자에게서 진정한 제자를 발견하고자 하는 갈망을 너희에게 드러냈다.

5. 언제쯤 너희 영혼이 아버지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베풀어 오신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인가? 이 시대에 스승께서는 모든 피조물,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 속에서 큰 투쟁을 벌이고 계신다. 나는 마치 자연이 첫 아침 햇살에 깨어나듯, 너희 영혼을 깨우고 있다.

6. 내 말씀은 단순하지만, 이를 깊이 연구하면 그 핵심에 담긴 위대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내 말씀 하나하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제자, 추종자, 스승으로 여기는 학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 영혼이 도달한 단계에 따라, 너희는 내 말씀 중에서 너희에게 맞는 것을 받아들인다. 제자는 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제자는 나의 가르침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취하며, 이를 통해 미덕으로 충만해집니다. 스승으로서 준비된 자는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탐구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내 가르침을 실천하고, 미덕을 행하며, 자신의 은사를 꽃피우고자 하는 열망을 영혼 속에서 느낍니다.

7. 너희는 내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했으나, 많은 동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희는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으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너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너희는 동료들의 무관심 때문에 상처를 느꼈다. 그러나 이는 너희를 위한 일이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하여 너희는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셨을 때, 그 성소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마주하셨을 때 느끼시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크도다.

8.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투쟁을 게을리하지 말고 굳건히 버티라. 내가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니, 만일 어떤 때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내일은 마음들이 열려 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다.

9. 인류는 어리석고 죄 속에서 완고하게 버티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사랑과, 땅과 내세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용서로 – 너희의 영을 사랑한다. 그 영은 내 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육체에게는 영혼의 버팀목이 되도록 필요한 것을 베풀어 준다.

10. 너희가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평화는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축복이자 은혜이다. 그러나 너희도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내게 말하되, "주님, 제 겉모습은 초라하고 누더기입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그 때문에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희의 옷이 너덜너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11. 내가 너희에게 갖는 관심은 너희의 영혼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이 세상에서 순종하며 가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산다면, 너희 영혼이 드러내는 덕은 클 것이다. 너희 스승이 너희에게 겸손을 가르치셨고, 영혼이 이 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로를 기억하라. 너희 입술에는 오직 너희 하느님을 향한 축복과 찬양만이 있어야 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 보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있다. 이 땅에서 나는 너희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 것이니, 이곳은 낙원이 아니며, 이곳에서 나는 나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온화한 보상을 마련해 두었다.

12. 평화와 순종으로 고통받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그 길 위에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승께서는 너희에게 이 세상의 부를 좇지 말고, 이 생의 덧없는 보물을 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비록 너희가 초라한 오두막에 살더라도, 너희의 영혼이 내가 그에게 준 은사를 펼치는 법을 안다면, 너희는 가장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지상의 왕이나 권력자보다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3. 나는 너희가 이 행성에서 너희 아버지와의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그리하여 그분의 계명을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비유로 너희에게 말해 왔다. 왜냐하면 너희의 운명은 나의 사랑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4. 이 생은 너희가 내게서 받은 순종과 빛을 통해 너희 영혼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느니라.

15. 여러분은 여러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이미 여러분은 어려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더 큰 진전과 마음속의 더 큰 명료함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더 큰 진전을 이루고, 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으며, 그 말씀을 더욱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네 번째 단계에

이르러, 여러분의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깊이 느끼고, 나의 영이 여러분의 영에 다가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곳에서 여러분은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 더욱 큰 성장을 이루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군분투했고, 그리하여 여섯 번째 단계에 이르러 새로운 성취와 또 다른 진보,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미덕의 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일곱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 그곳에서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며, 너희의 영은 아버지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주님의 우편에 서게 될 것이다.

16. 내 말씀이 내려와 너희 영혼에 영감을 주는 것은, 내가 너희가 내 신성한 영의 임재 안에서 내일도 너희의 준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활력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준비되어 있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 내 말씀이 없는 것을 느끼지 않을 것이니, 너희의 영이 나의 신성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제때에 준비하고, 기도를 실천하며, 마음속에 영성을 간직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일 너희가 혼란에 빠지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내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 영혼을 나에게로 들어 올리는 법을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각자를 나의 "발받침"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17. "발판"은 너희 주님의 빛과 능력이 쉼을 얻는 기초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아, 너희는 내일 진정한 "발판", 곧 내 말씀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것입니다. 너희의 은사가 꽃피움으로써 준비된 너희는 내 말씀을 온전한 순수함으로 전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진 이 귀중한 계시의 시간이 지나간 후,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무지를 보고 싶지 않다.

18. 1950년 이후, 너희 중 누가 이 신성한 일을 부인하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될 것이며, 바로 그 무지를 내가 현재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은 자는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서서 그 길을 따라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이해하지 못한 자는 그것이 자신의 준비 부족과 믿음 및 영성 함양의 결여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깨닫지 못할 것이며, 그로 인해 우상 숭배와 광신주의로 되돌아갈 것이다.

19. 너희가 이 길에서 불완전함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나의 신성 탓으로 돌리지 말라. 나는 완전하다. 그것을 너희 이웃의

탓으로 돌리라. 그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완전함으로 너희를 인도할 준비를 하지 못한 자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나의 영에게는 국적도, 계급도, 가문도, 인종도, 피부색도 없다. 너희는 모두 나의 자녀들이며, 나는 모든 이에게 두 팔을 벌려 모두를 받아들였다. 나는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발 앞에 온 자, 즉 타락한 마음과 손에 아직 피의 흔적을 남긴 자를 받아들였고, 세상의 정의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다. 왜인가? 그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가 지상에서 가장 잔혹한 죄인이었더라도,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그를 용서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나는 용서 그 자체이지만, 이 용서가 너희에게 영원히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21. 나는 너희가 악의 길을 버리고, 각자가 내 말씀을 이해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 면전에서 *회개하는* 죄인이 되어, 너희의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한다. 내가 조용히 너희의 말을 듣고 너희의 죄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가장 충실한 친구로서 너희에게 조언해 줄 것이다.

이 땅에서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고, 너희 것이 아닌 것을 누리지 말며, 삶에서 너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모든 정직과 의로움 가운데 사는 남자와 여자가 되라. 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다면, 이제 그 잘못을 회개하라. 나의 자비가 너희를 정화하도록 허락하라. 그러나 나는 너희의 회개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를 원한다.

22. 스스로를 바로잡고 새롭게 하라. 스승께서 이 시대에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죄인을 사용하되, 반항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사용한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했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평화, 마음의 평온, 영혼의 조화, 감사의 마음, 그리고 너희 하느님의 미덕들이다.

23. 어떤 사람이 내가 매 순간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은 영적 평화의 순간을 너희에게 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나처럼 너희에게 조언해 주겠느냐? 이 땅에 나처럼 그토록 믿음직스럽고 능숙하게 너희의 길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새로운 모험을 경험하기 위해 이 길에서 벗어나려 한다.

24.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은 남성과 여성들아, 너희와 함께 살며 너희에게 영혼의 평안을 주고 너희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 주었던 이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내 뜻이 너희 가족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느냐?

어머니들은 자녀를 잃은 아픔을 느끼셨고, 자녀들은 생전에 고아가 되어 부모님이셨던 가장 사랑하는 분들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충실한 반려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너희의 삶에서 떠나게 하고, 저 세상으로 불러갔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고귀한 뜻에 간섭하려는가? 아니오. 너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며, 내가 그들을 불러간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의 마음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너희가 가족들의 부재를 슬퍼하며 울었던 것은 이 땅의 본성이 약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의 가장 거룩한 뜻을 이해한 너희의 영혼은 기쁨을 느꼈다.

25.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내 모든 명령을 사랑과 순종, 그리고 평화로 따르라. 머지않은 어느 날, 너희의 영혼도 저 세상으로 들어가 너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직 이 행성에 머물고 있지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도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생에서 힘과 빛과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계속 의롭게 살아가라. 그때 내가 너희를 불러갈 때, 너희의 눈은 그 새로운 삶에 열릴 것이며, 너희는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26. 준비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는 정화의 과정을 피하고 자신의 길에서 새로운 삶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7. 세상에서 물러나, 나를 향해 시선을 들어라. 그리고 내 임재 안에서 힘을 얻으라.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 두어, 너희가 강해지고 유혹이 내가 그토록 큰 사랑으로 너희에게 맡긴 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참된 영성인이 되도록 율법을 지키라. 너희는 줄곧 잠들어 있었으나, 내가 너희를 깨웠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겠다는 결심을 품는다면, 너희는 죄의 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28. 나는 이 시기에 내 일꾼들의 사명 완수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영혼에 나의 사랑과 평화의 입맞춤, 영적 행복을 남기기 위해 온다. 나는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거울이 되기를 원한다 – 너희 가운데서 나의 현존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전해진 나의 계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이다.

29. 나의 영적 세계는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 삶의 지팡이가 되어 준다. 그러나 너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너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들임을 너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눈물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조언하기 위해, 스승으로서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나의 축복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 온다. 나는 나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품은 제자들을 보고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순종해야 한다.

30.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준 것은 너희가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것이다.

31. 인간의 이성을 통한 나의 계시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너희는 생각과 의지적으로 하나가 된 것을 느끼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32.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말씀을 듣게 될 아침 묵상은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으니, 너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두기 위해 나를 이해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왔으니, 내일은 *내게로* 나아가기 위해 영적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33. 인간의 이성으로 전하는 나의 계시가 끝난 후에도,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은 너희의 내면에 여운으로 남을 것이다. 너희는 이 계시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내가 가르침을 통해 너희에게 준 것을 활용하지 못했다면, 그 허비한 시간을 후회하며 슬퍼하게 될 것이다.

34. 사랑하는 백성아, 내가 이 시기에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가 준비되기를 위함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기회를 외면한다면,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길을 계속 가도록 허락할 것이며, 나는 너희의 발걸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따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자비롭고 사랑스럽게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며, 너희의 긴 여정이 끝난 후 다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35. 나는 너희를 인류가 처해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다. 나는 너희 영혼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너희가 너희 스승처럼 인류에게 몸을 굽혀,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려 한다. 너희는 먼저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는 이웃의 눈에 박힌 티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깨달아라, 백성들아. 인류는 아직 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36. 너희는 나의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교회는 순수한 영혼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섬기는 선의의 영혼들이 모인 연합체가 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 안에 악을 품지 않는 빛의 영혼들이 될 것이니, 눈송이처럼 순수해질 그 영혼들 안에는 어둠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7.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너희는 인류를 어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내 군대의 일원이 될 것이며, 너희의 순종을 통해 완전함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하며 너희 아버지께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큰 은사를 주었고, 빛과 은총과 지혜로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38.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한 것은, 너희가 이 부를 궁핍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가지려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너희는 나의 자비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9. 예언들은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인류가 혼란과 어둠 속에 있을 때, 너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너희 자신 안에서 나의 임재를 드러낼 것이다.

40. 내 말을 이해하라, 백성아. 나는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며, 사랑으로 너희를 맞이한다. 목마름을 해소하러 이리 오라.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평화 그 자체이신 나에게서 안식을 얻고, 완전한 지혜이신 나에게서 활력을 얻으라.

41. 인류여, 너희가 나를 느낄 수 있도록 고통이 너희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 너희 주님을 탓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책망하라. 고통이 너희에게 닥쳤을 때, 너희는 내게 "주님, 왜 우리를 벌하십니까?"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행위의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내게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42. 인류가 언젠가 나의 길로 나아가는 법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며, 모든 이가 그들의 하나님이자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가르침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내 지혜를 너희 영혼에 품으며, 내가 너희에게 준 그대로 모든 길을 통해 인류에게 전하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너희 영혼에 맡긴 힘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라.

43. 내가 너희 발에 샌들을 신겨 주니, 너희가 발걸음이 가볍게 되어 모든 길을 걸으며 나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 너희는 나를 대신하여 갈 것이니, 이는 너희가 이 축복받은 사명을 완수하도록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 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의 수확을 내게 보여 줄 것이다.

44. 나는 다시금 너희 영혼을 기뻐하며, 너희가 배워야 할 가르침을 전해 주리라. 너희는 스승으로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45.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나를 따르려는 너희 마음속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너희로 하여금 나의 신성한 말씀을 이해하게 한다. 사람들이 깨어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느끼고,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으며 나와 조화를 이루도록, 너희가 나의 말씀의 참된 전령이 될 준비를 갖추는 것이 나의 뜻이다.

46. 너희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으나, 내 힘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 시련 속에서 약해지지 않았다. 아버지인 나는 내 말씀으로 너희를 격려하며, 인류가 필요로 하는 자비를 너희에게 맡길 그 순간을 알려준다. 너희는 나를 대신하여 나아가, 이웃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내 성령의 빛을 전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7. 나는 내가 정화하고 정련한 영혼들, 즉 이 제3의 시대에 내 임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눈에 빛을 준 이들,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내 임재에 대한 증언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말씀으로 준비시킨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48. 너희는 아무것도 가진 바 없이 궁핍한 채로 내 임재 앞에 나아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 영혼을 준비시키고, 내 성령의 빛으로 입혀 주었으며, 너희 가운데 내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었으니, 이는 너희가 궁핍한 자들에게 나아가 내가 너희에게 맡긴 풍요를 그들과 나누게 하려 함이다.

49.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철저히 준비시키고 정화하여, 나를 섬기게 하였으니, 곧 너희 가운데 악과 거짓에서 돌아선 자들, 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빛이 그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그들을 비추고 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깨닫게 한 바로 그 영혼들을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너희는 세상이 가져온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혼란에서 돌아섰다. 인류는 자신들의 행위의 물질주의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 거짓 가르침을 통해 나를 찾고 있다.

50. 너희 영혼을 고양시키고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하며 나와 대화하라. 그러나 이러한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신성한 법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며, 그 영성화를 바탕으로 나와 대화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더 이상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희 영혼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는 너희를 매개로 하여 인류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51. 너희가 이 식탁에 가장 먼저 앉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이었다. 너희가 내 주위에 모여들게 하여, 너희에게 유산을 주고, 너희를 궁핍한 자에서 내 말씀의 보화를 소유한 부유한 자로 만드는 것이 나의 가장 거룩한 뜻이었다.

이처럼 너희의 영적인 눈은 새로운 날의 빛을 보게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제3시대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준비시킨 것은, 훗날 인류에게 내 임재를 증거하게 하려 함이며 – 온전한 진실함과 지혜로 내 율법을 전하게 하려 함이며 – 내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의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내 임재를 실감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에 과거의 잘못과 오류에 대한 회개가 깃들게 하고, 그들이 거짓 신들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찾게 하며, 너희를 통해 내 예언들이 성취될 장래의 시대를 위한 위로와 희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52. 너희가 가는 길에 어둠이 솟아올라 사람들을 감싸 안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영과 마음에 나의 빛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어둠에 사로잡힐 수 없으니, 그 어둠은 이성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을 눈멀게 하여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싸움이니, 내가 너희 손에 어두운 동굴을 밝힐 빛의 검을 쥐어 주었기 때문이다.

53. 너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거짓 신들 앞에 절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씀의 빛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 것이며, 그들은 내 영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54. 군중들은 너희를 통해 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떠나 정화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오시며, 그들이 내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정화하고 맑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군중들 속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그들의 영혼이 어둠에 휩싸여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저항할 것이다.

55. 너희는 너희를 통해 전해진 나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너희 동료들이 어떻게 부정하고, 너희가 거짓된 자들, 즉 내 존재를 자기 내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품을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들이라고 말할지를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이 세상의 또 다른 왕으로 여기고자 하는 자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56. 제2의 시대에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온전한 겸손으로 다스렸으나, 그들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오심을 믿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너희의 동료 인간들은 너희가 나의 사자이자, 내가 내 은총의 선물을 베풀어 내 사역을 온전히 밝히 알리도록 한 나의 선택받은 자들임을 부정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겸손한 모습을 보고, 너희가 한때 길을 잃은 사람들 중 하나였으며, 과거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더러움과 죄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의 항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영접하도록 초대할 것이다.

57. 이처럼 너희는 온 땅을 두루 다니게 될 것이며, 너희가 상세히 말하고, 인류를 향한 나의 사랑과 자비를 지칠 줄 모르고 드러내며, 그들이 그들의 하느님께 바쳐야 할 참된 경배를 보여 주었을 때, 이 인류는 나의 심판이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인류가 도가니 속의 금처럼 순수하고 맑아질 때까지 인류를 향한 대대적인 정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들의 죄는 불로 끝날 것이며, 권력자들은 나의 권능이 그들의 것보다 더 크고, 나의 정의가 모든 법 위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의 적대감은 제거되고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할 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아, 네 수고와 노력이 꽃피기 시작할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밭은 비옥해질 것이며, 나의 씨앗은 백배로 불어날 것이다.

58. 너희의 투쟁은 너희가 육신을 떠난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너희 영혼은 계속해서 내 성령의 생명, 은총의 생명, 영생을 품게 될 것이며, 너희는 내 천사들처럼 일하여, 다가올 세대들이 서로 사랑하고 내 평화를 키우며, 그들의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의의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59. 오늘날 인류는 혼란 속에 빠져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들은 나를 느끼지 못했고,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깨어 있어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침내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령의 빛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0. 그들의 혼란의 시기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 세상의 왕국들은 흔들리며 그 기초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내 뜻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은 너희의 몫이니,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울며 위로를 기다리던 이들에게 –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고,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진리를 보여 주라.

61.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해 견뎌낸 고통을 축복하노니, 너희가 나를 위해 겪는 모든 고통은 너희를 영원히 합당한 자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62. 나는 너희 영혼에 힘을 주며, 너희 손에 빛의 무기를 쥐어주어, 유혹이 장애물로 세울 함정을 극복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왕국을 향해 계속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목차 안내

가르침 310	**구절 번호**
제자의 책임	2
환생을 통한 완성	5
영적 사명	16
낙원의 회복	20
영성의 충만함	24
방향을 제시하는 자, 소란을 피우는 자가 아닌	29
영원한 동사	43
영매주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0
자유 의지	52
과학과 영성	60
다른 세계에서도 눈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	66
약속이 이루어졌다	72
가르침 311	**구절 번호**
영적 연합의 시대	1
본질이 중요하다	3
투쟁하는 신자들은 복이 있다	10
영적 진화	13
치유의 은사	18
우리는 영적 세계의 본을 따라야 한다	20
사도 요한의 예언	25
은사를 통한 진리의 증거	29
1950년의 중요성	31
가르침 312	**구절 번호**
영적 이스라엘의 준비	1
내면의 평화	20
인류는 영적 지식이 부족하다	22

가르침 313	**구절 번호**
영적 사명의 책임	6
영적 승화의 정도가 환생을 결정한다	16
“약속의 땅”	26
영성의 본질	34
가라지와 밀의 비유	37
참된 믿음	48
영적 연합	54
영의 존재	56
영적 진화	59
영적 및 인간적 소명	64
가르침 314	**구절 번호**
제3시대에 사명의 실현	15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다	17
바벨탑	20
진화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24
예언된 평화의 왕국	25
성소의 의미	28
거짓 교회에 대한 예언들	47
오직 어린양만이 “일곱 봉인”을 풀 수 있다	50
선택받은 백성을 위한 도덕적·영적 가르침	54
진실한 본보기들	59
폭력 대신 인내	61
가르침은 신의 말씀의 본질에 있다	68
저 세상도 궁극적인 영적 고향은 아니다	70
기적의 진정한 의미	73
가르침315	**구절 번호**
영적 여정을 위한 준비	1
예고된 제2시대와 제3시대의 도래, 그리고 인류에 의한 서로 다른 반응	17
제3시대의 빛과 진리의 책	28
“주님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	34
“야곱의 사다리”는 영적 승화를 의미한다	41
하나님은 신비가 아니다	43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이름이 아니라 영적인 이름이다	45
영적 존재들의 끊임없는 육화 및 탈육화	47
인간 과학의 허상적인 권력과 그 자체의 파멸	53
새로운 세상	56
성전의 정화	62
성령을 통해 드러난 기도	74
진리	78
가르침 316	**구절 번호**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이들에게 외치라	5
마지막 세 봉인의 의미	12
양심은 우리 내면의 재판관이다	20
육신을 입은 제자와 육신을 벗은 제자의 사명	25
스승의 피가 지닌 의미는 신성한 사랑이다	39
영감의 은사	52
사랑은 보편적인 언어이다	60
가르침 317	**구절 번호**
영적 인정	2
로케 로하스는 누구였는가?	7
영혼에게는 휴식이란 없다	10
양심의 승리	22
예언의 성취	29
"아버지의 집에는 헤임슈테텐이 거처가 있다"	39
완성에 이르는 길	33
양심의 목소리	39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	43
의심	54
가르침 318 (1950년 부활절)	**구절 번호**
“큰 고통을 겪는 이들”	1
믿음은 영적인 시각이다	6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시련이 놓여 있다	7
종교의 구실	16
영적 성취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28
영적 성취는	36

육체적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	
자연의 원소들이 말할 것이다	40
인류의 재탄생	44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47
제2시대의 약속의 성취	52
전통주의로부터의 해방	60
빵과 포도주의 의미	61
성령의 시대	63
가르침 319 (기쁨의 토요일, 1950년 4월 8일)	**구절 번호**
오늘날 제3단계에서 드러나는 신성한 삼위일체	1
의심	5
모든 영적 존재들의 구원	7
신성한 영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세계는 많습니다	11
의심	15
영적 평정	18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은 복이 있도다"	22
의식과 종교적 관습의 폐지	32
영적 미래	34
제3시대의 토마스	38
인류의 불의에 맞선 전쟁	43
가르침 320	**구절 번호**
계시와 예언의 세 시대	5
부활절의 의미	12
영적 후진성의 원인과 결과	26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는 본능과 인간의 정신	34
정신적 교류	44
영혼의 불멸성	50
우리는 영생을 살아간다	51
예수님의 수난의 본보기	56
마리아는 신성의 일부이다	71
가르침 321	**구절 번호**
진리는 단순함에 있다	4
양심의 제단 앞에서	10
예언적인 말씀	14

영성은 희생이 아니다	21
사람은 스스로를 정화한다	26
영적 분석	28
진정한 가치	34
영적 진동	38
영적 세계에서의 투쟁	53
영성의 가르침	67
영적 세계의 행위의 의미	70
영에게는 물질적인 거리가 없다	73
광신주의 없는 영적 의식	86
가르침 322	**구절 번호**
제3시대의 사명과 성취	1
이성만으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15
인류의 충격과 각성	20
영적 실재들	36
용서	52
가르침 323	**구절 번호**
영적 준비	1
영적 기도의 힘	24
창조주와의 직접적인 소통	43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44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50
양심	56
주님의 재림과 그 영향	68
가르침 324	**구절 번호**
모든 시대를 통틀어 영적 이스라엘의 투쟁	2
올바른 분석	16
물질은 부차적이다	22
보편적인 사랑에는 모성애가 포함되어 있는가?	32
영적 소통	49
청원과 수령에 대한 이해	56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것	58
가르침 325	**구절 번호**

세상에는 여전히 위선과 악의가 만연해 있다	11
영적 능력의 발전	26
영과 영의 소통	27
누구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	38
먼저 투쟁, 그다음 평화	46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시대	54
심판과 최후의 전투의 시대	58
인류는 여전히 악한 씨앗을 가꾸고 있다	65
과거 시대의 사례들	74
정신적 혼란의 시기	81
제3시대의 이유	84
가르침 326	**구절 번호**
영성의 의미	8
제3시대의 사명을 위한 정화	10
종교성이 아닌 영성	18
물질주의로 인해 발생한 오류들, 그리고 참된 믿음	30
하나님께는 형상이 없다	35
이제 숭고한 해석을 할 때이다	41
사랑의 법칙	48
내면의 평온과 영적 평화 속에서 사는 삶	54
영성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63
가르침 327	**구절 번호**
완전함의 왕국으로 향하는 영의 길	1
영혼의 역사	4
시련의 이유	14
1950년 말의 중요성	26
1950년 이후의 영적 소통	37
인간의 삶 또한 중요하다	41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47
가르침 328	**구절 번호**
제3의 성서	9
영성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10
시련은 사랑에 기초한다	11
영과 인간의 창조 이유	19

때때로 신의 가르침이 왜곡되곤 했다	26
우리 스스로가 악의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며 신성한 검으로	34
요한계시록의 예언	36
하나님을 찾는 이들	42
성령은 모든 악을 치유하신다	52
가르침 329	**구절 번호**
영성은 의지와 평정심을 요구한다	1
신성한 말씀의 본질	12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절대적인 변화	22
혼란이 미치는 영향	43
방사선을 통한 영적 소통	43
환생의 법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51
가르침 330	**구절 번호**
신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3
제자의 사명	6
“하늘나라”의 도래	13
엘리야의 사명	17
더 높은 단계의 영들은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영은 없다	19
14만 4천 명의 표식 받은 자들은 예언되어 있었다	21
모두 형제이다	27
영적 자유	28
세 번째 메시지	30
통일	39
가르침 331	**구절 번호**
영적 소통의 진리	1
소위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	6
영적 메시지	12
영성과 물질적 발전	27
가르침 332	**구절 번호**
보편적인 영적 기도	1
보편적인 사랑	3
물질이 있든 없든 영은 영원하다	5
유대 민족에 대한 예언	10
진정한 “약속의 땅”	17

영적 이스라엘 백성 중 선택받은 144,000명	19
사랑의 법칙에 도달하기	27
그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31
환생에 대한 계시	34
가르침 333	**구절 번호**
의심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7
영성	18
제3의 성서	27
신성한 소통의 다양한 형태	30
영성의 사절들의 사명	43
새로운 인류가 일어날 것이다	54
용서하는 법	55
영적인 기도는 깨달음을 준다	61
두 가지 길	65
약속된 시대들	78
가르침 334	**절 번호**
양심은 사람 안에 있는 신의 목소리이다	6
예언된 영적 투쟁	16
신성한 원리의 성취	35
영적 준비	49
선과 악의 투쟁	56
배상해야 하는 이유	61
수호천사들의 투쟁	70
가르침 335	**구절 번호**
세 시대에 걸친 성육신한 이스라엘	3
영적 은사	7
예언과 그 해석	10
요엘 2:20, 30, 31	14
인류에게는 평화가 필요하다	18
구원이 아주 가까워졌다	18
환생의 이유	22
시련은 우리를 깨우게 할 것이다	24
『진정한 삶의 책』의 내용	32
성령강림절	35
영적으로 연합된 이스라엘의 영향	38
가르침 336	**구절 번호**

제3시대의 믿는 증인들	5
믿음에서 힘이 솟아난다	23
어둠을 이긴 빛의 승리	32
신성한 영감에 대한 민감함	34
인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40
물질주의의 걸림돌	47
영적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의 사명	57
가르침 337	**절 번호**
영을 위한 가르침의 풍요로움	1
영과 영 사이의 소통	23
영적 가르침은 우리가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29
평등	43
제3의 시대는 1866년에 시작되었다	50
영매주의	64
가르침 338	**절 번호**
영의 중요성과 진화	2
일곱 봉인	15
신성한 조언	20
인류의 정화에 관한 예언	57

1866-1950년 멕시코에서의 신성한 가르침
참고 문헌

라이히틀 출판사, D-56329 세인트 고아르, 전화: +49 (0)6741 1720
『진정한 삶의 책』,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3의 성서』(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판도 있음)
멕시코의 신성한 계시 (간략한 소개)
삶의 문제에 관한 신성한 계시
제3의 시대를 위한 예언들

Buchdienst zum Leben, Manfred Bäse, Kirchweg 5, D-88521 Ertingen
전화: +49 (0)7371 929 66 42, 이메일:manfredbaese@gmx.de
신성한 사랑,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El Amor Divino -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진정한 삶의 책』, 제7권, 제8권, 제9권, 제10권, 제11권, 제12권
제3의 성서

유니콘 재단, D-88709 메어스부르크
전화: +49 (0)7532 808162, 이메일: info@unicon-stiftung.de
『진정한 삶의 책』 소개 (무료)

아소시아시온 데 에스투디오스 에스피리투알레스 비다 베르다데라 A.C.
오리노코 54번지 5호, 콜로니아 자카후이츠코, 03550 멕시코 시티
『진정한 삶의 책』, 제1권~제12권
『제3의 성서』
및 멕시코의 이 신성한 계시에 관한 기타 서적들

웹사이트

www.drei-offenbarungen.net
www.reichl-verlag.de
www.unicon-stiftung.de
www.drittes-testament.de
www.drittetestament.wordpress.com (다국어)
www.tercera-era.net (스페인어)
www.144000.net (다국어)
www.dritte-zeit.net